제6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제6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CONTENTS

제6회 항공문학상 수상자 명단 7
제6회 항공문학상 심사총평 9
제6회 항공문학상 대상 소감문 10

일반부(7명)

「대상」 야간비행_강사랑 15
「최우수상」 엄마의 바다 냄새_민원기 16
「우수상」 무채색의 언어_김 혁 31
「우수상」 파리에서 만난 아버지_안혜경 52
「우수상」 당신을 자카란다 그늘에 앉히고 싶어_장서란 56
「우수상」 알바트로스의 비상_조강희 57
「우수상」 타슈켄트 가는 길_함국환 62

중고등부(6명)

「최우수상」 쉰 반찬 같은 가족이어도 좋아_김연주 65
「우수상」 백일몽_고은결 70
「우수상」 나의 놀이터에서 찾은 꿈_오다은 71
「우수상」 지키지 못한 약속_이광연 76
「우수상」 곧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_이유라 86
「우수상」 날고 있다._조건우 95

초등부(31명)

「최우수상」 여행이라는 열쇠_박인찬 99
「우수상」 첫 번째 나의 소원_김주영 133
「우수상」 꽃잎 소녀_김한슬 134
「우수상」 열두 살, 우리들의 비행기 학교_박호원 145
「우수상」 아빠가 사는 몽골_서연우 148
「우수상」 나의 첫 비행_장준서 151
「장려상」 비행기와 함께 한 유럽여행_김강현 152
「장려상」 낯선 곳에서의 나_김유호 157
「장려상」 첫 해외여행_김윤아 159
「장려상」 통일비행기_노윤서 168
「장려상」 구름항공권 한 장_노윤택 169
「장려상」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_노재환 176
「장려상」 나도 라이트형제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다_박서준 183
「장려상」 나를 찾아가는 비행_박세진 187
「장려상」 비행기를 타니_백가영 196
「장려상」 나는 비행기가 되고 싶다._신가은 197
「장려상」 구름 위를 날아서 눈의 나라로_안규리 198
「장려상」 새들의 집_양 현 202
「장려상」 하늘의 문_오지석 203
「장려상」 맛있는 비행기 여행_이보성 204
「장려상」 내 마음 속 비행기_이서연 205
「장려상」 비행기_이예은 206
「장려상」 세상 행복한 11명의 가족여행_이재민 207
「장려상」 KE018 하와이행 비행기_정성현 211
「장려상」 내 꿈은 비행사_조하선 217
「장려상」 나의 첫 해외여행기 : 따뜻한 나라, 따뜻한 사람, 따뜻한 마음_조현서 235
「장려상」 내가 탄 비행기_진휘준 240
「장려상」 해피(Happy)_최주원 241
「장려상」 10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캐나다에서의 여행_한윤서 252
「장려상」 추억과 아쉬움이 남는 괌_한채희 256
「장려상」 처음_홍연수 263

제6회 항공문학상 수상자 명단(44편)

○ 일반부(7명), 중·고등부(6명), 초등부(31명)

구 분		공모부분	작품명	저자명
일반부 (7)	대상 (1)	시	야간비행	강사랑
	최우수상 (1)	소설	엄마의 바다냄새	민원기
	우수상 (5)	소설	무채색의 언어	김혁
		수필	파리에서 만난 아버지	안혜경
		시	당신을 자카란다 그늘에 앉히고 싶어	장서란
		수필	알바트로스의 비상	조강희
		시	타슈켄트 가는 길	함국환
중고등부 (6)	최우수상(1)	수필	쉰 반찬 같은 가족이어도 좋아	김연주
	우수상(5)	시	백일몽	고은결
		수필	나의 놀이터에서 찾은 꿈	오다은
		소설	지키지 못한 약속	이광연
		소설	곧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유라
		시	날고 있다.	조건우
초등부 (31)	최우수상 (1)	소설	여행이라는 열쇠	박인찬
	우수상 (5)	시	첫 번째 나의 소원	김주영
		소설	꽃잎 소녀	김한슬
		수필	열두 살, 우리들의 비행기 학교	박호원
		수필	아빠가 사는 몽골	서연우
		시	나의 첫 비행	장준서

구 분		공모부분	작품명	저자명
초등부 (31)	장려상(25)	수필	비행기와 함께 한 유럽여행	김강현
		수필	낯선 곳에서의 나	김유호
		소설	첫 해외여행	김윤아
		시	통일비행기	노윤서
		소설	구름항공권 한 장	노윤택
		소설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노재환
		수필	나도 라이트형제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다.	박서준
		소설	나를 찾아가는 비행	박세진
		시	비행기를 타니	백가영
		시	나는 비행기가 되고 싶다.	신가은
		수필	구름 위를 날아서 눈의 나라로	안규리
		시	새들의 집	양 현
		시	하늘의 문	오지석
		시	맛있는 비행기 여행	이보성
		시	내 마음 속 비행기	이서연
		시	비행기	이예은
		수필	세상 행복한 11명의 가족여행	이재민
		소설	KE018 하와이행 비행기	정성현
		소설	내 꿈은 비행사	조하선
		수필	나의 첫 해외여행기- 따뜻한 나라, 따뜻한 사람, 따뜻한 마음	조현서
		시	내가 탄 비행기	진휘준
		소설	해피 (Happy)	최주원
		수필	10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캐나다에서의 여행	한윤서
		수필	추억과 아쉬움이 남는 괌	한채희
		시	처음	홍연수

심사총평 : 하늘은 꿈의 무대

문효치(시인 ·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하늘은 꿈의 무대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하늘을 마음껏 날고 있는 새를 보면서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펼쳤던 것을 기억한다. 밤하늘의 수많은 천체를 보면서 역시 끝없는 세계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던 것도 기억한다.

이제는 별들뿐 아니라 인간들이 쏘아올린 수많은 인공위성들도 인간들의 꿈과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하늘을 날아다닌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일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이제 그 꿈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십여시간이면 지구의 어느 곳이든지 거의 못갈 곳이 없다. 이것은 항공기의 발명과 항공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우리 삶속의 중요한 일, 이것은 마땅히 문학 작품의 중요한 제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항공문학의 존재 이유다. 가령 사랑이라든지 농촌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도시인의 삶과 그 모습이라든지 군대, 해양, 의료 등 특정 분야의 양태 등이 문학의 중요 제재가 되듯이 항공관련 일들도 또한 문학의 중요한 제재가 되는 것이다.

항공문학상은 항공과 관련하여 전개되는 우리의 삶의 양상을 다루는 문학에 대해 상찬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제정된 상이다. 이 상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많은 문인 혹은 문학 지망생들이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문학 수련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응모작의 양과 질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 상위의 상을 받은 분들의 작품은 상상의 진폭으로 보나 투철한 주제의식으로 보나 언어를 다루는 능력으로 보나 그 완성도가 매우 높은 작품들이다. 특히 최고상을 결정하는 데는 심사위원들이 어렵게 숙고해야 할 만큼 우수작들이 많았음도 밝힌다. 해마다 우수한 작품을 생산하고 응모해 오는 많은 분들, 이 상을 관리하고 시상하는 분들, 심사에 임한 분들께 두루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일반부 대상 : 수상자 소감

강사랑 / 시 부문

가끔씩 주저앉아 울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면 옷을 갈아입는 데에 공을 들였습니다.
옷이 옷이 아니라 날개였다면 날개를 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하루 종일 날아다녀도 빈손인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운 심장을 감추려고 얼굴이 대신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기고 감출 줄 모르는 저는 웃는 대신 아무나 붙잡고 묻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빈 쓰레기통이 있나요,라고 말입니다.

쓰레기통을 계약하고 쓰레기통으로 이사하고
쓰레기통의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어깻죽지에 고개를 파묻다가,
어느 날 눈을 뜬 새가 되고 싶었습니다.

수상 결과를 확인한 날, 길거리 트럭에서 파는 화분을 샀습니다.
가볍고 쉽게 떠오르는 공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공기의 색소를 상상하니 더욱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는 시를 쓰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좋은 시를 쓴다는 것은 더더욱 모릅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꿈을 먹고 또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불 속으로 들어온 하얀 부리의 비행기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허수경 시인께서 날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시를 읽으며, 뜯어먹으며, 조금씩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끊임없이 움직여서, 그리운 것들을 그리워하게 해주어서 늘 신비로운 하늘과, 바람과, 비행기에게 감사합니다.
인조새 같이 울음을 흉내 내는 저의 시를 믿고 선택해주신 여러 관계자 선생님들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쓴 시를 볼 때마다 난감해하시는 부모님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시의 근황에 대해, 저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믿어주시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최고의 행운입니다.
그리고 당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다시 천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비행기를
보면서 무한한 꿈을 꾸는 많은 분들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일반부

대상	시	야간비행	강사랑
최우수상	소설	엄마의 바다냄새	민원기
우수상	소설	무채색의 언어	김혁
	수필	파리에서 만난 아버지	안혜경
	시	당신을 자카란다 그늘에 앉히고 싶어	장서란
	수필	알바트로스의 비상	조강희
	시	타슈켄트 가는 길	함국환

야간비행

일반부 대상 · 시 / 강사랑

창 없는 하늘이 열리고 있어요
처음으로 밤의 속내를 본 것만 같아
당신 괜찮은가요, 라고 썼다가
별들의 길고 하얀 손가락을 섬기며
우렁거리는 하늘 바다를 건너가요
극점에는 지지 않는 태양이 있다는 이야기
매일이 환한 낮잠 속을 거닐고 싶어서
어느 날 당신의 이불 속으로 들어온
하얀 부리의 비행기가 있어요
수많은 깃털을 가진 구름에게서 묻혀온
바람의 냄새, 당신의 꿈, 나는
당신이 써내려간 보내지 않은 편지에요
사막을 걷고 있는 낙타에게 데려다 주세요
속눈썹을 앓는 슬픈 아이들의 손에서
검은 베일을 쓴 여자들의 손으로 옮겨지다
수 백 년 째 같은 자리를 맴도는 모래 폭풍을 건너
영원한 미소로 뒤설레는 대양에 가닿을 거예요
젖은 종이처럼 어둠을 빨아들이는 창문
당신을 보듯 눈 맞춤하다가 동이 터오면
나는 붉은 태양을 등에 업고 날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또 다른 당신이 되어 돌아오도록
이곳과 저곳을 잇대며 쉼 없이 활공하다가
두 날개를 다 쓰고 울어버려도 괜찮을까요
지구에는 헤지고 터진 구석들이 많아서
공항마다 나그네처럼 비행기들이 머물다 가요
낮은 곳에서도 가장 높은 바람이 불어오는 날
그리운 것들이 또다시 목소리를 내며
입이 큰 활주로처럼 쇄도하고 있어요
가슴이 시리도록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한 글자 한 글자씩 새겨 넣은 별들의 언어 속으로
야간등을 달고 날아가는 당신의 얼굴을 보아요

엄마의 바다 냄새

일반부 최우수상 · 소설 / 민원기

제1장

신고 있던 스타킹을 벗어 돌돌 말아 쥐고선 TV를 향해 냅다 던졌다. 내 행동이 유난히 돌발적이었음은 그 일이 새벽 다섯 시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일 게다. 옆에 있던 엄마가 놀랐는지 아니면 화가 났는지 그것도 아니면 기가 찬 건지 하여간 꽤나 언짢은 눈길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루 종일 뉴스를 전하는 채널에 번지르르한 얼굴의 정치인이 나와 무슨 말 끝에 국민들이 분노할 거라고 했다. '그래, 나 화났다. 너 땜에, 이 인간아.' 그 정치인은 내 출근 스트레스의 화풀이 상대로 전혀 손색이 없었다.

엄마 때문이 아니라는 표시로 손사래를 쳤다. 분명 엄마는 내가 자기한테 화가 난줄 알거다. 틀린 얘기도 아니다. 확신하건데 엄마는 습관성 단기기억상실증 환자다. 엄마는 내가 귀국한 날이면 좋아하는 부침개만 만들어줄 뿐 말이 없다가 꼭 출국하는 날이 되면 꼭지를 돌게 한다. 본인이 그 증상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간 전혀 고칠 마음이 없다. 그때도 나는 분명히 말했었다. '엄마, 나 출근할 때는 건드리지 말아줘, 응. 출근 때는 기분 좋은 말만하라고. 내가 싫어할 얘기는 귀국했을 때 해, 그 때는 들어줄게. 알았지?'

한 달 전 엄마는 한참 출근 준비 중인 나의 심사를 기어이 비틀어 놓았다. 그때도 발단은 이모였다. 이모가 남자를 만나보라는 건데 그 남자가 바쁘다고 나보고 일정을 맞추라는 거다. 말하자면 귀국 날짜를 하루 앞당기라는 거였다. 너 나이에 그만한 조건이면 네가 바짝 숙여한다는 말과 함께였다. 귀국일정 변경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일로는 어림도 없다. 엄마가 위독하다면 몰라도 말이다. 따로 귀국하기 위해 근무할 비행기를 찾아 서로 조정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 경우는 대개 외국 타 항공사의 승무원과 바꿔야 한다.

오늘 아침에도 엄마는 이모 얘기로 한참 머리를 만지고 있는 나를 괴롭혔다. 딸이 LA에 살고 있는 이모는 일 년에 한 두 차례 비행기를 탄다. 내가 입사한 지 삼 년이 지나는 동안 이번까지 다섯 번째다. 내가 횟수까지 기억하고 있는

건 그 때마다 이모가 빈자리 표를 구해달라고 엄마 편에 부탁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 번도 들어줄 수 없었다. 엄마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었는지 불굴의 전사마냥 매번 나를 볶는다. 빈자리 표가 싸기는 엄청 싼 건 사실이다. 그렇기에 도리어 아직 신참인 내가 어떻게 해 볼 여지는 전혀 없다. 본사에서도 각종 민원으로 수요가 많았고 기내로 국한하더라도 기장부터 부기장, 사무장, 선배 언니들이 있다. 지상근무 직원들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되고 있다. 빈자리 표는 공정한 방법에 의해 고객들에게 주어진다. 그래도 빈자리가 남는다면 그때는 항공사에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 아직 입사 4년이 되지 않은 내가 어찌어찌해서 그 표를 구했다고 해도 그건 이래저래 여간 눈치가 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신 마냥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생선 냄새를 떨치고자 거칠게 옷을 털면서 어둠 속에 집을 나섰다. 엄마는 오징어 같은 얼굴로 잘 갔다 오라고 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옷을 털던 손을 겨우 들고선 흔들어 주었다. 엄마는 집에 있을 때면 꼭 문 밖까지 나와 마중을 하곤 했다. 내가 골목길을 돌아 나갈 때까지 엄마는 들어가지 않았다. 막 승무원이 되었을 때는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집 근처에서 유니폼을 입고 승무원용 가방을 끌고 걸어가면 무척 자랑스러웠다. 까마귀 떼를 지나가는 백조처럼 도도했던 게 사실이었다. 3년이 지나자 그마저 시들해지고 도리어 화장한 얼굴과 몸매가 드러나는 유니폼이 불편했다. 힐끗거리는 남자들의 시선도 짜증났다.

사실 오늘은 삼재가 겹친 날이다. 샌프란시스코까지의 장거리 비행, 갤리 근무, 최틀러로 소문난 사무장 언니, 그야말로 완벽한 세 가지 재앙이다. 그 외에도 또 있다. 어젯밤에 예약현황을 확인해 보니 이코노미석은 만석이었다. 그건 비행 내내 갤리에 갇혀 음식냄새를 맡아야 하는 부엌데기가 되어야한다는 의미다. 어디 데이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더군다나 아침 아홉시 이륙이니 새벽 네 시에 일어나야 했다. 용무보고 씻고 머리 만지고 우유 한잔 마시며 화장하는데 한 시간, 출근하는데 한 시간, 기장 브리핑에 이어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해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에 기내에 들어서면 여덟 시도 빠듯하다. 아침에 인천을 출발하는 미국행에는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이고 그들은 잠들지 않는다. 연이어 호출음이 딩동 거리면 갤리는 더 바빠진다. 정말 뛰어내리고 싶어진다. 그래도 수연이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면 저녁에 같이 밥이나 먹자

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나를 조금이나마 들뜨게 했다.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은 의아했지만 어쨌든 수연이는 기쁨을 주는 친구다.

가당찮게 영국신사를 기대한 기장은 흑인이었다. 흑인 기장은 처음이다. 영화 플라이트의 덴젤 워싱턴은 근처에도 못 간다. 덴젤보다 훨씬 까맣다. 설마 덴젤처럼 알콜 중독은 아니겠지. 그저 난기류만 잘 피해줬으면 좋겠다. 비행기가 흔들릴수록 손이나 팔이 데일 확률은 높아지고 작업은 힘들어진다. 기장의 브리핑은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다. 브리핑이 여태까지 들어 본 것 중 가장 깔끔했다. 신뢰감을 불러일으켰다. 부기장과 승무원들을 대하는 매너도 아주 좋았다.

흑인이라고 불신하고 실망한 내가 미안했다. 한국인 부기장이 그를 등지고 우리를 보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에이스라는 의미다.

그 다음에 사무장 최틀러 언니의 훈시와 체크사항이 이어졌다. 매번 이 시간이 되면 군대 같다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른다. 눈동자도 굴리지 않는 부동자세로 모든 감각을 동원해 경청했다. 오래 전에는 신참이 이 시간에 까무러졌다는 말이 전설 아닌 전설로 전해진다. 사무장은 기내에 올라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까지가 가장 무섭고 위험하다. 이때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물론 비행 중에도 갤리의 커튼이 쳐진 가운데 혼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지만 승객들이 있으면 적어도 소리는 지를 수 없다.

제2장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마흔을 넘은 나이였다. 대단한 난산이었다고 했다. 엄마는 세 달이 지나서야 다시 시장에 나갈 수 있었다. 나를 낳고 팍 늙었단다.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로부터 엄마가 할머니 아니냐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 사학년 이후에는 학교에 얼씬도 말라고 했다. 가을 운동회 날도 못 오게 했음은 물론이다. 릴레이 주자로 나간 내가 앞의 두 명을 따돌리고 선두로 치달았을 때 온 운동장이 떠나갈 듯했지만 시장에 나간 엄마는 그 함성을 듣지 못했다. 졸업식날도 엄마는 교문 밖에서 행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내가 나오자 멀찍이 따라왔다. 집 앞의 중국집에서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인 나와 짜장면과 만두를 말없이 먹었다. 그날 엄마 몸에서는 젓갈 냄새가 났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엄마는 무지 구박을 받았다고 했다. 애도 못 낳는 석녀라는 이유에

서였다. 결국 엄마는 할머니 생전에는 자신이 결코 석녀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했다. 더욱이 이렇게 늘씬하고 예쁜 딸을 낳은 걸 모르고 가셨으니 할머니보다 도리어 엄마가 더 원통할 일이다. 엄마의 학교 출입금지는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야 풀렸다.

내 위에는 장가간 오빠가 둘 있다. 둘 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바람피워 얻은 자식들이다. 핏덩이부터 엄마가 키웠다고 한다. 두 오빠는 착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어릴 때부터 두 오빠는 나를 귀여워했다. 오빠들은 연말이 되면 엄마와 나를 찾아오곤 한다. 그때마다 엄마는 눈물을 훔친다. 엄마는 두 오빠들을 정말 사랑했다. 엄마는 서울의 재래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해서 판다. 원래는 고향에서 장사를 했었다. 몇 년의 재수 끝에 지금의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어렵게 취직한 내가 직장생활이 힘들어 엄마가 필요하다고 우겨 간신히 서울로 옮겨왔다. 내가 살던 원룸에서 서울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생선 냄새가 싫어 장사를 그만두라고 했다. 엄마는 늘 알았다고만 했다. 올해 봄에 회사 신협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받고 그동안 엄마와 내가 모은 돈도 보태서 방 두 칸짜리 이곳 전세연립으로 옮겼을 때도 엄마의 몸에서는 여전히 바다냄새가 났다. 원래 생선 장수는 아버지였다. 엄마와 결혼한 아버지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장사를 엄마에게 맡기고 세상편한 한량이 되었다고 한다. 당연히 나는 생선은 그 어떤 요리도 먹지 않는다. 어쩌다 일식집이나 횟집에서 회식이라도 열리면 콘 치즈를 안주삼아 술만 들이킨다. 내가 모든 생선 냄새를 구별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엄마는 비행기를 탄 적이 없다. 시집온 이후 평생 온갖 바다고기를 손질했지만 제주도에 간 적도 없다. 그래서 승무원이 뭘 하는지 전혀 모른다. TV를 보다가 항공사 광고가 나오면 거기서 우아하게 웃는 미녀 스튜어디스가 딸의 모습일 거라고 상상한다. 미녀라는 공통점을 빼면 모든 게 다르다. TV를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넋을 놓고 고래같이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정말 엄마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가 하는 일이 말 그대로 노가다라는 걸 꿈에도 모를 것이다. 내가 선배 언니들, 진상 승객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는지.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균형 잡으며 일하느라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기내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시절에 시드니로 비행할 때였다. 적도를 지날 때 나는 이코노미석 뒤쪽에서 서빙 중이었다. 갑자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에어포켓을 만나 기체

가 20미터나 아래로 떨어졌다. 여지없이 내가 들고 있던 오렌지 주스가 승객의 와이셔츠를 노랗게 물들였다. 어쩔 줄 몰라 눈물이 절로 나왔다. 속으로 엄마를 얼마나 불렀는지 모른다.

엄마는 연립생활을 시작한 올해 봄부터 부쩍 소화가 잘 안된다고 했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앉아서 배를 주무르기도 했다. 엄마가 억지 트림을 하면 어김없이 새우 냄새가 났다. 귀국해서 쉬는 날 병원에 가보재도 장사해야 한다며 말을 듣지 않았다. 프랑크푸르트에 가는 길에 독일의 유명한 천연 소화제를 사주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결국 동네병원 가정의의 권고로 대학병원에 갔더니 위암2기라고 했다. 여름에 복강경 수술을 받은 엄마는 의사가 2기라 별문제 없다며 안심하라고 했는데도 그 이후로 풀이 많이 죽었다. 먹는데 자신이 없는 듯했다. 잘 먹지도 않았고 아예 먹는 걸 꺼리는듯했다. 그러니 몸은 점점 말라갔다. 나는 엄마가 생선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다. 엄마의 마른 명태 같은 얼굴에 검은 웃음이 실없이 떠다녔다.

제3장

슬라이딩 도어를 체크하기 전에 엄마를 잊으려 했다. 실수하면 절대 안 된다. 비행모드와 지상모드를 선택하는 간단한 조작임에도 이삼년에 한 번씩은 실수가 나와 큰 낭패가 된다고 한다. 엄마 생각에 실수할까봐 조마했으나 다행히 잘 해냈다. 안전에 대한 방송과 산소마스크와 구명복 착용시범이 끝난 후 승무원 착석 지시가 떨어지면 비행기는 활주로를 질주한다. 곧 이륙속도에 이르면 비행기는 대통령이 멈추래도 무조건 떠야 한다. 이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승무원용 좌석에 앉아 승객들을 마주보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내 인생도 뜬다. 그래, 윤지가 난다. 멋지게 날아가는 거다, 내 인생, 날자, 날자, 오윤지. 날아라, 오윤지가 간다!' 창밖으로 논과 밭이 기운다. 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장난감 자동차들이 줄줄이 멈춰 선듯하다. 부드러운 이륙과 안정감 있는 상승이다. 덴젤 오빠가 더 믿음직스러워졌다.

고도 14,000피트를 넘어서자 어김없이 딩동 울렸다. 승무원들은 일어나서 일하라는 명령어이다. 모르고 따라서 일어나는 승객이 없는지 재빠르게 확인한 후 갤리로 들어갔다. 알맞게 덥혀진 타올을 꺼내 언니들에게 나눠주었다. 그

일이 끝남과 동시에 음료수 준비에 들어갔다. 항상 일정량의 주문이 있는 주스부터 시작이다. 최틀러가 팔짱을 끼고 옆에서 나를 노려보았다. 주스를 따르는 내 손이 흔들렸다. 그러고 보니 말상의 길쭉한 얼굴이 히틀러를 닮았다. 비행시간이 열 시간 넘게 걸린다며 나중을 대비해 주스 량을 줄이라는 말을 내뱉고는 비즈니스석으로 갔다. 막내 여동생도 올해 초에 우리 회사 승무원으로 입사했다는데 아량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다.

오늘은 출국하는 연예인도 없나 보다. 지금쯤이면 비즈니스석 담당 언니들이 호들갑을 떨며 갤리를 들락거려야 하건만 조용했다. 장동건이라도 탔으면 최틀러의 입 꼬리도 조금은 내려갈 것이고 지루한 비행도 순식간에 지나가련만 안타깝다. 미주 노선에서 연예인을 보기 힘들어진 건 꽤 되었다고 한다. 화보 촬영지로 선호되지 않아서라고 한다. 간혹 유명 정치인이 타는 경우가 있어 약간의 관심을 끌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 흔한 국회의원도 타지 않은 모양이다. 하기야 의원나리께서 타셨으면 브리핑 때 최틀러의 언질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 나는 언니들과는 달리 대통령이나 알까 다른 정치인들은 잘 모른다. 새벽에 내 스타킹에 면상을 얻어맞은 정치인은 내가 이름과 얼굴을 아는 몇 명 안 되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혼내려는 듯이 기체가 덜컹하고 흔들렸다. 기내 근무 중 딴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사실 2년차까지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그럴 겨를이 없었다. 올해 들어 나도 모르게 잠깐 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결코 느긋하게 즐기진 못한다. 짧은 딴 생각의 반 이상은 엄마 생각이다. 승무원 착석 지시가 떨어졌다. 승무원 착석 지시는 큰 난기류의 예고라 새삼 긴장되고 두렵다. 난기류는 겪을 때마다 새롭고 무섭다. 승객들에게는 태연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니다. 10분이 지나자 기체는 안정을 찾았다. 바로 조식 준비에 돌입했다. 주문을 받아온 일등석 담당 언니가 라면 세 개를 끓이라고 했다. 최틀러의 지시로 라면은 주문과 상관없이 이코노미 갤리에서 만들라고 지시한 탓이다. 생선냄새에서 라면냄새로의 이동이다. 비행기가 36,000피트 순항고도에 이르자 언니들이 줄줄이 음식을 실은 카트를 밀고 해당구역으로 향했다. 벌써 피곤이 몰려왔다. 승객이 반 넘어 남긴 커피를 한꺼번에 들이켰다.

제4장

집 밖을 나돌던 아버지가 들어앉은 건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봄이었다. 전에도 일 년이면 두어 차례 집에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삼 일이 지나도 다시 나가려는 낌새가 없었다. 아무 말 없이 나갔듯이 들어와서도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엄마가 장사를 나가면 하루 종일 TV에 코를 박고 있었다. 항상 엄마 앞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뻔뻔함을 유지했던 아버지가 미안해하는 듯 하는 모습도 간혹 비쳤다. 아버지는 엄마와 나를 투명인간 보듯 했고 우리도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다. 내 앞에서 엄마의 한숨소리가 점점 잦아졌다. 나와 열 살 이상 터울 진 오빠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들 살 길을 찾아 나선지 오래되었다. 오빠들은 아버지와는 연락을 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 해 여름방학의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윤지야, 너 나중에 엄마 비행기 한번 태워줘라." 아버지는 눈을 TV에서 떼지 않은 채 중얼거리듯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지의 말에 나는 말의 내용에도 놀랐지만 몇 달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더 놀랐다.

"내가 결혼할 때 한창 비행기 타고 제주도 신혼여행 가는 게 유행이었어. 네 엄마가 나중에도 그걸 많이 섭섭해 했다."

"..."

그 다음에 세상을 뜰 때까지 아버지로부터 어떤 다른 말도 들은 기억이 없다. 그 말이 그대로 나에겐 아버지의 뜬금없는 유언이 되어 버렸다. 아버지는 더위가 수그러진 9월 중순의 어느 날 다시 집을 나갔다. 엄마와 나에게는 정말 길었던 아버지와의 불편한 동거가 끝난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아서는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해 겨울 10년 만의 폭설이 내린 날 치악산 중턱의 등산길에서 그리 멀리 들어가지 않은 눈 속에서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아버지는 9월 중순에 집을 나갈 때의 복장 그대로였다.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어디서 무얼 했는지, 왜 치악산에서 생을 마감했는지는 알 수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평생을 참으며 살아온 엄마는 아버지의 마지막 길에서도 아버지를 욕하지 않았다. 엄마가 끝내 화장장에서 눈물을 보였을 때 나는 엄마가 불쌍해서 울었다. 엄마한테서 갈치 비린내가 났다. 두 오빠와 나는 한 줌의 재로 변한 아버지를 고향 앞산에 뿌렸다. 내려올 때 엄마가 또 울었다. 나는 엄마

가 미워서 그리고 속상해서 울었다. 두 오빠들은 울지 않았다. 엄마는 큰오빠에게 아버지 사망일을 적은 쪽지를 쥐어주었다. 엄마가 또 눈물을 보였다. 그해 이후로 엄마는 아버지 제사를 한 번도 지내지 않았다.

제5장

사방 벽이 온통 검은색이다. 할머니가 엄마를 때린다. 엄마의 얼굴이 찢어져 너덜너덜하다. 캄캄한 방안에서 엄마는 검은 피를 흘린다. 두 오빠가 엄마 주위를 돌며 장난을 친다. 아버지가 TV를 보며 크게 너털거린다. 모두들 사라진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의사들이 보인다. 여전히 캄캄한 어둠이다. 의사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껄껄거린다. “급성 진행 위암 말기야. 한두 달 살겠구먼.” 나는 엄마 옆으로 기어가 엄마를 꼭 껴안는다. 엄마의 젖가슴을 꽉 움켜쥔다. 엄마 몸에서는 생태내장 냄새가 난다. 병원시트를 뒤집어쓰고 눈만 내놓은 내 위로 검은 옷을 입은 의사들이 도깨비춤을 춘다. 수십 개의 허여멀건 얼굴들이 어지러이 흔들리며 크게 웃는다. “엄마, 어마, 어 어 어.” 옆에 누워있던 선배 언니가 나를 세차게 흔들었다.

점심 제공이 끝나고 규정상의 세 시간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승무원용 간이침대에 누웠으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아직은 눕자마자 잠이 들어 정확히 세 시간 후에 잠을 깰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 않은 초보다. 근데 잠깐 눈을 감고 빈 자리표 구할 생각을 하다가 얼핏 잠이 든 모양이다. 선배언니의 얼굴이 또렷해지자 꿈의 여진에서 재빨리 벗어나 현실로 돌아왔다.

최틀러의 지시로 저녁 식사 전에 면세품 판매가 시작되었다. 한국인이 많이 탑승하면 출국 때나 귀국 때를 가리지 않고 면세품 주문이 많다.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최대한 팔아보자는 최틀러의 전략이다. 면세품 판매 수익은 항공사 영업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당연히 판매량은 사무장의 근무고과에 중요한 포인트다. 모든 승무원이 동원되었다. 비행시간 7시간이 지나 드디어 갤리를 벗어나 승객들을 접하게 되었다. 좌석번호 30ABC부터 그 뒤를 맡았다. 두 열을 남겨 두고 겨우 담배 두 보루와 향수 한 개, 립스틱 한 개 그리고 위스키 한 병을 주문받았다. 남은 시간 동안 최틀러의 눈치를 볼 일이 걱정되었다. B42에 이르렀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110년 전통의 일본 명품인 미키모토 진

주목걸이 주문이었다. 호기심에 관심을 보이는 실없는 승객이 아니었다. 급작스레 발생한 엔돌핀이 36,000피트 상공에서 나를 붕 뜨게 했다. 각기 크기가 다른 진주 59개를 49㎝ 길이로 연결한 이 목걸이의 값은 2,350달러, 한화로 248만1600원이다. 이코노미 승객이 이런 주문을 한 경우가 내 경력에는 없다. 언니들한테 들어본 적도 없다. 혹시나 해서 가격을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오랜 세월 동안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초로의 남자가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평생 일구어온 땅을 팔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쨌거나 운수 좋은 날이다.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다. 반쯤 앉은 자세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신용카드와 영수증을 공손히 내밀었다. 산타클로스 농부가 눈이 풀어지며 미소를 보냈다. 나도 웃음을 날렸다.

최틀러에게 큰 점수를 땄다. 머리 회전수를 재빨리 상승시켰다. '그래, 그거다. 최틀러에게 부탁하자. 경력 20년이 지난 카리스마 있는 사무장이니 잘 부탁하면 빈자리 표쯤이야 어렵지 않겠지. 중간 언니야 그런 부탁에 시건방지다는 말만 하겠지만 왕언니이니 아량이 있을 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는 최틀러를 피하지 말고 최대한 마음에 들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사 말이지만 사무장 언니가 무서울수록 우리들 일에 실수가 없다. 크고 작은 해프닝들도 그런 사무장 언니가 훨씬 더 깔끔하게 잘 처리한다.

예상대로 최틀러는 수고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훨씬 부드러워졌다. 내가 2,300달러의 매출을 성공시킨 데는 나의 응대기술과 판매매너 등이 작용했을 거라고 믿는 눈치다. 능구렁이가 한 눈에 제대로 파악했다. 역시 경력 앞에서 까불면 안 된다. 가벼운 콧노래로 리듬을 타며 저녁 서빙을 마쳤다. 착륙예정 방송이 나가고 착석한 후 바라본 창밖의 샌프란시스코 아침이 아름다웠다. 비행기가 살포시 내려앉은 후 곧 속력이 줄어들며 멈췄다. 아름다운 착륙이다. '멋진 덴젤씨, 수고하셨어요.' 마음속으로 찬사 한마디를 던졌다. 이코노미석에서 몇 명의 승객이 박수를 쳤다. 일등석이나 비즈니스석에서 박수를 치는 승객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 비행 후 브리핑에서도 나는 지적사항이 없었다. 화장실로 걸어가는 최틀러를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와 몸짓으로 불렀다.

"저, 사무장님 언니. 드릴 말씀이…"

"…"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 엄마가 몸이…." 완치되었다는 말은 빼먹는다. "늦기 전에 비행기 한번 태워 드릴까 합니다. 제가 근무 때 빈자리 표를 구해 같이 갈려고 합니다."
"그래? 휴가 내서 가, 근무 때 가지 말고. 어머니가 불편해. 표는 내가 구해볼게. 요즘 일본 북해도 쪽에 표가 좀 남는 모양이야. 거기가 좋아."
"고맙습니다." 화장실 빈 칸에 들어가는 최틀러의 퍼진 엉덩이에 허리를 구십도 넘게 접어 절을 했다. 털커덕 문 잠기는 소리가 났다. 화장실 거울에서 나는 궁정 무도회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왕자의 손에 이끌려 스텝을 밟으며 화장실을 나왔다. 경쾌한 무도회 음악이 내 귀에 울려 퍼졌다. 샌프란시스코의 하루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제6장

언니들을 따라다니며 쇼핑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맥주도 마셨다. 이모에게 표를 구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안겨줄 스카프를 샀다. 호텔 방에 들어와 대충 씻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잘 도착했어?"
"응. 엄마, 안 아파?"
"그냥 그래."
"나, 비행기 안에서 휴식시간 때 엄마 꿈꿨다. 엄마 소원대로 내가 결혼했더라고. 엄마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데 하얀 이층집이야."
"빨리 시집가. 난 너희랑 같이 안 산다."
"그럼 큰 오빠랑 살 거야? 내 남자의 결혼조건은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
엄마의 한숨소리가 비릿하게 들렸다.
"엄마, 오늘 20년도 넘게 근무한 언니와 같이 비행했는데, 나한테 뭐랬게?"
"…"
"내가 일을 잘한데. 그래서 일본여행 시켜준대, 엄마랑."
"…"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그래." 엄마의 목소리가 힘이 없다. 나는 비행기 표 값이 완전무료며 호텔도 돈이 안 든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또 내 융자가 많이 남았다는 말을 할 것이다. 내 결혼비용을 들먹일 것이다. 그 언니는 세계 안 가본 곳이 없는데 일본 북해도가 최고라고 했다는 말도 했다. 눈 없는 삿포로가 훨씬 좋다는 거짓말도 했다. 일본식 정원이 아름다운 료칸에서 꼭 껴안고 자보자고 했다. 온천욕도 하고 유명하다는 삿포로 맥주도 마시자고 했다. 삿포로는 여름에도 서늘하다고 덧붙였다. 말없이 듣던 엄마가 느릿한 말투로 말했다.
"장사는 어쩌고." 갑자기 휴대폰에서 꽁치냄새가 흘러나왔다.
"엄마!"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고 하고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그래도 오늘은 오빠들이 마음에 걸려서 못 간다는 말은 하지 않는 걸 보니 기운이 많이 빠졌나보다고 생각했다.
어린 날의 어느 여름이었다. 엄마와 두 오빠 그리고 나, 네 명이 동해로 놀러 갔다. 엄마가 나가던 시장이 한여름 혹서기를 맞아 수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오빠와 내가 졸라서 이루어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가족여행이었다. 아버지가 없었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족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나를 오빠들은 여행 내내 한 번도 놀리지 않았다. 아이스크림도 나한테 먼저 주었고 그늘 자리도 나한테 양보했다. 난생 처음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본 것도 그때였다.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돌아오기로 한 날 아침에 사고가 났다. 바위들 사이에서 뛰어다니며 놀던 작은 오빠가 넘어져 머리가 바위에 부딪혔다. 오빠의 머리는 허연 뼈가 드러났고 피가 흘러 얼굴을 덮었다. 엄마는 번개같이 오빠를 들쳐 업고 차가 다니는 거리까지의 꽤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렸다. 그 비호같은 속도가 놀라워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1키로가 넘는 거리였다. 내 달리기 실력이 확실히 엄마의 유전자에서 온 것임을 그때 알았다. 엄마의 하늘색 원피스가 온통 붉게 물들었다. 나는 엄마가 상어 같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오빠들에게 진짜 엄마였다. 내가 오빠들의 출생비밀을 안 건 결코 엄마의 오빠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다. 둘째 오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철공소에 일자리를 얻어 떠나던 날 큰 오빠한테 들은 얘기라며 나에게 전해 주었다. 나는 작은 오빠가 소설의 한 줄을 읽고 있다고 생각했다.

제7장

1930년대에 실현불가능이라는 말을 뒤엎고 건설되었다는 금문교는 사진보다 실물이 아름다운 몇 안 되는 경우다. 푸른 바다색과 다리의 붉은 색이 무척 잘 어울린다. 이곳의 바다 내음은 엄마한테서 나는 바다냄새와 달리 상쾌하다. 수연을 만날 약속시간이 남아 마린카운티 쪽의 조망대인 비스타 포인트에 올라 샌프란시스코 스카이라인을 스무 시간도 넘게 제대로 붙이지 못한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석양이 슬프도록 아름다웠다. 금문교가 바라보이는 허니허니 카페에 들어갔다. 옆 테이블의 감자요리가 예쁜 모습으로 맛있는 냄새를 풍겼다. 약속시간 십 분이 지나자 수연이가 많은 서양인들 사이에서 더 작아 보이는 몸을 이끌고 다가왔다. 감자요리 두 개를 주문했다. 나는 알아준다는 샌프란시스코 와인을, 수연은 맥주를 추가 주문했다. 입사 동기인 수연과는 합숙을 포함한 3개월의 교육과 그 후 선배 언니들과의 OJT 비행교육을 함께 했다. 나는 몸으로 때우는 교육에서 성적이 좋았고, 중학교 영어교사인 아버지를 둔 수연은 영어를 정말 잘했다. 엄격하고 힘든 교육기간은 우리에게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우정을 갖게 해주었다. 교육 수료식 날 동기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동안 우리는 부둥켜안고 한참 울었다.

현업에 투입된 후 함께 비행할 기회는 오지 않았다. 수연은 입사 2년차에 갑자기 퇴사했다. 주위의 사람들이 수연의 영어실력을 아까워했다. 수연은 승무원의 로망인 일등석 승객의 프로포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덜컥 그 남자와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미국인이라 우리는 수연이가 잘한 건가하고 고개를 갸우뚱 했다. 나중에 그가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치과의사임을 알고 난 후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비행 후 가 본 수연의 집은 내 눈에는 그야말로 대저택으로 보였다. 마당에 심겨진 오래된 오렌지나무를 보고 커다란 오렌지가 주렁주렁 달릴 것을 상상하니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수연의 맑고 큰 눈망울을 닮은 금발의 딸아이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인형이었다.

“윤지야, 너, 우리 오빠 다시 한 번 만나볼래?” 수연이 감자를 오물거리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말했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얘는,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다.” 수연의 갑자기 진지해진 표정에 와인 잔을 드는 내 손이 살짝 굳어졌다. 수연이 오빠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뛴 야구선수였다. 프로팀 대원레인저스 입단 1년차에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해 지금은 구단의 홍보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전지훈련 차 온 선수들과 함께 LA에 머물던 그를 지난 번 수연의 집에서 본 적이 있다. 그는 30대 중반의 미남이었다. 홍보업무를 해서 그런지 예의 바르고 성품이 밝았고 화술도 좋았다.
“오빠가 인제 철이 들었나봐. 장가가고 싶은지 너한테 얘기해 달래. 오빠는 네가 마음에 드나보더라고.” 이 얘기를 하려고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를 또 만나자고 했구나 싶었다. 수연이 빙긋이 웃으며 맥주잔을 내밀었다. 나는 눈을 흘기며 와인 잔을 가볍게 부딪쳤다. 나는 결혼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아픈 엄마를 돌봐야 된다고 했다, 집안 차이도 커서 안 된다고 했다. 배다른 두 오빠가 있다는 가정사의 비극도 말했다. 수연은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걸 자기가 모르냐고, 내가 다녀간 후 자기네 가족끼리 모두 얘기한 사항이라고 했다. 창밖의 금문교를 건너는 자동차들의 줄지어진 불빛들이 따뜻하게 흘렀다. 카페에 낮게 흐르는 재즈가 감미로웠다.

제8장

귀국 편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즈니스석을 드디어 배정받았다. 입사 후 처음이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비즈니스석은 선배 언니들이 맡는데 이번에 비즈니스석 실습 케이스로 내가 뽑혔다. 신입 한명이 이코노미로 배정된 때문이다. 감동이 쓰나미 같이 밀려들었다. 이번에 평가가 좋으면 조만간 자주 비즈니스석에 배정된다는 뜻이다. 최틀러의 배려임이 분명하다. 내 판단에 비즈니스석은 이코노미석의 반 정도도 힘이 안 든다. 대개의 경우 비즈니스 승객들은 더 품위 있고 경우가 밝았다. 더군다나 그들은 내내 자거나 노트북에 눈을 박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간혹 못된 졸부나 거만한 여배우가 피곤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물다. 물론 바쁠 때는 이코노미석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깐 동안이다. 이코노미석의 신입은 막 실습을 마치고 이제 국제선에 투입된 지 2개월이 지난 노란털이 보송보송한 햇병아리였다. 조그맣고 예쁜 아이였다. 귀엽고 여리게 생겼다. 기회만 되면 내가 겪은 온갖 설움과 눈

물을 전해주리라 전의를 불태웠다. 아니다, 기회를 만들자. 화장실 바닥에 일부러라도 토하고 청소를 시키리라. 엄한 조교의 사명을 다해 최고의 승무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병아리가 처음부터 실수를 했다. 시범 중 산소마스크를 떨어뜨렸다. 내가 기회를 만들 필요도 없었다. 다른 언니들이 이상하게 아무 말이 없었다. 짐작컨대 이미 최틀러에게 한마디 들었겠지만 병아리를 따로 갤리 안으로 불러들였다. 정신을 어디 두고 있냐고, 지상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기내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비행 중에 기체가 흔들릴 때는 어떡할 거냐고 윽박질렀다. 결국 병아리가 병아리 똥 같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렸다. 정신 차리라며 매몰차게 내보고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런 일을 긴장해서 그렇다는 둥, 처음에는 다 그런 거라는 둥 덮어주고 감싸주면 병아리는 결코 노련한 암탉이 되지 못한다. 훌륭한 암탉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없이 몰아쳐야 한다. 그 때까지는 내가 첫 비행에서 기내방송과 시범을 맞추지 못해 승객들을 웃게 만든 얘기는 절대 비밀이다. 그래도 병아리는 떨어진 산소마스크를 재빨리 주워 시범을 무난하게 끝낸 편이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나에게 또다시 행운의 여신이 내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에는 열린 선반을 닫다가 승객 아주머니의 머리를 건드렸다. 다행히 아주머니는 잠깐 언짢아하고선 아무 말이 없었다. 병아리가 제 딴에는 열심히 사과했다. 이번에도 다른 언니들이 왠지 모두 별 말이 없었다. 책임감이 강한 선배인 내가 2차 소환령을 내렸다. 승객은 왕인데 왕의 지엄하신 신체를 건드리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그쳤다. 승객을 조심하며 선반을 닫는 몸짓을 시범해 보이며 교육은 제대로 받은 거냐며 혼냈다. 금방 눈물방울이 달렸다. 화장 지워진다며 자꾸 울지 말라고 쏘아 붙였다.

인천공항을 빠져 나와 최틀러에게 인사하는데 병아리가 최틀러 뒤에서 엉거주춤했다. 병아리가 왜 최틀러와 같이 붙어있는지는 다른 언니들의 인사말에서 알 수 있었다.

“최민지, 오늘 잘했어. 국제선 첫 비행에서 그 정도면 A야, A! 사무장님, 동생이 선배님을 닮아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최틀러가 빙긋이 웃는 가운데 민지 병아리가 언니의 손을 잡았다. 병아리가 바로 최틀러의 막내 동생이란 거였다. 최틀러를 포함한 언니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비밀로 한 것이었다.

최틀러의 동생이 저렇게 조그맣고 예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노란 병아리가 갑자기 의젓한 암탉으로 보임과 동시에 하늘이 노래졌다. 언니들이 나를 보고 히죽거리며 웃었다.

“동생 교육 잘 시켜줘 고마워.” 최틀러의 짧은 말이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희미했다.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엄마가 부쳐준 부침개를 안주로 막걸리를 들이켰다. TV에서는 스포츠 뉴스가 방송 중이었다.

“그동안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대원레인저스가 오늘 팀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소속 선수들과 프런트 직원들이 당혹해하는 가운데 구단은 인수할 기업을 물색 중이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강원 기자, 전해 주시죠.” 급히 자세를 바로잡으며 TV볼륨을 한껏 키우는 나를 엄마가 괭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엄마 한테서 바다냄새가 확 풍겨왔다.

무채색의 언어

일반부 우수상 · 소설 / 김 혁

제1장

통근발령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작업환경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하는 나는 수도권의 같은 병원에 통근 발령을 받게 되었다. 갑작스런 원로 교수의 죽음은 당신을 진정으로 애도할 겨를도 없이 명망 높은 노교수-환자가 많아 병원의 이익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의 공백을 채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김과장, 이제 좋겠네. 어쩌다보니 주말부부?!? 나라를 구했어. 크크”

언제부터인지 그는 나를 부를 때면 김과장이라고 했다. 전공의 수련을 마쳐서 얼른 진료부장이 되라는 덕담인지, 아니면 노력해 봐도 개원은커녕 그저 시골 대학병원 과장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한계를 의미 하는 것인지.

“실장님, 차비는 줍니까? 먹고, 자고, 병원서 부담이 만만치 않을긴데예!”

“야. 더 구해서 월급 주는 것보다 니가 들어가서 땜빵 치는게 덜 들지.”

월요일과 금요일은 내가 속한 지방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수도권에서 대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연봉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 않았다.

“진짜 너무하네요. 학생 때는 애지중지 아껴주더만, 월급 타 먹는 직원이라고 막 부려 먹는거 아이라요? 게다가 신혼인데. 아이씨”

“내한테 불만 이야기 하면 뭐하노? 그냥 우에서 시키는데로 하고, 탈 없이 잘 다녀오너라. 가서 요것도 하나 만들고. 크크”실장은 새끼손가락을 들어 접었다가 펴 보였다.

“참, 교통비 말인데, 고속철도 기준으로 나올기야. 그라고, 니는 전공의니까 특실은 안된데이. 최고 금액은 일반실 기준이고, 나머지는 실비다.”

“그라면, 고속철도보다 싼 버스타면 버스비 주고요?”

“글치, 비행기타서 더 나오면 고속철도 일반실에서 오바된 금액만큼 니가 물어야지. 만약에 통근 안하고 거서 잘거면 병원 기숙사 쓰면 되는데 2인 1실이라. 인턴이나 레지 같이 쓸지도 몰라. 딴데 방을 구해도 되는데, 어쨌든 병원 규정

상 기숙사 2인 1실 한 달 이용료에 절반 값만 준다. 알고 있어라. 말썽 피우지 말고."그가 말한 '절반'은 이십육만 오천 원을 의미했다.
"쪽팔리구로. 애들하고 우째 같이 씁니까? 후우."급히 닥친 근심은 우물쭈물 선택과 판단을 유보하는 동안 유치한 질문의 꼬리를 물었다.
'무얼 타고 매일 족히 400 km가 넘는 거리를 왕복해야하나? 아직 신혼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게 뻔하겠네-''그렇다면 신혼을 고사시키고, 주말부부를 선택해야겠지?-''인턴과 한 방을 쓸 수는 없으니 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야지-''실장의 농담처럼 혹시 생길지 모르는 새끼손가락과의 짧은 일탈을 기대하자면 기왕 제대로 된 방이었으면 좋겠는데-'.

제2장

유림공항·유림항공

광역시급 이상의 큰 도시를 제외한 지방 고속철도 역사는 시내 중심과 많이 떨어져 있었다. 첫 통근 역시 새벽부터 좁은 국도를 빈틈없이 밟아 신유림역까지 20분 만에 도착했다. 사설 주차장의 주차비는 하루를 기준으로 오천 원. 지방이라 그런지 주차비만큼은 확실히 저렴했다. 하지만 고속철도가 자랑하는 시속 300 km의 위용은 실망 자체였다. 여행이나 가벼운 출장 때에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고속철도가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 정차하는 역사의 수가 다섯 손가락을 넘었다. 가속 하고 감속하는 일을 반복 하는 동안 쌓인 피로는 고속철도를 한계 속도까지 올리지 못했다.
"잘 올라가고 있나?"출근하는 모습을 배웅치 못한 아내로부터의 전화였다.
"어. 근데 잠깐씩 조는데, 내가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사람들 눈치가 뵌다. 열차소음에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기도 하고. 계속 졸아도 피곤하고 골이 띵하네."
"특실은 넓어서 편하고, 조용한데."
"특실 타봤나?"
"당연하지, 나는 출장 갈 때 특실만 탄다. 일반실에서 2만원 더 보태면 승무원들한테 대접도 받고 편하게 다니는데 뭐하러 일반실 타노?"
아내와 나는 같은 병원에 근무한다. 그녀는 간호사다.

“2만원이 아 이름이가? 특실타구로. 매일 다녀야 하는 구만은.”
“2만원? 왕복 4만원이면 글킨하네. 오빠, 그러면 비행기를 타봐라.”
“비행기? 우리집 근처에 공항이 어딧노?”
“유림공항 있잖아. 어차피 신유림역 가는 시간이랑 별 차이도 없다.”
아내가 말했고, 내가 알고 있는 유림공항이란 군사용 공항으로 우리나라 해군이 사용하고 있다.
“유림공항? 그거 군대잖아. 내보고 또다시 군대 가가 수송기 타고 낙하산으로 뛰 내리란 말이가?”
“으이그. 인간아. 올해 초부터 민간 항공기 다닌다. 유림항공!”
“유림공항에 유림항공?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포털에서 유림시와 수도공항을 잇는 노선을 검색해 보았다. 항공편은 검색되지 않았고, 직접 유림항공을 찾아서 홈페이지 접속해 보니 올해 초 설립되어 얼마 전 국토부로부터 운항증명승인 AOC를 취득했다고 나와 있었다. 캐나다 봄바디어에서 생산하는 CRJ200 기종 2대와 봄바디어 에어로스페이스의 CS300 기종 1대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설명이었다. CRJ200은 단종된 소형 제트 여객기 이지만 오랜 비행 경험으로 안정성이 입증되었고, 무엇보다 신형이 아니므로 저렴한 여객 비용을 예상할 수 있었다.한 때 공군 사관학교를 목표로 민항기 파일럿을 꿈꾸었기에 전투기를 제외한 여객용 항공기에 대한 얕은 지식이 도움을 주었다. 머리를 굴리고 펜으로 메모를 해 본 결과 고속철도 일반실보다 편도 기준 6,600원이 저렴하였고, 근무하게 될 병원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두 시간 단축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유림공항 주차장 이용료는 무료였다.

제3장

고속철도

세 시간 넘게 달리는 고속철도의 일반실 객차 안의 의자는 체격이 큰 사람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불편을 주었고, 조금 더 편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 의지하는 팔걸이 자체가 경쟁의 대상이었다. 좌석은 좁은데 가뜩이나 소리에 민감한 나는 새벽부터 전화통을 붙들고 떠드는 사람, 코를 고는 사람, 환자 그대로인

상태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가면서 끙끙 앓는 사람들이 내는 소음를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블루투스 헤드셋의 볼륨을 중간보다 크게 틀었다. 일을 하지 않을 때면 음악을 들으며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공상, 그러나 음악이 일시적으로 끊기면서 짧고 굵게 전해지는 벨소리는 다시 아내였다.
“검색해봤어?”
“어. 나이롱에는 항공편 검색이 안된다고 뜨는데, 유림항공 홈피 드가보니까 하루 여섯 번 왕복 있네.”
“그거해라. 돈 좀 더 주고 비행기 타고 다녀. 몸이 재산인데 그거라도 아껴야지. 우리가 뭐 시댁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
“미안. 그냥 그렇다고. 내려올 때 타고 와봐라. 내가 유림공항으로 마중 나가께! 오빠는 등치가 크니까 비상구 좌석으로 달라고 하고.”
“알았다. 근데 비행기가 열차보다 만원 더 싸네.”주차요금과 합산하였다.
“그럼 신유림역에 있는 아빠 차는 내가 버스타고 가서 찾아 놓을게”
“어. 고맙데이. 그럼 목요일 저녁에 만나자!”
“목요일에 내려올라고? 왜? 그냥 오늘 내려오지? 벌써 약속 잡았나?”
“아니, 오랜만에 샘들도 좀 뵙고, 과하지 않게 약주 좀 해야지. 그리고 언제까지 통근일지도 모르는데, 방 좀 알아볼라고.”열차속도보다 짧은 침묵.
“알았어. 재깍 재깍 전화하고 문자해.”
“네넵. 어차피 니가 다 아는 사람들 만나는 건데 뭐.”
“시끄럽다. 끊어.”
창밖으로 어지럽게 비가 날렸다. 장마 예보가 예전처럼 보편적이지는 않았지만, 40년 가까운 세월을 우리나라만의 사계절을 경험하다 보니 몸이 장마를 느꼈다. 유리창으로 굵은 빗방울이 닿으며 뚝-뚝- 거리는 소리가 객실의 소음보다 더 세게 귀에 울렸다. 더 먼 바깥은 아마도 싸르르-하는 빗방울의 집합이 울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옮겼을 때, 다시 꼬리를 무는 유치한 근심의 시작. ‘오늘처럼 날씨가 험하면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거 아닌가?-’‘오랜만에 애들하고 뭐먹지?-’동기들이라고는 하지만 대학 입학시험에서 삼수를 했으니 그 들보다 두 살이 많았다. 남아 있는 동기는 전공의 이거나, 병원 밖의 개원의. 그리고 운이 좋은 한 녀석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부원장으로 후계 구도

를 쌓아가는 중이었다.'아무래도 내가 손님인데 자식들이 맛 집도 데려가주고, 좋은데 구경도 시켜 주겠지 뭐-'좋은 곳이란 경치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월급은 받았고, 오후 반나절 근무이므로 시간은 충분했다.

제4장

H호텔 J클럽

"아. 형. 상표 없는 흰색 드레스셔츠 입고 오라니까, 뭐야? 남색 폴로티.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또 이 형 때문에 빡 도네. 청바지도 입지 말라니까, 누가 필드 뛰는 환경의학과 아니랄까봐. 어이그!"L의 인사였다.
"야. 오랜만에 봤으면 큰 절부터 해야지, 초야에 묻힌 어른한테 문자로 드레스코드가 어쩌니 씨부려 샀코, 배웠으면 예의를 좀 갖차라. 오데 잘 나가는 병원장님 아빠 없으면 얼굴이나 쳐들고 살겠나?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왜들이래요. 오랜만에 봤으면서. 하하. 반갑기는 한 모양이네!"생긴 것 보다는 오히려 언어가 깍듯한 H가 중재를 한다.
"어. 잘 있었나? 근데 어디로 가기에 와이샤쓰 입어야 된다 카노? 흰색 아이면 안되는 곳이가?"
"나만 믿고 따라와. 걱정은 접어두고 스마일. 뭐... 아직 잘 서잖아. 초이스해. 킵 해줄게. 아유 오케이?"
"뭐라케샀노? 오늘 공장 식당에 빠다 나오더나? 미친놈이."
"아. 형. 사투리 좀 고치면, 안되나요? 제발요. 스~을말 몰라요?"
"그만해. 열차타고 오느라 피곤할텐데." "클럽간데요! 형."
L과 H는 학창시절 삼총사 그대로였다. 말로 하자면 낙동강 녹조라떼를 영양제라고 팔고도 모자람 없을 듯한 내과 전문의 L. 그리고 생긴 것은 좀 험해도 몇마디 나누다 보면 어릴 때부터 엄친아로 잘 배운 가정교육을 받아 학식과 교양이 풍부한 신경정신과 전공의 H.
"와? 요새 새로 핫 한데 있나? 지난번 보수 교육 때는 서울 와도 얼굴만 보고 밥도 안믹이고 보내드만은. 미안했던 갚네. 어데 뚫었노?"
"그래유. 미안했구만유. 촌에서 온 양반은 동생들만 믿구 차를 타세유."
있는 놈들은 죄다 수입차 세단이었다. 라디에어터 그릴부터 고급차라고 말해

줬다. 물론 나도 작년에 생애 첫 수입차를 샀다. L이 차를 몰아 도착한 H 호텔은 몇 번 와 본 경험이 있었다. 그 경험에는 주차장부터 고급스러웠으나 국산차가 대부분이던 시절 이었다. 지금은 서거하셨지만, 전직 대통령 몇 분이 H 호텔 중식당에서 어려운 음식을 드셨다고 전해지고, 5년 전 2층 중식당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직 대통령에게 내드린 경험이 있었다. 그 분도 국산 세단을 이용한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우리 일행 2층이 아닌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다. 지하라고는 하지만 붉은색 카펫이 깔린 꽤 많은 계단을 빙글빙글 돌아 내려가니 야외 풀장이 나타났고, 실내는 시끄러운 라틴 음악 소리가 귀를 울렸다. 미리 예약을 해 둔 것인지, 검은 정장 차림의 웨이터가 춤을 추는 무대 옆 한적한 곳으로 우리 일행을 안내해 주었다.

“애들이랑 삼겹살 집에 왔어. 피곤하지? 잤어?”화장실은 음악소리 셀 틈 없이 조용했다. 나처럼 휴대전화기를 볼에 밀착시키는 남자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오빠. 벌써 서울말쓰나? 삼겹살집? 웃기시네. 오빠 동기들 다 전과가 있는 놈들인데, 안 봐도 그림이다. 퍼뜩 묵고 기숙사 가서 전화해라.”

“가시나. 니 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놈들이 뭐고? 그리고, 직업이 모두 닥터인데, 간호사가 이래 무서버라. 협업을 좀 해라.”

“느그 노는 거 뻔히 아니깐요, 그냥 쳐 드가서 연락 주세요.”

통화를 마치고, 주위를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수컷들의 대부분이 나와 비슷한 내용으로 연신 뻐꾸기를 날리고 있었다. 화장실 안의 분위기보다 더 어색한 표준말 쓰기를 마치고, 부랴부랴 밖으로 나왔다. J 클럽은 늦은 시간까지 외국인 손님이 가득 차 있었다. 백인부터 유색인종까지. 대부분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장교는 보이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사병들이 전투복을 입은 것은 아니었다. 하사관 이상이 외출 시 입는 정복 차림이었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텅 빈 무대 옆과는 떨어진 곳에서 라틴계열의 무희들이 드럼을 신나게 연주하고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돋았다. 앞에서 뭐라 소리치면 무대 뒤의 관중들이 환호 했지만 스페인어에 문외한 이라 알아듣지 못했다. 어쩌면 영어였을지도 몰랐다.

“형 어디 갔다 왔어? 여기 스튜디어스의 성지야. 좀 기다려봐.”

“디스”스튜디어스가 아니라 스튜어디스라고 정정해 주었다.

“형, 어스면 ‘우리들의 것’이고, 디스면 그냥 ‘이것’ 이잖아. 발상의 전환을 좀 해라. 시골 내려가더니 이 형 왜 이렇게 되었어?” 다시 L의 디스.
“잠깐만. 어. 왔다.”H가 우리 둘 사이를 파고들며 말했다. 스테이지 구석 자리에서 보이는 둥글게 내려오는 계단으로 과연 두 명의 젊은 여성이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번뜩이는 사이키 조명 아래로 찬란한 그 모든 빛을 반사시키는 흰색 셔츠를 입은 주인공 L이 급히 일어섰다. 왜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L의 손에서 스테이지 바닥을 향한 레이저 발사였다. 정확히 말해 손에 들고 있는 어떤 장치가 무대의 바닥을 스크린 삼아 백색의 깜빡이는 글자를 상영하였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두 명의 여성이 싱긋 웃으며 L에게 쭈뼛 다가갔다.
“형. 항공사 승무원들이에요.”아직 앉아 있는 H가 내게 속삭였다.
“어델 보고 아노? 이마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닌데.”
“있어보세요. 일단 분위기 봐 가면서 이따 내가 빠질게요.”
다시 웨이터가 메뉴판을 들고 우리 자리를 찾았고, 자연스레 그녀들과 합석하였다. L은 주문을 위해 메뉴판과 다듬어진 그녀들의 눈을 번갈아 보았다.
“소개부터 할게요. 이쪽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성형외과 K원장, 그리고 이쪽은 종합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H, 그리고 나는 그냥 시골 내과 의사.” 이어서 웨이터에게 다소 과장된 표정으로 “먹던 걸로 주세요”라고 말했다.
“어디 항공사 근무하세요?”H의 수준 높은 표준어는 그녀들의 긴장을 한 층 풀어주는 듯 했고, 졸지에 성형외과 의사로 둔갑한 나는 본과 3,4학년 실습 때의 외과 회진과 수술 참관을 떠올려 보았다. 숨은 답답했지만, 침묵하지 않으면 사투리 때문에 정체가 탄로 날 것 같아 가벼운 목례만 하였다.
“C항공 미주 노선이요. 아세요?”비슷하게 생긴듯한 그녀들 중에서 어려보이는 한 명이 말을 꺼냈다. 과연 승무원 이었다.
“A380 타시겠네요?”내가 꺼낸 어색하고도 확실한 첫 소음이었다.
“네. 잘 아시네요.”그녀들 중 어린 한 명의 얼굴에 다소 홍조가 비치는 듯 했을 때 얼른 L이 말을 끊었다.
“국적기잖아. 국적기. 기종이 뭐 중요해. 나는 들어도 모르겠던데. 그쵸? 하하.”수줍음을 덜 타는 듯 해 보이는 다른 스튜어디스 일행이 잠깐 고개를 끄덕

해 보였다.
“자자, 시차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우리 즐겁게 마시고 놀아 봐요.”마침 콜라와 얼음을 함께 타 먹는다는 양주가 셋팅 되었다. 면세 가격이면 10병도 넘게 살 수 있는 돈을 이곳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안주로 술은 시작되었다. 테이블에 새로운 얼음과 세 병째의 술이 올라오는 동안 L과 H가 그녀들과 번갈아 춤을 추었다. 가끔은 혼자 온 듯한 남자들이 술잔을 들고 서성이듯 돌아다니면서 클럽의 구석까지 훑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들 역시 모두 흰색의 셔츠를 입고 있었다.
“여기 처음이세요?”두 스튜어디스 중 나이가 많아 보이는 듯한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네...오늘 지방에서...아니아니...지방 출장 갔다가 올라 오는데...전화가 와서...오랜만에 한 잔 하자고 해서...따라오니 여기네요.”
“정말 처음인가 보네요? 후훗”절제되었지만, 꽤 상냥한 목소리 였다.
“이 형이 또 전국구 잖아요. 이거 전문이에요.”L은 내가 실수를 해서 무르익은 분위기를 망쳐놓을까 염려되었던지,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끼어들었다. 그리고 양 손으로 자기의 가슴 언저리를 만지는 행동을 했다.
“정말요? 우리 회사에 작아서 고민인 애들 진짜 많은데, 단체로 하면 할인해 주시나요?”나이가 어려보이는 스튜어디스의 말에 모두
“호호호-푸하하하~”연거푸 웃음을 터트렸다.
“얘는 또 잠 안올 때 먹는 약이랑 흥분제 전문이잖아요. 오늘 필요한건 다 있네.”반복되는 “호호호-푸하하하~”
“그럼 시골 내과 선생님은 뭐 잘 하시는데요?”
“돈이 많죠. 정확히는 파파가.”H가 물 흐르듯 대화를 이어갔다.
“아빠 물러나시면, 규모를 튀겨 봐야죠. 여성 전문 비뇨기과는 무조건 넣어야 해.”야한 듯 그렇지 않은 듯 이어지는 농담과 웃음에 익숙해져 갔지만, 나는 오랜만에 장거리 열차에서 오는 피곤함이 술기운과 겹쳤다. 속이 울렁거렸고, 머릿속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달려야 하는데, 몇 잔 더 마시면 되는데 라며 각성을 유도하였지만, 기억의 회로가 곧 망가질 것만 같았다. 콜라에 섞어 마신 다는 술도 그 날이 처음이었다.
“야. 안...되겠다.. 나는 먼저..가야겠는데...” H를 불렀다.

“형. 왜이래요? 괜찮아요?”
함께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소개팅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아무리 취해도 화장실에 가서 손가락을 넣어 억지로 구토를 하고 다시 끝까지 달렸던 그 친구들이다. L의 눈빛과 H의 거짓 위로는 구토를 하고 오라는 신호였던 것이 뻔하다. 그래도 어차피 짝은 맞지 않았고, 게다가 내가 유일한 유부남이었다. 일말의 죄책감.
“태태택..시 불러주라. 가서 좀 쉬어야 겠다.”
로비로 올라오니 검정색 모범 택시들이 노란 등을 밝히고 있었다.
“형, 오늘은 들어가고, 내일 공장에서 봐요. 내일 오후지?”
“어. 그그래...나는 일단 기숙사 가서 잔다...글로 와라...”
강변북로를 따라 창문을 열고 달리는 차창의 밖 공기는 신선했다. 택시에서 내릴 즈음에는 술기운 보다 택시비에 속이 더 쓰렸고, 비는 그쳤다.
“오빠. 어제 뭐했노? 사실대로 부는게 신상에 좋다.”아침부터 신경질적인 전화가 울린다더니, 역시 아내였다.
“뭐하기는...술 마시고 삼겹살 먹고 들어와서 씻고 잤지.”
“전화는 왜 안했는데?”
“...기숙사 방에 인턴 같이 있는데, 민간스럽구로 어른이 되어가, 일일이 마누라한테 보고하고 그러면 격이 떨어져서 부끄럽잖아.”
“입은 살았네. 내일 비행기 놓치지 말고 정시에 내려와. 집에서 보자.”
아침 식사는 건너뛰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려고 식판에 반찬을 올리고 있을 때, H가 옆으로 끼어들며 말을 건냈다.
“선수가 어제 왜 먼저 갔어요. 결혼하더니 많이 약해 졌네요.”
“어제 우에 됐노?”물어볼 필요가 없는 뻔한 질문을 능청스레 받는 H.
“각본 알면서,,,형은 참. 상상만 해요. 암튼 고마워요 형. 식사 잘.”
순식간에 가슴을 만져 보이는 제스쳐를 취하고, 일행이 있다며 식판을 들고 H는 멀어졌다. L은 아버지에게 병가를 내고 H호텔에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제5장

비상구좌석

“고객님. 레그룸 사이즈가 일반석보다 넓은 비상구측 좌석 어떠세요?”
“네. 거기로 주세요.”
90 kg이 넘는 몸무게와 거기에 숫자 백을 더한 키라면 비상구 좌석을 안내 받는 것이 당연해 보였다.
“맡기실 수화물은 없으신가요?”나는 대답대신 USB가 고리에 달린 작은 주머니칼을 내 보였다. 지난 달 스위스 신혼여행 때 V사를 방문하여 고가의 수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달리 예물을 주고받지 않은 결혼에서 내게는 행운의 장신구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귀국하던 날, 백팩에 넣어 두었다가 보안 검색에서 위험물로 분류되어 다시 수화물로 옮겨야만 했었던 기억 때문에 미리 꺼내어 둔 것이었다.
“비상구 좌석 달라고 카운터에서 이야기 해.”수화기 너머 L이 말했다.
“요새는 비상구 달라고 하면 따로 돈 더 내야 하는 것 같던데.”
“형, 조금 더 주고 스튜어디스랑 마주 앉아서 가봐. 재미있어.”
“스튜어디스라고 똑바로 이야기 하네. 항공사 승무원 보는게 재미지냐?”
“아아. 우리 꼰대를 어떻게 하면 개화 시키지. 그냥 시키는데로 좀 해라.”
“먼저 앉으라고 하기에 벌써 좌석표 받았다. 비상구. 이놈아.”
“역시 우리형. 엊그제 그렇게 먼저 가서 아쉬웠구나. 담주에 봐요. 킥킥.”
비상구좌석에 대해서 나는 몇 가지 선입견이 있었다. 물론 남들이 알아 주지 않아도 되는 사실이었지만, 나는 비상구좌석을 싫어했다. 비상구좌석은 항공기 결함이나 사고 중에 탈출용도로 쓰인다. 이륙 후 3분, 착륙 전 3분 이내가 항공기 사고가 빈번하다는 통계를 인용하면,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는 불시착이라는 것이 없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UN에서 지정한 물 부족 국가로서 ‘허드슨의 기적’같은 수면불시착은 더욱 기대하기가 어렵다. 비상구를 쓸 일이 없으니, 굳이 비상구에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었고, 차라리 사고가 났을 때 조금이라도 생존 확률이 높은 좌석을 선택하고자 하는 생각이었다.
두 번째로 비상구좌석을 싫어하는 이유는 내 직업 때문이기도 했다. 직업이 의사라는 특권 아닌 특권의식을 가진다면, 비상구좌석을 수월하게 차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비상구좌석의 매뉴얼을 확인해 보니, 비상 탈출 시 가장 먼저 여객기로부터 탈출하여 승무원과 함께 나머지 승객들의 탈출을 도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언제 2차 사고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직업인 의사

가 가장 먼저 탈출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만이었고, 생물학적 근거로 보았을 때에도 여성과 아이가 먼저 탈출해야 하는 것이 옳았다. 비상구좌석의 승객은 적어도 여성과 아이의 탈출을 돕고 나서 내려야 한다고 규정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적도 있었다. 대게 비상구좌석의 승객은 건강상태가 좋거나, 의료인이거나, 건장한 남성 위주로 배석하는 것이 관례라면 내 주장도 일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비상구좌석을 기피하는 엉뚱한 주장의 끝은 스튜어디스와 물려있었다. 우선 보잉 737 같은 중소형 항공기에서는 승무원과 마주 앉아야 한다. 눈을 마주치고, 살짝 웃고, 두 눈과 삼각점으로 입술을 쳐다보고, 다시 두 눈을 기준으로 입술보다 더 아래를 훑어보는 짧은 시간 동안은 이성으로 제어 할 수가 없었다. 비상구좌석의 승객 준수 사항을 들을 때면 오히려 소리 내지 않고 승무원의 가슴 가까이에서 냄새를 맡고 싶은 욕망을 강하게 느꼈고, 이륙할 때나 상공에서 항공기가 흔들릴 때, 그리고 착륙할 때 마주 앉은 승무원의 치마 안 속옷 색깔을 궁금해 하기도 했다. 어쩌면 지하철 맞은편의 승객의 눈을 일부러 피하게 되는 것처럼 승무원을 마치 짝짓기 대상처럼 상상하기 싫었다. 항공사 측에서도 몸매가 좋고, 젊고 예쁜 승무원들에게 치마를 입히는 것은 승객의 안전 최우선 원칙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날 밤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이야기 했었지만 상대가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았다.'경험이 많고-''바지를 입었으며-' '나이를 먹었다면-''승객들은 흔들리는 기체 안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하늘 위의 비상을 즐길 지도 모를 일이라고-''오래는 살고 싶은데 나이는 들고 싶어 하지 않는 모순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국적기 항공사들의 얼굴이라고-' 아무도 듣지 않았다.

드디어 처음 올라타게 되는 봄바디어 CRJ 항공기. 예정된 출발 시간보다 50분이 지연되어 탑승하게 된 이유는 수도공항의 청사 내부의 리모델링 때문이었고, 더 정확히는 항공기 연결 관계라고 하였으나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륙장의 셔틀을 타고 멀리서 바라본 50인승의 유림항공 CRJ를 처음 본 승객들은 연신 휴대 전화의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멋 적은 척, 나는 그냥 그들을 지켜보았다. 한 눈에도 열 댓 명의 승객이 전부였으니,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오를 작정 이었다. 그렇게 계류장에 서서 마지막 줄에 오를 때 앞선 여자 승객들 중 일부는 비행기 뒤 쪽에서 불어오는 젯트 바람의 역풍에 치마가

펄럭이느라 연신 핸드백으로 가리거나 손으로 붙드는 행동을 했다. 뒤에 있는 나를 의식하는 듯 했기에 조금은 불쾌했다. 먼저 탈 걸 그랬다.
“탑승권 확인하겠습니다.”그렇게 말은 건넨 승무원은 그녀들 이었으므로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다.
“네...아...이렇게 또 뵙네요!”어색한 인사를 건넸다.
“비상구 좌석이세요. 8열로 가시면 됩니다.”엊그제 그랬던 것처럼 나이 어린 승무원이 얼굴에 홍조를 띈 모습으로 좌석을 가리켜 주었다.
백팩을 짐칸으로 올리고, 지정된 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이 작은 여객기의 비상구좌석은 맞은편에 객실승무원 좌석이 있지 않았고, 옆자리로 지정이라는 안내문이 놓여 있었다. 이것으로 비상구좌석을 기피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은 샘이었다.
“그제 잘 들어 가셨어요?”내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물론 그녀들은 자신이 소개했던 것처럼 미주노선 승무원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국내 굴지의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인 C 항공사 소속이 아닌 것은 더욱 확실해 졌다.
“네...덕분에. 그런데 유림시에는 무슨 일로 가세요?”
출발 전, 순간 내 전화기에서 문자가 진동으로 전달되었다. 내용만 확인하고 답을 하지 않은 채 비행모드로 전환했지만, 낯이 뜨거웠다.
‘J클럽에서 봤던 젊은 애 있잖아요. 형 전화번호 좀 달라던데, 함몰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서요. 지금 비행기 탄 거 맞죠? L은 괜히 형을 성형외과 전문의 만들어서, 대신 미안해요. 내리면 연락줘요. H’
“아...저 성형외과 의사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의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휴우, 환경작업과 전공의거든요. 그러니까,,,전공이 다른 의사라는 거죠. 말하자면 긴데, 그냥 식중독 같은거 연구해요. 외과니까 수술은 안하고요. 그러니까,,,집이 유림시에요. 아. 외과가 아니라서 함몰 수술은 안하고요. 잘못 말했네. 휴우. 성형외과 하는 친구는 주위에 많거든요.”내가 생각해도 횡설수설 이었다. 대낮이었고, 젯트 엔진의 소음은 웅웅- 기내를 가득 채웠으며, 맨 앞에 마주보고 앉은 나이가 많았던 또 한명의 그녀가 우리를 연신 미소 짓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가식적인 웃음은 아니었다.
“그 날, 일행 분들도 매너가 좋으시던데. 솔직하시네요.”
“걔들은 맞아요. 한 놈은 신경정신과 불면증 전문 전공의, 다른 녀석은 아버지

가 부자인 내과 전문의. 두 녀석 다 총각이고요. 나는 결혼 했어요”
“흐흐흐흠. 별걸 다 말씀해 주시네요. 비상구좌석 승객 의무사항 아시죠?”
“아. 네네. 알죠 당연히. 하하.”
CRJ가 활주로에서 하늘로 오르는 기분은 멋진 경험이었다. 다른 중소형 여객기나 A380 같은 대형 항공기가 이륙할 때와는 달리 정지해서 젯트의 출력을 올리지 않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가속해도 가볍게 날아올랐다. 이륙과 착륙의 시간 동안 진실을 기반으로 본질을 겉도는 짧은 대화가 이어졌다. 언젠가 장거리 항공기 안에서 낯선 옆자리의 승객과 친해지는 지침을 읽어본 것이 도움이 되었다. 순서대로 고향에서의 일과 직업이 주는 고충, 그리고 키우는 애완동물에 대해 물었고 서로 답했다. 겨드랑이는 축축해졌고, 구면의 스튜어디스와 다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승객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유림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등받이를 바로 해 주시고, 의자 뒤 받침대를 접어주십시오. 원활한 착륙을 위해 항공기 창문을 열어 주시고, 안전벨트를 하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앞자리의 승무원이 유창한 영어로 남은 설명을 이어 갔다.

제6장

J

주말을 유림시에서 보내고 다시 올라가야 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왠지 모를 설렘과 기대감이 생겼다. 그녀들을 좁은 항공기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의 감정은 떠올리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서로 알몸을 본 사이도 아니므로 부끄러워하거나 기피할 필요는 없었다.
“다녀올게. 장인어른 차 안 쓰시니까, 내가 타고 가서 그냥 유림공항에 세워 두고, 내려올 때 그거 타고 오면 되제? 주차비 무료다.”
“어. 그래라. 오빠. L과 H 만나서 또 술판 벌이지 말고, 단디 해라.”
왠지 모를 설렘이란 사실 L과 H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였을 지도 몰랐다.
“알았데이. 가들도 인제 늙어가 못 논다. 낼 모레면 사십인데. 한때지.”
유림공항까지는 한적한 산업도로를 끼고 달리는 길이라 경치를 보며 운전해도 30분 안으로 도착이 가능했다. 항공사 카운터에서는 먼저 주머니칼을 수화물

로 내밀고, 항공권 발권을 기다렸다.
“고객님. 일반석보다 좌석이 넓은 비상구좌석은 어떠세요? 아니면 선호하는 좌석 있으세요?”표준어를 구사하였지만, 나처럼 억양은 이곳이 고향인 직원이 물었다.
“비상구만 아니면 아무데나 됩니다.”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창가가 좋으세요? 복도가 좋으세요?”
“비상구좌석만 아니면 됩니다.”반복해서 말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항공기 출입구 자체에 부착된 작은 계단을 타고 오른 유림항공사 여객기에는 남자 승무원 1명과 여자 승무원 1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남자 승무원이라면 비상구좌석을 배정 받지 않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객님. 머리 조심 하세요.”
항공기 탑승 경험이 많은 듯한 여성 승무원이 주의 사항을 일러주었다. 확실히 CRJ는 일반 여객기답지 않게 천정이 너무 낮았다.
‘형, 출발했어요? 도착하면 수도공항 7번 출구에서 45번 마을버스 타요. 한 번에 병원으로 올 수 있음요.’비행모드로 바꾸기 전 또 다시 H로부터 송신된 문자의 내용이었다.
수도공항은 새로 생긴 국제선 여객터미널 때문에 국내선 전용으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엄연히 국제선 청사를 갖추고 있었으며, 주로 여행 성수기에 전세기를 이용한 출입국 관리가 이루어졌다. H가 알려준 45번 마을버스는 국제선 청사가 거의 종점이었으므로, 다음 정류장인 국내선 청사에서 탑승할 경우 자리가 널널한 편이었다. 나는 맨 뒷좌석에 앉는 것을 언제든 선호하였으므로 당연히 빈 버스의 맨 뒤로 걸었다. 창가 쪽에는 가방을 놓고 수령한 주머니칼을 수화물 백에 동봉된 상태로 백팩에 넣으며 자연스레 자리 두 개를 차지했다. 그런데 하필 넓고 넓은 빈자리를 두고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청년이 맨 뒤로 씩씩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명탐정 홈즈가 나오는 추리소설을 탐닉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나는 왓슨과 같은 보조역할 정도는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내 옆자리 가운데 앉아 양 팔로 손잡이를 꽉 잡은 팔의 힘줄은 직업이 화이트칼라는 아니라는 것을 대변해 주었다. 구리빛 보다 진한 팔뚝에는 마치 태양이 모두 녹여 버린 것처럼 털이 하나

도 없었다. 국방색의 군복 바지에 단단해 보이는 등산화를 신고 한 손에는 다시 검정색 가방 밖으로 네모 각진 실루엣의 물건이 보였다. 남은 한 손으로는 생수와 헤어드라이가 밖으로 삐죽 튀어 나와 있는 소지품 가방을 들었다. 옆으로 슬쩍 쳐다보아도 이를 훤하게 드러내며 웃는 인상이었는데, 오른쪽 상악의 이가 하나 빠져 있었다.

내가 일하는 병원까지는 버스 한번 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살 만한 온 마을을 거쳐 한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거리였다. 그와 가방 속의 네모 각진 물건이 무엇일까 추리하는 재미가 지루함을 달래 주었다.

'이 사람은 막 시골에서 상경했고-''가방속의 물건은 크기를 보았을 때 돈이다-''세로로 된 손잡이에서 가방을 동시에 놓지 않는 이유도 오늘 공사판에서 밀린 급여를 한 번에 받았기 때문이다-''그가 연신 웃는 이유는 그 돈으로 오늘 있을 배부름과 성적·생리적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그는 내가 내리는 정류장과 같은 곳에서 먼저 일어섰다. 가방을 챙기고, 소지품을 담은 가방에서는 생수병을 흘린 채로 뚜벅 걸어 버스 카드를 찍었지만 물병의 유실을 모르는 듯 했고, 나도 굳이 불러서 알려주지 않았다. 많은 승객들이 내가 일하는 병원 입구에서 내리는 동안 그는 맨 뒤까지 기다렸다가 하차했다. 연신 웃고 있었으므로 역시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형. 왔어요?" 내선 전화가 울렸다. 아직 진료는 시작 되지 않았다. 작업환경의학과 또는 산업의학과 의료진은 주로 직장인 건강검진의 단체 상담역이므로 환자가 몰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확연하게 구분 되었다.

"어. 방금. 오늘도 덥제?"

"뭐 우리야 에어컨 빵빵한데서 일하잖아요. 몇 마디 듣고 약 처방 해 주는게 일에 전부인데, 더운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참, 형네 과는 처방전 발행 안하죠!""저녁에 나갈 때가 걱정이네요. L 연락 받았어요? 오늘도 콜?"

"뭐라카노? 또 가나? 느그 그라다가 죄 받는데이."유림항공에서 그녀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미처 하지 못하였다. 어차피 함구할 생각이었다.

"벌을 받지 무슨 죄를 받아요? 흐흐. 암튼 끝나고 여섯시에 만나요."

"잠깐만. 근데 아까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돈 다발을 들고 우리 병원으로 들어오던데, 니 혹시 아나?"돈 이란 상상했던 그의 가방 속 물건이었다.

"우리 병원 환자가 몇 명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냥 검은 모자 쓰고, 30대 중반에 중키 남자, 반팔 옷에 등산화...”
“아아. 군복 바지 입고?”H가 나의 설명을 잘랐다.
“J는 내 환자인데요. 무슨 돈 다발?”
“검은 가방 있잖아. 그거 다 돈이던데. 못 봤나?”
“또 그러신다. J는 조현병이고, 혼자 입원하러 왔어요. 가방안에 빨래랑 비누 들었고요. 약은 잘는데 약발 떨어지고 느낌 이상하다고 인지하면 스스로 입원하러 와요. 추리소설은 이제 그만!”그의 이름은 J였다.

제7장

고향

“참, 형 동생은 잘 있죠? 처방 안 가져 간지 꽤 되었는데...”동생이 떠올랐다. 불면과 우울에 관한 전공의 수련 과정 중인 H는 말하자면 동생의 주치의였다. 간헐적 처방은 결국 약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고, J에 비해 긴장형 조현 증상이 나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해 주었다.
고향에서의 유년 시절과 우리 가족은 화목한 편 이었다. 적어도 엄마가 유방에 생긴 암이 난소로 전이되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랬다. 아버지는 매일 술로 버티셨고, 끝내 재혼을 하지 않으셨다. 할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는 아버지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새엄마가 필요 없다고 우기셨다고 한다. 유림시의 작은 군사 공항 근처에는 우리 세 식구가 사는 작은 아파트가 있었고, 부모님이 결혼을 해서 살림을 꾸린 집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전투기와 수송기의 경쾌한 발동은 나의 어린 시절 꿈을 파일럿으로 키우기에 충분했다. 아버지도 훌륭한 조종사가 되어야 한다며 날마다 격려해 주셨다. 그러나 엄마가 죽고 나서부터 아버지는 달라졌다. 평소 말 수가 적었던 당신은 술을 마시면 항공기의 소음과 전파로 인해 엄마가 암에 걸려 죽은 것이라며 우리 형제를 무릎 꿇린 자세로 몇 시간 씩 잔소리를 하셨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재수를 하던 시절, 나의 꿈은 파일럿에서 의사로 바뀌어 있었고, 수학능력평가 시험을 며칠 앞두고 있던 차가운 밤, 그날도 만취한 아버지는 평소와는 달리 장롱에서 수렵용 산탄총을 꺼내어 옥상으로 올라갔다. 비틀거리는 그를, 뒤에서 미행하다 시피 따라 오른 곳에서 아버지는 방금 날아오른 물체를 향해 산탄총을 겨냥하였

다. 빈총이었다. 나는 숨을 죽여 울어야만 했었고, 그 해 바라던 고향의 의과대학 예과생이 되었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막 고등학교를 입학한 동생은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가출 이라는 것을 시작 했고, 집에 돌아올 때면 자신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지원받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권고사직의 무거운 압력을 나름의 방식을 잘 견디고 있었다. 문제는 여전히 동생이었다. 3학년이 되더니 또래의 여자 아이들과 어울려 여행을 다니는 날이 부지기였다. 하루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꿈은 여행 작가라며, 대학을 포기하고 세계 일주를 떠난다며 대학 4년 동안의 등록금을 일시불로 요구하였다. 그 자리에는 내가 없었기에 큰 싸움이 나지 않은 것이 돌이켜 보면 큰 다행이었다. 나의 고향 유림시는 '유림'의 낱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고교 비평준화다. 동생은 성적이 높아야 진학할 수 있다는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늘 상 수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생이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았던 그날, 한 시간 거리의 조부모가 살고 계신 곳으로 영원히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다고 한다. 본과 2학년으로 진급한 나는 예방의학 수업을 들으며 차츰 환경이 사람의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렇게 엄마의 죽음과 나의 전공 결정은 오버랩 되었다. 국가고시 합격에 맞추어 아버지는 명예퇴직을 신청하셨고, 동생은 여행사에서 가이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타는 비행기가 추락할 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호소하며 H에게 약을 처방 받았다.

제8장

다시 J

J를 수도공항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일주일 만이었다. 신경정신과의 퇴원 수속 중 꽤 빠른 편이었고, H의 설명으로는 새로운 약이 잘 들어 처방을 바꾸었다고 말해 주었다.

"형, 다음 주에도 비행기 타고 올라오는 거 맞죠? 내가 수도공항으로 마중을 나갈까요? 어차피 오전 오프에요."

"어. 그래주면 고맙고. 일정 잡고 연락 하께. 근데 J는 집이 오디고?"

"오디고? 아, 지금 공항에 같이 있다고 했죠? 집은 모르겠고, 유림으로 바람쐬

러 간다기에, 비행기 타라고 알려 줬어요.”
“그랬구나. 같이 비행기 타겠다야.”
“다음 주는 L이 간호사들의 성지인 D클럽 간데요. 같이 가실거죠?”
“그 새 스튜어디스에서 널스로 환승 했나? 수속 중이다. 내리면 전화할게. 바이.”씁쓸한 여운을 남기는 억양으로 전화를 끊었고, 유림항공 카운트 앞에 섰다.
“비상구좌석 어떠세요?”항공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아뇨. 비상구좌석만 아니면 아무데나.”
“맡기실 수화물은요?”
“없어요.”당시는 복잡한 머릿속으로 주머니칼을 생각에서 지우고 있었다.
“다음 손님.” 직원의 호출에 노란선 밖에서 대기하던 J가 다가왔다.
수도공항의 국내선은 금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만원 손님으로 가득 찼다. 하루 휴가를 내서 내륙이 아닌 섬으로 여행 가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다. 소지품 검사에서 다행히 행운의 부적은 적발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주머니칼은 양복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었다.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요!” 익숙한 그녀의 멘트다. 맨 마지막으로 탑승한 이유로 탑승권 확인 없이 인사를 받았다. 나의 좌석은 10A. 비상구로부터 2칸 뒷좌석 이었다. 비상구좌석에는 J가 앉아 있었다. 이 빠진 웃음으로.
“특별히 오늘 우리 항공사를 이용해 주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잠시 승무원을 주목해 주십시오.” 나이가 많은 스튜어디스의 안내 방송. 좌석 시트 아래의 구명조끼 설명을 듣기 전에 잠이 들었다.
“꺄악~”비명 소리에 정신을 차려 주변을 살펴보니 소란은 비상구좌석이었고, 불시착 안내 방송은 없었다. 오히려 부기장인 듯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조종실로부터 빼곡히 문을 열고 나왔다.
“잠시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항공기는 항공법 50조 및 항공보안법 46조에 의거 기내승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8A 비상구 좌석의 승객에 대하여 항공보안법 23조를 적용하여 다른 승객들로부터 격리조치를 하는 바입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착륙지가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회항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유림시의 기온은 섭씨 32도, 습도는 70%입니다. 원활한 착륙을 위하여 안전벨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디스 엔 젠틀멘. 블라 블라 블라.....”

유림공항에 도착하니 좁디좁은 창밖으로 보안요원 두 명이 대기 중이었다.

제9장

복귀

타는 듯 한 더위를 피해 가로수 그늘 아래 아내의 애마가 시동을 켠 채로 주차 중이었다. L의 세단과 같은 기종의 낮은 등급이었다.
“실장님이 오빠 니 찾던데. 연락 안왔드나?”
“어. 그냥반이 와 또 내를 찾노?”
“나도 모르지. 지금 함 가보자.”
“니 오늘 오프가?”
“어. 내가 말 안했나?”
“출발해라. 가시나야. 술 좀 그만 묵고”
실장은 다소 격앙된 표정으로 나를 맞이해 주었다.
“김교수. 니 복귀 발령 났데이.”
“예? 아직 한 달에 절반도 안 되었는데요?”
“어. 그라고 니 과장으로 승진 됐더만은. 논문은 카운트 하는데 별 도움은 안됐는데 국가과제 따온게 컷어. 욕봤다.”
“욕은 실장님이 보지요. 그라믄 일탈은 끝났네요.”이번에는 내가 자연스레 새끼손가락을 접었다 펴 보였다.
“참,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쁜소식도 있는기라. 내 명퇴다.”
직급이 실장이었으나, S실장은 나이로는 열 살 위 형님뻘 이었다.
“햄, 왜그래요. 싸나이가 가오가 있지.”
“가오가 있으니까 그만 뒀지. 우에는 니 대타로 하나 더 구했다.”
“실장님 월급이 글로 갔구만은. 내 살릴라고 그랍니까? 고마 치우소.”
“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애들은 졸업반 아이가.”
“인자부터 뭐 묵고 살라꼬 그 캅니까?”
“마누라 가게 기도를 서던, 아니면 옆 건물 지하에 실내 양궁장을 하던 속 편케 살아야지.”

실장의 사모는 유림시에서 손으로 꼽는 비즈니스 단란주점의 사장 이었다.
“낚시방을 하던가, 실내 컬링을 하소. 양궁보다 반응이 뜨겁잖아.”
“시끄럽고, 동기들하고 함 내려온너라. 스튜디어스급으로 원가에 주꾸나.”
“어스. 우리거? 하하. 그라입시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굿 뉴스 베드 뉴스라며 물었다.
“굿 뉴스부터 함 씨부리봐라. 어차피 둘 다 같은 뉴스겠지만.”
“내 통근발령 반려 되었다. 승진은 이번 달에 인사 고과 승인이고.”
“베드 뉴스는 뭔데?”
“내 통근발령 끝났다는거지 뭐.”
“오빠야. 굿 뉴스라면 이런 거다. 좀 배아라.”
“뭔데?”
대답대신 그녀가 내 손에 쥐어준 스틱에는 붉은색 두 줄이 선명하였다.
“하여튼, 단디 해라. 확 마.”
조용히 안아 주었고, 품속의 아내가 내 가슴에 뜨거운 방울을 남겼다.

제10장

다시 고향

“형,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니 복귀 했어?”
“야. 내가 니가? 머리에 피도 안마른게. 감히 햄 한테.”
“애를 낳아야 어른이지. 형수 임신 했어?”L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다.
“했다. 우짤래? 얼라 똥만 한게 허구헌 날 반말 지껄이고.”
“레알? 진짜? 진정? 와... 형 추카해요. 사랑합니다. 형수님.”
“옆에서 듣고 있다. 그라고 추카가 아니라 축하다. 하여튼 있는 놈이 더해.”
“뭐 내가 살 거는 없어? 그 뭐지? 귀저기? 아니면 신발. 아...신발은 안된다. 도망가지. 아기띠 어때요?”
“됐다마. 나는 니 존댓말로만 해도 감사하다.”
“한 잔해요. 형.”
“한 잔은 느그 형수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축하 술은 유림에서 하자. 실장님 명퇴했데이.”

“S? 그 냥반은 뽕을 뽑았잖아. 애들 셋을 우리 학교에서 졸업 시켰으면 등록금만 해도 뽕 뽑은 거 아냐?”
“뽕은 니나 뽑아라. 축구 한다. 텔레비좀 보자.”
“뭔 축구?”
“피파 랭킹 1위랑 붙는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신경 좀 쓰고 살아라.”
“지금 피파 1위가 중요해? 근데 우린 몇 등이에요?”
“내가 아나? 지는 건 클럽에서 니가 스튜어디스 꼬실 확률이네.”
“우리가 2:0으로 이기는 거 아냐?”
“지랄 발광을 해라. 1등과 꼴지의 대결이다.”
“오케이. 암 더 원. 형. 팔로미. 나만 믿고 따라와. 우리가 이기는 데 합법싸이트로 30걸어. 내가 60배는 보장할게.”
“예. 니나 많이 하세요. 디비 주무시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나라의 2:0 승리 소식에 어안이 벙벙했고, 3만원만 했어도 180만원이 되었을 경기에 남는 아쉬움은 전혀 없었다. 공부는 못해도 좋고, 운동 신경은 아빠를 닮았으니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면 했다. 손가락, 발가락 열 개면 그저 고마울 따름 이었고, 급히 산부인과 동기들을 수소문 하였다.
“네 형. 발령 났다면서요? 진급도 했던데요? 역시 연륜은 못 속여요. 축하 드립니다. 짝짝짝.”H가 입으로 박수 소리를 내었다.
“소문이 발 보다 빠르다드만은, 벌써 거 까지 갔나? 근데 우리 동기 여자 애들 중에 누가 산부인과 전공했지? 수도권에 말이다.”
“다 알아봐 놓았지요. M 있잖아요. 박사과정 때려치우고 P원장 밑에서 부원장 해요. 담 주 초진 잡아두었으니까, 열차타고 올라와요. 픽업 갈게요.”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밤도 아버지는 불면의 정신으로 빈총을 들고 유림공항에서 유림항공의 봄바디어 CRJ200을 쏘아보고 있을 것이다.

* 이 글을 나의 동생에게 바치며.*

파리에서 만난 아버지

일반부 우수상 · 수필 / 안혜경

1992년, 5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쥔 날 아버지는 내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날아올랐다.

아버지는 6.25 전쟁의 회오리바람 속에 남쪽으로 떨어져 나온 실향민이었다. 입고 있는 옷 외에 가진 게 없던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 시절 언니들과 내가 항상 듣던 신화 같은 이야기였다. 그것은 박혁거세가 알을 깨고 나온 이야기만큼이나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렸고 상상하기도 힘든 전설이었다.

하지만 신화가 주는 감동과는 달리 현실에서 마주치는 아버지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살기 위해 악착같이 번 돈은 목숨처럼 소중했기에 우리는 옷 한 벌, 연필 한 자루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다. 그의 시계는 1950년에서 멈춰 서 있었고 시선은 북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배를 곯지 않는 것만으로도 호사고 의복을 갖춰 입는 것만으로도 사치라고 생각해야 했다.

그러나 1970년대, 8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아버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아버지가 말이라도 붙이고 싶어 하는 기색을 보여도 나는 휑하니 방으로 들어와 버리곤 했다. 나에게 아버지는 거북스런 손님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루고 나는 예정대로 유럽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유럽 여행이 나의 오랜 꿈이기도 했지만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지 않던 아버지가 이미 값을 치룬 비행기 티켓을 버렸다는 사실을 안다면 관 뚜껑을 열고 뛰쳐나와 노발대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밀어붙였다.

바야흐로 배낭여행 붐이 일기 시작하던 때였고,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었다. 모든 것이 겁이 났지만 직장에 대한 걱정도,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생각도 그곳에서라면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탄 비행기는 홍콩을 거쳐 목적지인 파리까지 가는 비행기였다. 홍콩에서 두 시간여 체류(transit)하는 동안

기내 밖에라도 나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었으나 혹여 비행기가 나를 태우지 않고 떠날까 두려워 그곳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불안한 마음으로 도착한 프랑스는 상상했던 것만큼 멋지지 않았다. 거리의 모습은 이국적이었으나 그저 TV 화면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다. 그림 같은 에펠탑도, 개선문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센강은 무심히 흘렀고 고흐는 음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너무 기대가 컸을까? 아님 내가 머리가 복잡해서 이러는 걸까?'생각하면서 그래도 여행을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마음을 달래며 프랑스를 지나 유럽 이곳저곳을 떠돌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침내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서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를 탈 파리로 일찍 돌아와 일주일 동안은 그곳에서 지내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무언가를 보겠다고 관광지들을 돌아다닐 때의 공허함과는 달리 한 곳에 머무르고 있으니 오히려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행 전 유럽은 늙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것이 역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했다. 그곳에는 노인들이 정말 많이 눈에 띄었다. 특히 프랑스는 유난히 그랬다. 나는 대학시절 불어가 전공이었기에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그래서 길을 찾을 때는 한가해 보이는 노인들에게 물어보았는데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다. 불어를 한다는 사실에 반색을 하며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어딜 다녔고 무얼 보았는지 등등 많은 질문을 하며 나를 붙잡았다.

그게 어쩌다 한 명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노인들 대부분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 바쁠 게 없는 나는 가능한 한 그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지만 내심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한국 유학생이 의문을 풀어주었다. 외로워서 그런 거라고. 장성한 자식들이 떠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은 말할 상대가 별로 없어서 말이 통하는 여행객을 만나면 대화하고 싶어서 놓아주지 않는다며 길을 물을 때는 차라리 젊은이에게 물어보라고 조언하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노인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고 아직 젊은 나는 그것에 대해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그날은 '아! 그럴 수 있겠구나.'생각하며 숙소로 돌아왔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공원에서 한 노인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노인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그보다도 내가 놀란 것은 그 모습이 아버지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다. 그 모습, 그 태도의 무엇인가가 아버지를 생각

나게 했다. 불현듯 '아!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참 외로웠구나.'하는 생각이 벼락 치듯 가슴을 쳤다. 어린 시절 너무 자주 들어서 무감해진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가 떠올랐다.

돈 한 푼 없는 아버지가 어느 날 낯선 장소에 던져졌을 때 무엇을 가장 걱정했을까? 지주계급으로 몰려 처형당한 부모님? 생사를 알 수 없는 형제, 누이들? 간직하고 있던 꿈? 그런 생각조차도 사치였을 것이다. 당장 먹고 사는 일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가족을 거느리게 되었고 그들을 먹여 살리느라 당신은 또다시 일을 해야만 했다. 가족을 굶기지 않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던 아버지에게는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우리가 자랐을 때는 이미 아버지와는 소통 불가능한 상태였고, 아버지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은 가족 부양하느라 평생을 다 바쳤는데 자식들이 얘기조차 하려 들지 않다니 배은망덕하다 생각했을 것이다.

'저런 표정으로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이렇게 단절된 관계 앞에서 우리도 할 말은 많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았을 것이다.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조근 조근 얘기를 해줬더라면 우리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나는 적어도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미련한 자식의 변명일 뿐이다. 속 깊은 자식이었다면 아마 당신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드렸을 것이다.

후회와 회한이 밀려왔다. 내 입장만 내세우며 장벽을 쌓아온 세월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하지 못했을까?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면서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터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조차 그처럼 울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날 나는 다만 손님을 잃었던 것이고 오늘에야 비로소 내 아버지를 영원히 잃었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외롭게 보냈다는 생각은 내 마음에 짙은 그림자를 남겼다.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나는 파리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잘 차려 입었든 허름한 차림이든 그들은 공허한 눈빛으로 벤치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다가 내가 말을 걸면 마치 눈에 불이 켜진 듯 눈빛이 살아나곤 했다.

그들은 내 안전을 걱정해주었고 소매치기로부터 지갑을 보호하는 법부터 잠자리, 음식까지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자식 이야기, 과거 이야기들…….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따뜻했었더라면 했을 법한 이야기들이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떨치고 일어서기가 죄스러울 정도로 그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관이나 경제관, 도덕관은 모두 그가 겪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아버지의 인생이 모범답안은 아니었지만 나름 아버지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것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아버지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주변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아버지의 행동이 틀렸다고 말했지만 그 역시 우리들의 잣대로 판단한 것일 뿐이다. 그 간극을 어쩌지 못하고 엇갈린 채 서로 사랑함에도 반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관계는 비극이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더듬었다. 수돗물을 틀어놨다고 호통 치던 모습, 방안의 불을 켜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고 화를 내던 모습. 그런 모습들 끝자락에서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를 업고 마당을 서성이던 아버지, 공원으로 배드민턴을 치러갔던 어느 공휴일 그리고 식당에서 유부우동을 맛나게 먹던 내게 자신은 먹지 않고 흐뭇하게 바라보다 당신의 몫을 덜어주던 모습…….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것은 아버지가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한참을 울었지만 한편으로 나는 행복했다. 나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를 되찾은 것이다.

때로는 여행이 삶에 휴식과 에너지를 주지만 누군가는 인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기도 한다.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낯선 곳에서라면 오히려 객관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겐 너무 늦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지만 이 여행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영 아버지와 불화하고 말았을 것이다.

무엇엔가 쫓기듯 떠났던 40일 전과는 세상이 달리 보였다. 공항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가방을 챙기는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어떤 호화로운 여행보다도 가장 특별한 여행을 했음을 깨달았다.

당신을 자카란다 그늘에 앉히고 싶어

일반부 우수상 · 시 / 장서란

당신을 자카란다 그늘에 앉히고 싶어
레이스로 짠 자리 위에서
푸른 차를 마시고 높은 케이크를 먹고
손으로 쌀을 맛보고 맨발로 걷다가
고양이와 다가오면 고개를 숙이는 거야

낯모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된소리 투성이인 말을 듣게 될 거야
세 개의 옹알이를 알아듣던 당신은
모르는 언어를 거뜬히 알아채고
분명 이 곳에서도 누군가를 웃게 하겠지

압테니아 오니소갈럼 란타나 로엘리아
당신이 모르는 꽃의 이름을 알려 주고 싶어
당신이 나에게 해 주었던 것처럼
낯선 것들에 둘러싸여 당신은 당신을 잊어버리고
먼 곳에 두고 온 웃음을 찾겠지

이쪽의 오늘이 저물면 서쪽으로 날아가자
저쪽은 오늘이 한창이니까
내일이 보이는 수평선으로 날아가면
당신은 내일보다 어제인 오늘에 있는 거야
하루씩 늦어지는 매일을 선물할게

당신에게 머나먼 어제들을 주고 싶어서
나는 당신과 함께 날아가고 있어
잠든 당신의 곁에 앉아 노래를 불러 줄게
당신이 나에게 불러 주었던 노래를
멀리 멀리 날아라 우리 비행기

알바트로스의 비상

일반부 우수상 · 수필 / 조강희

수평선을 마주한 채 적막만이 흐르는 백사장에 앉아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다. 찾아왔다가 돌아감을 알리는 파도의 목소리가 계속 그 자리에 있건만 어쩐지 아무도 없는 느낌이다. 며칠 후에 있을 자가용 조종사 지상학술과정의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한껏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이 새벽에 바닷가를 찾았다. 모두가 잠든 이 시간 나는 백사장 끝에 앉아 몸을 한껏 움츠리고,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 하늘 위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별들을 바라본다. 아직 달빛이 묻어있는 별들은 검은 바다 위에서 흔들림 없이 반짝이고 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어스름하게 누워있는 지평선 언저리로 흐트러져 날아가고 있는 새들이 보인다. 은은한 향의 별빛을 받으며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내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하늘의 모습과, 그 하늘 속의 한 마리의 새가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흙냄새가 나는 비행기가 떠오른다. 마당에 띄엄띄엄 박혀있는 작은 돌들을 하나씩 뛰어 밟아 대문 밖을 나가면, 바로 앞에는 작은 논이 있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멀리 바다와 군산공항이 보이는 작은 집.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갈대숲을 찾아오는 새들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던 그 집. 어렸을 적 나는 그 집에서 할머니와 단 둘이 살았다.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지만 기억이란 신기하게도 그 시간의 조각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갯벌에 나가 바다를 길어 오시거나, 밭에서 대지를 담아 오시곤 했다. 그래서 나의 하루 일과는 밖에 나가신 할머니를 기다리는 것으로 채워지곤 했다. 어느 날인가 한 번은 할머니께서 밭일을 나가시며 어린 나를 밭에 데려가신 적이 있다. 햇볕을 가려주시려고 밭 한 가운데 큰 검정색 우산을 펼쳐놓으시고 밭고랑에 이불을 깔아 그 위에 앉아 있게 해주셨다. 할머니와 같이 밭에 나온 것만으로도 신난 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신기해했다. 우산으로 반쯤 가린 하늘을 바라보던 나는 마침 흰 비행운을 그리며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았다. 아주 어렸을

적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 순간이 선명한 하나의 그림으로 박제되어 있다. 우산이 만들어준 그늘 아래서 보았던 푸른 하늘과 백색의 구름, 진한 황토 빛 흙냄새 위에 하얀 선을 그리며 반짝이던 비행기. 하늘에 대한 나의 동경은 이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다.

나의 동경은 하나의 선언으로 구체화되었다. 어릴 때 내가 다녔던 유치원에서는 생일을 맞은 아이에게 생일파티를 해줬다. 생일을 맞은 아이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축하와 선물을 한아름 받고, 마지막에는 앞에 나가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의 가사는 생일을 축하해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마지막 소절에는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무엇이 되고 싶다는 가사가 있었다. 생일을 맞게 되어 노래를 부르러 나간 나에게 선생님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 아직도 왜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지, 무엇이 그런 대답을 하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런 사람들을 '파일럿'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주셨고, 나는 나의 노래 마지막 빈 칸을 "나는 파일럿이 될거야."로 마무리했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파일럿이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가졌던 순간이다. 그 시간 이후로 나는 파일럿을 향한 꿈을 점점 키워나갔다. 비행기가 나오는 드라마, 항공월간잡지, 카달로그, 「탑건」을 위시한 비행기가 나오는 수많은 영화들, 프라모델 등을 수집하고, 비행기들의 시시콜콜한 제원들까지 외우곤 했었다. 그저 비행기가 좋아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꿨던 나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열정을 쏟아내었다. 한 번은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동생과 비행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앞자리에서 듣고 있던, 하얀색 비행 셔츠를 입고 있던 아저씨는 어린 아이가 아는 것이 많다며 꼭 커서 파일럿이 되길 바란다며 나를 격려해주었다. 처음으로 내가 되고 싶어 하는 파일럿을 실제로 본 것만 해도 정말 신기하고 짜릿한 일이었는데, 바로 그 파일럿 아저씨에게 격려까지 받게 된 나는 하루 종일 구름 위를 걷는 기분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선언은 현실 앞에서 좌절을 경험한다. 하늘을 향한 꿈을 늘 품으며 살아왔던 나는, 나빠져 가는 시력과 엄격한 기준 앞에서 결국 좌절하게 되었다. 항상 하늘을 동경하며 자라왔던 나의 좌절 앞에 세상은 야속하게도 냉정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버린 나는 멀어져가는 그 꿈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

다. 이제는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곳을 향해 내밀었던 손을 빼내었다. 이후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문학이라는 또 다른 나의 꿈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하늘에 대한 관심을 접고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분야를 찾게 된 것이다. 학부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문학에 대한 흥미를 깨달았고, 문학을 연구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문을 쓰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연구를 거듭하여 작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이후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조금은 여유롭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연구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평소에는 잘 보지 않던 그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 하나가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비행훈련원에 대해 홍보하는 포스터에 적혀있는 '당신도 파일럿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문구가, 홍보를 위한 포스터 특유의 문장임을 알고 있었지만 어쩐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포스터 앞에서 '그래, 나도 예전엔 파일럿이 되고 싶어 했지'라며 어릴 적 기억을 잠시 떠올려 쓴 웃음을 짓고는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그 날 이후 그 포스터는 내 마음 속에 작은 싹을 돋아나게 했다. 처음에는 심심함을 달래려고 조금씩 정보를 찾아보던 나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길을 내가 새롭게 걸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새로운 길에 대한 관심이 한 순간의 충동이거나, 어릴 적 꿈에 대한 감상적인 추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를 거듭 고민해 보았다. 하지만 고민을 거듭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길에 대한 나의 열망이었다.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그 새로운 길을 걷기를 뜨겁게 원하고 있었다. 새로운 길을 걷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나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하고 살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 파일럿이 되기 위한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고 상상했을 때 –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 진부함이 가장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기에 – '가슴'이 뛰곤 했다. 하늘에 올라 비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나를 너무나도 흥분하게 만들었다. 나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다가온 것이었다. 나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문학연구를 그만 두었고, 파일럿의 길을 걷기 위해 비행훈련원에 입과하게 되었다.

한 마리 새가 되기로 결심했던 과정을 다시 떠올려봤던 나는, 다시 시선을 돌

려 바다를 바라본다. 하늘에는 멀어져 가는 새들의 뒷모습만이 남아있다. 나는 그 새를 바라보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새 – 알바트로스를 생각한다. 알바트로스는 지구상에 있는 새 가운데 가장 큰 날개를 가지고, 가장 먼 거리를 활공하는 새이다. 다른 새가 바람을 이겨내며 하늘을 난다면, 알바트로스는 3미터가 넘는 날개로 바람을 이용하여 그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닌다. 날갯짓 한 번 없이 수백 킬로미터를 날고, 쉬지 않고 대양을 가로지르는 녀석은 단연 비행의 대가라 할 만 하다. 나는 그런 알바트로스가 되는 상상에 다시 빠진다.

"Right Clear, Forward Clear, Left Clear, Area Clear"
나의 Call out은 헤드셋을 통해 다시 나의 귀로 들어오고 있지만, 늘 들리던 교관의 복창은 들리지 않는다. 첫 번째 솔로비행을 위해 홀로 유도로를 지나고 있는 나는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평소에 해왔던 비행과 다르지 않다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비행에 집중한다. 활주로 옆 대기지역에 도착해 이륙을 위한 점검을 마치고 이륙 허가가 관제탑으로부터 나오기를 기다린다. 몇 대의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의 차례가 되어 활주로에서 대기하라는 허가를 관제탑으로부터 받는다. 나는 관제탑의 교신을 복창하고 활주로 중심선에 맞춰 비행기를 나란히 대기시킨다. 뒤돌아보면 몇 개의 언덕들은 항상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차근차근 하나씩 넘어왔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넘어야할 고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이 또한 잘 이겨내리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나의 꿈은 검은 활주로 위에서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솟아 있었다. 그 은은한 향의 꿈 안에서 나는 비상을 준비하는 알바트로스가 된다. 하늘이 아닌 지상에서 알바트로스는 마치 바보처럼 뒤뚱거리며 걷는다.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걷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알바트로스를 바보새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쩌면 나는 아직 지상에 머물러 있는 한 마리 바보새 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 둥지에서 곧 저 푸른 하늘을 활공하는 한 마리 알바트로스가 될 것이라 다짐하며 이륙을 준비한다.
"CESSNA, Cleared for take off, Runway 35."
관제탑으로부터 이륙허가가 떨어지고, 그동안 연습해왔던 절차를 또박또박 수행한다. 스스로의 몸을 펄럭이며 풍향과 풍속을 알리고 있는 Wind sock을 확인한 후, 측풍 이륙에 대비하여 조종간을 움직인다.

"Take-off!"
힘차게 스스로 외치며 출력을 높여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한다. 이륙속도에 다다르자 나는 조종간을 살며시 당겨 하늘로 솟아오른다. 측풍 이륙 방법으로 인해 나의 비행기는 마치 알바트로스의 걸음걸이처럼 살짝 뒤뚱거리며 날아오른다. 그 순간 나는 아이러니 하게도 하늘이 아닌 육지의 냄새를 떠올린다. 흙냄새가 풍기는 밭에 누워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던 어린 소년, 비가 오는 날이면 슬라이트 지붕을 타고 빗방울의 향기가 그리는 오선지 위에 음표로 날아오르던 비행기를 바라보며 꿈을 꾸던 소년. 그 소년이 이제 자기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적막이 되어버린 비행기 안에서 나는 내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창문 밖을 보며 다시 깨달았다. 나는 바다의 물결 위로 기쁨의 울렁거림을 토해낸다. 그것은 물리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잔잔하게 요동치는 나의 마음이리라. 나는 푸른 입김을 내뱉으며 다시 비행에 집중한다.

몇 주 뒤에 나는 이제 지상학술과정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상상으로만 그려봤던 것을 현실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마주한 것들로 인해 낯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이 길이 그렇게 내가 걷고 싶었던 그 길임을 다시 생각하면, 이러한 대면조차 감사하게 되면서 다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게 된다. 이 순간에 나는 그토록 갈망하는 하늘을 마주하고 서 있다. 아직 하늘은 어둠에 갇혀 그 푸른빛의 얼굴을 감추고 있다. 감추어진 하늘이 뿜어내는 차가움은 나의 몸을 움츠리게 만들지만, 이내 나는 다시 기지개를 펴 본다. 하루 중 가장 추운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찬란한 태양과 드넓은 창공은 얼굴을 드러낸다. 다가올 그 하늘을 향한 거침없는 알바트로스의 비상을 위해 나는 이 새벽을 이겨낼 것이다.

타슈켄트 가는 길

일반부 우수상 · 시 / 함국환

오후 5시, 지난 시절을 얼레로 감으며
두 팔 펼쳐 서역으로 날아갔다
아득한 공간 아래로 보이는
동서를 연결했던 타클라마칸 사막
땀 흘리며 달렸을 군마
시간을 마시며 걸었을 낙타들
그들의 비릿하고 묵은 발자국이
날개 아래에서 예닐곱 떠올랐다
꼬리가 구름을 수직으로 가를 때
기체 안으로 흡입된 몽실몽실한 끼니
먹고 나면 어디쯤 도달할까
지나간 모든 걸 품에 안고 가기에는
가늘어진 다리와 얇은 날개
프테라노돈* 타고 하늘 올라 저녁이 되는
서쪽으로 한참을 날아가도
머리 물들이던 해는 앞에 있었다
하늘에 닿아 능소화빛 얼굴 되면
담장 밖 사랑 잊게 될까? 초승달 뜨면
기억이 살아나는 비행기 안으로
모래 밟았던 발들 움추리며 스며들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접힐 날개에
양떼구름 꼬물꼬물 매달려 나부꼈다
어두워져 수 놓아진 별꽃을 보며
일곱 시간 날갯짓해 도착한 타슈켄트
손목시계는 자정, 벽시계는 저녁 8시

할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까레이스키 3세
숯내로 끌어 당긴 여인의 식당 벽에
삽 하나로 일궈낸 논이 걸려 있었다.

* 프테라노돈 : 텍사스의 빅벤드 국립공원 백악기 말기 퇴적층에서 발견 된 날개폭이 최대 15.5m가 되는 익룡으로 역대 가장 큰 비행동물

제6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중고등부

최우수상	수필	쉰 반찬 같은 가족이어도 좋아	김연주
우수상	시	백일몽	고은결
	수필	나의 놀이터에서 찾은 꿈	오다은
	소설	지키지 못한 약속	이광연
	소설	곧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유라
	시	날고 있다.	조건우

쉰 반찬 같은 가족이어도 좋아

중고등부 최우수상 · 수필 / 김연주

일어났어, 딸? 기러기에게 메신저가 왔다.
두바이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아빠라는 기러기한테 말이다. 나는 정해진 일과처럼 아빠의 안부를 묻는 메신저를 보냈다. 응, 아빠. 아빠는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아빠와 메신저로 안부를 주고받기 시작한 건 4년 전부터였다. 당시 아빠는 K 건설 자제부에서 대리로 일했다.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만 해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샐러리맨 가정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아빠에게 언제까지 평화로운 일상을 제공하지 않았다. 4년 전, 회사는 아빠에게 외국 지사로 발령을 내렸다. 외진 시골이나 땅 끝 마을도 아닌 다른 나라로. 바로 멀고도 먼 두바이였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아빠는 비명을 질렀다. 엄마를 붙들고 엉엉 우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매일 같이 학원비에 용돈에 손을 벌리는 나와 동생이 있었으니.
그렇게 역마살 잔뜩 낀 아빠의 두바이 강행군은 시작되었다. 출국하는 날 언제 오냐고 징징거리는 내게 아빠는 글쎄, 하고 말끝을 흐렸다. 처음에는 아빠와의 이별이 내 감정 상자에 대못을 밖을 만큼 힘들고 슬펐다.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은 연고와도 같아서 아프고 생채기가 생겼던 마음들을 점점 무디고 담담해져갔다. 엄마와 함께 울며 겨자를 먹는 날이 쌓이고 늘어가더니 어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버린 것이다. 그 사이 나는 어느 새 대학 걱정을 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40줄을 넘긴 아빠는 승진을 해서 과장이 되었다.
문제는 엄마였다. 철이 들고 보니 사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엄마였다. 언젠가 시골길을 가다가 두루미를 본 적이 있다. 짝 없는 홀몸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두루미가 있다면 바로 엄마와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다. 아빠가 두바이에 간 후로 엄마에겐 없었던 습관 하나가 생겼다. 바로 달력을 보는 것이다. 일요일 저녁마다 어슴푸레 해지는 하늘을 보며 달력 앞에서 날짜를 세는 엄마. 그럴

때면 난 항상 엄마에게 묻곤 한다.
“엄마 또 달력 봐?”
응. 엄마는 힘없이 대답을 하였다.
지금쯤이면 너희 아빠 반찬거리 다 떨어졌겠다. 몸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마음도 떨어지게 된다는 말은 우리 엄마에겐 통하지 않는 이야긴가 보다. 아빠의 반찬얘기가 나온 거 보니 나는 곧 택배를 보내야 함을 본능적으로 직감하였다. 역시 내 본능은 틀리지 않았나 보다. 그 일은 3일 내로 현실이 되었으니.
나와 엄마는 아빠의 타지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두바이에 한국 반찬을 보냈다. 김치나 젓갈은 기본이고 입맛을 돋우기 위해 오징어채 볶음과 김도 꼭 빼먹지 않는다. 외국 배송은 국내 배송과는 달리 염두 해 두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냄새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꼼꼼한 밀폐는 기본이며, 김치나 젓갈 등 발효음식도 보내는 것이기에 여러 가지를 예상하고 보내야 한다. 때문에 아빠에게 반찬 택배를 부치고 나면 우리 두 모녀는 고된 노동이라도 하고 난 듯 항상 녹초가 되어 버린다. 아빠 역시 그 수고스러움을 알기에 택배를 받고 나면 항상 맛있는 거라도 사먹으라며 용돈을 보내와 격려를 해주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에겐 반찬보다 더 중대한 일이 터지게 된다. 회사에 닥친 구조조정 문제가 그것이다. 신생도시였던 두바이에서 아빠가 속한 회사는 순조롭게 여러 건물을 완공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대형 입찰에 계속 실패하면서 인력철수와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안타깝게도 아빠 또한 그 광풍을 피해갈 수 없었다. 3년도 넘게 가족의 품을 떠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내팽개치다니.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분하다며 연신 눈물콧물을 닦아댔다.
‘장부출가생불환’. 아빠가 두바이 행 비행기에 몸을 실기 전 나에게 했던 말이었다. 사나이가 집을 나가 뜻을 이루지 않고는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꼭 업적을 남기고 오겠다며 장난스럽게 나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 때 나에게 그 얘기를 하며 환하게 웃던 아빠의 미소가 가슴 아프게 생각났다.
정리해고 직후 아빠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숨겼다. 아마도 많은 아버지들이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엄마와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 했다. 아빠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3일 전에야 전화를 걸어 비로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렇게 3년에 걸친 아빠의 두바이 생활이 막을 내렸다.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이다. 몇 년 동안 기러기 생활을 하던 게 몸에 배었는지 아빠는 자꾸 애먼 하늘만 쳐다봤다. 마치 다시 기러기가 되어 두바이로 날아가고 싶은 듯이 말이다. 그런데 아빠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 이틀 후, 두바이로 다시 돌아가고픈 아빠의 꿈 아닌 꿈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시작은 사소했다. 문득 엄마가, 당신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반찬 보낸 거, 거기 어머님이 보내 주신 오리지널 참기름도 있는데…… 공항에서 거릴까봐 작은 병에 나누어 담았단 말이야. 하고 입을 열었고 아빠는 못 받았다며 아깝다고 혀를 찼다. 아빠가 해고 사실을 늦게 말했기에 택배가 어긋난 것이다.

수저를 들던 아빠가 갑자기 말했다.

“그럼, 다 같이 두바이로 가자. 택배를 찾아야지.”

엄마는 이 시국에 무슨 가족 여행이라도 가려하냐며 아빠를 톡 쏘아붙였다. 하지만 아빠는 의견을 거둘 생각이 없는 거 같아 보였다. 이렇게 된 김에 오랫동안 못 해본 가족여행이나 해 보자며 엄마를 계속 설득하였다. 택배가 구실이었지만 아빠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기에, 가족 여행 겸해서 아빠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 가족은 11시간의 대장정을 거쳐 두바이로 건너갔다. 어떠한 마음의 짐 없이 두바이 비행기를 타도 이렇게나 길게 느껴지는데 아빠가 모든 걸 정리하고 우리에게 올 땐 얼마나 더 긴 시간을 버텨야 했을 지를 생각하니 마음 한 구석이 아려왔다.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려 택배의 발자취를 찾았다. 택배조회를 해보니 다행히 택배는 아빠가 예전에 살던 집에 배송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반찬택배를 위해 아빠가 살았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빠의 집을 가려면 필수코스를 거쳐야 하는데 바로 사막횡단이었다. 회사가 건재할 땐 알아서 다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티브이에서 보던 휘황찬란한 두바이와는 거리가 먼, 기반시설이 안 갖춰진 오지였다. 우리 가족은 커다란 지프차를 타고 사막을 넘었다. 부드러운 모래 위를 달리고 있으니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막혀있던 속이 뻥 뚫리는 듯하였다. 아빠 역시 다시금 사막에서 자동차를 모니 많은 감정들이 겹쳐지나 보다. 애써 내색하진 않지만 울먹울먹한 눈빛을 볼 수 있었다. 엄마 역시 그런 아빠가 안쓰러웠는지 말없이 아빠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우리를 집어삼킬 듯 한 모래의 늪을 뚫고 아빠가 살았던 민간인 집에 도착하였다. 하얀색의 커다란 이층집 앞에 낯익은 택배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는 택배를 보자 재빨리 달려가 포장을 뜯어보았다. 택배 상자를 열자 두바이의 날씨에 적절히 숙성된 반찬들의 냄새가 코를 때렸다. 쉰 반찬냄새는 코뿐만 알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마저 알싸하게 만들었다. 힘들게 반찬을 쌌지만 아빠에게 먹이지 못 해 아쉬운 마음의 엄마. 쉰 반찬처럼 해고로 인해 마음까지 쉬어버린 아빠 자신. 한동안 우리는 반찬택배와 함께 정적 속에 머물러야만 했다.

쉬이이이. 정적을 깨고 어디선가 바람소리가 났다. 모래폭풍이다. 아빠가 입을 떼었다. 아빠는 두바이에서 흔히 있는 모래폭풍이라며 얼른 집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였다. 우리는 모래폭풍을 피해 아빠가 살았던 집으로 들어갔다. 가벼운 바람소리에서 시작된 폭풍은 시간이 지나도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잠잠해질 때까지 탈춤을 추듯 현란한 몸동작의 모래폭풍만을 지켜봐야 했다. 엄마는 모래바람을 보다 이내 그 시선을 아빠에게로 향하였다. 여보. 그동안 자기가 나랑 연주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자기는 지금껏 우릴 위해 저 사나운 모래폭풍처럼 치열하게 싸워왔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힘 있지만 떨렸다. 엄마는 아빠에게 더 이상 혼자 짐을 지게 하지 않겠다며 이제 그 짐을 나눠들자며 말하기 힘들었을 얘기도 서슴없이 하였다. 엄마의 얘기에 그동안의 모든 힘든 감정이 북받쳐 왔는지 아빠는 얼굴에 손을 얹고 힘겹게 고개만을 흔들었다.

뜻하지 않은 두바이 여행은 아빠의 일로 인해 다사다난했던 우리의 감정을 한풀 잠재워 주는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 우리가족의 앞날엔 저 매서운 모래폭풍 같은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폭풍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거처는 언제든지 있고 함께 할 가족도 항상 있음을 이번 두바이 여행을 통해 알게 되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힘내보자. 아빠가 우리를 보며 의기투합을 하였다. 나는 엄마와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힘내자고 하였다. 우리는 뜨거운 두바이에서 서로의 뜨거운 손 온기만큼 뜨거운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다.

두 달 뒤 아버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두바이에서 사업 중인 다른 건설사에

서 경력을 인정하며 러브콜을 보내온 것이다. 아버지는 씩씩하게 짐을 싸서 두바이로 떠났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작업모를 쓰고 현장으로 나갈 때마다 나에게 메신저로 안부를 물어오곤 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힘주어 답변을 보낸다.

“아빠, 사랑해요!”

백일몽

중고등부 우수상 · 시 / 고은결

창밖을 보다가 잠들면 도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는 나라는 이름의 비행기가 떠나온 자리로 돌아옵니다
비행운에 새겨진 기억을 필름처럼 읽어내면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깨끗한 하늘을 보던
유년에 와 닿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외국에 있다고
그때서부터 나의 항로는 외국을 향해왔습니다
누가 어디에 가고 싶냐고 물을 때
아무런 고민 없이 외국이라고 대답하던 유년,
외국은 구름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습니다
가닿을 수 없는 하늘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그때마다 까닭 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손을 부드럽게 스쳐지나가는 허공이
내 뼛속 깊이에 새겨진 아버지를 통과할 땐
괜스레 아린 것만 같고
시린 눈에서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외국은 다다를 수 없는 나라[1] 입니다
그 나라의 대기는 나의 꿈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오랜 기억 속에서 어렴풋한 그리움이
아버지와 따라간 어머니에게 가는 입국절차입니다
내 머릿속을 여권으로 쓰면
외국에 다녀올 때마다 도장을 찍고
한동안 멍해진 채로 시차를 적응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면 눈을 뜨고 다시 창밖을 봅니다
창 안으로 바람을 불지도 않는데 또 눈이 시립니다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이 초면에 괜찮냐며 안부를 물어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면 어디에 가냐고 다시 물어옵니다
그러면 고민 없이 외국에 간다고 이야기 합니다

시차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여전히 날고 있습니다
아마도 손을 뻗던 유년 너머가 좌표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 크리스토프 바타유의 소설제목을 인용

나의 놀이터에서 찾은 꿈

중고등부 우수상 · 수필 / 오다은

"아! 나도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싶다."

비행기가 매일같이 뜨고 내리는 곳, 사람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공항은 언제 가더라도 새롭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설렘이 가득한 곳이다. 공항에 가면 여행 짐이 가득 찬 캐리어를 끌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떠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부럽기도 하지만, 언제나 설레고 활기찬 공항의 분위기를 좋아해 나는 공항에 자주 가곤 한다.

나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항상 공항 근처에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들리는 것은 여행객과 바쁜 비즈니스맨들을 싣고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소리로 비행기 동체와 공기와의 마찰로 생겨나는 "쉬이이- 익"하는 고음과 중저음이 섞인 독특한 소리였고, 저녁때는 야간운항 통제시간(Curfew Time) 전에 서둘러 착륙하기 위해 열심히 하늘을 나는 비행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크고 작은 비행기별로 나는 소리가 달랐으며 가장 큰 B747 항공기의 소리가 가장 중후하고 멋있었다. 하늘을 오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남들은 항공기 소음이라며 시끄럽다고 말하지만, 나에게는 그저 정겹고 재미있는 소리로 들렸다.

우리 동네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많아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공항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스레 공항은 어릴 적부터 나의 놀이터가 되었다. 오후가 되면 종종 엄마와 함께 퇴근하는 아빠를 마중하기 위해 공항에 가곤 했다. 아빠를 기다리는 동안 대합실 실내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여행을 떠나기 전 놀이터로 찾아온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놀기도 하고, 전시장에 들러 다양한 작품들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공항 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이 분주히 일하고 있다. 발권카운터 항공사 직원, 검색장내 보안요원, 대합실에는 자원봉사자와 미화원, 카트운반원이 있고, 도로에는 경찰과 발렛파킹 요원들이 바쁘

게 움직인다.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공항에서 내가 가장 관심 있게 눈여겨본 것은 항공기가 출발하거나 도착하면 나타나는 항공기 기장과 스튜어디스들로 기장이 앞장서고 3~4명의 스튜어디스가 뒤를 따르면 그 장면은 군대에서 제식훈련을 하는 것처럼 웅장하고 절도 있는 모습으로 공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와-아 정말 멋있다! 나도 이런 멋진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넋을 놓고 쳐다보곤 했다.

공항에서 내가 가장 자주 가는 곳은 공항 전망대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다. 금속으로 만든 커다란 물체가 활주로를 달려가다 하늘 위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것을 보면 마냥 신기해 "우와-"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그 광경을 보면서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한 꿈을 꾸었다. 공항 전망대에는 비행기의 모형, 비행 원리, 공항의 역사, 공항 시설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때는 설명을 읽어도 잘 몰랐지만 모든 것들이 궁금해 자세히 읽어가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가졌던 비행기에 대한 나의 관심과 호기심은 더욱 커져 비행기에 관련된 곳은 어디든 찾아가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탐구했다. 수없이 찾아간 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과 유럽 여행 중 나의 버킷리스트로 찾아갔던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기술 박물관 중 하나인 뮌헨 국립 독일박물관은 나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였다. 특히 이 박물관에는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던 최초의 비행기부터 최근 항공기까지 다양한 비행기를 볼 수 있는데, 에어버스 A300 항공기의 실물 크기 동체와 주 날개 엔진, 착륙장치를 그대로 붙여놓아 비행기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편에 있는 시코르스키 S-55 헬리콥터도 앞부분 표면 반쪽을 투명 아크릴로 만들어 내부에 어떤 구조와 장치가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전시된 비행기 대부분은 조종석과 내부를 보고 직접 체험 할 수 있게 하였고 엔진 뚜껑을 열어두거나 동체의 주요 부분을 잘라 내거나 분해해 놓아 마치 항공기 해부 학습을 하는 느낌이었다.

박물관에는 항공기 실제 모형뿐만 아니라 날개의 원리,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 비행기의 제어 등에 관한 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물론 항공기 개

발에 사용하는 풍동의 원리를 보여주고 실제 모델을 전시하고 있다. 또 특별히 고안된 소형 풍동과 가시화 장치로 현장에서 날개와 동체 주위의 유선을 가시화해 보거나 마노미터로 압력분포를 측정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m 크기의 모형 도니어 비행기를 조종해 보는 코너도 있다.

박물관 투어 중 가장 감탄했던 것은 우주전시관인데 이곳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빅뱅의 기원을 살펴본 직후 들른 우주전시관에는 유럽, 미국, 러시아 등 우주 선진국에서 개발한 각종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 그리고 우주선의 실물은 물론 부속 장비와 기구 등을 전시하고 있었고 실제 로켓 노즐을 절단해 내부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중앙에 있는 통제실에는 인공위성과 신호를 주고받는 영상을 재현하여 관람객들에게 실감 나는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고 바로 옆에는 모형 인공위성이 자전하며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7층 높이의 우주 로켓을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관람했는데 그 웅장함에 놀라 경외감까지 들게 했다.

빅뱅 이후 탄생한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 저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는 상상을 하게 되면서 나의 심장은 크게 뛰었고 이때부터 나는 로켓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렇게 항공기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 가면서 나의 관심은 점점 하늘을 나는 것에서부터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으로까지 확장되어 앞으로 도래할 우주 개척 시대를 여는 우주선 개발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이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공항에서 다양하게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나에게 우주에 대한 꿈을 갖게 만든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뮌헨의 독일 박물관 체험은 나를 항공우주 분야로 빠져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주에 관한 궁금한 것들이 넘쳐나 과학 다큐멘터리와 우주에 관한 전문서적을 탐구하면서 항공우주공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려 하였다. 우주에 관해 알면 알수록 항공우주의 기초분야인 물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더욱 물리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나는 이런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이론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장치들을 만들어 실험해 보기도 하였다. 골드버그 장치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역학적 원리를 배웠고 비행기 프로펠러의 원리가 궁금해 선풍기를 가지고 날개와 바람에 대해 실험해 보았다. 비행기가 뜨는 원리인 베르누이 정리 실험을 위해 직접 날개 모양을 깎아 날려

보면서 비행기 날개 단면(Airfoil)과 고양력 장치(Flap)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우주선의 구조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프라모델을 만들기도 하였고 최초로 달에 간 아폴로 우주선의 원리가 궁금해 그에 관련된 논문들도 읽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여 '유레카!'를 외친 것처럼 나도 내 가슴 속 안의 두근거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또한, 양자역학의 세계처럼 우리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한 세계를 발견했을 때의 희열을 느끼게 되었다. 아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비행기의 역학적 원리를 깊게 이해하게 되고 정겨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비행기가 과학적인 산물임을 발견하고 신선한 충격을 느꼈던 것 같다.

아직 우주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내가 공항에서 어릴 적부터 지켜본 비행기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 원리를 파헤쳐 갔듯이 우주선을 개발하여 우주의 원리를 풀어나가고 싶다. 나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과 더불어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요즘도 시간이 나면 가끔 공항에 들러 다시 한 번 하늘 위로 우주로 날아오르는 상상에 빠진다. 이렇듯 공항은 나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준 고마운 존재이다. 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난 후 더 큰 꿈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비전트립(Vision-Trip)을 떠났다. 이번 비전트립은 그동안 꿈꿔 왔던 항공우주공학자로서의 꿈을 구체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은 막연하게 비행기와 로켓이 좋아서 탐구하였다면 이제는 항공우주공학자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기회였다. 하버드, MIT, 예일, 콜롬비아 등 국제적 대학을 방문해서 선배들을 만나고 강의도 같이 들으면서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연구하는 선배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특히, MIT는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업적을 갖고 있어 항공우주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한다. 모두 부럽고 존경스러웠다.

나는 지금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잠시 부모님 곁을 떠나 강원도 산골 마을의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항공우주공학에 대한 꿈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자율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했다. 비록 혼자 떨어져 조금은 외롭고 공항과 멀어져 정겨운 비행기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밤하늘에 무수

히 떠 있는 별들을 보며 우주의 공항인 우주정거장과 우주발사체의 제작자가 되어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항공 물리학의 기본이론들을 열심히 익힌 다음 세계 항공우주 분야의 최고 기술을 가진 MIT 공대에 가서 항공우주 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 나에게는 어린 시절 공항 근처에서 지내왔던 시간들이 너무 값지고 소중하다. 공항이 내 어린 시절의 놀이터가 되었고 비행기가 내 꿈을 띄웠듯이, 오늘 나는 그 추억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아가는 꿈을 꾸고 있다.

지키지 못한 약속

중고등부 우수상 · 소설 / 이광연

무거운 마음만큼 여행용 가방이 묵직해 보인다.
3박 4일 중국 여행을 위해 챙겨야 할 물건이 넣어도 끝이 없다.
"중국에서 살 거니? 무슨 짐을 그렇게나 많이 챙겨?"
눈살을 찌푸리시는 아빠의 한 마디에 핑크색 고양이가 그려진 니트를 뺐다.
작년 생일 때 엄마가 사준 선물이었다.
"비행기 시간 늦겠다. 빨리 서둘러!"
아직 다섯 시간이나 남았지만, 아빠는 벌써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계신다. 나는 서둘러 일어났다. 바퀴가 달린 여행용 가방을 일부러 들고 힘겹게 나왔다. 그런 나를 힐끗 쳐다보신 아빠는 나의 손에서 여행용 가방을 뺏었다.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아빠에게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다.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하필이면 중국 여행이야?"
아빠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뜸 물어 보셨다.
"그 놈도 같이 온대?"
현관문을 열면서 들려온 아빠의 질문은 꼭 뒤통수가 말하는 것 같았다.
"아, 아니요. 엄마랑 둘이 간다고 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말을 더듬었다.
아빠는 차를 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나의 여행용 가방은 트렁크에 실려졌고, 나는 고민하다 아빠의 옆자리에 앉았다. 마음은 뒷좌석에 앉고 싶었지만, 아빠의 뒤통수를 보고 가는 것도 힘든 건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전벨트!"
이미 메어진 안전벨트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 때 문자 알림이 울렸다.

-단비야, 엄마는 벌써 공항에 도착했어. 단비는 출발했니?

엄마의 문자였다. 도둑질을 한 것처럼 두 손에 땀이 났다. 아빠는 나의 문자에

는 신경도 쓰지 않으신 듯, 앞만 바라보며 운전을 하셨다. 그런데도 심장소리가 두근두근 마이크를 댄 것처럼 크게 들려왔다.
답장을 보내는 대신 스마트 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어 버렸다.
차가 밀렸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서였다.
“중국은 땅 덩어리만 컸지. 도움이 안 돼!”
아마도 중국의 스모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사드 문제 때문에 한류사업도 막아 버리더니……. 나쁜 놈들.”
밀리는 차 때문에 짜증이 나신 아빠는 욕을 내 뱉으며 나를 한 번 쳐다보셨다. 그리고 헛기침을 하시며 입을 다무셨다. 다행히 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대답을 할까 고민을 하던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아빠는 연예인 사업을 하신다. 아빠의 직업란에는 ‘엔터테이너먼트 대표이사’라고 적힌다. 그렇다고 내가 유명한 연예인을 많이 본 건 아니다. 아빠의 회사는 연예인을 만드는 곳이었고, 그 곳에서 스타가 된 언니 오빠는 아직 한 명도 없었으니까.
“단비야, 다 왔다.”
아빠는 내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셨나 보다.
나는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기지개를 폈다.
“여행 잘 다녀와라.”
비꼬는 듯 한 아빠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차에서 내렸다. 트렁크가 열리고 난 여행용 가방을 꺼냈다. 공항에 함께 들어가지 않느냐고 물어보려다 말았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비행기가 뜰 수 있으려나…….”
“네?”
“아니야.”
아빠는 무슨 말을 하시려다 말았다. 아마도 엄마에 관한, 엄마의 새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겠지? 무슨 말을 해 주려다 엄마 때문에 아빠와 어색하기 싫어서 그냥 두었다.
한 손으로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른 손으로 스마트 폰을 눌렀다. 화면에 엄마라고 떴다. 주소록에서 삭제를 했다가 어제 새로 저장한 번호였다. 처음에는 ‘최수연’이라고 저장했다가 예전처럼 그냥 엄마라고 저장했다.
“여보세요! 단비니?”

엄마는 벨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받으셨다.
“어디니? 공항에 왔어?”
흥분된 엄마의 목소리가 바로 내 눈 앞에서 들려지는 것 같았다. 고개를 들어 보니 엄마는 2층 난간에 서 계셨다. 나는 한 눈에 엄마를 알아보는데, 엄마는 아직 나를 찾지 못한 듯 했다.
“올라갈게요.”
“엄마 보여? 어딘데?”
대답 대신 전화를 끊고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반쯤 올라갔을 때 쯤, 엄마가 나를 발견했다.
“단비야.”
엄마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 듯이 내려왔다. 엄마는 서둘러 내 손에 든 여행용 가방을 들었다.
‘나보다 여행용 가방을 기다린 거야?’
괜히 말도 안 되는 심통이 생겼다.
“안 본 사이에 많이 컸구나!”
고작 6개월 사이에 컸으면 얼마나 컸다고!
……몸무게만 늘었을 뿐이다.
엄마의 빈자리를 나는 먹는 것으로 채웠다.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를 냉장고를 채우는 것으로 대신하셨다.
생뚱맞게 구는 내가 어색했는지, 엄마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단비, 비행기 오랜만에 타 보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만 어렴풋이 기억이 날 뿐이다.
엄마가 건넨 비행기 표에는 28A라고 적혀 있었다.
‘하필이면 왜 28 일까?’
아빠와 이혼을 하고, 엄마가 집을 떠난 날짜가 28일이었다. 새로 받은 달력에 ‘28’이라는 숫자마다 빨간 매직으로 엑스를 그려 놓았다. 그런데 엄마는 나에게 28A 라는 비행기 티켓을 건넸다.
일방적인 대화는 엄마와 나 사이에 어색한 그림자만 짙게 만들었다.

“아직 탑승시간까지 남았으니까, 커피 한 잔 할까?”
“커피 못 마셔요.”
일 년 만에 만난 엄마에게 처음으로 건넨 대답이었다.
12살이 된 나에게 커피를 건네는 엄마가 못마땅했다. 그렇다고 내가 커피를 한 번도 마셔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 엄마가 실수했네. 단비는 코코아 마실까?”
솔직히 아무것도 마시기 싫었다. 엄마랑 마주앉아서 커피나 코코아를 홀쩍 거리는 것이 싫었다. 엄마의 생일선물로 마지못해 떠나는 중국여행만큼이나.

-알려드립니다. 베이징으로 떠나는 아시아나 항공기 3355가 중국의 스모그 대란으로 인해 결항되었습니다. 승객여러분께서는 확인하시어 탑승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엄마는 방송을 듣지 못하셨는지 커피숍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탑승권을 확인해 보니 우리가 타려는 비행기였다. 엄마에게 말을 하려는데, 다시 한 번 더 방송이 나왔다.
“비행기가 취소되었데요.”
“엉?”
나는 방송이 흐르고 있는 공중을 향해 두 번째 손가락을 찔렀다. 엄마는 그제서야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의 얼굴에 중국의 스모그만큼이나 짙은 어둠이 깔렸다.
“어떡하지?”
당황해 하는 엄마를 보니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가 나왔다.
“어떡하긴. 집에 가야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엄마를 보니 나의 말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모습 속에 엄마의 옛 얼굴이 담겨 있었다.
안절부절 못하는 엄마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엄마가 다른 비행기 편 알아보고 올게.”

함께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며 친구처럼 지냈던 엄마는 이제 어린 동생이 되어 나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있었다. 중국 여행을 꼭 같이 가자고! 가슴 속에서 물컹한 것이 금방이라도 올라올 것 같아서 나는 스마트 폰에 아빠라고 쳤다. 벨은 울리는데 아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단비야,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 엄마 생일이잖아."

애써 태연한 척 엄마는 말했다. 그런 엄마가 낯설게 느껴졌다. 이제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엄마다.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냉장고에 채워진 음식들을 먹어 치웠다. 엄마의 요리를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화가 났다. 인스턴트 음식으로 가득 찬 냉장고가 텅텅 빌 때까지 미친 듯이 먹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지방덩어리로 바뀌어져 갔다.

엄마가 해 준 밥이 먹고 싶었다. 그런데 엄마는 나를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당에 앉은 엄마는 나에게 메뉴판을 내밀었다. 특별히 먹고 싶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메뉴판을 보니 배가 고파졌다. 나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주문했다.

"여기 갈비탕 두 개 주세요."

엄마가 나를 쳐다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엄마를 만난 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눈을 갈비탕을 주문한 후 마주치고 말았다.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의 눈 속은 깊었다. 엄마의 눈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엄마의 얼굴은 울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얼굴은 보기가 힘들었다.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아서 행복해?"

나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흥분하면 목소리 크기 조절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아빠를 닮았다.

아빠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엄마에게 화풀이를 했었다. 반찬트집이나 집안 청소를 핑계로 아빠는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다.

"집에서 당신이 하는 게 뭐야!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 줄 알아?"

그럴 때마다 엄마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빠의 눈치를 보았다. 싱크대에 버려진 반찬을 손으로 쓸어 담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릴 때 아주 작은 한숨을 쉬는 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단비야, 미안해.”
엄마는 아빠에게도 항상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했다.
내가 봤을 때 엄마는 아빠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빠에게 잘못을 빌었다. 그런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나 역시 아빠처럼 엄마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다. 바보 같았던 엄마가 아빠를 떠나고도, 또 바보같이 잘못을 빌고 있다. 뜨거운 불에 덴 것처럼 몸이 달아올랐다. 찬물을 벌컥벌컥 소리가 나도록 마셨다.

교문 앞에 엄마가 서 있다. 그리고 엄마 옆에는 처음 보는 아저씨가 서 있었다. 좀 더 먼 거리에서 발견했다면 숨었을 것이다. 그러나 숨기에는 이미 늦었다.
“단비야!”
손을 흔드는 엄마를 모르는 척 지나가려는데, 엄마가 나를 따라왔다. 아저씨는 나를 예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렀다.
“저 아세요?”
화만 나면 멋대로 높아지는 목소리 때문에 교문을 나오던 친구들이 나를 힐끔거렸다. ‘방송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민희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제일 먼저 교실에 퍼뜨린 민희가 이 상황을 본 다면 또 뭐라고 소문을 낼지……. 안 봐도 뻔하다. 엄마의 차가 보이는 곳으로 달려가서 얼른 탔다. 엄마와 아저씨도 서둘러 차 좌석에 앉았다. 아저씨는 운전석에 앉고, 엄마는 옆 자리에 앉았다.
‘예전에는 엄마가 운전석에 내가 그 옆자리에 앉았는데…….’
소문이 싫어서 올라탔지만, 엄마는 그런 나의 표정은 전혀 읽지 못한 듯 했다.
“단비야, 우리 뭐 먹으로 갈까?”
“그냥 집에 내려 주세요!”
퉁명스러운 말투에 운전대를 잡은 아저씨가 웃으면서 말했다.
“단비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아저씨가 일부러 시간 내서 왔는데. 시간 좀 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저씨는 장난스럽게 나를 보면서 말했지만 그 모습에 나는 짜증이 났다.
나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아저씨는 억만금을 준대도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는 나쁜 사람이었다. 내 마음 속에 새겨진 세상 최고의 악당이다.

“집에 가고 싶다고요!”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가 아닌 내가 악당이 된 것처럼 무섭게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란 아저씨는 차를 세웠고, 엄마는 서둘러 내려서 내 옆자리에 앉았다. 내 손을 잡는 엄마의 손을 뿌리쳤다. 고장 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쏟아졌다. 당장이라도 차에서 내려 집으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온 몸의 힘이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다.
“단비야, 엄마랑 같이 살자! 아저씨도 단비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어.”
“왜 뭐든지 다 엄마 마음대로예요? 아빠랑 이혼한 것도, 저를 버리고 아저씨를 선택한 것도 모두 엄마 마음대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구요!”
불끈하고 솟아오르는 힘이 느껴졌다.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달렸다. 뒤에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달리고 또 달렸다.

갈비탕이 나왔다. 그리고 스마트 폰이 울렸다.
“단비야, 전화했었니?”
“비행기가 취소되었어요. 저 집에 갈래요.”
숟가락을 건네는 엄마의 손이 떨렸다.
“알았다. 금방 데리러 갈게.”
아빠에게 금방은 적어도 두 시간 이상이다.
아빠는 언제나 그랬다. 무서워서 잠이 금방 들지 못할 때, 아빠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러나 아빠는 내가 지쳐 잠이 들었을 때야 들어오셨다.
아파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을 때도 아빠는 금방 온다고 하셨다. 너무 아파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이미 삭제된 엄마의 번호가 기억나지 않았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나는 겨우 119를 눌렀다. 아빠는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야 병원으로 오셨다.
아빠는 이번에도 분명히 늦을 것이다.
갈비탕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코 속으로 쉴 새 없이 들어왔다. 배가 고팠다. 아빠와 단둘이 살면서 식욕만 좋아지고 살만 쪘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고, 갈비탕 속에 빠진 갈비를 젓가락으로 건져 먹었다.

맛이 좋았다. 앞에 누가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갈비탕을 허겁지겁 먹었다.
대파 몇 개만 남았을 때,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한 숟가락도 먹지 않은 채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단비가 배 많이 고팠나 보구나. 엄마 것까지 더 먹어!”
“내가 무슨 돼지인 줄 알아요?”
갈비탕을 건네는 엄마의 손을 탁 쳐 버렸다.
순간, 엄마의 손에 들려진 갈비탕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뚝배기는 깨졌다.
눈살을 찌푸리며 달려오는 아주머니와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를 보면서 아빠 앞에서 쩔쩔매던 엄마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 모습에 화가 나서 먼저 일어났다.
엄마는 갈비탕 두 개 값에 뚝배기 값까지 계산했다.
그 때 스마트 폰이 울렸다.
“아까 전에 내려줬던 곳으로 나와!”
예상보다 너무 빨리 도착했다.
“아빠니?”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가야 되는 거지?”
여행용 가방을 건네는 엄마의 손등이 붉게 부풀어 있었다. 갈비탕이 쏟아지면서 뜨거운 국물에 데었나 보다.
나의 발등에는 화상자국이 있다. 어렴풋한 기억과 엄마의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아빠의 커피가 엎질러져서 다친 자국이었다.
“당신이 커피를 너무 뜨겁게 태워 와서 그렇잖아.”
커피 잔을 아무 곳에 올려놓은 아빠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나를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친 이유는 오롯이 엄마의 몫이 되어버렸다.
희미한 흑백사진처럼 그려진 내 기억 속에 엄마는 빨래를 하고 있었고, 아빠는 신문을 보고 계셨다. 엄마는 힘들만큼 바빠 보였고, 아빠는 눈꺼풀이 내려올 만큼 지루해보였다.
나는 서둘러 약국을 찾았다.
“화상연고 하나 주세요.”

서둘러 뒤따라온 엄마는 나의 행동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약을 받고 계산을 하면서 엄마의 손등에 약을 직접 발라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등 위 화상자국이 찌리리 저려왔다.
“발라요.”
약을 건네받는 엄마의 손이 또 떨렸다. 그리고 붉게 부풀어 오른 엄마의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는 엄마에게 최대한 무덤덤하게 말했다.
“아빠 오셨대요!”
고개를 끄덕이는 엄마를 남겨둔 채 걸음을 떼었다. 여행용 가방에 달린 바퀴는 신나게 달리고 싶은데, 나의 두 발은 커다란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 힘겹게 한 발씩 떼는 나의 발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신발로 꽁꽁 숨겨놓은 나의 화상 자국이 또 다시 저려왔다. 신 나게 달리고 싶은 여행용 가방을 잠시 세워두고 뒤돌아섰다.
“엄마!”
일 년 만에 처음으로 불러본 이름이었다. 몇 번이라도 불러보고 싶었지만 차마 부를 수 없었던 이름이었다.
엄마가 나에게 단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듯, 나는 세상에 태어난 기념으로 엄마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리고 흑백사진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엄마의 얼굴을 또렷이 보고 싶어서 눈을 큼직큼직 떴다.
‘엄마! 나 보여요? 나는 보여요!’
환하게 웃는 엄마의 얼굴은 조금씩 색깔을 입어갔고, 나는 엄마의 이름을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불렀다. 그런데 지금은 일 년 만이다.
대답을 하는 엄마의 입술이 떨린다.
어쩌면 엄마는 처음부터 온 몸을 떨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엄마의 손에서 약을 빼앗아서 뚜껑을 열었다. 은색으로 감싸고 있는 곳을 뚜껑의 뾰족한 부분으로 뚫었다. 하얀 연고가 기다렸다는 듯이 솟았다. 손가락에 올려서 엄마의 손등에 살살 펴서 발라주었다. 자꾸만 엄마의 눈물이 손등에 떨어져서 한 번 바를 연고를 두 번, 세 번 발라야 했다.
“하루에 세 번씩 꼭 바르래요.”
나는 약사선생님의 말을 대신 전해주었다.

“단비야, 고맙다. 그리고 미…….”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 듣고 싶어서 엄마를 안았다. 엄마는 정말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나의 귓바퀴에 엄마의 심장소리가 들렸다.
또 다시 스마트 폰이 울렸다.
“아직까지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야? 아빠 바쁜 사람인 거 모르니?”
아빠의 목소리가 스마트 폰을 뚫고 엄마에게 들려졌다. 아빠의 목소리에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빠 앞에서 엄마는 항상 저런 표정이었다. 내가 자라온 12년 동안.
엄마는 서둘러 나를 아빠에게 보내려고 했다. 엄마처럼 나도 아빠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엄마는 나의 등을 밀었다.
아빠의 차가 비상등을 켠 채, 뿌연 시야 속에 서 있었다.
비상등이 아니었으면 아빠의 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아빠는 통화중이었다. 내가 창문을 두드리자 아빠는 트렁크를 열어주었고, 나는 여행용 가방을 실었다. 엄마는 한 발짝 물러선 채, 나에게 다가오지 못했다.
엄마를 뒤로 한 채 차에 올랐다. 아빠는 내가 타자마자 바로 출발했다.
한 손에 전화기를 들고, 또 다른 손으로 운전을 하는 아빠가 불안해보였다.
고개를 돌려보니 엄마는 스모그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스모그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찾아오면 그 때 우리 다시 만나요. 오늘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비행기를 타요.’

곧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중고등부 우수상 · 소설 / 이유라

“객실 승무원 많이 힘들다던데.”
사람들이 내게 늘 하던 말이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나는 예쁜 유니폼을 입고 싶었다. 운이 좋게도, 3년째 객실승무원으로 일하는 언니의 권유로 강호항공의 인턴 승무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나는 유니폼을 입을 생각에 신이 났다.
하지만 현실은 기분 나쁜 꿈속에 있는 것만 같았다. 버스에 탔는데 양말이 짝짝이였다. 심지어는 버스도 잘못된 버스를 타서 첫날부터 비행 준비실에 늦어버린다.
양말 부분만 빼면, 사실 꿈이 아니었다. 버스를 잘못 탔다는 것을 알고 내린 다음에 다시 제대로 된 버스를 타고 비행 준비실이 있는 건물에 도착했다. 복도에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게다가 급히 뛰어가다가 높은 구두 탓에 발목을 다 칠뻔했다. 이런, 복도는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래 일한 것처럼 보이는 승무원이 나를 보고는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지나갔다. 나는 빨개진 얼굴로 수첩에 적어놓은 비행 준비실 위치를 살폈다.
“그냥 집에 있을걸.”
나는 투덜거리며 서둘러 준비실로 향했다,
음침한 층계가 너무 컴컴해서 앞을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는 탓에 계단을 뛰어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저기요. 건물 안에서 뛰면 안 되세요."
누군가 차가운 말투로 소리쳤다. 몸을 돌려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이라고는 볼 수 없는 복장을 한 여자가 보였다. 아까 나에게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낸 승무원 이였다. 나에게 천천히 걸어오더니 말했다.
“나머지 길은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러더니 그 말을 정확히 따르는지 확인하려고 내가 회의 준비실 앞에 도착할 때까지 나를 지켜봤다. 9분이 지나서야 비행 준비실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 긴장을 풀기 위해 심호흡을 한번 하고 훨씬 세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면서 선한 얼굴의 짧은 머리 여자가 나더러 들어오라며 성미 급하게

손짓했다.
오늘 있을 비행의 총책임자인 사무장님 이였다.
“오늘부터 인턴으로 오시기로 한 분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장님은 보고 있던 종이에 눈을 떼지도 않고 물었다.
“이름은?”
나는 대답했다.
“강하늘입니다.”
다들 나를 빤히 쳐다봤다. 사무장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며 물었다.
“강하늘 씨 헤어 상태가 왜 그러죠? 잔디밭에서 뒹굴다 늦으셨나요?”
다른 객실승무원들이 낄낄거렸다.
어릴 적부터 심한 악성 곱슬이었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비웃음거리가 된 적은 없었다.
왜 하필 이 짜증 나는 항공사의 인턴으로 일해야 하는 걸까?
“저는 기내 서비스 총괄을 하게 된 김미선 사무장입니다. 그 곱슬머리 좀 스프레이를 뿌리던지 왁스를 바르시던지 가서 정리 좀 하세요.”
김미선 사무장님은 내 손에 스케줄이 자세히 쓰여있는 서류를 쥐여주며 말했다.
가방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스프레이나 헤어왁스는 보이지 않았다.
“저기... 제 것 빌려드릴게요. 저는 박소윤이에요”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있던 어려 보이는 승무원이 다가오더니 헤어스프레이를 건네주며 말했다.
나는 긴장한 탓에 건네받은 왁스를 놓칠 뻔했지만 놓치지 않았다.
박소윤 승무원은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고 나는 아까 나를 비웃은 승무원들을 한 번씩 째려보며 따라갔다.
“여기 거울 있으니까 여기서 머리 정돈하시면 돼요."
박소윤 승무원은 웃으며 말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내 코를 찔러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는 쪽 머리를 하기 위해 헝클어진 머리를 빗었다. 박소윤 승무원은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내 뒤에 서있었다. 나는 허겁지겁 쪽 머리를 하고 헤어스프레이를 뿌렸다. 내 쪽 머리는 완벽했다. 나는 김미선 사무장님께 내 쪽 머리를 보여주고 싶었다.
아니, 자랑하고 싶었다.
“소윤씨, 저 머리 정돈 다했는데 이제 뭘 하면 되죠?”
옅게 미소를 띠며 물어봤다.
“음.... 이제 도착지 정보, 오늘 비행 편의 승객 사항, 안전보안....”
구구절절 말하는 박소윤 씨는 입사한지 얼마 안 된 게 틀림없었다.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눈을 번쩍 뜨고 나에게 말했다.
“그냥 비행 전 브리핑하러 가면 돼요."
“입사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여기서 일한 지 3달째 에요.”
박소윤 씨는 수줍어하는 얼굴로 말했다. 내 예상이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뭔가 기분이 좋았다.
“아 사무장님 기다리시겠어요. 빨리 가요!”
갑자기 박소윤 승무원은 뭔가 큰일이라도 날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고, 나와 박소윤 승무원은 회의실로 뛰어갔다.
나는 박소윤 승무원과 같이 회의실로 가서 의자에 앉았고 브리핑은 시작되자 사무장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비행의 주의사항들을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오늘 탈 비행기는 오사카행 KH722입니다. 40대 여성 단체는 컴플레인이 많을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시고, 오늘 퍼스트 클래스에 생일 축하 케이크를 주문하신 승객이 있으니 잘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세요. 아 그리고 어린이 승객도 많으니 안전에 유의해 주에요. 하늘 씨는 기내에 탑승하자마자 화장실 용품 정리해주시고요. 아셨죠?”
아침 일찍 일어난 탓인지 사무장님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늘 씨는 모든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셨나 보죠?”
까칠한 말투로 나에게 다시 질문했다
“네.. 네 그럼요. 당연하죠.”

나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당당히 대답했다.
사무장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번 웃고는 말했다.
“제가 방금 하늘 씨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말해보세요.”
'아 이런, 3초 전으로 돌아가면 죄송하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때였다.
“화장실 용품 정리요.” 옆에 앉아있던 박소윤 승무원이 조용히 속삭여 주었다.
박소윤 승무원은 천사가 분명했다.
“화장실 용품 정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박소윤 승무원 덕분에 대답했다.
“음... 좀 더 집중하세요.”
김미선 사무장님은 집중하라는 말을 하며 나를 째려보았다.
나는 박소윤 승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브리핑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후로 브리핑은 20분이 지난 후에야 끝이 났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선 사무장님의 말이 끝나자 승무원들은 구석에 가지런히 두었던 자신의 캐리어를 챙겨서 줄지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멍 때리던 나도 서둘러 뒤따라 나갔다.
우리는 회사 셔틀버스(Pick-up Bus)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아까 보았던 사무장님의 까칠한 얼굴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가지런한 이빨을 보이며 세상 온순한 미소를 띠었다. 다른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딱 봐도 초짜처럼 보이는 어색한 미소였지만 나도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내 첫 비행을 함께 해줄 KH722에 탑승했다. 나는 내 작은 캐리어를 학창시설 보았던 사물함 같은 곳에 넣고 있는 힘껏 닫았다.
하마터면 손을 찌일뻔했다. 나는 전문용어로 레바토리(Lavatory), 즉 화장실로 가서 브리핑 때 지시받은 내용을 떠올리며 비누, 휴지, 로션 등 화장실에 있어야 할 것을 말끔히 정리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한숨을 돌리며 쉬고 있었다.
그때였다.
“하늘 씨 멍 때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김미선 사무장님이었다.
사무장님이 말을 걸 때마다 나는 몸에 딱 달라붙는 유니폼이 더 쪼여온다.
“아까 지시하신 화장실 용품 정리 다 끝나서...”
나는 웅얼거렸다.
“어린애도 아니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할 줄 몰라요? 다른 승무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혼자 쉬고 싶으세요?” 사무장님이 버럭 소리쳤다.
가시처럼 따가운 소리에 눈물이 날뻔했다.
사무장님은 한숨을 한번 쉬더니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린이 손님이 많으니 카트에 술 대신 음료수를 많이 실어주시고 적포도주는 상온에 두고 백포도주는 차게 하세요. 그리고 기내식 체크도 하시고 그게 끝나면 신문을 접어서 잡지랑 같이 선반에 넣으세요.”
‘분명 사무장님은 마녀가 틀림없어.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나보고 다하라는 거야.’
나는 투덜거리며 그 수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
객실 승무원은 예쁜 유니폼을 입고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이건 가정부나 다름없었다.
이런 일을 3년째 하고 있는 우리 언니가 존경스러워졌다.
시간은 정신없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정신 차려보니 나는 기내 입구에서 ‘안녕하십니까?’를 로봇처럼 계속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인사를 하다가 실수로 혀를 씹어버렸다. 불행한 징조였다.
언니가 진상 손님을 만나서 무릎까지 꿇었었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났다.
‘도대체 무릎을 왜 꿇어야 하는 거야.’
나는 순간 화가 났다.
그 순간 내 눈앞에 40대처럼 보이는 여자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들어왔다.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케이지에 강아지를 넣는 것은 기본인 건 알고 있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친절하다는 말투로 조심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강아지는 케이지에 넣어야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던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다.
“얘도 제 가족인데 답답한 케이지에 넣어야겠어요? 우리 코코는 얌전한 얘니깐 그냥 데리고 탈게요.”
여자가 큰소리를 내자 다른 승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진상 손님에게 지지 말지는 마음가짐은 당황함으로 바뀌었다.
“어... 그래도 케이지에 넣으셔야 하는데...”
나는 손이 핸드폰 진동처럼 떨리더니 곧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손님. 손님의 소중한 강아지가 다치지 않게 케이지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속상하고 강아지가 답답해해도 안전을 위해서 케이지에 넣어주세요.”
어디선가 사무장님이 나타나셔서 나 대신해서 대처를 해주었다.
그 진상 여자 승객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강아지를 케이지에 넣어서 좌석으로 갔다.
사무장님은 나를 갤리로 데려갔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저런 상황 대처 하나 똑바로 못해? 최소한 다른 손님들께 피해는 드리지 말라고.”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말했다. 사무장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게 틀림없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죄송하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뚝 뚝 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무장님은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더 매섭게 말했다.
“울지 마. 뭘 잘했다고 울어? 다른 손님들한테 음료수 제공 안 할 거야?”
“지금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갤리에 있던 휴지를 한 장 집어서 눈물을 닦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갤리(galley)에서 카트를 끌고 나갔다.
“콜라와 사이다, 따듯한 차가 준비되어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수십 번 하면서 카트를 끌고 다녔다. 카트는 생각 보다 무거웠다.
항상 집에 오면 침대로 뛰어들어가는 언니가 존경스러웠다.
이런 일을 3년째하고 있다니!

그때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고개를 들러보니 박소윤 승무원이 기내식을 제공하던 도중에 진상 손님을 만난 것 같았다.
일본과 같은 단거리 비행 시에는 샌드위치와 같은 간단한 기내식을 제공한다고 들었었는데 그 승객은 샌드위치가 싫었던 모양이다.
박소윤 승무원은 나에게 도움 요청의 눈빛을 보냈고 나는 그 눈빛을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쪽으로 가면서 다른 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오사카행 비행기에서는 비빔밥을 기내식으로 드실 수 없습니다.”
박소윤 승무원이 안절부절못하며 말했다.
“나는 빵은 입에도 안 갖다 대 비빔밥 없으면 다른 밥을 가져와.”
그 남성 승객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나는 처음부터 나에게 친절해주었던 소윤 승무원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손님 지금 제공하는 이 샌드위치는 신선한 달걀로 만든 아주 맛있는 에그 샌드위치입니다. 저희 강호항공이 고급 제과점과 계약해서 제공하는 것이니 한 번 드셔 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나는 내 머릿속 온갖 대사를 조합해서 말했다.
“그렇게까지 맛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냥 먹을 테니까 가서 같이 먹을 포도주나 좀 가져와.”
남성 승객은 내게 툴툴거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포도주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나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갤리(galley)로 갔다.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들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려는데 박소윤 승무원이 들어왔다.
“하늘 씨 고마워요. 일한 지 3달이나 됐는데 손님이 큰소리를 치면 머리가 새하얗게 돼서...”
나는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왜 객실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질문을 던지자 박소윤 승무원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미소 띤 얼굴로 대답했다.
“초등학생 때 탔던 비행기에서 발작을 일으킨 승객이 계셨는데 어떤 승무원이

잘 대처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승무원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객실승무원이 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그 승무원이 김미선 사무장님이에요. 저도 김미선 사무장님 같은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박소윤 승무원은 목표가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생각이 깊어졌다.
'나는 왜 승무원을 선택했던 걸까?', '단지 유니폼이 예뻐서?' '인턴이 끝나면 뭐 하지?'
"제가 보기엔 하늘 씨도 멋진 승무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일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저는 이만 기내방송하러 가야겠어요. 빨리 포도주 가져다 드리세요"
박소윤 승무원은 갤리에서 나갔다.
나는 박소윤 승무원이 했던 말을 계속 곱씹었다.
'내가 이 일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
나는 단지 예쁜 유니폼을 입고 싶어서 인턴을 하게 된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일을 즐기고 있던 건 아닐까?
"곧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박소윤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계속 생각에 잠긴 채로 내 첫 비행을 마쳤다.
승객들이 다 내리고 나서 나는 기내 뒷정리를 했다.
그때였다. 김미선 사무장님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첫 비행인데 수고 많았어요. 많이 힘들었죠?"
내가 사무장님께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
울컥 눈물이 났다. 이런, 왜 우냐고 또 혼나겠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혼나지 않았다.
"아까 혼냈던 것은 나름의 내 애정표현이에요. 나는 하늘 씨가 다른 승객들에게 실수를 해서 욕먹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무장님은 내 어깨를 다독여 주며 말했다.
그 어떤 손길보다 따듯했다.
"제가 객실 승무원에 맞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니폼이 입고 싶어서 선택한 일이었는데 생각 보다 재미있는 것 같으면서도 힘들고..."
나는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김미선 사무장님은 엄마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때요. 일이 끝나니까 피곤하지만 뿌듯하죠?”
“네. 엄청 뿌듯해요!”
나는 대답했다.
“여기 있는 모든 승무원은 힘들지만 그 뿌듯하다는 성취감을 얻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딨어요. 하늘 씨가 인턴 기간이 끝나면 이 일을 계속할지 다른 길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늘 씨는 분명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김미선 사무장님은 이 말을 끝으로 다시 뒷정리에 집중했다.
‘내 인생의 목적지라...’

나는 1년이라는 인턴 기간 동안 내 인생의 목적지를 찾지 못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은 신나게 놀았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게임도 마음껏 하고 늦잠을 잤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허전함이 느껴졌고 2주가 지나서야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건 객실승무원이라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힘들긴 했지만 그때 느꼈던 성취감의 맛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곧장 컴퓨터를 켰고 강호항공의 정식 승무원에 도전하기 위해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목적지를 찾은 것이었다. 나는 지원동기란 첫 줄에 이렇게 써 내려갔다.

‘곧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날고 있다.

중고등부 우수상 · 시 / 조건우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섣불리 잠들지 못하는 몸을 이끌고
여전히 나는 날고 있다

푸른 파스텔톤의 하늘마저 깊이 잠든 새벽에도
구름 위에 실린 많은 꿈을
언젠간 닿을 하늘 끝에 데려가기 위해
여전히 나는 날고 있다

앞으로 남아있는 비행이 아직 두렵고
내가 가게 될 하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두렵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기에
여전히 나는 날고 있다

창밖으로 비치는 별들을 따라
그 별들이 그리는 궤도를 따라
그 궤도 끝에 있는 또 다른 별을 향해
여전히 나는 날고 있다

별들을 따라 새벽을 벗어나기 위해
별들의 궤도와 만나는 하늘의 끝으로 가기 위해
새벽을 넘어 찾아올 아침으로 향하기 위해
여전히 나는 이 하늘을 날고 있다

초등부

최우수상

수필	여행이라는 열쇠	박인찬

우수상

시	첫 번째 나의 소원	김주영
소설	꽃잎 소녀	김한슬
수필	열두 살, 우리들의 비행기 학교	박호원
수필	아빠가 사는 몽골	서연우
시	나의 첫 비행	장준서

장려상

수필	비행기와 함께 한 유럽여행	김강현
수필	낯선 곳에서의 나	김유호
소설	첫 해외여행	김윤아
시	통일비행기	노윤서
소설	구름항공권 한 장	노윤택
소설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노재환
수필	나도 라이트형제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다.	박서준
소설	나를 찾아가는 비행	박세진
시	비행기를 타니	백가영
시	나는 비행기가 되고 싶다.	신가은
수필	구름 위를 날아서 눈의 나라로	안규리
시	새들의 집	양 현
시	하늘의 문	오지석
시	맛있는 비행기 여행	이보성
시	내 마음 속 비행기	이서연
시	비행기	이예은
수필	세상 행복한 11명의 가족여행	이재민
소설	KE018 하와이행 비행기	정성현
소설	내 꿈은 비행사	조하선
수필	나의 첫 해외여행기- 따뜻한 나라, 따뜻한 사람, 따뜻한 마음	조현서
시	내가 탄 비행기	진휘준
소설	해피 (Happy)	최주원
수필	10시간비행끝에도착한캐나다에서의여행	한윤서
수필	추억과 아쉬움이 남는 괌	한채희
시	처음	홍연수

여행이라는 열쇠

초등부 최우수상 · 소설 / 박인찬

유독 차갑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던 11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다. 이불 밖과 속의 극명한 온도차가 더 이불속으로 파고들게 했다. 휴일이지만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했다. 정리하고 나니 다시 게을러졌다. 아침은 시리얼로 대충 때우고 창문을 열었다. 춥긴 했지만 나름대로 그런 겨울의 느낌을 즐기고 싶어 그냥 열어놓고서는 영화나 한편 보려고 노트북을 켰다. 볼게 있나 뒤지다 보니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귀찮았지만 전화를 받았다.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도원아 우리 여행 갈래?” 갑자기 들어온 질문에 놀란 나는 “응? 갑자기 웬 여행이야?”라면서 말꼬리를 흐리게 됐다. 그러자 친구는 “그냥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6시 자주 가던 카페.”라고 외치고 전화를 끊었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갑자기 여행이라니.....’라는 생각을 하며 시계를 쳐다보니 1시였다. 약속시간까지는 5시간이 남아 있었다. 집에 있어봤자 게을러질게 분명해서 간만에 스케이트를 타러 목동아이스링크로 향했다. 피겨는 18살에 시작해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했다. 고등학교 시절 남들이 다 말렸지만 시작한 피겨였다. 유연성은 사라진 29살이지만 11년 동안 꾸준히 했기 때문에 트리플 점프도 어느 정도 가능했다. 물론 뛰지는 않으려고 한다. 나의 허리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어서 요새는 많이 뛰어야 더블악셀이다. 링크장에 들어오니 2시였다. 5시쯤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끈을 질끈 묶고 들어갔다.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꽤 여유로운 공간 덕에 더블악셀, 더블러츠 두 바퀴를 도는 점프들을 연습했다. 얼마나 했을까 시계를 봤더니 30분 정도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번 트리플토룹을 시도했다. 성공이었다. 오랜만이었지만 잘 뛴 것 같았다. 트리플을 뛰면 마지막에 착지하며 들리는 빙판이 갈리는 특유의 소리가 있는데 그날은 잘 뛰어져서인지 그 소리가 더 귀에 잘 감겨왔다. 마무리를 하고 밖으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서 차에 올랐다. 약속 장소까지는 1시간 남짓 걸려서 여유롭게 운전을 했다. 1시간 뒤 마침내 약속장소에 도착했다. 친구가 먼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창가 쪽 테이

블에서 손짓을 하는 사람이 보였다. “빨리 와. 도원아!”내 직감은 역시 정확했다. 지우가 맞았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대충 눈인사를 하고 앉았다. 지우의 첫말은 “나 회사에 합격했어. 1개월 뒤부터 근무를 시작해. 너도 회사 다니고 곧 나도 다닐 거고, 그러니까 그전에 여행 가자.” 물론 다른 친구들이면 괜찮다고 동의하고 신나게 여행 얘기를 했겠지만 지우는 사뭇 달랐다. 우리는 연애하지 않는 이성친구다. 남들이 보면 연애하는 줄 알 정도로 늘 함께였다. 우리는 절대 그런 감정이 없다. 근데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면 주변의 시선은 우리를 연인 관계로 볼 게 분명했다. 그 순간 지우가 말했다. “나 승무원 됐어.”순간 말문이 막혔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대학 경영학과를 나와서 승무원을 한다니 분명 보수적인 지우 부모님이 반대를 했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오만가지 추측이 내 머리를 지나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우가 침묵을 깼다. “궁금하구나? 다 말해줄 테니까, 잘 들을 준비나 해.”지우가 머그잔에서 입을 떼며 말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2달 전쯤에 유라시아 승무원 채용을 시작했더라고. 사실 경영학과는 부모님이 원하셔서 갔지만 영 나랑 안 맞기도 했고, 여행 좋아하니까 서류를 냈지. 결국에 최종까지 합격해서 전화가 왔을 때 실은 좀 고민 했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지, 경영학과를 나온 남자 승무원이 되다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근데 그거 고민해도 의미가 없더라. 해보고 싶던 일이니까.”그 순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지우는 덤덤하게 나의 질문에 짧게 답했다. “아직 말 안했어.”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은데?” 지우는 기다렸단 듯이 답했다. “북유럽” 이제 막 정직원이 돼서 다니고 있는 회사에 긴 휴가를 신청할 배짱은 없었다. “지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아직 29살이라 젊기도 하고 기회는 많으니까 가까운 아시아 어때? 사실 우리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좀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지우는 내 소심한 말투에 대답했다. “젊으니까 가야지. 남들 시선 신경 쓰면 평생 아무것도 못해.” 매번 남들을 의식하고 살던 나라서 지우의 그 말 하나에 설득 당했다. “그래, 가자. 네 말이 다 맞아. 젊다고 다 미뤄두고 후회하는 건 싫어. 다녀오자. 북유럽” 용기 있게 말했다. 지우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 근데 북유럽 중에 아는 나라 있어?” “지리공부는 10년 전쯤에나 했는데 그게 기억나면 말이 되겠어?” 그러자 지우는 “나도 실은 잘 몰라. 그냥 한번쯤 가 보

고 싶었어. 동경의 대상이야. 왠지 거기 다녀오면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지우의 말이 나를 설레게 했고 기대하게 만들었다. “우리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고 일주일 뒤까지 각자 가고 싶은 북유럽 나라랑 관광지를 조사해 오자. 여기서 얘기만할 게 아니라, 더 생각도 해봐야 되잖아.”우리의 여행 준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우를 만나고 북유럽 조사를 하기로 한지 벌써 5일이 지나있었다. 물론 틈틈이 조사를 했지만 역시 어려웠다. 회사를 다니면서 정신없이 조사도 같이 하다 보니 다른 건 모르겠고 오로라가 눈에 들어왔다. 어렸을 때 과학 다큐멘터리인지 영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서 오로라가 나온 걸 보고 죽기 전에 한 번쯤 가봐야겠다고 생각 했던 것이 갑자기 떠오르자. 오로라는 꼭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오로라를 보려면 이번 겨울에서 내년 봄 사이에 떠나야 하니 속도를 내서 조사하게 됐다. 의지가 불타오르게 되었다.

어느새 지우와 약속한 일요일 점심 무렵 준비를 끝내고 카페에서 만났다. “조사는 해왔어?” 지우가 빠르게 물었다. “응 당연하지!” 열심히 조사했기에 당당히 답했다. “우리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녀오자. 나 산타마을도 가고 오로라도 보고 싶어.” 나의 여행 스타일을 지우에게 말했다. “도원아 나도 산타마을 가보고 싶은데, 우리는 핀란드에선 헬싱키로 갈 거잖아. 헬싱키에서 산타마을이 있는 로바니에미까지는 열차로 12시간이 걸린데. 차라리 그냥 헬싱키만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우는 나를 설득시키려했다. “우리가 언제 북유럽을 다시 갈지 모르는데 핀란드에서 헬싱키만 다녀오는 건 아니지 않을까?” 나도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길어야 9박 10일이잖아. 헬싱키에서 로바니에미가 왕복으로 24시간이고, 아무리 새벽 기차를 타도 로바니에미에서 하루도 못 있게 돼.” 지우 역시 의견이 확고했다. “알겠어! 일단 우리 먼저 대략적인 동선을 정하자.” 일단 나는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먼저 동선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응 그러자.” 지우가 담담하게 답했다. “인천에서 헬싱키까지는 직항으로 가고, 올 때는 오슬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오자.” 이번에는 내가 먼저 제안을 했다. “응. 나도 그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 지우도 이번엔 동의했다. 내가 알아본 항공권

을 보여줬다. “올해 12월 21일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핀란드에서 보내고 스웨덴은 잠깐 들리고 노르웨이에서 즐기다가 31일쯤 돌아오는 것 어떨까?” 저렴한 북유럽 항공권에 지우는 눈이 커진 채로 내 노트북 화면을 쳐다보며 말했다. “근데, 갈 때도 러시아 모스크바 경유해 가는 게 더 쌀 것 같아!” 지우는 내게 어떠냐는 표정으로 물었다. “나도 상관없어. 그러면 경유해서 가는 걸로 하자.” 나도 싼 게 당연히 좋다. 물론 4시간가량 더 걸리지만 그 정도로 30만원 차이면 당연히 경유였다. “올 때도 모스크바 경유해서 오슬로에서 오면 되겠지?” 지우가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응. 근데 올 때 하루가 추가돼서 1월 1일에 한국에 도착 하겠네.....” 조금 걱정되는 표정으로 내가 말했다. “도원아 1월 1일은 휴일이야!” 지우가 외쳤다. “오오 그러면 이걸로 예약한다!” 이번엔 내가 더 들떠 외쳤다. “응. 그러자! 그냥 여기서 결제하자.”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약과 결제를 했다. 여행이 한 달 좀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 지우가 호텔 예약을 내가 일정을 맡았다. “우리 진짜 가나봐!” 지우가 외쳤다. 항공권을 끊고 나니 설레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핀란드에서 4일 스웨덴에서 2일 노르웨이에서 3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지우가 물었다. “응 핀란드가 진짜 예쁘고 맘에 들어서 오래 머물고 싶어. 스웨덴은 스치듯이 지나갈 꺼라 아쉽지만 그래도 기대돼. 노르웨이는 송네피오르가 멋있을 것 같아.” 나 역시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좀 더 이야기를 하다 밥을 먹고 헤어졌다. 집에 들어와 일정을 짰다. 역시 북유럽은 조금 자료가 부족했다. “아아 어려워!” 조사 중에 머리가 복잡해져 소리를 질렀지만 그 조차도 행복했을 정도로 설렜던 때였다.

출근, 조사, 잠, 출근, 조사, 잠의 반복 끝에 일정을 짜내는데 성공했다. 어느새 여행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11월 25일 한 번 더 지우를 만나게 되었다. “지우야 호텔은 어떻게 됐어?” 지우는 당당한 표정으로 “당연히 다 됐지!”라고 말했다. “아, 그리고 핀란드에서 하루는 네가 있고 싶다던 산타마을에서 잘 거야.” 순간 무척 행복해졌다.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지우야 정말 고마워!” 우리 일정은 산타마을에 가게 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었다. 그날은 일정과 호텔 예약을 다했다는 약간의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여행보다는 가벼운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 여행까지 하루 남은 12월 20일 밤이 되어 있었다. “옷은 다 챙겼고 세면도구랑 여권만 챙기면 끝!”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짐을 챙기던 중 전화가 왔다. “도원아 핀란드 날씨 어때?” 지우가 굉장히 멍한 목소리로 물었다. “으응? 아마 한낮에도 영하일정도로 춥다고 하던데? 지금 입던 거에 하나 더 입는 식으로 챙기면 될 거야.” 내가 말했다. “아! 그리고! 내일 꼭 공항에 10시까지와! 우리 비행기 1시 20분이야.” 한 번 더 강조해서 내가 말했다. “응 내일 봐!” 지우도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짐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여권과 카드를 확인했다. 어느새 11시가 되어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다. 두근두근 설레는 나의 마음이 나를 쉽게 잠들 수 없게 했다. 자꾸 여행이 상상이 되어 들뜬 나머지 결국 2시에나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알람을 맞추어 놓은 대로 7시에 일어났다. 아침은 가볍게 먹고 옷을 입었다. 고민 끝에 연한 회색 니트, 청바지, 코트를 입고선 9시쯤 집을 나섰다. 달리는 공항버스를 타고 노래를 들으며 창밖을 보니 여행이 시작이란 것이 느껴졌다. 날씨 역시 엄청나게 맑았다. 공항에 도착해 지우를 만났다. “드디어 가는구나!” 지우가 말했다. “그러니깐!” 나도 신난 분위기에 동참했다. 우리 둘은 카운터까지 걸어갔다. 카운터에는 줄이 거의 없었다. “한산하다.” 내가 말했다. 우리는 15분 만에 체크인을 할 수 있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직원이 물었다. “핀란드 헬싱키요!” 우리 둘은 거의 동시에 말했다. 순간 같이 말한 게 재밌게 느껴져 피식 웃었다. 직원은 여권을 받아 빠르게 티켓을 뽑아냈고, 나와 지우의 가방을 수하물로 부치고 티켓을 보여주며 말했다. “네! 처리되셨고요. 두 분 좌석은 31D, 31E십니다. 짐은 목적지인 헬싱키까지 한 번에 갈 예정입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내리셔서 바로 그 건물에서 헬싱키 가는 항공편 ES667을 찾아가셔서 탑승하시면 되시고요. 저희 티켓은 두 개이고 한 번에 드립니다. 잘 챙겨주세요. 모스크바까지 가는 유라시아항공 ES764편 12시 45분부터 탑승 시작해서 1시 15분에 탑승 마감 합니다. 23번 게이트로 가시면 되시고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빠른 직원의 말을 알아듣느라 조금 어지러웠지만 그마저도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우리는 재빠르게 보안검색을 하는 곳까지 갔다. 제법 줄이 길었다. 시계를 쳐다봤다. 11시였다. 탑승까지 1시간 30분 남짓 남았지만 꽤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우리 차례가 됐다. 분명 위험물이 없어도 보안검색만 하면 떨리고 두렵다. 자연스럽게 바구니

를 가져와 지갑, 코트, 기내용 캐리어를 올려놓고 통과해 차례차례 출국심사가 지났고 작은 유리문을 넘어가니 화려한 면세점 구역이 나타났다. 3,4분 뒤 지우 역시 나타났다. “여긴 언제와도 좋다니까!” 지우가 엄청나게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리문 하나 차이로 이런 분위기가 나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반짝거리는 조명 ‘드르륵 드르륵’ 캐리어 바퀴들이 돌아가는 소리, 여러 면세점의 화려한 상품과 광고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클래식의 선율, 항공편 안내방송까지 이 모든 소리가 어울러져 공항이라는 음악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시간을 멈춰 계속 머물고 싶은 순간이었다. 우리의 비행기 탑승시간까지는 30분이 남은 상황에 딱히 쇼핑생각도 없고, 배도 고프지 않았던 우리는 게이트 앞에 앉아서 각자 책을 읽으며 여행의 출발을 기다렸다. “우리 모스크바 도착하면 뛰어서 환승구역에서 여권검사하고 헬싱키 가는 비행기로 갈아 타야해.” 지우는 가이드처럼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다. 10분후 비행기 탑승이 시작됐다. “승객 여러분 모스크바까지 가는 유라시아항공 ES764편 탑승 시작 합니다. 원활한 탑승을 위해 승객여러분께서는 미리 티켓과 여권을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는 줄을 서 기다렸고 얼마 뒤 직원의 티켓 찍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강도원님, 모스크바까지 즐거운 비행 되십시오.” 직원은 티켓을 찍고 끝부분을 내게 건네며 말했다. 우리 둘은 비행기까지 걸어 들어갔다. “드디어 탄다!” 지우가 외쳤다. “이제 슬슬 실감이 나는구나!” 나 역시 웃으며 답했다. 비행기에서 티켓을 본 승무원은 우리를 자리로 안내해줬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북유럽 여행의 시작을 준비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ES764편에 탑승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유라시아항공 승무원 12명과 이성열 기장 그리고 김우성 부기장은 여러분을 모스크바공항까지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설렘을 나누는 곳 유라시아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내 안전방송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모두 앞좌석에 달린 화면을 주목해주십시오.” 5분쯤 뒤 안전방송이 모두 끝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났다. ‘띵’ 경쾌하면서도 건조한 기내에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나의 마음에도 행복이 울려 퍼졌다. 어느새 지우는 잠들어 있었고 비행기는 활주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10초쯤 지났을까 비행기는 가볍게 땅위로 날아가고 있었다. 마치 새처럼 말이다. 사실 무거

운 쇳덩이인데 비행기가 떠오른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긴 하다. 조금 지연 출발 하긴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다. 잠을 잘까 영화를 볼까 고민이 됐지만 역시 잠이었다. 옆자리를 보니 지우는 이륙할 때 아무것도 못 느꼈는지 세상모르고 자고 있었다. “그러면 나도 자볼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다. 얼마 안 지나 일어났는데 식사 서비스가 한참이었다. 지우를 깨우자 승무원이 다가왔다. “식사로 소고기 스테이크와 비빔밥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전 비빔밥이요.” 지우가 몹시 배고픈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소고기요.” 고민 끝에 소고기를 먹고 저녁은 한식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네! 음료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전 오렌지주스요.” 이번에도 지우는 망설임 없이 빠르게 답했다. “저는 콜라요.” 나도 이번엔 바로 답했다. “네!” 승무원은 재빠르게 식사를 준비해줬다. 밥을 먹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기내식은 양이 적기도 하고 금방 먹을 수 있었다. 물론 과정은 복잡했지만 식사를 하고 나니 더 졸려오기 시작해서 자다보니 그 다음 기내식은 먹지 않게 되었고,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모스크바까지 1시간가량 남아서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다. 삼각 김밥과 머핀이 들어 있었다. 지우는 계속 자고 있었고, 나는 간식을 먹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일기를 썼다. 시간이 제법 지나 5분후 착륙하겠다는 안내 방송이 들려왔다. 지우를 깨웠다. “일어나! 박지우!” “응? 벌써?” 지우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도착인걸 알았나보다. 금세 비행기는 모스크바공항에 착륙했다. “승객 여러분 저희 항공기는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체보 국제공항에 도착 하였습니다. 항공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앉아 기다려 주십시오.” 비행기는 느리게 공항게이트까지 갔다. “승객 여러분 저희 항공기가 게이트에 연결 되었습니다. 차례대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곳의 날씨는 매우 맑으며 영하2.1도 입니다. 설렘을 나누는 곳 유라시아와 여행을 시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승무원의 말이 끝나자 문이 열렸고 우리 둘은 비행기에서 내려 환승 구역으로 달려갔다. 그때가 5시였고 비행기 출발은 7시 30분이었다. 한참을 달려 환승 심사로 여권검사, 휴대물 검사가 끝나고 비행기가 있는 곳 까지 한참을 뛰어갔다. 우리는 빠르게 게이트 앞에 섰다. 6시 15분 탑승까지 45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 모스크바를 들리기라도 했으니 뭐라도 하고 싶어졌다. 한참을 둘러보니 모스크바 붉은 광장 사진이 보였다. “우리 여기서

사진찍자 모스크바 온 것처럼!" 지우가 제안했다. "좋아 모스크바에 잠깐 있었다는 거라도 남겨야지!" 나 역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서 서로 사진을 찍었다. 옆에 기념품 가게도 보였다. "모스크바 그려진 엽서 살래?" 이번엔 내가 먼저 제안했다. "응! 난 다른 것도 보고 싶어." 지우는 아기자기한 소품을 모으는 걸 좋아 한다. 내가 보기엔 그건 좁은 지우의 방을 더 좁게 만들지만 나 역시 같은 취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한다. 짧은 모스크바의 시간이 지나가고 탑승이 시작됐다. "환승은 처음인데, 생각보다 쉽다." 지우가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예상외로 쉬워서 약간 김이 빠졌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말이야." 나는 조금 아쉬운 표정으로 답했다. 우리는 인천에서 받은 두 번째 티켓을 꺼내 직원에게 줬고, 러시아 사람으로 보이는 직원은 한국 직원과 다를 바 없이 빠른 속도로 처리를 했다. 우리는 좀 작아 보이는 비행기에 탔다. "여기서 헬싱키까지 얼마나 걸려? 내가 물었다. "1시간 정도 걸린다던데? 생각보다 가깝더라고." 1시간이라니 제주도 수준으로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떴다가 바로 착륙 하겠네." 나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들을 수 없는 빠른 속도의 러시아어 안내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지고 우리 비행기는 이륙했다. 어두컴컴했지만 사진으로 남겨 두고서 다시 일기의 두 번째 장을 쓰기 시작했다. 지우 역시 자지 않고 일기를 쓰고 있었다. "있지, 여행 오면 별거 아니어도 별게 된다." 내가 말했다. "일어나는 거 한국에선 되게 싫은데 여기선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에 금방 눈이 떠지고 걷는 것도 걸으면서 풍경이 바뀌니까 너무 좋아. 똑같은 걸 벗어나면 무섭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즐겁잖아. 나는 이번 여행의 기억으로 앞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어." 내가 말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이니까 착한 척 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웃을 필요 없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온 거잖아." 지우의 말은 왜인지 나를 공감하게 만들었다. 늘 지우는 웃고 있었다. 지우가 함부로 화내는 걸 본적도 없었고, 우리가 싸울 때면 지우는 늘 미안하다고만 했다. 그런 생각들을 실고서 비행기는 날아가 헬싱키에 도착했다. 비행기는 게이트에 멈춰 섰고 우리는 바로 내렸다. 지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12월 21일 금요일 8시 34분." 우리 여행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는데 한참을 돌아 지우의 회색 캐리어와 나의 하늘색 캐리어를 찾을 수 있었다. 120만원씩 환전한 돈을 지갑에 채워 넣었다. "핀란드는 유로를 쓰니까 유로만 꺼내놔." 지우의 말

에 “응”이라고 짧게 답하고 “우리 지하철을 타고 헬싱키 시내까지 가야되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티켓은 5유로래.” 지우는 대답 대신 지하철을 찾아가서 카드를 넣고서는 티켓을 뽑았다. 신기하게도 티켓을 넣는 기계도 검사하는 사람도 없었다. “핀란드는 지하철이 엄청 깨끗하고 예쁘네.” 그래서 북유럽 감성이라고 하나.” 내가 말하자. “한국에 돌아가면 내 집도 북유럽 풍으로 꾸며볼까?”라며 지우가 웃으며 답했다. 기대감으로 가득 했던 우리가 탄 지하철은 금방 시내까지 갔고, 헬싱키 역은 엄청나게 컸다. 우리 숙소 호텔은 10분가량 걸어가면 나와서 금방 가서 짐을 두고 나왔다. “우리 첫 일정이 저녁 식사야. 바로 순록고기! 핀란드 전통요리점에서 먹을 거야. 순록고기가 유명한데 가격이 조금 비싸. 근데 원래 핀란드가 워낙 물가가 비싸서 순록고기도 비싼 것 같아. 여기서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워낙 지우는 특이한 음식을 잘 먹지만 의외로 고기를 잘 안 먹는 편이다. “고기? 아! 순록고기는 다를 수도 있지 먹어보자! 궁금해.” 다행히 지우도 흔쾌히 먹어 보고 싶다고 말해줘서 순록고기를 먹으러 갔다. “여기 무슨 핀란드 가정집처럼 아늑하다.” 지우가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은 아니었지만 예쁜 소품으로 연출한 아늑한 분위기가 순간 핀란드 가정집에 온 느낌을 들게 했다. 금세 우리가 주문한 수프와 순록고기, 양고기가 나왔다. 천천히 수프를 떠먹고 순록고기를 입에 넣었다. “다른 고기랑 맛도 다르고 육질도 달라. 뭔가 좀 더 특유의 향이 있는데, 나는 그 향이 별로다. 근데 끌리긴 하네.” 지우가 오묘한 표정으로 말했다. “양고기는 푹 쪄서 부드럽고 양고기 특유의 잡내가 없고 간도 잘 맞고 채소랑 먹으니까 잘 어울려 거부감도 없고, 엄청 맛있다!” 내가 인생에서 먹은 양고기중에 제일 맛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았다. 우리는 말없이 많은 양의 식사를 해치운 뒤에 밖으로 나왔다. 헬싱키 대성당이 보였다. 어두운 헬싱키의 밤 속에서 빛나는 푸른색 돔은 우아했다. 푸른색의 돔 자체만으로도 환상적이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더 가까이 볼 수 있었다. 백색 건물은 까만 밤 속 한 마리의 백조처럼 보였다. “헬싱키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지! 루터교의 중심이라고 보면 돼. 1917년 핀란드가 독립 전까지는 성 니콜라우스 성당이라고 불렸다고 해. 바로 앞 원로원 광장의 동상은 러시아의 알렉산더 2세 동상이야. 핀란드가 러시아에 지배당했던 시절의 역사를 보여준다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게 조금 신기할 따름이지. 우리는 조선총독부나 일제의 잔재를 철거했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역사로 봐서 그런 건지. 나도 그건 잘 모르겠어.” 지우의 설명이 이어졌다. 꽤 쌀쌀한 핀란드의 겨울밤 내가 그곳에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누가 세웠고 왜 세웠는지는 중요치 않았다. 나에게는 내가 거기 서 있었다는 것, 즐길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중요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성당문은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큰 장식은 없었다. “이런데 오면 신자가 아니더라도 경건해지는 느낌이야.” 내가 낮고 작은 목소리로 지우에게 말했다. “응 왠지 기도도 해야 할 것 같고.” 그 말 이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성당의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지우 역시 나에게 아무 말도 안했지만 그 순간 눈을 감은 지우는 행복해보였고 평화로워보였다. 억지로 지은 웃음이 아닌 자연스러운 웃음이 지우의 얼굴엔 묻어 있었다. “갈까?” 기도를 마친 지우가 물었다. “그러자.” 우리는 다시 걸어서 호텔로 돌아왔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잘 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지우가 말했다. “응. 너도” 내가 답했다. 방으로 들어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있었던 짧지만 소중한 헬싱키에서의 첫날밤의 추억을 써 내려갔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며 말했다. “내일은 더 신날 거야!” 내가 나에게 한 말이었다.

알람은 어김없이 6시 30분에 울렸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조식을 먹으러 나갔다. 마침 지우도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다. “잘 잤어?” 지우가 물었다. “당연하지!” 상쾌한 얼굴과 함께 답했다. 핀란드에서의 첫 조식을 먹고 7시 20분에 출발을 했다. “핀란디아 알아?” 지우에게 물었다. “응 책에서 봤어.” 지우는 산뜻한 목소리로 답했다. “핀란디아의 작곡가가 얀 시벨리우스야. 그는 조국을 너무나 사랑해서 조국을 주제로 많은 음악을 작곡해서 핀란드 인들은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해. 600개의 파이프로 이루어진 특이한 모형과 그의 기념비가 있는 곳이야. 아침 산책 겸 준비한 일정이야!” “좋아! 아침 특유의 바람의 향기가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아침마다 환기시켜” 지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너무 진지한 표정이라 웃음이 터졌다. 우리는 트램을 타고 시벨리우스 공원으로 갔다. 천천히 구경을 시작했다. “바다네! 요트도 보이고.....” “응. 바단데, 강처럼 느껴져. 내가 생각하는 바다 이미지랑 많이 다르다.” 나의 말에 지우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답했다. 좀 걷자, 파이프가 나타났다. 그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면 소리가 울려서 엄청나게 크다는데 음치인

나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걸로 만족했다. “오르간을 표현한 걸까?”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음악이랑 관련 있어 보이긴 하다.” 제법 진지한 우리의 대화가 이어졌다. 천천히 걸으며 즐기는 여유가 참 좋았다. 세차게 불어오는 아침 바람, 날씨가 춥긴 했지만, 날씨가 추운 건 우리의 여행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냥 그 모든 순간을 눈으로 마음으로 담고 있었다. “이 시간이면 서울에선 출근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것도 엄청 바쁘게” 아침마다 분주한 나는 적어도 여기선 바쁘지 않다는 것에 만족했다. “토요일이어도 회사에 나갈 때도 있어서 그렇긴 하겠다. 난 취업 준비생이었잖아.” 한참을 걷고 사진도 찍어보고 뛰어도 보고 하루 종일 있어도 좋겠단 생각이 들었지만 우린 시간이 없었다. 10분가량을 걸어 웅장한 경기장에 도착했다. “1952년 제15회 하계 올림픽이 펼쳐진 곳이 바로 헬싱키야. 여기가 헬싱키올림픽의 주경기장 헬싱키 올림픽 스타디움이야.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핀란드에서 개최 되었지만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해.” 나의 달달 외워온 설명이 성공적으로 지우에게 전달됐다. “한국은 참가했어?” 지우가 물었다. “6.25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모아 참여 했었다고 해. 복싱과 역도에서 동메달 1개씩으로 종합 37위를 차지했어. 전쟁 중 이었던 걸 감안하면 좋은 성적을 낸 거지.” 스타디움은 갈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루어 차분하면서도 자연적이었다. 핀란드의 정서와 환경을 잘 담아낸 경기장이었다. 옆에는 높은 전망대가 있었다. 좀 더 걸어 들어가니 올림픽 수영장이 있었다. 60년가량이 지났음에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었다. “사실 유명한 관광 포인트는 아니야. 한번 와 보고 싶었어. 올림픽이 열린 곳에 66년 전 열정을 느껴 보고 싶었거든. 여기 오니까 심장이 뛰고 그러네.” 지우는 나의 말엔 관심이 없었고, 한참이나 올림픽 스타디움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기하다.” 뜬금없는 지우의 말이었다. “응? 뭐가?” “출신, 돈, 인종 아무것도 안 따지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거. 요즘은 부모랑 자라온 배경도 스펙이 되는데 올림픽은 그냥 오직 실력이잖아.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선수들도 멋지고 위대해.” “맞는 말이네!” 올림픽에선 아무것도 안 통한다. 오직 자신의 실력이 전부다. “자 이제 윈터가든으로 가자.” 5분정도 걸으니 유리 식물원이 나왔다. “여기는 그냥 식물원이야. 여유롭게 보고 나가자.” 겨울이여도 유리 온실 식물원이라 꽃들이 피어 있었다. 따뜻한 곳에 있다가 나오니 더 추운 느낌이었다. 시계를 보니 11시 35분이어서 조금 걸

어 핀란디아 홀에 도착했다. “핀란디아 홀 역시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에서 그대로 따온 이름이야.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축물로 알려져 있고 1971년 준공되었 학회나 공연이 열린다고 해. 기회가 되면 공연을 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구경하자.” 지우는 내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핀란드는 현대적인 도시면서 옛것도 남아있는 느낌이야! 완전 현대와 완전 고전이 만난 느낌? 신선한 조합이다.” 나의 말에 지우는 “응 근데 어색하지 않아서 재밌는 조합이야.” 라고 답했다. 안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사진을 찍고 나니 슬슬 배가 고파졌다. 꽤 걸어서 수제버거 가게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각자 주문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거가 나왔다. “수제버거가 한국이랑은 많이 다를 거야.”내가 지우에게 말했다. 지우는 이미 먹고 있었다. “오 여기 피쉬버거 되게 맛있다.” 지우가 말했다. “머쉬룸버거도 신선하기도 하구, 한국에서는 패티에선 사실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여긴 패티가 간이 돼 있어서 다른 소스가 많이 없는 것 같아.” 확실히 패스트푸드랑은 맛이 달랐다. “피쉬버거는 괜찮아?” 의아하긴 했다. 버거에 생선은 처음 봤기 때문이다. “응. 다른 데는 다 생선을 기름에 튀기면서 눅눅해지는데 여기는 생선이 식감이 살아있고 바삭하다!” 신선한 조합들의 버거와 함께 즐겼던 점심이었다. “우리 이제 뙤르 호수공원으로 갈 거야.” 핀란드 호수는 꼭 봐야겠다고 생각한 나의 일정이었다. “아무래도 핀란드하면 호수지.” 지우 역시 나와 비슷한 생각이었나 보다. 조금 뒤 뙤르 호수공원에 도착했다. “여긴 한국 호수 공원들과 다르게 자연을 활용해서 만들어 졌어. 다른 핀란드의 호수들보다는 넓이가 작아서 반대편 모습까지 다 보여서 사진을 찍으면 넓어 보인데.” 나의 설명이 호수에 울려 퍼졌다. “저기 하얀 건물은 오페라 극장이래.” 지우가 가리키는 곳을 봤다. “또 하얀색이네. 하얀색이 자연이랑 어울려서 그런가?” 나의 생각이 지우에게 전해졌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분쯤 호수를 걷다가 핀란드 국립박물관으로 향했다. “생각보다 작네.” 지우가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사실 핀란드는 유적지가 많지 않거든.” 내가 말하자. 지우는 듣는 둥 마는 둥 전시관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각자 구경하는 방식이 달라서 각자 보고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다. “유물은 역시 많지 않네. 좀 아쉽다.” 혼잣말로 속삭이고 핀란드의 역사 속으로 떠났다. 한참을 핀란드 역사 속을 거닐다가 지우와 약속한 4시 30분 현재로 돌아와 출구에서 만났다. “어땠어?” 내가 물었다. “핀란드도 러시아랑 계속 대립 관계를

이어왔잖아. 스웨덴과 소련 사이에서 고생도 많이 했어.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국민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 지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중 하나지만 잘 이겨 낸 거지." 나 역시 진지해졌다.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템펠리아우키오 교회로 가자!" 역사를 뒤로 하고 걷다 보니 책에서 본 듯한 암석교회가 나왔다. "이게 교회야?" 지우가 커진 눈으로 물었다. "응, 1961년 암반을 깎아내서 만들었어. 깎긴 했지만 내부에는 울퉁불퉁한 암석이 그대로 있어서 자연 그대로 느낌이래. 천장은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사이가 유리로 연결되어 자연 채광이 들어온다고 해." 우리는 천천히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교회 안은 전등 빛 덕에 밝았다. 일정하게 깎이지 않은 자연석들이 투박해 보였지만 나름대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었다. "좁긴 한데, 그래서 아담한 오두막 느낌이 난다."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파이프 오르간이 눈에 띄었다. 아마 그곳에서 오르간을 치면 소박하지만 경건하고 그래서 더 예쁜 소리가 날 것 같았다. 한참을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다. "한 10년쯤 지나서 30살의 끝에 여기 오면 지금이랑 다른 느낌이겠지?" 지우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받는 느낌은 나중에 온다고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느끼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나와서 시계를 보니 5시10분이었다. "이제 택시를 타고 우스펜스키 성당으로 가자." 택시를 잡아 우스펜스키 성당으로 향했다. 내리자마자 바로 보이는 빨간 벽과 특이한 돔이 눈앞에 펼쳐졌다. "러시아의 지배 아래 있던 1868년 세워진 정교회 성당이야. 빨간 벽과 특이한 돔이 특징이지."지우의 설명을 다 듣기도 전에 우스펜스키 성당이 있는 언덕으로 뛰어올라갔다. 언덕 위에서 보니 건너편의 헬싱키 대성당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어젯밤 보았던 헬싱키 대성당이 우아하고 아름다웠다면, 여기는 근엄하고 성대하네. 러시아가 지어서 그런가." 나의 생각이 튀어나왔다. "둘 다 충분히 아름답지만, 나는 여기가 더 마음에 들어. 여기서는 헬싱키 대성당까지 눈에 담을 수 있잖아." 지우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헬싱키를 마음에 눈에 새겨두고 있었다. 해는 이미 진지 오래였다. 조명은 성당을 비추어 더욱 더 성당을 빨갛게 눈에 띄게 만들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안에 들어가 보자." 사진을 찍는 지우의 손을 잡아 안으로 들어가려했지만, 출입시간이 끝나서 문밖에서 안을 구경해야했다. 밖에서만 보았지

만 충분히 예쁘고, 외관과는 또 다른 안이었다. 우리는 여유롭게 걸어 페리 선착장으로 가서 수오멘린나 요새 행 페리티켓을 사고 기다렸다. 시간이 조금 흘러 페리에 몸을 실었다. “우린 지금 수오멘린나 요새로 가고 있어. 방어 목적으로 지어진 요새인데,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 덕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되어있지.” 지우의 설명을 듣고 밖으로 나가니 바닷바람이 맹렬히 불고 있었다. 20분이 지나니 페리는 우리를 요새에 데려다주었다. “천천히 걸으면서 둘러보자.” 지우가 말했다. 하나씩 느끼며 걸었다. “여긴 아직 주민들이 살고 계셔.” 나의 설명에 지우는 놀란 표정을 했다. 좀 걷다 보니 교회가 나왔다. “헬싱키 대성당이나 우스펜스키 성당만큼은 아니지만 이 교회도 나름대로 소박하면서 예쁜 면이 있어서 좋아.” 지우가 교회를 쳐다보며 말했다. “응. 섬이 조용하고 그래서 딱 산책하기 좋다.” 우리는 더 걸어 꽤 높은 언덕에 올라갔다. “핀란드는 해가 서너 시경에 져서 황혼을 보기가 쉽지 않네. 아쉽다!” 지우가 말했다. “응, 우리 페리가 8시 40분이거든. 이제 슬슬 선착장으로 가자.” 유유히 우리는 선착장으로 갔고 배를 타고 다시 마켓광장으로 돌아왔다. “우리 이제 원로원광장으로 가자” 9시가 되어 간 원로원 광장 끝에선 크리스마스 마켓이 펼쳐지고 있었다. “신기하다! 한국에선 한 번도 못 봤는데, 나 여기 와 보는 게 꿈이었어!”라며 반짝거리는 마켓사이로 쇼핑을 시작했다. 헬싱키의 밤 반짝거리는 크리스마스마켓 사이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이 내린 광장에서 바라본 대성당은 어제보다 더 매력적이었다. 한참을 구경하니 쇼핑한 쿠키, 초콜릿, 인형, 크리스마스용품이 양손 가득이 되었다. “아! 우리 쇼핑하러 갈 데가 있어.” 우리는 쇼핑몰로 향했다. 지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핀란드 캐릭터인 무민샵으로, 나는 접시와 북유럽스타일의 디자인상품등을 쇼핑하고서는 건너편의 마트로 갔다. “호밀 빵이랑 저녁으로 먹을 구워진 고기나 바비큐 샐러드 수프정도 사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각자 사자.” 지우가 말했다. 우리는 각자 계산을 하고 호텔로 가서 나의 방으로 갔다. “자 먹자!” 마트에서 사온 바비큐, 수프, 연어샐러드는 헬싱키에서의 마지막 밤을 위로했다. “우리 내일 산타클로스 마을로 가는 비행기가 8시 55분이라 7시까지 가야 되거든. 6시엔 일어나야 될 것 같아.” 내일 우리는 헬싱키를 떠나 산타마을이 있는 로바니에미로 향한다. “산타마을 기대된다!” 지우가 외쳤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빨리 잘까?” 어린 아이를 설득하듯 내가 지우에게 말했다. “알았어! 잘 자.” 지우는 나

의 엄마 같은 잔소리도 웃으며 들을 정도로 들뜬 채로 자신의 방으로 갔고, 나는 조용히 일기를 펼쳤다.

다음날 5시 30분 알람 소리에 일어났다. 지우를 깨우러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자 지우가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갈게."라고 비몽사몽 한 목소리로 말했다. 10분쯤 뒤 코트를 입은 채 지우가 나왔다.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말했다. 지우는 반쯤 감긴 눈을 힘들게 뜨고,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호텔 식당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쾅 소리가 났다. 지우 머리가 식당 문에 부딪힌 것 이었다. 우리 호텔 식당 문이 조금 낮은 탓도 있고, 지우키가 184cm나 되는 탓도 있었다. "괜찮아!"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짝 웃는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아쉬웠지만 헬싱키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올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갔다. 공항에 도착하니 7시였다. 우리가 탈 항공사는 셀프체크인이 가능해서 기계 앞에 서서 체크인을 시작했다. "지우야. 여권 좀 주라." 지우의 여권을 빠르게 받았다. 기계에 여권을 찍었다. 항공편을 선택하고 티켓이 인쇄되기 시작했다. 지우에게 티켓을 건네고 짐을 부치러 카운터로 걸어갔다. 핀란드어와 영어가 결합된 영어 발음 덕분에 알아들을 수 없어 끄덕이기만 하고 짐을 부쳤다. 보안 검색이 끝나고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다. "헬싱키는 이제 끝이네. 아쉽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도 하고." 아쉬운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다시 오겠지. 둘이 같이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우 말대로 다시 온다 해도 우리 둘이 같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아마 거의 같이 올 가능성은 없다. 10분 뒤 비행기 탑승이 시작됐다. 비행기에 올라 바로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비행기가 하강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웬일인지 깨어있었고 "곧 착륙한데." 지우의 들뜬 목소리였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착륙했고 계단을 통해 내려갔다. 짐을 금방 찾아서 버스를 타고 산타마을로 향했다. 산타마을까지는 10분 남짓 걸렸다. "일단 안에 들어 가보자." 지우가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인포메이션 건물로 뛰어 들어갔다. 그곳에선 여권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 우린 여권에 도장을 찍었고 북극권으로 넘어가는 선에 서서 양팔을 벌렸다. "이러면 반은 그냥이고, 반은 북극권에 있는 건가?"라며 지우가 엉뚱하게 말했다. "다음번엔 이스탄불에서 하자! 지금은 북극권에 섰지만 다음번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서 보고 싶어, 그 다음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아

무리 작아도 거기 서 있을 땐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나도 특별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사회에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여행을 오면서는 아니었다. 아무도 나를 몰랐고, 설사 안다 해도 나를 믿어주는 건 지우뿐이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힘들게 울음을 참지 않아도 됐다. 굳이 특별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는 여행 속에서 나는 나를 찾는 중이었다. “도원아 우리 이제 시베리안 허스키가 끌어주는 썰매 타러 가자!” 지우가 미리 알아봤다는 시베리안 허스키 썰매를 타러 아주 조금 걸어갔다. 직원과 예약을 확인하고 천막 같은 곳에서 기다렸다. “직원이 밖에 순록이 있다는데 사진찍자!” 지우가 산타마을에 온 뒤로 어린이가 된 마냥 계속 해맑게 웃고 있었다. “좋아!” 우리는 천막 옆 순록과 사진을 찍고 쓰다듬어 주었다. 순록은 영화에 나온 것처럼 크고 멋있었다. 뿔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너무 높았다. “지우야.” 갑자기 진지해졌다. “응?” 지우가 답했다.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특히 너랑 오기로 한 것. 내 주변 사람 중에 나를 믿어 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건 너 밖에 없어.” 내 말을 듣고 지우는 “나도”라며 짤막하게 답했다. “근데 지우야. 우리 헬싱키에서 순록 먹었어.” 생각해보니 2일전 밤 우리는 헬싱키에서 순록고기를 먹었다. “헉” 지우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외쳤다. 그 순간 이었다. 뒤에서 시베리안 허스키들이 왔다. 타라는 직원의 손짓과 함께 말이다. 8마리 정도 되어 보이는 개들이 끄는 썰매에 올라탔다. “에스키모가 된 느낌이야.” 지우가 말했다.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나의 웃음과 함께 썰매는 출발했다. 엄청난 속도로 넘어질 듯 달렸지만 나름 안정적이었다. 12월 칼바람 부는 핀란드에서 썰매를 타니 얼굴이 얼 것 같았지만 재밌었다. 5분정도 타고 나니 썰매는 멈췄다. 직원에게 인사를 하고 개들과 사진을 찍었다. “가만히 좀 있어봐. 사진 좀 찍자.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싫어?” 지우가 개들과 사진 찍으며 개에게 말했다. 개 옆에 얼굴을 바짝 붙여 사진을 찍는 지우를 보니 웃음이 났다. “자 그럼 우리 산타 우체국으로 가자!” 내가 말했다. 전 세계에서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가득한 곳 산타우체국으로 향했다. “1920년 핀란드의 한 라디오 진행자가 한말 덕분에 이곳에 산타가 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졌어.” 지우가 설명을 덧붙였다. “물론 이곳의 산타 할아버지가 세계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순 없지만 산타가 있다는 동심을 주고 있잖아.” 내가 옅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산타 우체국에서 산타할아버지와 사진을 찍었다. “너무 좋아!” 지

우는 정말 기뻐 보였다. 기념품 가게도 들리고 산타의 집 주변을 구경했다. 썰매를 끌어주는 순록과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산타마을 나무 위에 잔뜩 덮인 눈을 보니 진짜 산타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만 같았다. 아침부터 바빴던 우리는 저녁으로 연어를 먹으러 갔다. 메뉴는 연어 딱 하나였다. "여기 되게 원주민 텐트처럼 생겨서 재밌다." 지우가 흥미로운 눈빛을 하고서 말했다. 연어를 주문했고 연어, 빵, 샐러드가 함께 나왔다. "연어 되게 촉촉하다 맛있어." 역시 지우 취향은 고기가 아니라 생선이었다. 연어는 북유럽에서 잘 잡히는 생선이다. 그래서 대개 연어는 노르웨이 산이 많다. 연어와 나온 샐러드를 올리고 소스에 찍어 먹으니, 지우 말대로 촉촉하면서 나름대로 연어의 맛이 살아있어 진짜 맛있었다. 우리는 여유롭게 식사를 했다. "로바니에미 오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이었네." 지우가 말했다. "응. 우리 내일 사리셀카로 가거든. 내일 8시 버스를 타야 하니 6시에 일어나자." 우리는 로바니에미를 떠나 오로라를 보러 사리셀카라는 핀란드의 작은 마을로 떠난다. "응" 지우가 답했다. 서서히 식사가 마무리 되고 숙소로 돌아왔다. "잘 자!" 지우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며 말했다. "응!" 나도 답했다. 비록 짧은 하루였지만, 어렸을 적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내일 일어나면 로바니에미를 떠나지만 또 새로운 꿈이 시작될 거다. 혼자 여러 생각들을 하며 일기를 쓰고 잠에 들었다.

다음날 크리스마스이브 12월 24일. 정확히 6시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아침을 먹으러 나갔다. 지우는 이미 숙소 식당에 있었다. "커피 마실래?" 지우가 물었다. "으응. 부탁해." 지우는 커피와 토스트, 버터를 들고 왔다. 핀란드의 사뭇 쌀쌀한 공기가 나의 코를 차갑게 했다. "6시 40분이네. 짐 들고 슬슬 나가자." 지우의 말대로 우리는 짐을 챙겨서 숙소를 나섰고 산책을 했다. 한 발자국씩 내딛으며 걸었다. 밤새 내린 눈은 로바니에미를 하얀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눈 엄청 하얗다" 지우가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가끔은 머리가 새하얘져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만 살고 싶을 때도 있어." 내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요새 그래. 승무원이라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고, 부모님께 말씀 드리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반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온 여행이기도 하니까." 지우가 말했다. "여기 있는 동안은 그냥 너랑 나랑 각자 행복만 생각하자. 꿈같잖아. 꿈은 서울에 도

착하기 전까지 이어지니까 행복한 꿈은 마음껏 꾸자. 이 기억으로 앞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 괜찮다고 해 주는 것보다 지금을 즐기자는 말이 지우에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응" 지우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얼마 뒤 우리는 사리셀카로 가는 버스에 타 있었다. 한참을 자고 나니 도착해 있었다. "아침을 많이 먹어서 배가 안 고픈데, 점심은 건너뛸까?" 내가 물었다. "응. 그래도 괜찮아." 지우도 배고파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예약한 호텔에 짐을 두고 나왔다. "오늘은 노르딕스키 타고 호텔에서 저녁 먹고 온천욕 하자." 지우가 말했다. 우리는 10분가량을 걸어 스키를 타러 갔다. "스키는 미리 예약해 놨거든. 이거 신고 스키 밖에 나가서 타면 된데." 내가 준비하며 말했다. "평지에서 스키 타는 건 처음이야! 매번 경사 진데서만 타봤어." 지우가 들떠서 말했다. "근데 나 스키 진짜 못타는데." 나는 스키 초급자 코스도 어려워한다. 평지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출발했다. 조금씩 한번 두 번 밀기 시작했다. "이거 가다 보니까 속도가 붙는다!" 지우가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 "색다르다! 근데 벌써 힘들다." 조금 지친채로 말했다. "올림픽 보면 크로스컨트리 선수들 10km 정도씩 달리던데. 진짜 대단하다! 100m 밖에 안했는데 좀 힘드네." 지우가 말했다. 우리는 스키를 타면서 주변을 바라봤다. 헬싱키, 로바니에미와는 또 다른 풍경이었다. "여기 마을이 진짜 작다!" 지우가 빠른 속도로 달리며 말했다. "그럴걸? 로바니에미보다 여기가 더 작아." 관광객도 많지 않았다. 30분쯤 달려 스키 가게 사장님이 알려주신 언덕에 도착했다.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면 된다는데? 근데 너무 경사가 심한데?" 경사가 상급자 코스보다 더 심한 것 같았다. 우리는 열심히 언덕 위로 올라갔다. 꽤 높아서 20분은 올라간 것 같았다. "한국에선 안됐어도 여기서는 될 수도 있잖아. 넘어져도 돼.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되잖아." 지우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번 넘어져도 괜찮다고 시도했는데 넘어지면 아프기만 하던 걸. 인생도 스키도....." 타기 싫어서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일어나면 되지. 해 보지도 않고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도해서 진짜 안 되면 자기는 안 될 것 알고 있었다고만 해.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해봐. 될지 안 될지 그걸 누가 알아." 지우는 나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그 순간 그냥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살살 출발했는데도 점점 빨라졌다. 중간에 균형을 잃어서 한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출발했다. 3분쯤 내려오니 드디어 평지가 보였고 지우는 먼저 도착

해 있었다. “한번 넘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한 거 같아.” 당당해진 나는 지우에게 말했다. “거 봐 해 보기나 하라니까.” 우리는 다시 스키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녔다. 한참을 타다가 스키가게에 다시 반납을 해줬다. “좀 아쉽다.” 지우가 말했다. “좀 더 타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국가면 상급자 코스 도전해야겠어!” 우리는 웃으며 호텔로 갔다. “5시니까, 1시간만 각자 쉬고 온천욕 하러 가자.” 지우가 말했다. “응.”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짐정리를 하고 좀 누워 있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있었던 일들, 앞으로 펼쳐질 일들 꿈같았던 4일, 그 모든 것 들을 생각했다. 한참을 누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6시가 되어서 방을 나섰다. “수영복 있지?” 지우가 물었다. “응 가져왔어.” 내가 답했다. “안에 입고 나오는 게 어때? 우리 호텔 온천욕 하는 곳엔 탈의실이 없어.” 지우의 말이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다시 옷 안에 수영복을 입었다. 우리는 걸어서 야외 온천장으로 향했다. 자연스레 온천 속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좋았다. “온천 안에 담근 몸이랑 온천 밖으로 나와 있는 얼굴의 온도차가 느껴져서 너무 좋아. 뜨겁고 차가운 극과 극이라서 진짜 좋다.” 내가 말했다. “오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나도 그거 진짜 좋아해.” 우리는 한동안 온천욕을 즐겼다. 한국과는 다른 느낌의 온천이었다. 물이 따뜻한 수영장 느낌이었다. 8시쯤 돼서 각각 방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저녁을 사러 마트로 향했다. “여기는 마을이 엄청 작아서 1시간 정도면 다 볼 수 있겠다.”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헬싱키에 비해 엄청 작은 동네잖아.” 우리는 아담한 마을을 지나서 마트로 향했다. 마트에서는 피자를 팔고 있었다. “피자 먹을래?” 지우가 물었다. “응 그러자!” 오랜만에 본 피자였다. 우리는 피자를 사 호텔로 돌아왔다. “빨리 먹고 오로라 보러 가자!” 지우가 말한 대로 우리는 금방 피자를 먹어치우고, 꽤나 많이 걸어 국립공원 쪽으로 갔다. 우리가 사리셀카에 온 이유는 오로라를 보러온 것 이었다. “진짜 오로라를 본다면 지금까지 못 했던 말 다 하고 싶어. 그 앞에서.....” 지우가 말했다. 말투와는 다르게 아주 덤덤한 표정으로 말이다. 아주 가끔 지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지곤 한다. 지우는 웬만하면 자기 힘든 일들 슬픈 일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조금은 그 안을 알고 싶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너 내 생각해?”라며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어?

어.....” 순간 멍해졌다가 그렇다고 답해 버렸다. “무슨 생각?” 지우가 다시 한 번 물었다. 그냥 포기하고 말하기로 했다. 이렇게라도 말하면 알려 줄까 싶었다. “그냥 어쩌다 한 번 드는 생각인데, 너는 상처가 없고 힘든 게 없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잖아.” “그러면 넌? 넌 나한테 말해?” 지우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난 그게.....” 말끝을 흐렸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다. 진짜 내 이야기를 말이다. “나를 보여주는 게 무서웠어.”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더 말해 줄 수 있어?” 지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잠깐 하늘을 쳐다봤다. “오로라다! 저 초록색이랑 노란색 일렁이는 파도 같은 모양.” 내가 말했다. 조금 울적해진 목소리로 “맞네. 오로라” 지우는 짧게 답했다. 너무 아름다웠고 늘 그려왔던 그림이었다.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어도 좋았다. 왠지 그 아래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여기서 말할게. 여기가 아니면 용기가 안 날 것 같아.” 지우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나를 진짜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떠날까 무서웠어. 내가 아는 나를 보여주면 떠날 게 뻔했거든. 그래서 그냥 다 덮어 버리고 살았어. 나름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사실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니야. 평범한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고 취직을 하고 그리고 나름 그 속에서 행복하기도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나름 괜찮은 행복은 진짜가 아니었던 것 같아. 솔직한 나를 보여주고 얻은 행복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늘 채우고 채워도 모자랐어. 날 보여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가도 무서워지더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그냥 늘 웃는 얼굴로 나를 가리고 살았던 거 야.”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처음 털어 놓았다. 내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건 지우가 처음이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누군가 나에게 나의 얘기를 해 달라고 했더라면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실은 나 대인기피증 있어.” 그냥 다 털어놓고 싶었다. 지우는 알고 있었다는 표정을 했다. “알고 있었어. 매번 사람 많은 데는 피하려고 하고, 눈만 마주쳐도 놀라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힘들어 했잖아.” 지우는 담담하게 알고 있었다며 말했다. 피하려고만 했다. 어떤 장소든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다른 건 몰라도 식사 자리는 꼭 피하려고 했다. “웃어서 가려 보려고 했어. 내 단점과 솔직한 나를 근데 그게 점점.....” 말문이 막혔다. 갑자기 눈물이 떨어지려고 했다. “괜찮아 계속 말해.” 지우가 등을 토닥였다.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 울지 않으려고 참는 거 그냥 그게 점점 너무 힘들어져서 사람들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결국엔 이렇게 됐어.” 10년 넘게 속에서 까맣게 타버린 나의 마음이 이제야 꺼내졌다. 참고 참다가 결국엔 이렇게 나와 버렸다는 걸 후회하진 않았다. 차라리 이제라도 말한 걸 잘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냥.....” 또 다시 말문이 막혔다. “힘들었어.” 용기를 다시 내 말했다. 힘들다는 말, 10년을 그 말을 못하고 속에서 혼자 아파했다. “누군가에게 내가 힘든 걸 말하는 게 그게 제일 두려웠어. 혹시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 사람까지 힘들어 할까봐. 나는 그냥 나 혼자 속에서 화를 참는 것 밖에 할 줄 몰랐어.” 꽤나 차분한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안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괴롭게 버티는 게 눈에 보이더라.” “응. 안 힘든 척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지우도 차분한 목소리였다. 지우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한참동안 멍하니 우리는 하늘만 쳐다봤다. 천천히 지나가는 오로라가 마치 지나가 버리는 나의 아프고 상처투성이였던 기억 같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렇게라도 사라진다면야 얼마든 기다려 줄 수 있었다. “진짜 아름답다! 하늘에 비단이 부드럽게 풀어헤쳐지는 것 같아.” 지우가 하늘을 넋 놓고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우아하고 아름다워 부드럽게 흘러가는 하늘의 강 같다.” 강은 유유자적 흘러갔다. 나의 기억들 그리고 그동안 참아 두었던 눈물도 그 강을 따라 흘렀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오로라를 바라봤다.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지우가 말했다. 난 대답 대신 하늘만 바라봤다. 그동안 숨겼던 기억과 상처가 강을 타고 흐르며 씻겨 나갔다. 생각보다 덜 아팠다. 숨겼던 기억을 흘려보내면 너무 아플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어쩌면 나, 지금 이렇게 숨겼던 걸 다 흘려보내도 언젠가는 다시 그런 기억들이 쌓일지도 몰라. 근데 그때는 더 이상 잡아 두지 않을 거야. 흘려보낼 거야.” 너무나 차가웠던 12월 사리셀카의 찬 공기 사이로 나의 따뜻한 진심이 담긴 말이 울려 퍼졌다. “잘 생각했네!” 지우가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벌써 11시 30분이다. 우리 내일 스톡홀름 가야 돼. 이제 들어가자.” 지우는 나의 말에 답하는 대신 일어나서 호텔로 향했다. “잘 자.” 지우가 한 말을 듣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새 11시 50분이 되어, 일기를 쓰고 침대에 엎어져서 잠깐 있었는데 문자가 와 있었다. ‘Merry christmas!’ 메리크리스마스라고 보낸 사람은 지우였다. 로바니에미에서 찍은 우리들의 사진과 함께 보낸 크리스마

스 축하 문자에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가벼워진 기분과 함께 잠에 들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어 있었다. “잘 잤어?” 준비를 마치고 나온 우리 둘은 동시에 쳐다보며 말했다. 그 모습이 공항에서 출발할 때와 비슷해서 조금 웃음이 났다. “오늘 하늘 엄청 맑다!” 지우가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어제 밤 했던 이야기와는 달리 밝은 하루가 기대 됐다. “아침을 먹으러 가 볼까요?” 내가 산뜻하게 말했다. 지우는 대답 대신 호텔 식당으로 향했다. 딱히 밥 생각이 없는 아침이라서 별로 먹고 싶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꼬박꼬박 아침을 챙겨먹는다. 물론 시리얼이나 샌드위치처럼 간단한 음식이지만 말이다. “우리 헬싱키에서 환승해서 스톡홀름으로 갈 거야.” 10시 45분 비행기라 9시까지 가면 문제 될 것 하나 없다. 지금은 8시이고 짐도 다 정리 했고 체크아웃만 하면 될 듯 했다. “공항까지는 공항버스로 20분 정도 걸리는데 우리 지금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 빠르게 시간 계산을 해서 지우에게 말했다. “한가롭게 밥 먹다가 갈까?”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포근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식당에서 지우는 조금 더 있고 싶은 모양 이었다. “좋아 나쁠 것 없지. 오랜만에 아침 햇살도 맞아보고.” 나도 조금 나른해져서 30분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아침의 여유로웠던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공항버스를 타고 이발로 공항으로 갔다. “작은 공항이라 체크인 줄이 짧네. 금방 하겠다!” 지우가 말했다. 지우의 예상대로 금방 체크인을 할 수 있었다. “우리 환승 두 번째니까 적응 됐어도, 이번엔 다른 항공사고 도착할 땐 국내선이고 출발할 땐 국제선이라 신경 써야 돼.” 체크인과 보안검색을 끝내고 게이트 앞에서 내가 말했다. 지우는 핸드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10분 뒤 탑승이 시작됐고 이륙한 비행기는 하늘을 높게 날았다. 열어 놓은 창문으로 아까 식당에서 받은 아침 햇살이 여기까지 나를 따라와 줬다는 느낌 덕에 스르르 잠에 들었다. 일어나보니 헬싱키 공항에 도착해 있었다. “헬싱키에서 2일 있었는데 오니까 왠지 고향 같다.” 지우가 헬싱키 공항에서 환승을 위해 스톡홀름 행 항공편 탑승게이트로 걸어가다가 내 캐리어를 대신 들어주며 말했다. “공항 향기를 맡아서 그런가.” 나 역시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신속하게 걸어 환승게이트에 도착했다. 탑승까지는 30분 남았는데 지우가 기념품 가게 구경을 하자며 내 손을 잡아 이끌고 향했다. 워낙 쇼핑을 많이 해서 딱히 살 건 없었다. 지우는 보따리 장사 수준으로 쇼핑을 하고서는 만족스

러운 표정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1시간여를 날아 스톡홀름에 도착했다. “드디어 스웨덴이다!” 우리는 철도를 탔다. “여기서 20분 정도 걸린데.” 지우가 여기저기 쳐다보며 말했다. “핀란드는 나무를 써서 그런지 소박하면서 다정했는데 여기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이야.”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다 내가 말했다. 두 나라 모두 각자 다른 느낌으로 와 닿았다. 여기선 내가 이방인이니까 받아들여야겠단 생각이 들어서 여행 오면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지는 느낌이야.” 그 말을 듣고 나니 다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철도는 빠르게 달려 스톡홀름 중앙역에 도착했다. “해가 벌써 다 졌네. 여름에는 백야라서 긴데. 겨울엔 해가 두세 시면 져서 좀 아쉽다.” 지우가 아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다. “그래도 오로라 봤잖아.” 시무룩한 지우의 표정이 귀여워서 웃으며 말했다. 호텔에 짐을 두고서는 스톡홀름 시청사로 향했다. “스톡홀름 시청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청 건물이라고 불리고 있어. 1923년 12년의 공사를 마치고 세상에 드러났지. 노벨상 시상식과 축하 만찬이 열려. 축하 만찬은 황금의 방에서 열린다는데 엄청 화려하데. 106m의 규모로 이루어진 시청사 탑은 중심부에 타워 미술관이 있다고 하는데 빨리 가보자” 나는 그 말을 하고 먼저 뛰어갔다. 10분쯤 달려 스톡홀름 시청사에 도착했다. “먼저 시청사 탑부터 가자.” 안전상의 이유로 한번에 30명씩 올라가는 시청사 탑은 먼저 엘리베이터로 일정한 높이까지 올라갔다. 올라가니 탑 중심부에 타워 미술관이 보였다. “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박물관 수장고 같기도 하고, 이 좁은 공간에 미술관을 만든 게 신기하기도 하다.” 지우의 말대로 특이하고 신기했다. “현실이 아니고 영화 같아. 뭔가 보물을 숨겨놓은 곳처럼 보여.” 비밀스러운 다락방 같은 그 공간이 마음에 들었다. “이런데 오니깐 스톡홀름의 길고양이가 된 느낌이야!” 지우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그 말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목조계단을 따라 정상까지 올라갔다. 300여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마침내 탑에 올랐다. “스톡홀름이 한눈에 보여 아기자기하고 오래 돼 보이는 벽돌 건물이 많았다. 분명 2018년인데 200년 전 1800년대로 온 느낌이야!” 내가 흥분하며 말했다. 어두운 하늘 아래 밝게 빛나는 조명 하나 없었다. 살짝 보이는 건물에서 나오는 빛이 전부였던 스톡홀름은 빛이 났다. 차갑게 불어 들어오는 스톡홀름의 겨울바람조차 아름다웠다. “여행을 떠나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 뿐 이잖아. 굳이 웃는 것도 참을 필요도 없고, 얌전할 필요도 없어. 진짜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잖

아! 슬프면 울고 즐거우면 웃고 참을 필요가 없잖아. 나는 그래서 여행을 왔어. 늘 숨기던 나의 진짜 모습을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지우가 아래를 보며 말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스톡홀름에서 지우는 본인을 찾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지우의 모습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한참을 스톡홀름을 바라보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시청 중앙으로 갔다. “여기는 블루홀이라고 해. 원래는 이름대로 파랗게 지으려 했으나 벽돌 덕에 빨간색이 되었지. 그래도 이름은 블루홀 그대로 쓰고 있어.” 나의 설명이 넓은 블루홀에서 조그마하게 울렸다. ‘웅장함’ 그 생각밖에 안 들었다. 어떤 말이 더 필요했을까. 그 넓은 방에 딱히 무언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텅 빈 공터 같은 그곳이 오히려 맘에 들었다. 억지로 채워 넣은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공간 블루홀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걸어 회의실로 향했다. “실제로 회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해.” 내가 천장을 쳐다보며 말했다. “천장이 바이킹 배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 표현 했다고 해.” 지우는 나의 말에 설명을 덧 붙였다. 목조로 되어 있던 천장은 고즈넉하면서 세월의 흔적을 보이는 듯 했다. 다시 움직여서 황금의 방으로 향했다. 황금의 방을 처음 보고 내가 한말은 “이집트 같다”였다. 그도 그럴 것이 방 끝 벽에 그려진 스톡홀름을 상징한다는 여신 그림도 이집트 풍이였고, 이름대로 노랗게 되어 있는 방을 보고 있자니 벽화가 그려진 이집트 건물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여기는 노벨상 시상식 후 연회가 벌어지는 방이라는데 엄청 화려하다.” 지우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다. 예상보다 길었던 우리의 시청사 관람은 6시 30분에야 끝이 났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아주 조금 걸어갔다. “스톡홀름에서 첫 끼는 말이야. 스웨덴 요리가 코스 요리로 나온다는 식당이야.” 식당은 무지 포근했다. “엄청 아늑하다! 핀란드 순록고기 식당이랑은 또 다른 아늑함이야.” 우리는 식당에 앉아 식사를 준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다. “스타터는 링곤베리 잼이랑 미트볼 으깬 감자에 곁들이는 음식은 꽃양배추 샐러드야. 링곤베리가 스웨덴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데, 고기나 생선에 발라 먹는다고 해. 빵엔 안 발라 먹는다는데.” 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우는 자신의 접시에 올라가있는 링곤베리 잼을 미트볼에 발라 입에 넣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잼만 입에 넣었다. “이거 미국식이나 우리 잼처럼 설

탕 덩어리 잼보다 훨씬 덜 달고 부드러워 좀 더 자연적인 맛이랄까.” 지우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링곤베리 잼을 바른 미트볼과 으깬 감자를 입에 넣었다. 지우말대로 잼이 달지는 않았지만 고기와 어울렸다. “잼이라기 보단 소스? 소스에 가깝기도 하고 어른의 맛이랄까? 난 단 잼이 더 좋아.” 아무래도 나는 미국식 잼이 더 잘 맞는 듯 했다. 우리는 재빠르게 스타터와 메인인 산양고기를 먹어치웠고, 이윽고 디저트가 나왔다. 달콤한 디저트를 입에 넣고 행복을 느끼는 사이 우리의 스웨덴에서의 첫 번째 밤은 가고 있었다. “벌써 8시네.” 지우가 습관처럼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제 호텔 들어갈까?” 내가 말했다. 우리는 스톡홀름의 밤거리를 걸어갔다. “수도치고는 사람도 없고 건물도 높지 않아서 서울이랑 달라서 좋아. 여유롭다.” 지우가 코트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어딘가를 바라보며 내게 말했다. “저기 뭔가 높은 건물이 있어.”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우말대로 교회처럼 보이는 녹색 지붕 건물이 있었다.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 건물로 달려갔다. 건물 앞에 멈춰 섰는데 교회인 듯 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은 탑과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다. 늦은 시간이라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화려한 교회들만 보다가 이런 교회를 보니까 뭔가 신선하다. 건물 크기는 작은데 교회 끝 부분 탑이 높게 올라간 형상이 특이하기도 하고.....” 소박하면서 나름의 모습을 갖춘 교회였다. 우리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호텔로 돌아갔다. “잘 자고, 내일은 스톡홀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니까 푹 쉬어.” 지우가 하품을 연발하면서 말했다. 여행 온 후로 처음으로 9시 즈음 들어왔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연필이 노트위에서 춤을 추며 나의 기억들을 추억들을 그려냈고, 영원히 담아두고 싶은 행복한 기억들이 써졌다. 얼마 뒤 잠에 들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나니 8시였다. 늘 그렇듯 조식을 먹고 지우와 나갈 채비를 마쳤다. “오늘은 구 시가지를 갈 거야. 왕궁, 대성당 같은 역사적 현장으로 갈 거야.” 20분가량을 걸어 웅장한 건물을 마주했다. “스웨덴 국회의사당이라는데?” 지우가 표지판을 보며 말했다. “웅장하고 장엄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야. 여기는 좀 오래된 왕궁 같은 느낌이랄까?” 햇빛이 잘 비춰지는 스톡홀름에서 의사당을 보고 있으니, 너무 예뻐 보였다. 5분쯤 더 걸어 스웨덴 왕궁에 도착할 수 있었다. “스웨덴 왕궁은 13세기 요새로 지어졌으나 점점 발전해 왕궁이 되었다고 해. 1697년 대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복원

을 통해 1754년 완성이 되었다고 전해져. 1982년까진 왕과 왕비가 직접 거주했었는데, 그 후엔 이곳 스톡홀름 외곽의 드로트닝홀름 궁전으로 이사했다고 해. 아직까지도 왕실의 집무나 외교사절단 숙소로 사용되고 있어." 지우의 설명과 함께 들어간 왕궁은 웅장한 돔의 중앙으로부터 시작됐다. 화려함과 순백의 아름다움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다. "진짜 아름다우면서 웅장하다!" 헬싱키 대성당과 같은 느낌의 흰색,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조선백자처럼 말이다. "진짜 세세한 조각들이다! 저걸 어떻게 그 시절에 해낼 수 있었을까." 지우 역시 천장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천장엔 그림이, 벽엔 조각이 예술품이다.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왕궁에 있어 보고 싶었다. 회의실을 지나 메인 건물인 스테이츠 아파트먼트 관람을 마쳤다. "그림으로 가득했던 통로가 진짜 미술관 같은 느낌이었어. 왕궁 방만 떼어놓아도 예술품인 것 같아." 지우가 신난 얼굴로 말했다. 바로 옆 건물 왕실 보물 박물관으로 갔다. 모두 왕실 보물이라 그런지 비싸 보였다. "이 보석 박힌 왕관 어렸을 때 봤던 공주 영화나 동화책에 나오던 왕관처럼 빛나." 지우가 빛나는 왕관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둡지만 이런 어두움이 오히려 장식들이 더 빛나게 해주는구나. 아무튼 되게 좋다! 왕궁은 처음이라 그런가." '유럽 왕궁이 이렇게 다 화려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한참동안 왕궁을 걸어 다녔다. "슬슬 나갈까? 점심시간을 훌쩍 지났어." 지우 말대로 어느새 4시를 넘어가는 시간 이었다. "응. 배도 고프다." 우리는 왕궁 밖으로 나갔다. "7시간 쯤 지나서 햇빛 보니깐 좋을 줄 알았는데 벌써 해가 졌네." 지우가 왕궁 광장에서 기지개를 펴며 말했다. "12월의 북유럽은 다 괜찮은데 해가 빨리 지는 게 너무 아쉬워." 언젠가는 5월쯤 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늦은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다. 왕궁을 떠올리며 걸어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피자랑 파스타 먹어 보겠네." 지우가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응 그러면 피자랑 파스타 2개 주문하면 될까?" 무척이나 배가 고팠던 우리는 꽤나 많은 양의 음식을 시켰다.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 지우의 걱정으로 식사는 시작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걱정은 사라졌다. 배고픈 우리 둘은 3일은 굶은 사람처럼 먹기 시작했다. "왕궁 같은 엄청난 건축물을 보면서 집중하다보니까 체력이 다 소모 돼 버렸어. 많이 먹고 힘내자!" 바닥난 체력을 피자와 파스타로 채웠다. "여기 피자 도우가 얇아서 바삭바삭하면서도 토핑이 조화를 이뤄서 진짜 맛있다." 지우가 포

크로 파스타를 말며 말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대성당으로 향했다. “스톡홀름에서 가장 오래된 13세기의 성당이라고 해. 들어가자! 안이 더 볼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 지우가 나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성당 벽 한 면에는 흑단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서 있었다. “저기 조각상이 용을 퇴치하는 성조지야.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 1489년에 성당에 기증되었다고 해.” 용 위에 올라간 기사의 모습이 멋져서 꼭 동화책에 나오는 공주를 구하는 왕자님처럼 보였다. 대성당까지 둘러보다 보니 6시가 되어 있었다. 다시 스톡홀름 시내로 향했다. “이번엔 저녁거리를 사러 외스터말름 살루할에 가자. 스톡홀름을 대표하는 시장이야. 실내라서 따뜻하겠다.” 실내시장은 치즈와 갖가지 음식으로 가득했다. “우리 스웨덴 음식 중에 유명한 오픈샌드위치랑 스프랑 햄이나 베이컨 그리고 샐러드 정도 사서 여기서 먹고 가자.” 지우는 내말에 동의를 하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며 맛도 보고 구매도 했다. “이런 것 해보고 싶었어. 오픈마켓에서 천천히 돌아보면서 맛도 보고 직접 사보기도 하는 거. 소원성취 했다!” 내가 음식을 가득 담은 종이 봉지를 들고 돌아다니며 말했다. 지우 역시 신난 표정이었다. “여기 링곤베리 잼도 있는데 사가자. 한국에서 먹고 선물로도 좀 주게.” 지우가 한참을 돌아보다가 말했다. “좋아. 사가서 맛보게 해주고 싶어.” 우리는 링곤베리 잼까지 샀다. 잼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데 주인아저씨가 빨간 열매를 주셔서 보았더니 링곤베리 열매였다. 입 안에 넣으니 상큼하면서 달콤했다. 잼과 달리 달콤함 보단 상큼함이 조금 더 느껴졌다. 우리는 장본 물건을 피크닉 가든에 내려놓고 준비된 의자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스톡홀름도 아쉽게 안녕이구나.” 조금 아쉬웠다. “좀 더 있고 싶었는데. 오늘이 벌써 26일이야.” 지우가 샌드위치를 삼키며 말했다. “그러니까 시간 빠르다. 31일은 출발일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앞으로 딱 4일 남았네.” 조금 우울해졌다. 4일 후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적응할 수 있을까? 그 숨이 턱턱 막히는 일상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저녁을 여유롭게 먹고 각자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진짜 4일 남았다.” 방에서 한숨을 쉬며 혼잣말로 되뇌었다.

다음날 우리는 송네피오르로 향했다. “환승을 벌써 3번째네. 오늘은 베르겐에서 환승할 예정이야. 오늘은 좀 여유롭겠지?” 우리는 9시쯤 스톡홀름 공항에서 베르겐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베르겐에서 환승시간이 1시간뿐이라 정

신없이 환승을 한 끝에 힘겹게 송달행 항공편을 타게 되었다. 50분 만에 초록 벌판이 드넓게 펼쳐진 노르웨이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지막 노르웨이가 시작 되었네.” 지우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신청한 송네피오르 버스 투어를 타러 갔다. 10명가량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다. 송네피오르의 자연관경을 보기 위해서는 페리를 타야했다. 우리는 선착장에서 페리를 타고 투어를 시작했다. 페리가 출발할 때 갑판에 나가서 본 송네피오르의 풍경은 절벽과 산이 이루는 높은 산맥 사이로 강이 흐르는 영화에나 나올법한 풍경이었다. 사이사이 흐르는 폭포는 더 송네피오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 장엄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오직 산과 강만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아름다움에 지우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렇게 크고 웅장할 줄 몰랐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 이걸 볼 수 있다는 게.” 눈이 내려앉은 송네피오르의 겨울은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그냥 감탄 밖에 안 나와. 헬싱키에서 스톡홀름에서 봤던 것 보다 더 영향력 있고 아름다워. 인공 건축물이 아닌 자연환경이 훨씬 위대하네.” 우리는 한참을 보며 사진을 찍었다. 배는 반나절을 강을 돌아다니며 송네피오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초록색 산과 절벽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는 강에서 한참을 꿈처럼 빠져있었는데 얼마 뒤 배가 거의 다 도착했다는 말이 들렸다. “너무 아쉽다! 좀 더 보고 싶은데.” 우리는 배에서 내렸고 선착장에서 예약한 산장까지 향했다. 저녁은 산장에서 준비해준 연어 요리였다. 연어는 회로 구운 요리로 훈제 요리로 찜 요리로 다양하게 나왔다. “회가 신선해서 좋아. 냉동이 녹은 느낌이 아니라 보드랍게 씹히는 생물의 맛이랄까.” 지우는 나의 말을 듣고 회를 입에 집어넣었다. 그 순간 지우의 눈이 커졌다. “진짜네. 맛있다!” 짧은 평가였지만 맛있게 먹고 있었다. 우리는 인생에서 먹어 볼 연어보다 더 많은 양의 연어를 먹었다. “내일 송네피오르 좀 돌다가 오슬로 가야 돼. 푹 쉬어.” 지우는 방문을 열며 말했다.

피곤한 그날 밤 정말 푹 자고 일어났더니 10시였다. 아침은 토스트로 간단하게 먹고 산장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있는 지우에게 갔다. “진짜 좋다!” 내가 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니깐 언젠가 다시 와 보고 싶어. 그때는 좀 더 성숙해지고 안정적일 때, 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서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즐기려고 오고 싶어. 뭐, 지금도 충분히 즐기고 있지만.....” 지우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응! 그때도 같이 오자.” 내가 말했다. “우리 6시 30

분 비행긴데 지금이 11시네. 공항까지 1시간정도 걸리니까 4시에 출발하면 돼. 좀 편하게 쉬자." 지우는 다리를 뻗으며 말했다. "응 푹 쉬자."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나는 조금 멈춰 있던 일기속의 시간을 다시 돌려놓았고 지우도 쓰지 못한 일기를 쓴 것 같았다. 친구들과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 2시 48분이 되었다. "오늘 일몰이 3시 5분이라는데 황혼 볼래?" 지우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며 말했다. "좋아! 아쉬웠어. 매번 해 지는 걸 못 봐서." 한번쯤 북유럽에서 황혼을 느껴보고 싶었다. 우린 걸어서 산장 앞까지 향했다. "예쁘다!" 황혼은 시작되고 있었다. "난 황혼이 제일 좋아.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둘의 하늘을 모두 볼 수 있잖아. 색깔이 가장 많은 시간이라서 좋아." 지우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사람이랑 비슷하다. 사람도 꼭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건 아니잖아. 누구나 여러 가지 얼굴이 있고 보여주고 싶은 면과 가리고 싶은 면이 있는 것처럼 하늘도 낮엔 밤을 밤엔 낮을 보여주지 않잖아. 어떨 때는 이런 면을, 다른 때는 저런 면을, 두 가지가 한 번에 나오는 시간이잖아. 황혼은 그래서 좋아." 나 역시 하늘을 보며 말했다. 오후 3시의 일몰은 색달랐다. 송네피오르 위 하늘의 색깔은 마치 여러 가지 물감이 풀어진 팔레트 같았다. 송네피오르 위에서 춤췄던 황혼의 하늘은 어느덧 해가 지면서 사라졌다. "벌써 어두워졌네." 지우는 입고 있던 파카를 벗으며 말했다. 어느새 3시 30분 공항으로 갈 준비를 마치러 방으로 들어가 짐을 끌고 나왔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다시 송달공항으로 향했다. "우리 여행의 마지막 도시 오슬로로 향하네." 내가 아쉬운 표정으로 공항버스 속에서 말했다. 최대한 숨기려 노력하며 말했지만,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순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송달공항에 내렸다. "오슬로 가는 항공편은 직항이니까 오랜만에 편하게 가자!" 우리는 능숙해진 손놀림으로 셀프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을 끝내고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기다렸다. 지우는 또 기념품 가게를 찾았다. 송네피오르 모형과 엽서 이것저것 사왔다. "도원아 여기 기념품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공항에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지우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비행기에 탔고, 잠든 채로 오슬로까지 비행이 계속 됐다. 조금 지나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땅이었다. 지우를 깨웠고 게이트에 도착하자 빠르게 공항에서 짐을 찾고 밖으로 빠져 나왔다. 시계를 봤더니 8시였다. "우리 여행의 마지막 도시 오슬로가 시작 됐네." 지우가 걸어가며 말했다. "우리 시내로 들어갈 때 일반 철도를 타고

들어갈 거야. 쾌속 철도는 30분정도 걸린데. 근데 너무 비싸!" 내가 일반 철도인 로칼톡 티켓 구매 기계 앞에 서서 말했다. 우리는 티켓을 사서 철도를 타러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5분쯤 지나 철도는 도착해 우리를 태웠다. "진짜 시작이네. 오슬로에서의 시작!" 지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마지막이니까 더 열심히 놀아야지!" 내가 다짐하듯이 말했다. 로칼톡은 30분 만에 우리를 오슬로 중앙역에 내려주었다. 사람이 북적북적한 중앙역을 벗어나 우리가 예약한 호텔로 향했다. "저녁은 스테이크 먹을까 하는데 어때?" 호텔에 짐을 두고 나니 9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슬슬 배가 고파왔다. "스테이크 괜찮아. 거기로 가자. 배고프다." 지우가 배를 잡으며 말했다. 9시가 다 돼서 들어간 식당은 어두웠지만 그래서인지 더 아늑했다. "스테이크 먹을래? 아니면 다른 것도 있어." 내가 메뉴판을 위 아래로 살펴보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스테이크 먹고 싶어." 지우가 결심한 얼굴로 메뉴판을 덮으며 말했다. "그러면 샐러드 하나랑 스테이크 두 개 하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분쯤 기다려 우리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다. "샐러드가 엄청 신선하다." 지우가 양상추를 아삭아삭 씹으며 말했다. "응 스테이크 굽기도 적당하고 육즙도 좋아." 적당히 구워진 스테이크와 아삭아삭한 샐러드가 이루어진 완벽한 저녁이었다. "어둡긴 한데, 난 어두운 식당이 더 좋아 편안한 느낌이 들어." 아삭아삭 거리는 소리와 고기 씹는 소리가 한참을 이어지다가 우리의 식사는 끝났다. "많은 걸 배우고 가네." 호텔로 돌아오던 길에 지우가 니트에 붙은 먼지를 떼어내며 말했다. "너랑 같이 와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여행을 오면서 위로해주는 법을 배웠어."내가 웃으며 답했다. "어디 있든 그게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충분히 좋은 여행이 아닐까?" 지우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응" 짧게 대답하고 앞을 보니 호텔 앞이었다. 여느 때 와 다를 바 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오슬로에서의 첫날밤은 지나가고 있었다.

기분 좋게 들어오는 햇살이 나를 일어나게 했다. 조금 늦게 일어난 감이 있었지만 그리 늦은 시간은 아니었다. 옆방 문을 두드려 지우를 깨웠다. 지우는 바로 나왔고, 우리는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오늘 가장 먼저 오슬로의 중심에 위치한 오슬로 시청사를 갈 거야. 1950년 오슬로 시 창립 900주년을 기념해서 완공된 건물이야. 매년 12월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하는 곳

이기도 하지.” 지우의 설명이 끝나고 우리는 아침 산책 겸 걸어 시청사에 도착했다. “들어 가보자.” 딱딱한 외관과는 달리 안은 벽화로 가득했다. “오늘은 1층밖에 공개를 안 하네. 뭉크의 방에는 1938년 사들인 뭉크의 작품 인생이 있다고 하는데 아쉽다.” 나는 안내를 보며 말했다. “벽화가 스톡홀름이랑은 다른 느낌이야. 여기는 추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고전 느낌이 나는 그림이 아니라 반 정도는 추상적인 느낌이다. 보기 좋기보단 보다 보면 마음이 울리는 느낌이야.” 지우가 벽화를 감상하며 말했다. “응. 부분마다 다르게 느껴진다.” 한참을 1층 중앙에 서 있었다. 30분쯤 벽화를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왔다. “이제 뭉크의 절규가 있는 오슬로 국립 미술관으로 가자.” 지우가 나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며 걸음을 재촉해 걸으며 말했다. 5분 만에 국립 미술관에 도착한 우리는 미술관 안으로 들어갔다. “뭉크 작품만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피카소나 다른 화가들의 작품도 있구나.” 지우가 그림을 보며 말했다. 뭉크의 작품을 기다리며 그림을 보는데 마침내 건너편의 뭉크의 ‘사춘기’가 보였다. 그 앞으로 다가갔다. 벌거벗은 채 침대에 앉아있는 소녀는 불안해 보였다. 슬퍼 보였고 아파보였다. ‘괜찮아?’라고 물어보고 싶었다. “알 것 같아. 나도 그랬거든 내가 더 이상 사랑만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무서웠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내가 싫기도 했어. 너무 힘들고 아프기만 한데, 남들은 다 괜찮아질 거라고만 해. 난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거든. 그냥 한번 꼭 안아주길 바랐는데, 힘드냐고 물어봐 주는 거였는데 결국에 지나가더라. 아픔은 무뎌지고 힘든 기억은 지워지더라. 저 그림 속 소녀도 나와 같아 보여서 안아주고 싶다.” 그림 앞에 한참을 서 있던 내가 지우에게 말했다. “사춘기 속에서 방황한 시간들은 너무 아팠었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서 방황하기도 했었고, 나도 너랑 비슷했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가끔 네가 전화해서 받으면 울고 있고, 그러다가 나도 울고. 지금 와서 보면 나름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준 것 같아. 버텨낸 나한테 수고했다고 해주고 싶네. 이 그림을 보니까.” 지우도 한참을 서성이다 내게 말했다. 그 순간 눈물이 내 눈을 따라 흘렀다. 다음 그림은 절규였다. “5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9년 뒤엔 누나도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여동생은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아버지 역시 우울증이셨다고 해. 여동생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뭉크가 파리에 있던 1889년에 세상을 떠났고, 남동생은 31살에 세상을 떠났데. 엄격한 기독교 신자였던 뭉크의

아버지는 뭉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탐탁지 않아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지우가 절규를 보며 나에게 말했다. "깊은 좌절에 빠진 사람을 표현한 뭉크의 절규가 와 닿는 것 같아. 우울하고, 지치면 정말 그게 한도 끝도 없이 파고들거든. 아픔은 무뎌지더라도 영원히 지워지지는 않아. 언젠가 떠오르고 가끔 슬퍼오는 때가 있는데, 그냥 그때 울어버리는 게 나아. 아픈 기억을 조금은 보낼 수 있거든." 사춘기보다는 아니었지만 절규 역시 마음을 울렸다. 슬픔과 괴로움을 저런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우리는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미술관을 빠져나왔다. "아팠던 시간이랑 내 힘들었던 기억 그리고 사춘기를 애써 지워보려 했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줬어. 근데 많이 슬프거나 하지는 않아. 그때의 기억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큰 걸지도 모르겠다." 지우가 점심으로 먹으려고 하는 포장 초밥 도시락을 고르며 말했다. "연어 먹을래? 노르웨이 산 연어로 만든 초밥이라는데?" 지우는 답하지 않고 진열된 초밥 중 연어 초밥을 집어 올렸고, 나는 롤스시를 먹기로 했다. 아직은 낮이라 따스한 햇볕이 비춰지는 시간에 미술관 앞 벤치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우린 여유를 즐기며 점심 식사를 끝냈고 왕궁으로 향했다. "아쉽게도 왕궁 개방 시기가 아니라 외관만 보겠다. 노르웨이 왕궁은 카를 14세가 짓기 시작해서 약4년 뒤 완성되었어. 현재 노르웨이의 국왕 하랄5세가 살고 있어." 내가 설명을 했고 지우는 건물을 보더니 입을 열었다. "외관은 스톡홀름 왕궁보다 소박해 보이고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안이 더 궁금해. 반전이 있을 것 같아." 나 역시 그 말에 동의를 하며 왕궁을 지나쳐 다음 장소로 향했다. "이제 비겔란 조각 공원으로 갈 거야. 비겔란 조각 공원은 노르웨이의 조각가 구스타프 비겔란과 그의 제자들이 만든 조각들로 가득한 공원이야. 인간의 삶을 주제로 만든 조각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특히 하이라이트는 공원 중앙의 모노리탄으로 14m의 조각 안에 121명의 인간이 들어가 있다고 해" 지우의 설명이 이어지는 사이 트램은 달리고 있었다. 20분간 트램을 타고 달려 비겔란 조각 공원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제 감상을 하자." 사람만이 조각돼 있었다. 주제인 인간의 삶과 정말 잘 맞는 작품들만이 있었다. 엄마와 아이, 아빠와 아들,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조각으로 표현한 듯 했다. "평화롭다! 사람도 별로 없고 여기 마음에 든다!" 지우가 신나서 공원을 뛰어다니며 말했다. 마침내 모노리탄에 도착했다. 121명

의 남녀가 뒤엉켜 이루어진 탑은 조금 기이하면서도 신기했다. “신기하긴 한데 나는 좀 별로다.” 내가 얼굴을 조금 찡그리며 말했다. “아무리 서로 짓밟고 올라가도 결국엔 아무것도 없다. 이런걸 보여주네.” 지우는 연신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어느새 4시가 넘어가는 시간 해는 지고 있었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서 좋다.” 조금은 맘에 들었다. “아케르스후스 요새와 성으로 가자. 트램으로 30분정도 걸리니까 빨리 가자!” 우리는 뛰어가 트램을 타고 밖을 보며 여행을 즐겼다. 꽤 지나 아케르스후스 요새에 도착했다. “1299년 건립하기 시작했고, 노르웨이 왕들이 머물었다고 해.” 짧은 설명 후 요새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성은 입장이 끝나서 요새만 보자.” 넓은 바다가 앞에 펼쳐진 요새는 아름다웠다. “깨끗한 바다가 넓게 펼쳐져서 상쾌하고 탁 트인 느낌이야!” 지우와 나는 한참을 앉아 바다를 봤다. “이제 슬슬 오페라 하우스로 가자.” 20분쯤 걸어 가장 보고 싶었던 하얀 건물 오페라 하우스를 볼 수 있었다. 하얀 건물이 어두운 밤바다 위 빙산처럼 보였다. 바다에 맞닿아 있는 하얀 바닥이 특히 맘에 들었다. “진짜 예쁘다. 하얗고 그래서인지 어두운 밤이랑 특히 잘 어울려.” 하얀 대리석 바닥위에 앉아, 어두운 밤바다를 보았다. “너무 마음에 든다. 오슬로에서 밤을 장식 할 수 있어서 좋아.” 나의 말이 이어졌고, 우리는 하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밤바다를 그리고 까만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내일 일정은 없으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네. 그래도 후회는 없어. 행복했던 여행이야.” 내가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내일은 푹 쉬는 걸로!” 지우의 말에 “좋아! 좀 쉬어야지.”라고 답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호텔 식당으로 향했다. “오늘 저녁은 뷔페야. 제대로 먹는 걸론 마지막이니깐!” 지우가 접시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잔뜩 먹고 싶은 음식을 담았고, 우리의 식사는 감탄사로 채워졌다. “잘 먹었다!” 푸짐한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오랜만에 푹 자자는 생각으로 알람도 꺼버리고 잠에 들었다.

그 다음날 12시에 일어났다. 지우에게 문자가 와 있었다. “난 수영장 간다!” 수영장이라니 체력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며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을 먹으며 어제의 일들을 일기로 적어냈다. 점심은 컵라면으로 끝내고 나니 나가기도 싫어져서 호텔 안에 있다 보니 8시가 되어 잠에 들었다. 다음날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고 체크인을 끝내고, 탑승을 해서 모스크바까지, 모스크바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로 갈아탔다. 한참을 자고 일어나니 어느새 착륙을 5분후 하겠다는 기장님의 말에 우리 둘 모두 깨어났다. “여행 어땠어?” 지우가 일어나 물었다. “나를 찾은 시간이었어.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숨겨 두었던 진짜 나의 모습을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좋았어.” 나는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나는 너를 더 알 수 있었어.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감정에 대해 확신이 생겼어.” 지우가 긴 편지를 쓰며 말했다. “아 참! 그리고” 지우가 다시 말했다. “응? 왜?” 지우의 표정을 보고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1월1일 하늘 위에서 우리의 여행은 끝이 났다.

첫 번째 나의 소원

초등부 우수상 · 시 / 김주영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비행기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공항은 어떻게 생겼는지
비행기 내부는 어떤 모습인지
하늘을 나는 기분은 또 어떤 기분일지

친구들은 자주 비행기 탔단 이야기를 한다.
나도 비행기를 타고 싶다.

만약 타고 여행을 간다면
미국으로 또,
제주도로 여행 가고 싶다.

나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랑 또,
친구 가족이랑도 여행을 가고 싶다.

이 바람은 나의 첫 번째 소원이다.

꽃잎 소녀

초등부 우수상 · 소설 / 김한슬

프롤로그

“비행기는 늘 고마워,
사람들에게 늘 기대 이상의 선물을 해주니까. 가면 늘 새로운 곳이고 새로운 곳에서 지칠 무렵 자신의 고향으로 데려다주잖아.”

00. 다채로워,

후드득 내리는 소나기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는 한 그림자. 긴 속눈썹과 높은 코가 참 예뻐 보였다. 소녀는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다. 매일 밤 창밖을 내려다보며 지금은 인적이 아주 드문 배수관을 응시했다. 신기했다. 매일 보는데도 꽃들이 참 예뻤다. 엄청나게 잘 그리지는 않았지만, 배수관에 그려진 꽃을 보면 연잎 차를 한 모금 마신 것처럼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그 옆에 물방울처럼 콕 찍어 있는 듯한 흰색 비행기는 푸른 하늘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는 저 정원을 그린 사람은 부드럽고 섬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작은 꽃 하나에도 여러 색을 입힌 것이 단순히 화려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간혹가다가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그림을 보고 감탄사를 뱉었다. 마음 한 켠 에서 뜨거운 것이 울렁거리며 마음을 스르르 녹이는 감정을 느꼈다. 그런 감정을 느낀 사람들은 집주인이 취미로 그렸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거리 화가가 그렸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녀는 화가가 그렸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풍경화는 순수한 동심이 묻어나는 그림이었고 물감의 질을 보았을 때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수제 물감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01. 꽃잎 소녀

소녀는 꽃잎 소녀였다. 꽃잎처럼 아름답고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흔히 말하는 소인이었다. 소녀는 꽤 당당하게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소녀는 처음에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살았다. 주홍색 벽돌로 쌓은 4층쯤 되어 보이는 주택은 맑은 하늘과 푸르른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이었다. 그런 풍경은 소녀 또한 좋아해서 매일 보름달이 뜨는 날 밤이 되면 서늘한 공기를 마시며 보름달과 별을 감상했다. 아기자기한 소렌토의 주택들은 하나같이 여유로웠다. 시장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곳에서는 쫀득하고 달달한 젤라또가 유명했다. 아이스크림과 달리 단단하고 진한 맛을 내어 사람들이 많이 먹는 간식이었다. 사람들은 젤라또를 먹으며 청아한 바다를 보곤 했다. 소렌토 해안 앞쪽에는 물감을 탄 듯 몽글몽글한 에메랄드색 바다가 잘 보였고 더 나아가 해안가에는 청량한 바다가 철썩철썩 바위를 때렸다. 계속해서 치대는 파도에 바위는 계속 파였다. 그렇게 파인 바위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둘씩 이름이 붙여졌다. 특이한 바위 중에 어떤 것은 그림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위의 모양이 사람 그림자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렇게 소녀는 매일 매일을 여유롭게, 또 한가하게 보냈다. 대부분 사람이 어쩌다 소녀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쳤으며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이 많아서 잘 안 보이는 탓에 사람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게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소녀가 발걸음을 공항으로 돌리게 된 계기가 생겼다.

“어…. 어”

“ 저기!”

“피해!”

“어쩜 좋아?”

사람들이 난리를 쳤고 모두 두려움에 떤 눈동자로 한 곳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소녀도 모르게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 광경은 끔찍하다 못해 참혹했다. 차라리 보지 말 걸 그랬다. 그냥 넘겨버릴걸. 그것을 보기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02. 산산조각

불에 탄 주택들은 재가 되어 바닥에 흩어졌다. 아름다웠던 마을의 모습은 누가 검은색 물감으로 낙서한 것처럼 엉망으로 보였다. 소녀는 정신을 잃은 것처럼 마을을 돌아다녔다. 배수관에 그려진 그림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림이 그려진 곳이 모두 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림을 그곳에서 생각할 수는 없었다. 소녀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림 한 점에 우는 것을 본다면 대부분 사람은 과장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녀에게 그림은 엄청나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으므로 그 그림이 없어진다는 것은 삶의 큰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었다. 그 후 소녀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 더 이상 살아갈 의욕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소녀와 그림을 제외하고 마을과 사람들은 예전 모습을 찾아갔다. 달달하고 쫀득한 젤라또는 여전하게 인기 상품이었고 푸른 바다는 계속하여 손님들을 끌어왔다.

소녀는 옹기종기 모여 있는 주택들을 지그시 보았다. 그 주택 너머 바닷가에서 달리는 배가 보였다. 힘차게 달리는 배에 살짝 원망이 들었다. 아주 조금만 느리게 가준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소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기가 싫었다. 이곳은 너무나도 밝고 힘차서 현재 자신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기로 했다.

소녀는 비행기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 온 곳이 한국이었다. 씁쓸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작은 전원주택에 짐을 풀고 살기 시작했다. 소녀는 이곳이 마지막 정착지가 될 것이라 생각했고 여기서 그 어떤 것을 사랑해서 더 이상 상처받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았고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지도 않았다.

03. 다시

대부분의 꽃잎 소녀, 소년들은 혼자 살았다. 함께 있으면 사람들 눈에 띄기도 쉽고 잡히기도 쉬워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했다. 간혹 그들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신기해하며 장식품쯤으로 소유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았다. 사는 곳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전원주택 속 숨어서 살고 종종 숲에서 살기도 한다.

그러나 숲은 동물들이 많이 다녀 잡아먹힐 위험이 커서 사람들에게 들켰을 때만 숲으로 갔다. 마지막은 공항이었다. 아주 극소수의 꽃잎 소녀와 소년들만 이곳에서 살지만, 꽤 살 만했다. 정확히는 머문다고 하는 것이 맞다. 사람들을 따라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려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니까. 공항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객이거나 사업차 외국엘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없어서 꽃잎 소녀, 소년들이 활동하기 더 편했다. 먼저 공간적으로 넓어서 지내기 수월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나기에도 춥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꽃잎 소녀 소년들은 공항에 자주 머물렀다. 그러나 소녀는 한국에 왔을 때 한곳에 정착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전원주택에 숨어 살았다. 아담한 3층 집과 그 속에 널찍한 테라스, 그 테라스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다. 또한, 먹을거리를 주는 작은 정원이 있었기에 다른 곳 부럽지 않은 장소였다. 그렇게 소녀는 5년 정도를 이곳에서 살았다.

쓰름매미가 쓰름쓰름 우는 밤, 소녀는 허브 티 한잔을 마시며 작은 가방에 핀, 빵, 하수구 배수관에 있던 그림의 일부분, 허브, 나무젓가락의 일부, 그리고 마지막 작은 가위까지 넣었다. 소녀는 여기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결국에는 집을 떠나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계속 눈에 겹쳐 보이는 그림 때문이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다시 넓은 세상을 보기로 했다. 공항에서 머물기로 다짐 한 그 날부터 소녀는 짐을 챙기기로 마음을 먹었고 사람들이 공항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 오늘만을 기다렸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았던 집을 살펴보았다. 테라스 앞 작은 구멍에 그려놓은 여러 그림이 꽤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게 후회라는 것인가. 아기자기한 컵과 식기품, 침대까지. 모두 정이 담뿍 들어간 물건들이었다.

후덥지근한 여름밤.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안았다. 그때 작은 꽃잎 소녀가 신발 사이로 들어갔다. 그렇게 꽃잎 소녀는 다시 모험을 시작했다.

04. 우연

시끄러운 것을 보니 벌써 공항이었다.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소리 들을 냈고 그 소리가 모여 공항은 너무 혼잡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딱히 조심할 것은

없어 보였다. 모두 자신의 것만 신경 쓰다 보니 다른 주변의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주의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캐리어에서 숨어지내며 사람들 몰래 한입씩 젤라또를 핥아 먹었던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다시 그 그림이 떠올랐다. 자신의 전부였던, 한국으로 오게 만들었던 그 그림. 그렇게 추억을 더듬더듬 짚으며 캐리어에서 시간을 보냈다.

"앗!"

"죄송합니다."

"아니 저놈이! 사람을 치고 갔으면 사과를 제대로 해야지!"

"…… ."

소녀는 어떤 아이 때문에 캐리어에서 떨어졌다. 능청맞은 아이의 뒷모습이 어디선가 보았던 것 같았다. 기분 탓이겠지 하며 치마를 털고 일어났다. 손을 쭉 펴서 스트레칭을 하던 순간,

"꺅! 소, 소인이다!"

캐리어 위로 올라가려 하는데 밝은 빛을 가리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있었다. 이대로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허탈한 웃음을 지며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소녀를 낚아채는 사람이 보였다. 손에서 벗어나려고 손가락 사이를 비집고 틈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아찔한 높이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순간, 귀에 들어온 굵직한 목소리가 소녀의 행동을 가로막았다.

"가만히 있어 봐. 도와줄게."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직스럽게 보였다. 소녀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느낌을 받았다. 아이답지 않은 차분한 음성의 톤과 어린 소년답지 않게 굵고 짙은 눈썹이 그 믿음을 더 갖게 했다.

"어, 여기 내 동생 인형이 떨어져 있네."

조곤조곤 말하지만 작지는 않게 말하는 아이의 옷에서 비누 냄새가 났다. 마음속 깊숙이 저장되어 있던 향기가 되살아나 몽환적인 느낌을 주었다. 이 냄새 참 좋았는데.

"아니 내가 진짜 봤다니까 그래!"

소인을 봤다고 주장하는 아줌마는 윽박지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지

후다닥 자리를 피했다. 그 아줌마가 자리를 피하자 다른 사람들도 자리를 떠났고 차츰 공항이 정리되었다.

05. 미련

"우와 진짜 소인이 있긴 하네?"
소년은 차분한 음성에서 벗어나 이제야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이럴 거면 나 혼자 가도 될까?"
소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싫었다.
"아…. 미안. 불편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야."
"……"
"괜한 이야기를 했구나."
"내려줘."
"응?"
"나갈 거라고."
"아, 알겠어."
소년의 손에서 내려온 소녀는 그대로 사람들 사이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순식간에 휙 가버린 탓인지 소년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소년도 소녀를 잡고 싶지 않았다. 당차 보이는 소녀의 말속에서 가늘게 떨리는 소녀의 몸을 느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소녀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빠르게 사라지는 소녀를 그대로 둔 것인지 모른다.
소녀는 자신을 순순히 놓아준 소년이 착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자신을 잡아 소년의 호기심을 채울 수도 있었고 나중에는 애완동물처럼 큰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소년은 순순히 놓아주었다. 그런 소년의 눈동자마저 순수해 보였다. 어쩌다가 자신을 구해줬는지는 모르지만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도 표현하지 못해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아쉽기도 했다. 고마움이란 단어가 뒤늦게 소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왜 말하지 못하고 와서 이렇게 마음을 헝클어 놓는지 계속 미련이 남았다.

06. 소년의 이야기

소년은 피곤한 눈을 겨우 붙들어 지친 몸을 의자에 뉘었다. 한시라도 빨리 자고 싶었다. 한 문제만 딱 한 문제만 더……. 그렇지만 야속하게도 페이드아웃 되듯이 점점 시야가 흐릿해지며 결국엔 검은 화면밖에 남지 않았다. 눈을 뜨려고 해도 소년은 곧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자신의 몸을 그 알 수 없는 힘에 맡겼다.

-"이리와 나랑 가자."

눈을 뜨니 한 중년의 여자가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뒤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절벽뿐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소년은 그 여자와 가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끝없는 어둠으로 묻혀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처음 보는 얼굴 같지 않았지만, 왠지 불안해 보였다. 그 여자는 계속 소년 곁으로 왔고 그때마다 소년은 주춤주춤 뒤로 가려는데 투득하며 돌멩이 하나가 절벽 아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떨어진 지 몇 초가 지난 후에나 작게 퉁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년은 그 중년의 여자에게 다가가기 싫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다. 이제 죽음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몇 초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죽음을 맞이할까 생각이 들었다. 나도 저 돌멩이처럼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 뭔가에 휩쓸린 듯 소년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안된다는 말을 연신 내뱉었지만,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공중에서 허우적대기만 했다.

"헉, 헉……."

엇박자로 쉬었던 숨이 잠에서 깬 뒤에야 제대로 쉴 수 있었다. 꿈이었구나. 그래, 한낱 꿈일 뿐이야. 소년은 자신을 다독였다. 중년의 여자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기분이 나빠 세수나 할 겸 화장실로 걸음을 옮겼다. 얼굴을 씻으니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이 돌아온 뒤부터는 중년의 여자 대신 계속 그 여자아이가 떠 올랐다. 처음 보는 여자애는 참 귀여웠다. 세상에 소인이 존재한다는 생각보다 소녀가 나와 말을 해줄 수 있을까부터 생각했다. 보로 질끈 묶은 머리카락과 하늘색 원피스로 만으로도 아기자기한 모습이었다. 오뚝한 코와 분홍빛 입술이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에 신기하기도 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당찬 눈매에서 의외의 두려움이 묻어나는 소녀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졌다.

07. 무서워도 한 발짝 다가가

소년은 12살 때 하늘이 맑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었다. 부모라는 이유로 자신을 상의 노예로 전락시킨 모습을 보며 힘들었다. 가장 믿었던 부모가 자신을 도구처럼 부린다고 느꼈을 때는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다. 그리고 점점 그것이 세상의 본모습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기로 했다. 12살이란 나이는 부모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가만히 숨죽여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쳐다본 하늘은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미세먼지로 가득 찬 유리 상자 같은 삶은 숨을 막아오고 소년을 더 헐떡이게 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상을 받는 사람들과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갈라지는 삶들. 같은 태양 아래, 하늘 아래 있어도 신분처럼 갈라지는 삶들. 그게 소년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생각했다. 그냥 부모가 시키는 꼭두각시 인형이 되었다. 그냥 순수한 소년으로 남고 싶었는데 세상의 모든 기준을 만드는 그런 기계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08. 나에게는 작은 꿈

기운차게 나는 비행기가 보였다. 엄청나게 큰 비행기는 사람들을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지금 떠나는 비행기가 이탈리아 직항 비행기라고 했다. 소녀는 이탈리아 푸른 바다의 소렌토가 생각이 났다. 때론 부드럽고 가끔 쏘아대듯 넘실거리는 파도들이 눈에 그려졌다. 소녀는 한국에 온 뒤로 가끔 고향이 떠 오를 때마다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어떻게 이곳으로 왔는데 다시 그곳이 떠오르다니 하는 마음이었다. 비행기가 떠났으니 떠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림이나 그리자며 스케치북을 빼 들었다. 사람들이 버린 연필로 자신의 크기에 맞게 다시 만들었다. 힘찬 비행기를 그리고 있으니 소렌토의 바위 그림이 계속 생각났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이탈리아를 다시 가고 싶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멈추고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더니 하수구 배수관에 그려진 꽃들이 눈에 아른거렸다. 색상이 대체

로 밝아 환한 느낌을 주었던 꽃들이 다르게 보였다. 살짝 애처로워 보인다. 이건 뭘까. 밝은 느낌만 드는 것 같았던 꽃들이 한풀, 두풀, 하나씩 꺾이고 결국에는 다 꽃이 꺾였다. 그렇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았다. 바탕이 붉게 변하자 두려워 눈을 급하게 떴다.
아, 꿈인가?

09. 인연

소녀는 깜빡 잠이 들었다. 누가 보지는 않았겠지? 엇, 근데 가방이 없다. 저 멀리에 가방하고 소지품이 떨어져 있었다. 들킬세라 빠르게 가방을 잡는데 가방이 점점 움직인다. 잡으려 하면 도망가듯 가버린다. 가방이 사람의 힘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은 7번 게이트쯤에서였다. 도망치려 발걸음을 뒤로 옮기려는데 여자애가 소녀를 잡았다. 주근깨가 가득한 말괄량이처럼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와~ 이 인형 진짜 못생겼다.”
여자아이는 소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야, 너 말 좀 해봐. 재미없어.”
여자아이는 소녀를 위아래로 흔들며 장난감 취급을 했다. 여자아이는 장난을 치는 것이었지만 소녀로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구세주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야, 왜 네가 내 인형 가지고 있냐?”
굵직한 것이 믿음직한 목소리였다. 고개는 돌리지 않고 눈길만 목소리를 향했다. 아까 본 소년이었다. 그나마 더 늦기 전에 착한 아이가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네가 뭔 상관인데! 내가 얘 데리고 왔거든! 신경 쓰지 말고 가버려!”
“그럼 사탕하고 바꾸는 것은 어때?”
“사탕? 음……. 그래!”
생각보다 순진한 아이라 놀랐다. 사탕 같은 먹으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주운 장난감을 포기하다니 나이가 어리긴 어리다고 생각했다.
소녀는 소년의 손으로 넘어간 동시와 너무 편했다. 가끔 너무 높아서 현기증이

나기도 했지만 말이다.
“괜찮아?”
“응……. 고마워.”
“뭘.”
짤막한 말을 나누고 정적이 흘렀다. 어색했다. 소녀와 소년은 동시에 호기심이 아닌 다른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신기했다.
“넌 어디로 갈 거야?”
“나는 미국. 미국에서 부모님이 공부하래서. 사실 딱히 가고 싶지는 않아.”
포기한 듯 말하는 소년의 눈동자에서는 더 착한 마음이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에 화나고 고달픈 모습이 보였다. 믿은 사람에서 받은 배신감에 대한 분노.
“너는 어디가?”
“더 갈 곳이 없어. 어떤 것을 잃어버려서 그것과 비슷한 것을 찾으려 한국으로 왔는데 여기에서도 뭔가 계속 잃어버린 느낌이야.”
사실 소년에게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소녀 스스로 놀랐다. 한 번도 인간과 이런 이야기를 맘속의 말을 나눈 적이 없어서였다.
“그럼, 넌 어디 가고 싶은데?”
“난……. 이탈리아.”
“이탈리아라.”
“나는 원래 이탈리아에서 지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여기로 왔어, 지금은 다시 가고 싶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네가 원한다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말 간절하다면 말이야. 한번 생각해봐. 진짜 가고 싶은 것인지.”
“아마…….”
소녀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 가는 기회를 놓친다면 후회가 될 것 같았다. 고향이자 다시 가고 싶은 나라지만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떨렸다. 그 떨림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다. 자기 삶의 일부가 없어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져 오기도 했다. 공항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10. 재회

몇 년이 지났을까. 소렌토의 항구는 그전과 똑같이 시끌벅적했다. 밤이 되자 가로등이 켜지고 주택 사이사이에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다. 은은한 거리의 빛들은 검게 변한 바다와 잘 어울렸다. 그 어울림 사이에 한 소년이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시끄러운 주변 소리와 잘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웃음이었다. 소년의 시선은 한곳에서 머물러있었고 웃음이 그치질 않았다. 누가 보면 혼자 이야기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소년의 웃음은 정신 나간 사람이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알아차릴 그런 웃음이었다.

에필로그

“비행기는 늘 고마워,
사람들에게 늘 기대 이상의 선물을 해주니까. 가면 늘 새로운 곳이고 새로운 곳에서 지칠 무렵 자신의 고향으로 데려다주잖아.”

열두 살, 우리들의 비행기 학교

초등부 우수상 · 수필 / 박호원

몇 시간 동안 나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에서 창밖만 바라보았다.

“와! 공항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내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조용하고 차분한 걸 좋아하는데……. 이런 내가 아이들과 함께 활달하게 제주도 체험학습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탑승 수속을 하려고 줄을 섰을 때에도 친구들은 왁자지껄하게 큰 소리를 냈다. 나는 그런 아이들 속에서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드디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비밀이 가득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창문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야, 조금 있으면 제주도에 도착하겠다!”

“한라산도 등반한다는데, 잘 올라갈 수 있을까?”

“제주도에서 먹는 밥이 맛있었으면 좋겠어.”

친구들의 소리가 비행기 안에 퍼져나갔다.

그때까지도 나는 입을 꾹 다문 채로 창밖만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잠이 올 것 같았다.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나와서 졸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호원아! 비행기 타니까 진짜 신난다.”

준용이가 나를 보고 활짝 웃고 있었다.

“어?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나는 비행기를 많이 타봤거든."
준용이는 계속해서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나는 그런 준용이를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참, 준용이가 어렸을 때는 일본에서 살았다고 했지?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비행기도 많이 타봤겠구나.'
준용이는 비행기 창문 밖을 내다보더니 다시 말을 했다.
"호원아! 비행기를 많이 타봤지만, 오늘처럼 신나지는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하고 함께 여행을 가니까, 너무 신이 나."
"어, 그래."
나는 짧게 대답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건너편에 있던 도혁이도 고개를 쑥 내밀면서 큰소리로 말했다.
"음음, 모두들 자리에 앉아 안전하게 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평소에도 익살스러운 도혁이가 재미있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도혁이의 얼굴을 본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내 입에서도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런 우리들을 찬찬히 보던 승무원 누나도 함께 웃었다.
우리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하늘로 붕 떠올랐다. 귀에서 약간 멍한 느낌이 들었다.
"야,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준용이의 표정이 해맑았다.
"이것 봐! 벌써 하늘 위로 올라왔어. 저 아래 좀 봐."
우리는 창문 밖으로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이는 아래쪽을 보았다. 그런 다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참을 웃었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기장님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 비행기가 잠시 후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5도씨이고, 구름이 살짝 끼었지만, 대체로 화창한 날씨입니다."
안내방송이 끝나고, 창밖을 내다보니 바다가 보였다. 푸른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자 가슴이 탁 트였다.
"준용아, 저기 좀 봐!"
이번엔 내가 먼저 준용이에게 말을 걸었다.
"우와! 진짜 푸르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르른 바다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뛰었다. 왠지 제주도에서 있는 동안 유쾌한 일이 일어날 같았다. 조금 전까지 내 마음 속에 있던 걱정들은 몽땅 사라져버렸다.

“와! 제주도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아이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맑고 푸르다니!’

나는 제주도의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감탄했다.

그날 우리들은, 비행기 위에서 보았던 바다를 직접 보았다. 그 다음날에는 한라산에도 올랐다. 한라산 어리목 코스까지 오르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완주를 하고, 뿌듯한 마음에 환호성을 질렀다. 마지막 날에는 현재탑, 쌍용굴, 평화 박물관을 방문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이곳저곳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세상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친구들과 함께 지냈던 2박 3일은 너무 짧게 느껴졌다.

마지막 날의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 우리들은 다시 비행기를 탔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네.”

친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비행기에 올라탔다. 비행기 안에서 자리를 앉았는데 포근했다.

어두운 창밖에서는 별빛처럼 빛나는 불빛들이 보였다.

“준용아! 제주도로 올 때는 햇살이 빛났는데, 지금은 불빛이 빛나!”

준용이는 창밖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활짝 지었다.

조금 뒤 비행기가 뜨고, 제주도가 멀어져갔다. 비행기 창문 밖을 쳐다보는 친구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 하게 빛이 났다.

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지금 우리는 열두 살 비행기 학교에 있다고 말이다.

‘비행기 학교에서 있는 동안 준용이, 도혁이,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졌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빠가 사는 몽골

초등부 우수상 · 수필 / 서연우

우리 아빠는 몽골에 계신다. 내가 7살에 가셔서 지금까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엄마와 동생과 나는 아빠를 만나러 3달에 한번 정도 비행기를 타고 몽골에 간다.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을 타면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예전에는 몽골 가는 비행기가 인천에서 가는 것 밖에 없었다고 한다. 우리 집 창원에서 인천에 갔다가 다시 몽골로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여동생과 나는 비행기 안에서 색칠놀이, 그림그리기 등을 한다. 그리고 예쁜 스튜어디스 언니들이 주는 밥을 먹고 쥬스까지 먹고 나면 드디어 몽골이 비행기 밑으로 보인다. 몽골에 대한 첫인상은 산에 나무가 많이 없어서 노란산으로 보인다. 겨울에 갈때는 비행기 밑으로 전부 하얀눈만 보여서 신기하기도 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엄마가 짐을 찾고 문으로 뛰어가면 아빠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달려가면 아빠가 여동생과 나를 같이 안아주시는데 그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그 동안 몽골에 아빠를 만나러 갈때는 항상 추워서 계속 집에서만 놀아서 심심했는데 이번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아빠와 아빠랑 같이 몽골에서 공부를 하는 아저씨랑 석진이 오빠랑 다은이 동생이랑 석진이, 다은이 엄마랑 같이 게르에서 자보는 여행을 가기로 했다. 석진이 오빠네 가족은 우리랑 달리 몽골에서 가족이 같이 살고 있다. 석진이 오빠 가족이랑 같이 석진이 아저씨 차를 타고 게르로 가는 동안 우리는 차 뒤에 앉아서 끝말잇기를 하면서 갔다. 그런데 차가 흔들리고 울퉁불퉁한 곳이 있어서 엉덩이가 아팠다. 그래도 즐거웠다. 가는 길에 거북바위가 보였다. 바위모양이 거북이처럼 생겨서 거북바위라고 한다. 석진이 오빠, 다은이, 나, 여동생, 아빠는 내려서 거북바위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는데 다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몽골은 주위 풍경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산이 많이 없고 나무도 많이 보이지 않았다. 아빠는 그걸 초원이라고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우리 엄마는 무섭다고 거북바위에 같이 놀라가지 않았다. 다음에는 우리 엄마가 겁내기 말고 같이 올라가서 이 풍경을 보았으면 좋겠다. 거북바위에서 내려와서 가는 길에 근사한 호텔이 나왔다. 엄마는 너무 좋다고 자고 가고 싶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게

르를 예약을 해 놓아서 그 호텔에서는 밥만 먹고 나왔다. 한참 초원을 더 갔다. 가는 동안 소, 염소, 양이 도로에도 그냥 지나가고 개울가에도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다. 엄마도 신기하다고 풍경이 너무 좋다고 감탄하셨다. 한참을 더 가서 우리가 예약한 게르에 도착했다. 게르는 몽골사람들이 옛날부터 살았던 전통집인데 위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침대 4대가 있고 가운데는 난로가 있었다.

문이 삐걱거려서 소리도 나고 잘 열리지도 않았다. 우리 게르 앞에는 말이 있었는데 저 말이 우리 게르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을까 계속 가슴이 조마조마했다.그리고 밤에는 별을 보러 석진이 오빠 가족들과 같이 밖으로 나갔다. 우리나라에는 밤에 불빛이 나와서 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몽골에서는 주위가 깜깜하고 밤에 불빛도 안 나와서 엄청 별들이 잘 보였다. 엄마 아빠도 신기하다고 했고 나도 엄청 신기해서 계속 별만 쳐다보았다. 그리고 북두칠성도 보았고 국자모양도 보았고 M모양 별자리도 보았다. 게르에서 자는 동안은 밤에 몽골 주인 아저씨가 난로에 나무를 계속 넣어서 게르 안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 그런데 게르 안이 너무 더웠다가 너무 추웠다가 해서 좀 짜증이 났다. 엄마도 더울 때는 게르 문을 활짝 열고 추울 때는 이불을 푹 뒤집어 썼다. 아빠랑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열심히 잤다. 화장실도 게르안에 없고 밖에 있어서 화장실은 무서워서 혼자서 못가고 엄마랑 같이 갔는데 우리 게르는 그래도 화장실이랑 좀 가까워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르에서 하루자고 나니 우리집이 정말 좋고 편리하구나 생각했다. 게르에서 하루밤을 자고 다음날은 석진이 오빠, 다은이랑 헤어지고 우리가족만 몽골의 전통 공연을 보러 공연장에 갔다. 몽골의 공연장은 우리나라랑 앉는 자리가 좀 틀렸는데 방석에 앉아서 전통공연을 보았는데 그중에서 눈에 띈 것은 마두금이라는 악기였다. 마두금은 내가 평소에 배우고 있는 바이올린이랑 소리가 비슷해서 신기했다. 마두금은 말의 가죽과 말총으로 만드는 몽골의 전통악기라고 아빠가 설명을 해 주셨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가야금같은 그런 전통악기인 듯하다. 그리고 입을 벌리지 않고 작은 소리로 노래를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그런데 계속 나만 쳐다보는듯해서 좀 부담스러웠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이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보던 이마트가 몽골에도 있다니 신

기했다. 이마트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맛있는 과자랑 초콜렛이 많았다. 아빠 얘기로는 다른 외국에서 몽골에 온 과자가 많다고 했다. 어쨌든 아빠가 과자랑 초콜렛 등을 많이 사 주셔서 동생과 나는 기분이 좋았다. 엄마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라면이나 오뎅을 볼 때마다 신기하다고 좋아했다. 엄마는 몽골에 있는 아빠를 위해 몽골에 올 때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온다. 그리고 여기서도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신다. 그러면 아빠는 몽골에서는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이라도 배가 터지게 드신다. 아빠가 얼른 한국에 돌아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그 동안 아빠랑 못해본 게임도 하고, 우리가 다가고 나면 심심할 아빠가 읽어보라고 편지도 써서 아빠 책상위에 올려두었다. 나는 아빠의 오른쪽에 동생은 아빠의 왼쪽에 누워서 같이 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날은 이제 아빠와 헤어질 시간이다. 내 동생은 아빠랑 헤어질 때마다 운다. 그런데 나는 울음을 참았다. 아빠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몽골에 오면 아빠가 초원에 지나가면서 보았던 좋은 호텔에 가서 하루 밤 자고 개썰매를 타러 가자고 했다. 개가 썰매를 끄는 걸 타는 게 상상이 가지 않지만 뭔가 재밌을 것 같아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그때는 아주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와야 된다고 아빠가 여러번 말씀하셨다. 여권을 내는 아저씨 앞에서 아빠랑 나랑 동생은 계속 손을 흔들었다. 아빠랑 헤어지는 건 섭섭하지만 한국에 가서 영상통화를 또 하기로 약속했다. 다음에 개썰매를 타러 올 때까지 “몽골도 잘 있고 아빠도 잘 계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나의 첫 비행

초등부 우수상 · 시 / 장준서

종이로만 날려봤던
하얀 비행기를 타고
꿈꿔왔던 그곳을 향해
쭉 날아가요

처음 타 본 비행기의 흔들림은
안마의자처럼 편안해요

비행기의 엔진 소리는
내 심장 소리와 같이
쿵쿵 뛰어요

옆 사람에게 내 심장 소리가 들리도록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날아라

비행기와 함께 한 유럽여행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김강현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비행기에 관심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항공기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 이스타 항공까지 관심도 있고 다 타 보고 싶다. 서점에 가면 나는 먼저 비행기 책을 찾아본다. 또, 인터넷 검색도 하면서 모르는 것을 보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행기에 관해 영상을 찾아본다.

내가 가장 재미있게 찾아보는 것은 항공사별로 가지고 있는 비행기들과 엔진의 크기 그리고, 좌석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해서 큰 도화지에 작성한 후 엄마한테 쭉~ 설명해 주면 엄마는 나에게 '비행기 똑똑 박사'라고 하신다. 나는 엄마와 우리나라 비행기에 관해 이야기할 때가 가장 좋다.

며칠 전 할머니께서 중국 장가계를 가셨는데, 중국 비행기 '남방항공'에 대해서도 찾아보았다. 또, 내가 보고 있는 비행기 책은 크고 무겁기도 하지만 나는 이 책을 학교에 가지고 가서 반 친구들하고도 함께 본다. 책 속에는 내가 몰랐던 이야기가 더 많아 친구들도 신기해하였다. 나는 이렇게 비행기가 좋고, 세상의 비행기를 다 알고 싶다. 그리고 한 번도 못 타 본 최고급과 비즈니스석과 일등석도 타 보고 싶은 게 나의 꿈이다.

내가 비행기에 관심 두게 된 이유는 아빠랑 둘이서 일본여행을 갔을 때이다. 처음 진에어를 타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진에어를 본 적이 없었다. 실제로 진에어를 보니 꼬리날개 부분에 나비 모양이 있었다. 초록색 바탕에 하늘색과 보라색 나비 모양으로 이뻐 보였다. 그 이후부터 비행기 꼬리날개 부분에 있는 모양과 특징을 찾게 되었다.

어느 날, 엄마가 누나와 함께 셋이서 서유럽을 간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모두 유럽여행은 처음이다. 나는 여행에서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갈지 궁금하였다. 엄마는 터키항공을 타고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한 후 연결편으로 갈아탄다고 하였다. 나는 터키항공에 대해 알지 못하여 인터넷으로 더 찾아보았다. 한 달 전부터 누나와 나는 여행 가는 종이도 출력해서 보고 우리가 가는 나라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의 여러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와 보았다.

나는 엄마랑 누나랑 셋이서 가는 여행은 두 번째다. 처음엔 중국 북경이었다. 그때 내가 만리장성을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엄마가 직접 가보자고 하여 자금성과 만리장성을 보고 왔다. 그리고 이번엔 첫 유럽여행이다. 드디어 우리가 출발하는 날이 왔다.

처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나는 공항검색대에서 물건을 다 꺼내었다. 공항검색대에서 나온 우리의 짐은 안전하다고 느꼈다. 검색이 끝나고 표를 끊고 바로 가이드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정체불명의 봉지가 있었다. 그 봉투 안에는 유럽에서 쓸 콘센트와 여행 일정표 등이 들어있었다. 게이트 앞에서 거의 3시간 정도 기다리자 비행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탑승 후 20분 정도 기다리자 비행기가 유도로로 갔다. 엔진 소리가 더욱더 커졌다. 그때 나의 기분은 긴장과 설렘이 같이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비행기가 속도가 높이자 기내방송이 나왔다. 하지만 못 알아들었다. 왜냐하면, 기내방송이 터키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또 나의 걱정은 14시간을 가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도 되었다. 또 터키항공에서 로마까지 2시간 40분 더 걸린다. 정말 멀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 모니터로 게임을 했다. 영화도 보며 앉았는데 드디어 기내식이 나왔다. 내가 영상으로 미리 봤을 땐 맛있게 보였는데 실제로 먹어보니 기내식은 아주 맛이 없었다. 기내식은 달걀과 토마토가 섞여 있었다. 그래서 맛이 없었다. 나는 터키에 도착했다. 거기서 서둘러 화장실을 가고 2시간 30분을 기다리고 다시 이륙했다. 근데 거의 도착해서 기분이 아주 좋았다. 이제 착륙을 했다. 근데 착륙을 할 때 쾅 소리가 났다. 그러자 긴장됐다. 드디어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 나는 손뼉을 쳤다.

유럽 도착!!! 로마에 도착하고 우리는 관광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첫날에 바티칸박물관을 갔다. 바티칸박물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굉장히 놀랬다.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외국 사람들도 줄 서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는 2시간 30분 정도 줄을 서고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입구 안에서 공항에서처럼 짐 검색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검색대가 없는데 바티칸박물관은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도 있어서 나는 겁이 났다. 하지만 안전하게 들어갔다. 들어가서부터 나는 또 놀랐다. 너무나 박물관이 컸기 때문

이었다. 그리고 사람도 많았고, 그림도 평균 그림보다 훨씬 컸다. 사람들이 많아 자세히 보진 못했다. 가이드 아저씨가 이어폰 수신기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바티칸박물관을 나와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갔다. 거기도 엄청 컸다. 그리고 엄청 화려했다. 세 번째로 트레비 분수로 갔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수이자 아름다운 장소라고 하였다. 나는 거기서 분수처럼 나오는 물을 만졌다. 근데 느낌이 뭔가 새로운 물을 만지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콜로세움이다. 콜로세움은 로마에서 가장 큰 원형 극장이다. 나는 거기서 사진을 찍었다. 같이 다니는 아줌마가 우리 셋이서 점프하는 사진을 찍어 주었다. 콜로세움을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멋있었다. 또 가보고 싶다.

다음날에 버스로 폼페이로 갔다. 폼페이는 로마제국의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도시 전체와 20,0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였다. 진짜로 보니 난 너무 슬펐다.

우리는 폼페이를 다 보고 나폴리로 갔다. 배를 타고 2시간 30분이 지나고 나폴리 섬에 도착하였다. 바다엔 해파리도 있었다. 경치가 아주 멋있었다. 나폴리 섬을 구경하고 처음으로 기념품 가게에서 나폴리 그림이 있는 자석을 샀다. 거기서 젤라토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다. 아주 맛이 굿이었다. 먹으면서 해변 앞에서 수제비를 했다. 근데 시간이 됐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아주 아쉬웠다. 그리고 버스 타고 호텔로 가서 자고 일어났다. 벌써 3일을 보냈다. 이탈리아에서는 모두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아침을 먹었다. 집에서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엄마가 부르면 눈이 떠졌다. 가이드 아저씨를 만나 오늘 일정을 들었다.

이날은 책 속에서 봤던 피사의 사탑을 가게 된다고 하였다. 나는 너무 신났다. 실제로 보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설레었다. 실제로 보았는데 바로 피사의 사탑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걸어가야 끝부분에 피사의 사탑이 있었다. 책에서만 봤던 피사의 사탑 색보다 더 밝았고 기울어진 것이 실감이 났다. 그 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몇 개월 전부터 예약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는 사진도 찍었는데 나는 넓은 잔디에서 다른 외국 사람들처럼 누워있거나 앉아 있고 싶었다. 나는 빨리빨리 다녀야 해서 아쉬웠다.

버스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에 가게들이 있어 엄마한테 말하여 기념품을 샀다. 바로 '피사의 사탑' 모형이었다. 한 개에 2유로였다. 또 엄마가 이탈리아 모자를 사주었는데, 그다음 날 호텔을 떠나면서 의자에 놓고 와 잃어버리고 말았다. 난 너무 슬펐다. 정말 마음에 드는 모자였는데…. 잘 챙길걸. 후회했다. 피사의 사탑을 가고 나서 우리는 밀라노 대성당을 갔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다. 이곳에는 소매치기가 많다고 들었다. 실제로 우리 팀 아저씨가 소매치기를 당해서 정말 놀랐다. 구경을 다 하고 우리는 이탈리아 식당을 갔다. 이탈리아 하면 피자와 스파게티가 떠오른다. 우리도 이탈리아 스파게티와 피자를 먹었다. 맛이 아주 좋았다. 오징어 튀김도 나오고, 빨간색 오렌지 주스를 피자와 함께 먹었다. 엄마는 반쪽을 옆 테이블 아줌마들에게도 나눠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호텔로 들어왔다. 이 호텔은 2인용 두 개와 1인용 한 개로 되어있어 아주 만족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샤워하면서 쉬었다.

다음날은 드디어 스위스로 떠난다. 아침이 되어 우리는 스위스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엄마는 추울 수 있다고 패딩 옷을 챙겨주었다. 새벽부터 우리는 이동하였다. 버스로 국경을 통과했다. 다른 나라를 통과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우리는 알프스가 보이는 니더호른에 도착하였다. 이제 푸니쿨라를 타고 중앙까지 간 다음에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갔다. 거꾸로 올라가면서 넓고 푸른 호수를 함께 보았다.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 감탄했다. 나도 이렇게 높이 올라간 것은 처음이었다. 올라가서 가이드 아저씨가 자유시간을 주었다.

우리는 더 높은 경치를 보러 가려고 눈을 밟으면서 올라갔다. 근데 누나가 올라가고 있는데 젖은 땅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정말 빠르게 넘어져서 웃겼다. 누나 바지와 패딩에 흙이 다 묻었다. 엄마는 물티슈로 누나 바지와 패딩에 묻은 흙을 닦아 주었는데 나는 계속 웃겼다. 누나도 '하하하' 웃었다. 엄마만 심각했다. 우리는 계속 눈을 밟으며 올라갔다. 정상에 올라가자 무서웠다. 아래를 보니 우리가 아주 높이 올라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는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내려가는데 짧은 거리를 갈 수 있는 이동형 타이어가 있었다. 나와 누나는 타이어에 매달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번갈아 가며 탔다. 눈도 있고 시원한 공기로 우리는 계속 웃었다. 어른들도 우리를 보고 웃고 계셨다. 엄마는 우리 노는 걸 영상으로 찍어 주었다. 나는 스위

스에서 이렇게 논 것이 제일 좋았다.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 몇 번이나 넘어져도 아프지 않았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눈과 함께 탔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 아쉽게도 스위스는 하루만 보내고 우리는 프랑스로 이동하였다. 이번에는 기차를 이용하였다.

처음으로 외국에서 타는 기차여행이었다. 기차 안에서 정말 힘들었다. 짐들로 기차 안이 꽉 찼었다. 우리는 기차 안에서 젤리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프랑스에 도착했다. 프랑스에서 우린 오르세 미술관을 갔다. 줄을 기다리고 들어갔다. 오르세 미술관에는 신기한 조형물이 많았다. 난 너무 신기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형물이 아니어서 신기한 게 많았다. 그리고 저녁밥을 먹고, 호텔로 갔다. 호텔은 이탈리아보다 가장 나았다. 한밤이 지나고 우린 루브르 박물관을 갔다. 거기서 모나리자 그림도 보았다. 정말 신기했다.

우린 또 개선문에 갔다. 개선문은 파리의 상징물이다. 이제 프랑스에 진짜 상징물인 에펠탑을 보러 갔다. 우리는 케이블카 같은 것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갔다. 실제로 올라가 보니 무서웠다. 철로 된 부분이 있어서 더 무서웠다. 우린 기념품 가게에서 프랑스 에펠탑 모형을 샀다. 난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다. 밖을 봤더니 진짜 아찔했다. 우린 한 바퀴를 더 돌았다. 이제 시간이 돼서 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펠탑에서 불빛을 보기 위해 유람선을 타고 센강을 갔다. 날씨는 밤이 되어서 너무 추웠다. 에펠탑에서 불이 켜졌을 때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들 찍었다. 불빛이 정말 밝았다. 에펠탑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가장 멋졌다.

난 이제 집에 갈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 7일 동안 여행이 힘들지 않았다. 또 비행기를 탈 생각에 좋았다. 우리는 짐을 다시 정리하였다. 우리는 1시간 30분을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나는 터키항공을 타고, 이스탄불 공항으로 갔다. 이제 9시간 40분을 더 가야 한다. 이제 이스탄불에서 인천 향발까지 가야 한다. 출발했다. 난 모니터로 게임을 했다. 아주 재미있었다. 터키항공이 힘차게 착륙했다. 나의 유럽여행은 멋졌다.

낯선 곳에서의 나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김유호

난 필리핀 어학연수 가려고 출발 준비를 한다. 탑승 절차를 하기 전, 부모님과 작별인사를 했다. 처음 부모님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퍼 비행기를 타는 4시간 내내 계속해서 눈물이 나왔다. 필리핀에 도착하니 새벽이었다. 정말 낯설었고 혼자 있다는 생각에 정말 두려웠다.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정말 어두컴컴해서 귀신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는데 나중에 늦게 들어오는 친구도 들어온다고 하여 살짝 기대도 됐다. 그리고 나만 우는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러웠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나보다 더 심한 아이가 있어서 조금은 덜 부끄러웠다.

일단 난 첫날부터 시차나 환경, 날씨 적응이 익숙하지 않았다. 음식도 맞지 않아 나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토했다. 이런 상태로 나는 영어공부를 계속했다. 당연히 영어공부가 되지 못하였다. 수업시간에 선생님 얼굴을 보는 정도로 끝이 나곤 했다. 대략 1주 정도 있다가 적응이 되었고 공부를 하는데 수월하였다. 하지만 평소 같지 않게 5학년 예습수학이 너무 어려웠다. 내가 원래 수학을 좋아하는데 배우지도 않아서 너무 어려웠다. 프로그램 안에 이런 공부수업 외에도 체육활동도 있었는데 수학 시간보다 체육 활동시간이 더 기다려졌다. 그런데 골프를 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수영할 때만 비가 와서 3~4번 밖에 못 했다.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 원장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주셔서 괜찮았다. 의외의 행복도 있었지만 아쉬웠다.

그 주 토요일에는 필리핀에서 유명한 물놀이장을 갔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SM 몰에 가서 먹을 것도 먹고 게임도 하고 볼링도 했다. 솔직히 난 쇼핑몰을 간 것이 한 주에서 가장 재밌었던 것 같다. 그곳은 2층으로 되어있어 자유롭게 다녔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니 새로운 친구가 우리 방에 왔다. 나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운동도 잘해서 운동 경기를 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탁구도 배웠다. 그 아이를 따라가려면 아직 먼 것 같다. 방이 바뀌고 나서 생활이 약간 불편했다. 같은 방을 쓰는 아이는 무엇

을 정할 때마다 다수결에 따르지 않고 또, 우리가 제비뽑기로 의견을 모으려고 해도 따르지 않았다. 난 답답했다. 이 아이는 완전 고집불통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 잘 한다고 잘난 척을 한다. 참 그런 애는 나중에 어른 돼서도 이상한 말만 들을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을 본다는 것도 나에게는 경험인 것 같다.

필리핀에서 지내면서 나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다. 필리핀에서 4주 동안 지내던 친구, 형 동생들이 먼저 귀국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고, 4주 동안 함께 지낸 정이 들었는지 눈물을 최대한 삼키려 했지만 결국 터지고 말았다.

드디어, 내가 떠나는 날이다. 처음에는 기뻤다. 그리고 떠나기 몇 시간 전 같이 생활한 친구들과 형들을 보면 더 슬플까 봐 나는 일부러 피해 다녔다. 차를 타고 있을 때 4주 차 친구, 형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도 생각이 들었다. 차에 앉아 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웠다. 결국, 공항을 가는 차 안에서도 난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공항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부모님이 떠올랐다. 귀국해서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기도 하였지만 슬픈 마음도 있었다.

도착하고 나서 부모님과 만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헤어지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긴장도 됐다. 지금까지도 이런 모든 일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다. 그리고 회상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그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참 길었던 것 같다.

첫 해외여행

초등부 장려상 · 소설 / 김윤아

1. 한 가지 고민

"정말이야?! 넌 제주도 밖에 안 가봤잖아!"민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난 윤아솔. 5학년이다. 사실 민아가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없다. 난 고모가 제주도에 살아서 1년에 10번씩은 제주도에 간다. 반대로 민아네 고모는 베트남에 살아서 민아네는 베트남에 자주 갔다 온다. 근데 이제 나도 이번에 프랑스로 해외여행을 간다. "근데 민아야, 해외에서는 뭐 조심해야 할 게 있어?"난 민아가 영어는 이야기하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민아는 이렇게 말했다, "문화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영어를 잘해야 해. 거기에선 공항에서는 당연히 팻말은 다 영어고, 안내원들도 다 영어 쓰고, 숙소 직원들과 대화할 때 까지도 까지 모두 영어로 이야기해야 해.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건 가족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나 직원과 만났을 때밖에 없어." "영어?!" 내가 영어를 싫어하는 이유는 난 영어 시험에서는 80점 이상을 맞아 본 적 없을 정도로 영어를 못한다. 나와 여행 가는 사람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 동생 미솔이, 그리고 같이 가기로 한 사촌 솔이 언니뿐이다. 난 영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야, 영어가 그렇게 중요해?"하지만 답은 한결 같았다. "무슨 소리야? 그러다 너 길 잃는 거야.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거기선 영어나 프랑스어를 써서 그 두 언어 말고는 대화 못해. 운 좋게 한국인 만나면 또 몰라도..." "하지만 난 영어 못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너를 다 알지는 못하잖아. 그니까 네가 영어를 못해서 못 도와주거나 네가 영어를 잘해서 도와 줄 수 있거나 그 사람들한테는 이 둘 중 하나야." "그래?" "그렇다니까!"민아는 몇 번이고 반복했다. "영어는 외국 가선 많이 중요한 거야."나도 알아 민아야... 어떡하지? 이젠 믿을 건 엄마, 아빠, 미솔이와 솔이 언니다. 민아가 말 한 것 같이 길 잃는 사고는 없길 바란다. 하지만 진짜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금방 내일 떠나는데, 영어 익힐 시간은 없고, 통역 앱은

폴더폰이라 못 깐다. 진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대로 기다려야 할까? 해외에 간다고 했을 때는 이런 건 생각 못 했는데....
막상 듣고 나니 막막하다. 그럼 비행기 안에서는 어떻게 하지? 나 혼자 숙소에 남았을 때 직원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심각한 표정을 짓자 민아가 조심스럽게 위로했다. “괜찮아, 아솔아. 그냥 기본 표현 알고 있거나 책 가져가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민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민아는 영어라면 늘 100점이고, 베트남 하노이에 많이 다녀왔으니까. 하지만 난 입장이 다르다. 해외에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2. 여행가기 1일 전, 공항에서

“여보세요? 솔 언니!”오늘은 여행가기 1일 전 날. 난 지금 윤 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솔 언니는 내 사촌언니고, 이번 여행에 같이 가기로 했다. 또 거의 5달 만에 보는 것이다. “아솔이니? 오랜만이다.”수화기 넘어 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왔다. 솔이 언니다. “언니 지금 뭐 하고 있어?” “응, 그냥.”이렇게 말하는 건 분명 그림을 그리다가 전화 받은 걸 거다. 솔이 언니는 그림을 무척 잘 그린다. 솔이 언니는 꿈이 화가여서 이번에 같이 여행을 가는 목적도 추억을 쌓는 목적도 있지만 스케치 여행 목적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솔이 언니한테 그림을 배워 보기로 했다. “근데 언니, 언니 영어 잘 해?” “잘 하지. 왜?”난 민아가 한 얘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그러자 언니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물론 언어도 중요하지. 게다가 위급상황에도 꼭 필요한 건 외국어야. 그러니깐 민아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나는 풀이 죽었다. 예상은 했지만 언니까지 저렇게 이야기 하다니...난 언니가 날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하길 바랐다. “하지만 아솔아! 그래도 영어가 해외여행의 감정이나 일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아.” “뭐?” “해외에서 영어는 꼭 필요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영어를 모른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쉽게 말하면 50대50?”50대50? 분명 문제 반 괜찮음 반 이라는 뜻이다. 근데 그런 건 어떤 느낌일까? 정리가 잘 안되네. 일단 내일 가보면 또 알겠지. 그렇게 여행가기 1일 전이 지나갔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여행가는 날이 왔다. 기대 반 걱정 반. 언어 문제는

아직 내 안에서 갈길 못 찾고 있다.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약속대로 솔이 언니와 공항 입구에서 시간 맞춰 만날 수 있었고, 면세점과 라운지에서 놀다 가기로 했다. “와, 여기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2!! 정말 거대하다. 저기 저 전등은 엄청 예쁘다!!”난 한글로 장식된 거대한 조명과 갖가지 색으로 빛나는 조명들을 보고 소리쳤다. “와 상점도 엄청 많아! 저기 저 분수는 뭐지?!”동생 미솔이도 신기하다는 듯 소리쳤다. “저기 꽃도 있어! 너무 예쁘다! 인형 가게도 있을까?”솔이 언니와 엄마, 아빠는 약간 어이없다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라운지와 면세점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나와 미솔이는 뛰어다니면서 여러 면세점의 진열장 사이를 돌아다녔다. 토이샵에서 라이언 인형을 안아 보기도 하고, 화장품 가게에서 예쁜 분홍빛 립스틱도 발라 보았다. “언니 여기 진짜 멋지다! 어? 솔이 언니?”내 손을 잡고 따라오던 미솔이도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언니, 솔이 언니 어디 있어? 엄마는? 아빠는!”난 어쩔 줄 모르며 허둥지둥 대답했다. “아, 아니야 미솔아! 미솔아, 저, 저기 있는 많은 상점이랑 카페 보이지? 저기에 있을 거야.” “정말?” “응! 저기 있는 카페들은 라운지라는 데야. 엄마가 라운지에서 쉬다 간다고 했으니까 분명 저기에 있을 거야.”미솔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세어 나왔던 눈물을 닦았다. 아무래도 이런 미솔이에게 거짓말쟁이 언니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나를 봐서라도 엄마, 아빠, 솔 언니가 라운지에 앉아 있으면 좋겠다.

나와 미솔이는 몇 개의 라운지와 모든 면세점을 뒤져 가며 엄마, 아빠를 찾았다. 하지만 아무데도 없었다. 미솔이가 이상한 듯 이야기했다. “언니 여기로 가는 게 맞긴 맞아?”순간 거짓말하는 언니가 되지 않게 노력하겠다던 내가 다시 똑같은 곳을 찾으러 미솔이를 화장품 가게로 데려가던 내 발이 멈칫했다. 난 찔리는 바람에 얼른 말을 돌렸다. “이, 이 길? 맞을 거야(?) 그나저나 여기 엄청 넓다.” “맞아. 근데 엄마, 아빠가 어제 여기는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보다 작다고 했잖아.”아! 맞다. 어제 엄마, 아빠가 여행 주의사항 안내한 것을 나도 아닌 미솔이가 기억해냈다. 고작 10살인데도 말이다. 근데 그때 분명 이렇게 길 잃었을 때 상황을 안 얘기했을 리가 없는데, 뭐였더라? 그때 ‘아, 엄마가 잃어버릴 수 있어서 솔이 언니 연락처나 비상 연락망 기억하라고 했지!’난 바로 핸드폰을 켜서 솔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생각을 못했네. 솔이 언니!” “윤아솔! 어디 있었어, 얼마나 연락 했는데!!”내가 최근 기록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 표시가 달린 [솔이 언니]라는 이름이 씌어 있는 연락처가 15개나 표시되 있었다. “지금 우리 **라운지야. 어서 와!” 이렇게 우린 다시 만났다. 많이 혼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외국 공항 이였던 게 아닌 것이 천만 다행이다.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는 이런 실수 하지 말아야겠다.

3. 기내에서의 난관

12시간 10분의 비행을 하면서 많은 멀미와 난관에 묶여 있었지만 곧 괜찮아졌다. 지금부터 그 적응기를 설명해 주겠다. 우선 처음으로 맞이한 난관은 [안전벨트]였다. 기내 안내 방송을 할 때 난 안전벨트 끼우는 법이 나왔을 줄은 상상도 못 했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불행하게도 안내방송이 끝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사인이 나오자 허둥지둥 안전벨트를 맸다. “어 이거 뭐야? 이상한데?! 이 덮개는 또 뭐야?” 여기저기로 넣어보다 덮개 옆의 작고 얇은 구멍으로 안전벨트가 ‘찰카닥’하고 들어갔다. 하지만 크기가 안 맞아서 여러 가지 난관을 겪고 겨우 벨트를 찬 뒤 창문을 보며 기다렸다. 곧이어 ‘슈우웅’소리와 비행기가 떠올랐다.(참고로 난 솔이 언니와 같이 앉았다.) 기내식 식사는 그럭저럭 괜찮게 끝났다. 하지만 기내식 때 있었던 사건중 하나는 내가 솔이 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언니 자리에 있는 포도주스를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뒤 30분 동안 쓰러져 잠만 잤다. 사실 그 포도주스는 다름 아닌 와인 이였다...

일어난 뒤에는 수많은 멀미와 사투하여야 했다. 게다가 처음이다 보니 토 봉지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도 토를 했는데 그때는 결국 언니의 봉지를 쓰고 말았다. 언니 미안. 근데 오히려 동생 미솔이는 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와 똑같이 처음이고, 나보다 어린데도 멀미를 피했던 건 대부분 잤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다. 나도 몇 번 자고 일어나 보니 프랑스 드골 공한 주변 이였다. 하지만 놀라운 건 프랑스는 그때 오후 2시였다! 드골 공항에 도착한 뒤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며 말했다.“시차가 이런 거구나. 시차 때문에 제데 로 못 놀면 어쩌지?”미솔이도 신기한 건 마찬가지였다. “우와, 여기는 엄청 밝은데 왜 이렇게 졸리지?”솔이 언니가 대답했다. “뭐 어때, 참으면 되지.”외국에 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4. 프랑스 도착!

"드디어 프랑스에 도착했어! 어디부터 갈까? 루브르 박물관? 에펠 탑? 아니면 반 고흐 미술관? 프로방스?"내가 흥분하자 엄마가 달래면서 말했다. "파리 전체를 돌아보려면 1달은 지내야 할 걸?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좋지만, 짐도 받고 숙소부터 가야지?" "맞아, 언니는 너무 성급해." "야, 넌 또 어디서 성급하다는 말을 배워 온 거야?"맞장구 치는 미솔이에게 내가 화를 냈다. 솔이 언니가 말을 꺼냈다. "우선 여권부터 확인하자. 입국 심사대가 어디지?" "저쪽인 거 같아."내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그 줄이 향하는 곳에 초록 색 책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런가보다. 어서 가 보자."입국 심사를 마치고 우리는 짐을 찾으러 가기로 했다. 하지만 미솔이는 입국 심사대 앞의 상점에 진열된 사탕을 보는 데 여념이 없었다. 내가 미솔이와 내 짐을 꺼내 미솔이의 가방을 미솔이 앞에 들이밀었다. "미솔아, 여기 네 가방."하지만 미솔이는 바로 옆에 가방을 두고도 상점의 유리벽 바로 앞에 있는 사탕을 보느라 이미 유리에 코를 박고 있었다. "미솔아?"미솔이는 이제는 침까지 흘리고 있었다. 솔이 언니가 보다 못해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윤미솔! 이제 좀 가자! 그러다 놓치면 어떡 하려고 그래!"난 어쩔 수 없이 미솔이의 손을 붙잡고 엄마 쪽으로 갔다. 그때 까지도 미솔이의 눈은 사탕을 향해 있었다. "엄마! 나 사탕!"내가 소리쳤다. "안 돼 윤미솔! 엄마 얘 좀!" "에휴, 나야 별 수 있겠니?" 별 수는 있겠죠...
난 한번 세게 미솔이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미솔아, 너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사탕 같은 데 집착할래?!"참고로 미솔이는 [어린애]라고 불리는 걸 가장 싫어한다. "어.. 어린애 아니야! 나 사탕에 안 집착해!"그래그래, 이렇게 한 가지 거부하는 게 있어서 편할 때도 있다.

5. 숙소의 비밀장소

숙소는 공항과 5분 거리로 택시로 이동했다. "와! 펜션이네? 완전 마음에 든다."숙소의 방도 마음에 들었다. 거실 발코니 밖으로 여러 식물들이 보였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우리 방 이였다. 거실과 이어진 방 3개가 있는데 1개

는 엄마, 아빠가 자는 안방, 화장실, 우리 침실이다. 우리 침실에는 작은 화장실이 딸려 있고, 문 앞에는 솔이 언니가 자기로 한 1단 침대가 있고, 맞은편에는 나와 미솔이가 잘 2층 침대가 있었다. 거실과 주방은 함께 있었다. “저희 밖에 둘러보고 올게요!”나와, 솔 언니, 미솔이는 펜션 밖 구경을 나갔다. 거기서 가장 특별했던 경험은 {비밀장소}였다. 우린 발코니부터 구경했는데, 발코니 밖 정원의 왼쪽 끝으로 가 보니, 벽이 하나 있었다. 그 벽에는 고등학생 솔 언니도 들어갈 만큼의 큰 구멍이 있었는데 수풀에 가려져 있어서 직원들도 못 본 것 같았다. “들어가 보자.”내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미솔이가 용납 못 한다는 투로 말했다. “그러다가 혼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뒤가 안전한 것만 있다는 보장도 없어.”헐.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배웠어? 물론 미솔이가 한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난 지기 싫어서 대답했다. “고자질하든지 말든지 해. 난 들어갈 거야.” “언니!” “혹시 무서워서 그래? 솔직히 말해.” “내가 왜 무서워해?!” “둘 다 그만해!”솔이 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럼 일단 들어가고! 위험한 게 있으면 바로 나오는 거다!” “그럼 혼나면 어떻게?”미솔이가 쫑알거렸다. 미솔이는 학교에서 낯선 곳은 가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배웠나보다. 난 애써 설득했다. “휴, 누가 그걸 알겠니?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고자질하지는 못 해.” “그럼...알겠어.”우리는 엎드려서 구멍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아솔 언니, 여기 왜 이렇게 길어? 무서워.” “지금 무서운 게 중요하지 않다고.”하지만 나도 좀 무섭다. 하지만 자존심을 위해 참는 거다. “근데 진짜 긴 것 같아.” “하지만 이 상태에서 몸을 돌려서 갈 수는 없잖아.”통로가 딱 솔이 언니 몸에 맞아서 이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그때 통로 끝 쪽에서 빛이 세어 들어왔다. 그 뒤에는 초록색 물체가 여러 가닥 보였다. 그때는 내가 맨 앞에 있고, 미솔이가 내 뒤에 있어서 안 보였을 수도 있었는데 언제 또 그걸 봐서 괴물이라도 본 듯 소리쳤다. “저거 외계인 아냐? 우리 다 죽을 거야!” “미솔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깐, 나가서 바로 뒤돌아서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다!!”미솔이가 진정하자 난 계속 앞으로 기어갔다. 곧 구멍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난 펼쳐진 광경을 보고 무서워 할 수가 없었다. 구멍에서 봤던 초록 물체는 입구를 가리고 있던 잔디였고, 거기에는 초록색 잔디가 펼쳐진 작은 정원이 있었고, 사방에 구멍이 있는 벽을 포함한 4개의 벽이 그 정원을 둘러싸고 있었다. 벽은 벽돌로 되어 있었다. 또 잡초도 무성

하게 자라 있었는데,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인 것 같았다. 미솔이도 어느새 나와 말을 했다. “공사하다가 잔디 깎기 귀찮아서 그냥 벽으로 막아버렸나 봐.”솔이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여기, 함부로 들어와도 되나?” “에이, 여기 들어올 수나 있겠어?” “우리가 여기를 꾸며보자!” “뭐?!”예상치 못한 내 제안에 솔 언니와 미솔이가 동시에 나를 바라보았다. “어차피 여긴 버려졌잖아. 그러니까 잡초 좀 뽑고, 꽃도 좀 심자. 그렇게 꾸미는 거지. 어차피 사람이 들어온다 해도, 예쁘다고 박수 쳐줄걸?” “좋아!” “그럼 여긴 우리의 비 밀 장 소!” “비밀장소?” “비밀장소 맞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더 커서 못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에게도 비밀장소가 되는 거잖아.”솔이 언니도 어린애들처럼 놀 줄 아나보다. “좋아! 일단 내 트렁크에 혹시 몰라서 가져온 예전에 산 씨앗들이 있거든. 그걸 내가 가져오고, 솔이 언니가 삽을 구해와줘!” “그럼 나는?”미솔이가 울먹였다. “그냥 넌 잡초 뽑고 있어.”내가 말하자 미솔이가 무섭다며 안 하겠다고 떼를 썼다. 그러자 솔이 언니가 “그럼 미솔이가 아솔이 트렁크에서 씨를 가져오고, 아솔이가 삽을 구해와. 내가 잡초를 뽑을게.” “뭐?! 난 영어 못 해!” “괜찮아.”휴, 어쩔 수 없다. 난 솔이 언니를 두고, 아솔이에게 씨가 어느 주머니에 있는지 말해준 뒤에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마침 조경을 정리하고 계시는 직원을 만났다. “아저씨, 저 삽...”여기서는 영어로 대화해야 하는 걸 또 오는 동안 깜박하고 말았다. 난 영어로 고쳐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6. 외국어 난관

“아...음.... 그게...”난 머릿속에서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운 단어는 나(I),너(you)밖에 없었다. 난 그거라도 써 보기로 했다. 난 조경사에게 “아이....원트....”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조경사의 수레에 있는 작은 삽을 가리켰다. “쓰리....원...”난 배운 단어를 발음도 제대로 못한 채 사용했지만 조경사는 흔쾌히 삽 3개를 주었다. ‘나이스! 제대로 받았다.’그때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여행가기 전날 솔이 언니와 통화 했던 내용. ‘그래도 영어가 해외여행의 감정이나 일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아.’그 뜻을 이제 알겠다.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마음만 통하면 얼마든지 대

화할 수 있다!! 난 기쁜 마음으로 삽을 들고 비밀장소로 향했다. 마침 미솔이도 씨를 가져오고 솔이 언니도 어느 정도 잡초를 뽑았다. 난 삽으로 뿌리가 깊은 잡초도 뽑고, 안쪽 흙과 위쪽에 있든 흙도 섞었다. 그러다 미솔이가 말했다. “언니가 가져왔으니 언니가 삽 다시 돌려주고 와.”예전의 나였다면 손사래 쳤지만, 난 여유 있게 말했다. “좋아. 조경사 아저씨만 찾으면 문제없어.” “뭐야, 영어에 자신 있다 이거야?” “그건 아니고...”마음만 통하면 된다고 하려다 말았다. 미솔이는 영어를 잘해서 분명 이해 못 할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민아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할 말이 떠올랐다. 여기 왔던 거 이야기도 해 줄 것이다.

7. 첫 해외여행

여기에 지내기로 했던 3박 4일이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왔다. ‘다음에 또 여기에 오면 그때는 심었던 씨들이 다 자랐겠지? 물 줄 사람이 없으니 비도 많이 와야 할 텐데...’막상 걱정했던 언어는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다른 걱정도 앞섰다. “뭐 선물할 게 없을까?”사실 부담을 준 민아가 밉기도 했지만 민아도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다. 민아 말대로 영어를 알고 있으면 더 쉽게 삽을 구했을 텐데... 게다가 인천공항에서 미솔이와 길 잃어버렸을 때는 그게 프랑스 공항이었으면 큰일 났겠다 하는 생각도 사실 영어만 배워 두면 걱정 없는 일이였다. 그리고 반 친구들이 영어 시간 때 도와준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엄청 고마웠다. 하지만 그 걱정도 곧 없어졌다. 짐 정리하고 시간 맞추느라 정신 없어서 잊은 것이다. 드골 공항 면세점을 둘러보면서 난 지갑을, 미솔이는 인형을, 솔이 언니는 파우치를 샀다. 내가 계산하려고 뒤를 돌아보자 초콜릿 몇 상자가 진열되어 있었다. “바로 저거야!!”난 어떤 일을 한 뒤 비행기 시간 때 이번에는 안전벨트를 잘 맸고, 와인을 미시지 않았고, 한국 공항에 잘 도착했다.

다음날, 내가 종이 쇼핑백을 교탁 위에 ‘탁’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거기서 초콜릿 상자를 꺼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민아 옆자리에 앉았다. “아솔아 잘 다녀왔어? 초콜릿 맛있었어.” “고마워. 이번에 숙소에서 비밀장소도 만들고 즐거웠어.” “참, 외국어는 잘 못 썼을 텐데 괜찮아?”난 민아가 비밀장소에 관심을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민아는 아무래도 내 외국어가 걱

정되었던 모양이다. “혹시 걱정한 거야?” “당연하지! 영어 0점을 외국에 보내 놓고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잖니~!”민아가 어이없다는 말투로 이야기했다. 내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린 뒤 말했다. “난관을 많이 겪었어. 외국어 쓸 때 발음도 제대로 못 했고.” “거 봐! 걱정한 게 당연하지.” “어...하지만 발음도 틀리고 이상한 언어들을 썼지만 그래도 언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뭐?” “넌 계속 영어 써. 난 내 방법이 있어.”민아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난 잠시 교실을 나가 걸었다. 그리고 걸으면서 생각했다. ‘정교하고 거창한 언어를 쓴다고 다 대화는 아닌 것 같아. 언어는 내 생각엔 마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인 것 같아.’민아에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까 봐 말하지 않았지만 뭐 내 나름의 생각이다. 기분 좋게 시원한 바람이 분다.

통일비행기

초등부 장려상 · 시 / 노윤서

햇님이 입꼬리를 실룩거리면
하늘은 거울이 돼 모습을 비추지

나를 향해 파이팅 해주시는 엄마의 모습
등굣길 손 흔들어주시는 아빠의 모습
매콤달콤 떡볶이 먹으며 걸어가는 친구들 모습
삐뚤빼뚤 작은 손 글씨 쓰는 동생 모습
쓱싹쓱싹 글 쓰는 내 모습도 보이지만

너무나 가까워 이상할 정도로 가까운 옆은
반짝반짝 교실 떠나가라 발표하는 모습도
희고 흰 치아 다 보이도록 방긋방긋 웃는 모습도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다 떠는 모습도
기다란 안개가 자욱히 덮어버렸지

비행기야, 비행기야 나의 비행기야!
저곳으로 나를 데려다 줘
검게 그늘지는 울창한 나무 끝에서 바람을 쐬며
창가에서 하늘만큼 푸르른 책을 보며
싱글벙글 웃을 수 있는 곳으로 날아가줘

비행기야, 기대에 부풀어 이곳을 떠날 땐 혼자였지만
서로를 나눈 긴 안개가 잦아들고
갈라졌던 거대한 벽들이 모두 허물어지면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친구와 함께
우리의 모습을 비추며 다시 날아오자!

구름항공권 한 장

초등부 장려상 · 소설 / 노윤택

01. 공항에 사는 나

나는 공항에 사는 15살 노숙자이다. 나의 일상은 사람들이 급하게 발 구르는 소리와 빠르게 굴러가는 캐리어 바퀴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깬다. 하지만 가끔은 음식 냄새나 사람들의 밝은 웃음소리에도 반응하여 일어나곤 한다. 때론 공항 직원이 나를 '피터'라고 부르며 깨우기도 한다.

내가 피터라고 불리는 이유는 내가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엄마의 품이 아닌 베이비 박스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이곳저곳에서 생활하다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보살핌을 받았다. 그 선생님은 내가 가엾은지 이것저것을 챙겨 주시고 또 나를 주말마다 학원을 보내고 오는 수고까지 하셨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은 나를 마중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마치 또 다른 내가 죽은 것만 같았다.

난 그 후 이곳저곳을 다시 떠돌았다. 돌아갈 곳도 없었다. 그렇게 온종일 걷던 중 밝은 불빛들을 보게 되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차들만 다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근데 뭔가 달라져 있었다. 나 자신의 기억이 나지 않았다.

02. 사라진 나의 기억

나, 내가 만났던 사람들도 기억나지 않았다. 사실 선생님 대한 감정은 떠오르지 않고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부 떠오르지 않는다. 선생님이 죽기 전의 기억들이 없다…. 이 기억들만 기억하였고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만 기억할 뿐이었다. 또한,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

'내가 누구지? 이 감정들은 뭐지?'

수많은 감정이 갑자기 나의 가슴과 나의 마음을 어질러 놓는다. 나는 이런 일을 겪은 이후로 인천공항에서 살게 되었고 내가 유난히 비행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공항 사람들은 내 이름을 '꿈을 펼치라는 의미'에서 피터 팬의 앞

글자인 피터를 따와 '피터'가 되었다.

난 기억을 잃은 이후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비행기를 보게 되었고 나도 한 번쯤은 비행기를 타고 싶은 생각이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매일 밤 꿈속에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 잠에서 깨기 전까지는 매일 밤이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이렇게 산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도중 20대로 보이는 한 여자가 내 앞에 항공권을 흘리고 갔다.

"저기요. 항공권을 떨어트렸어요."

나는 그녀에게 항공권을 주려고 했지만 붐비는 사람들로 인해 따라가기 힘들었다.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나아가 보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간 곳이 어딘지 찾으려 했지만, 항공권에는 이상한 문자와 함께 '피터에게'라고 쓰여있었다. 항공권 옆에는 I 게이트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I 게이트로 가보았다.

'I 게이트? 여기는 H 게이트까지 밖에 없는데?' 한참을 헤매던 그때 H 게이트의 옆에 I이라고 쓰여있는 창고로 보이는 문이 보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문을 못 보는 것으로 보였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날 항상 챙겨 주시던 공항 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피터~ 어딨니?"

"저 여기에 있어요."

라고 말하고 뒷걸음칠 치는 순간 기대어 있었던 문이 열려버렸다.

난 뒤로 넘어지면서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 속으로 들어갔지만, 다시 문을 열고 나왔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머쓱해야 하며 일어났다.

아주머니를 찾던 도중 뭔가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내 오른쪽에 어디서 많이 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나는 주운 항공권을 꺼냈다. 놀랍게도 현수막에는 같은 항공권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나는 갑자기 읽을 수도 없었던 항공권이 읽히게 되었다.

그 항공권에는 '구름 항공권'이라고 서져 있었다. 내가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고 있던 그때 "구름 항공, 구름 항공 탑승할 손님께서는 I 게이트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이 들려왔다. 나는 바로 뒤를 돌아보니 내가 왔던 문 옆에 I이라고 쓰여 있었다.

03. 구름 항공권

난 사람들이 서 있는 곳으로 가서 줄을 섰다. 그곳에 앉아있는 한 강아지를 보게 되었다. 그 강아지는 내 주머니에 있던 소시지를 탐내는 것처럼 보였다. 나의 비상식량이었지만 나보다 그 개가 더 배고파 보였다. 그래서 소시지를 뜯어 주니 그 개는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다. 내가 그 개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줄을 잘못 선 것 같네요. 늦지 않게 빨리 찾아보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바로 항공권을 보여주자 그 사람은 머쓱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난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비행기는 부자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멋진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으며 나는 그 돈 많은 사람 틈에 껴서 비행기 앞까지 갔다. 그 비행기는 내가 공항에서 본 비행기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비행기였다. 비행기를 좋아하는 나에겐 구경만으로도 크나큰 행복이었다. 그 비행기를 올라탔을 때 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4차 산업 시대가 완성된 모습과 어울려 마법이 보였다. 로봇이 내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

"손님 반갑습니다. 당신의 탑승 좌석은 A-2입니다."

사람들이 슬리퍼만 신어도 앞으로 나아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 주고 영화 같은 로봇이 스튜어디스를 대신하고 있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슬리퍼를 신었지만 앞으로 가지지 않아서 내가 끙끙대는 것을 본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나는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 없었다. 그때 내 뒤에서 어떤 한 여성이 속삭였다.

"마음속으로 자신의 자리 번호를 말해."

"ㄴ, 네…?"

나는 당황했지만, 이 시선을 모면하고자 바르게 마음속으로 자리 번호를 외쳤다.

'A-2!!'

라고 외치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나의 축 처진 고개 때문에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난 그 슬리퍼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점점 멀어지는 그녀에게 바라볼 수도 그

냥 무시하기 힘들었다. 난 찝찝했지만 무시하고 내 자리로 갔다. 나는 그 후 꿈 같은 곳을 보게 되었다. 자리도 두 석 밖에 없는 일등석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는 순간 인기척을 느꼈다.

'경찰이 날 찾아온 건가? 항공권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 후 밑을 보니 내가 소시지를 주었던 그 강아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굉장히 놀랐지만 침착하게 그 개를 안아준 후 밖으로 다시 보내려 했지만, 그 개는 나에게 붙어 꼼짝하지 않았다. 나는 한참의 사투를 벌이다 한 한 여성이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어색한 마음에 말을 걸었다.

"일등석이라 그런지 되게 좋네요. 하하"

그러자 그녀가 나에게 말을 했다.

"슬리퍼 처음 타본 거치곤 잘 타셨어요. 아, 그리고 운이 좋네요. 항공권도 얻고."

하지만 나는 의아했다. 그녀가 왜 이렇게 나에 대해 잘 알지? 라는 생각을 했다. 목소리도 어디서 들어보았다고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바로 나는 미안한 마음에 나는 바로

"아, 그리고 아깐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게 제 할 일인데요. 뭘"

"네?"

"아, 그건 옷부터 갈아입으신 다음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는 나에게 파란색을 띤 정장을 주고 갈아입으라고 했다. 나는 좌석 옆 빈 장소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자 그 안에서 내 머리 모양을 바꿔주었다. 밖으로 나오니 내 옆에 있던 강아지도 멋지게 털 손질을 끝낸 상태였다.

그녀는 창문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멋진 섬과 요정들과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섬은 왕이나 대통령 같은 지도자 대신 신이 있어요. 저는 그 신이 보내신 천사예요. 저의 일은 지구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불행하고 힘든 아이를 여기로 데려오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불행한 아이 중에서도 아주 적게 선택을 받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럼…. 그 선물이 뭐죠?"
"그건 당신이 이 섬에 있는 동안 차차 알아 갈 거예요."
그때 때마침 기장 실에서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지금 꿈의 섬에 도착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04. 꿈의 섬
어느샌가 그 천사는 보이지 않았고 나는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져 왔다. 머리가 괜찮아질 때 즈음 난 어릴 때의 나로 돌아와 있었다. 그곳에는 선생님과 어떤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나의 손을 잡고 있었고 선생님이 그분들과 이야기를 한 후 나에게 인사를 했다. 그분들은 나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향했다. 그때 난 어디론가 빨려 들어갔고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엔 하얀 것이 보였다. 나는 놀라 일어나 보니 양호실이었고 그곳에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간호사가 떠난 후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 난 그 천사에게 물어봤다.
"어디에 있었던 거죠?"
"저는 당신을 위해 온 천사라 당신만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주는 선물은 '기억' 같아요. 그리고 선물은 조각으로 얻기 때문에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해요. 이 섬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섬들을 지나가려면 물 소용돌이 때문에 배는 안되고 비행기로만 다녀야 해요."
이야기를 듣고 나의 어린 시절을 본 것이 기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난 그 후 매번 섬들을 돌아다니며 나의 기억들을 얻고 싶어 했다. 그 후 매번 섬을 돌아다녔다. 내가 두 번째 섬에 도착했을 때 또 머리가 아파 왔고 두 번째 기억이 돌아왔다. 내 앞엔 비행기가 보였고 나의 할아버지라는 사람은 비행기의 주인으로 보였고 굉장한 부자로 보였다. 난 또 정신을 차렸다.
난 마치 중독된 것처럼 바로 다음 기억을 향해 떠났다. 이번엔 공항에 내렸지만, 머리가 아프지도 기억이 생각나지도 않았다. 나는 그래서 한 달 동안 수도 없이 돌아다녔다. 하지만 난 기억을 찾지 못했다.

05. 기억에 비친 천사
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처음 섬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머리가 아파 왔다.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떴다. '왜 기억이 돌아오지 않지?'라고 생각할 때, 어느샌가 내 뇌 속에는 모든 기억이 돌아와 있었고 기억나는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난 공항에 내리자마자 쏜살같이 벚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나도 모른다. 내가 이곳을 어떻게 아는지 기억은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고 난 도착할 때쯤 또 눈물을 흘리며 뛰었다. 온 힘을 다해서 뛰었다. 난 열심히 계단을 올라 제단을 향했다. 벚나무의 꽃잎이 보이고 차차 천사의 얼굴이 보였다. 난 내 눈에 보였던 천사에게 안겼다.

"선생님…."

그 천사는 나의 선생님이셨고 그 모습은 선생님의 20대의 모습이었다. 차차 기억이 계속 돌아왔고 벚나무는 보육원 마당에 있던 나무와 같았다. 선생님은 나에게 "미안하지만, 오래 있을 수가 없구나. 피터야. 너에게 선물을 주고 나면 난 떠나야 해."라는 이 한마디에 내 가슴이 내려앉았다.

선생님은 바로 나에게 하나의 선택권을 주셨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설명할게. 너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이곳에 사는 것 이곳에 살면 가끔 너를 볼 수 있구나. 너는 어디에서 살고 싶니?"

"...저는 선생님과는 더 있고 싶지만, 더는 같이 있을 순 없어요. 전 돌아갈래요."

"...그래 잘 선택했어. 어서 가. 난 이만 가볼게…."

선생님은 내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졌고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비행기에 탔다. 난 잡다한 생각을 잊으며 공항에 내렸다. 난 내가 나왔던 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마치 잠에서 깬 것 같았다. 꿈이라기엔 너무 생생했고 실제로 기억도 돌아와 있었다.

06. 꿈과 비행기

난 이 일을 겪은 뒤 우연히 양 부모님을 만나 난 부유하게 살지만, 그것을 자랑하진 않는다. 그렇게 하면 난 돈으로 된 껍데기를 갖고 사는 나약한 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난 그 후로 항공사의 회장이 됐고 사람들에게 난 항상 이런 말을 한다.

“저는 비행기는 쉼을 주며 이동으로 인해 꿈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비행기를 탄 것이 굉장히 후회스러웠습니다. 전 계속 살면서 비행기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후 비행기를 꿈을 담은 쇳덩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없다면 의미 없는 빈 쇳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초등부 장려상 · 소설 / 노재환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2013년 6월 20일, 지금이 2018년이니, 4년도 넘게 된 일이다.

그날, 엄마는 회사에 나가시고, 평범하게 예능프로그램을 보고 있던 나는 갑자기 <뉴스속보>가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뉴스속보>에서는 바다에 침몰하는 여객기를 사진으로 담고 생존자와 사망자를 세고 있었다. 기장인 아버지가 생각나 유심히 화면을 본 나는 뒤로 고꾸라져 잠기고 있는 비행기에 U208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다. U208, 그것은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비행기 이름이었다. 심장은 마구 뛰어대고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쩌지?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존자 수를 보았다. 탑승객 200명, 생존자 180명, 부상자 2명, 사망자 0명, 실종자 0명이었다. 생존자는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부상자들도 모두 경상이었다. 거기에다 전문가들도 아마 전부 구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 설마 튼튼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라도 하겠어?'그렇게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애써 나올려는 눈물을 삼켰다. 그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내 손목을 잡고 사고 지역에서 가까운 부두로 갔다. 그 곳에는 기자들과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모여 있었고, 나와 어머니는 부두 안쪽으로 거북이 같은 속도로 전진했다. 그 도중에 나는 뉴스속보가 틀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살짝 보았다. 아까까진 없었던 '실종자 1명'이라는 문구가 내 마음을 콕콕 찔러댔다. 실종자 문구 때문에 불안해하던 그때, 생존자들이 보트를 타고 상륙했다. 생존자들 중 우리 아버지가 없나 찾아도 보고, 생존자들에게 물어 보기도 하였지만 아버지는 나타나시지 않았다.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실은 아버지가 실종자가 된 것이었다. 거기다 생존자들이 가족들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고 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맺혀있던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실종자가 0명이 되고 부상자가 1명 늘어난 것이다. 그 순간 보트가 빠르게 부두로 왔다. 숨가쁘게 내린 119요원은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다. 긴장되는 몇분이 흘러가고 119요원은 심폐소생술을 그만두고 고개를 저었다. 그 뒤

로 나는 아버지를 사진에서 밖에 볼 수 없게 되었다.

시간을 보니 학원갈 시간이 한참 지나있었다. 4년 넘게 지나 중3이 되었지만 아직도 가끔 아버지 생각을 10분~20분 한다. 하지만 비행기 앞에서 사진 찍은 그 모습은 눈을 찌푸리며 보지 않는다. 아버지가 살아나왔지만 다시 승객을 구하러 들어갔단 사실이 밝혀진 후 나는 '조종사 아버지'를 싫어하게 됐다. 아버지는 승객은 중요했고, 왜 나와 어머니 생각은 안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학원이 끝날 시간이 가까이 되었다. 나는 허겁지겁 집을 나왔다. 아버지가 떠난 이후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몇 개 없는 학원을 빠지면 어머니는 1~2시간 동안 잔소리를 했다. 난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 얼른 뛰어갔다.

허겁지겁 뛰어가는 도중 평소 보지 못한 가게를 보았다. '골동품 비행기'란 곳이었다. 매일 비어있던 곳에 골동품가게가 들어온 모양이었다. 마음은 얼른 학원을 가고 싶었지만 허름하고 낡은 가게에 몸이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가게에 들어서자 어느 낯선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다. "우리가게 첫 번째 손님이구나 돈이 없더라도 서비스를 주고 싶은데, 뭘 가지고 싶니? 전투기 모형? 아니면 RC비행기에 들어가는 소형모터?"인상이 아버지를 닮았고 항상 나에게 비행기 얘기를 하는 것까지 똑같아서 살짝 울컥했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저는 비행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여기 가게 이름이 골동품 비행기 였죠? 죄송합니다." 그랬다. 나는 그날 이후 비행기는 물론 항공관계자의 실수로 적재량을 초과해 짐을 실어 바다에 침몰했다는 것이 밝혀져, 항공에 관련된 직업까지 싫어했다. 그렇게 말하며 나가려 하자 주인아저씨가 다급히 말했다. "아니야, 난 꼭 서비스를 주고 싶구나" 난 꼭 유괴범 같이 말하는 아저씨가 수상해서 얼른 가게를 나가려 했다. 그때 주인아저씨는 평범해 보이는 A4용지 한 장을 꺼내들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것으로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성의로 받아주렴"나는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얘기를 하는 아저씨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억지로 받았다. 그리고 곧장 학원으로 향했다. 학원에서 돌아온 나는 그 종이를 책상 한 구석에 박아 두었다.

어느날 학교에선 선생님이 이상한 숙제를 내주셨다. "오늘 각자 집에서 부모님 두 분의 인생에 대해 전기문처럼 써오세요. 무조건 해오세요, 발표합니다." 난 당황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반에서 선생님 밖에 없

었고, 친구들에게는 감추고 있었다. 만약 이 숙제를 한다면 친구들에게 들통나게 된다. 난 그게 싫었다. 내 마음을 알았는지 선생님은 나보고 방과후에 남으라고 하였다. 방과 후, 선생님은 나에게 말하였다."이번 숙제에 대해 유감이지만 아버지에 대해 조사해오지 않고,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면 난 너에게 b를 줄 수 밖에 없다.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대신 속일 기회는 주마"난 대답했다."선생님, 제가 성적에 민감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속이라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미안하다고 말하기만 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난 결국 그대로 집에 갔다.

내일까지인 숙제를 어떻게 꾸며서 할지는 머리가 너무 아팠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오히려 아버지한테 더욱 화가 났다. "왜 돌아가셨을까!!"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아버지에 관한 숙제를 못해 성적 c를 받았던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그때 어머니는 "정의로운 일을 하신 아버지한테 왜 화를 내니!"라고 말하며 나를 나무랐지만 내 눈에는 그저 '날 두고 도망가신 아버지'처럼 보였다. 난 결국 너무 화가 나서 쳐박아놨던 종이에 아버지를 비난하는 글을 쓴 다음 대충 구겨서 창문에 던졌다. 마음이 조금 후련해 진 것 같아 의자에 앉으려고 했는데,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창문 밖 세상이 일렁거렸다. 난 그제서야 내가 던진 종이가 골동품가게 주인 아저씨가 주신 A4용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 그 허풍같은 말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사실이라면 내가 구긴 그 종이를 종이비행기로 인식한 것인가? 나는 뭐가 무엇인지 모르고 한참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한참을 일렁이던 창밖세상이 더욱 세게 소용돌이 쳤고 내 주변은 점점 비행기 속으로 바뀌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그저 어리둥절 했다. 그때 아버지가 조종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내 몸이 아버지를 통과했고, 아버지도 내가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그럼 내가 귀신이 되었단 말인가?' 살짝 공포심이 들던 그때, U208이라는 글자가 내 눈에 띄었다. 그럼 이땐 아버지가 사고 나기 전인 것 인가? 난 어지럽고 복잡한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 아버지는 조종석에 들어가며 승무원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 부기장과도 인사했다. 그 뒤 바로"탑승자 200명, 상하이로 U208 이륙한다."라며 관제탑에 알리고, 비행기를 이륙시켰다. 경력이 10년이신 아버지는 베테랑 기장이셨다. 아버지는 운전하는 동안 비행기를 자동모드

로 한 뒤 사적인 얘기를 하셨다. 부기장에게 “넌 아들이 있니?”라고 묻자 부기장은“아들은 아니고 딸은 있어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나처럼 비행기를 좋아해, 어린 녀석이 참 귀엽다니까. 얼른 집에 가고 싶어.”라고 말했다. 그랬다. 나도 한때는 아버지처럼 비행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난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았다.

순조롭게 목적지인 상하이를 향하는 도중, 우리나라 영해를 벗어나기도 전에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쾅’하는 소리가 나더니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승객들은 안절부절 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승객들에게 안전띠를 매라는 소리와 함께 원인분석에 들어갔다. “대체 왜 이런거지?” 아버지가 묻자 부기장은“운도 지지리도 없지, ‘버드스트라이크’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중국은 커녕, 회항도 못해요.” 뉴스에서도 사고 원인을 ‘버드스트라이크’ 즉, 새가 엔진에 끼어 엔진이 손상되는 것으로 추측했었다. 정말 새 때문이었다니... 나는 숨죽여 상황을 지켜 보았다. “일단 회항해보죠.”부기장이 말했다. 그리고 기장, 우리 아버지는 그대로 관제탑에 연락을 취했다. “관제탑, 여기는 U208, 엔진고장으로 회항한다.”그러자 관제탑에선 “지금 영해 끝쪽 아닌가? 그 상태로는 회항불가능하다. 엔진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하다. 게다가 오면 올수록 얕은 서해쪽이라서 오다가 추락하면 인명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이대로 깊은 바다에 불시착하는 위험한 도전을 할지, 공항으로 가는 더욱 위험한 도전을 할지 아버지의 선택에 달려있었다.

한참 뒤, 아버지는 이내 한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답했다.“관제탑, 바다에 긴급 착지한다. 구조대 요청 바람”답하자마자 아버지는 부기장과 함께 소리쳤다. “가자!”아버지와 부기장은 소리를 지르며 착륙을 시작했다. 그리고 뒤에 승무원들은 겁에 질린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안심시켰다.

완벽한 비상착륙이었다. 아버지는 바퀴가 바닷물에 닿고, 비행기를 살짝 물에 빠뜨린 다음 비상착륙을 성공 시켰다. 그제야 아버지는 웃으면서 부기장과 악수를 했다. 이제 가벼운 비행기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탈출하면 끝이었다.

그런데 뜨기는커녕 비행기가 뒤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자 부기장이 뒤에 가보았다. 잠시 후, 부기장이 달려왔다. “비행기가 뒤로 가라앉고 있어요!”아버지는 깜짝 놀라 관제탑을 호출했다.“뒤가 가라앉고 있다. 설마 적재량을 어겼

나?"그러자 관제탑에선"그럴 리 없다. 아까 말했듯이 모두다 정상이다. 일단 알아보겠다."아빠는 초조해하며 관제탑의 답을 기다렸다. 그때 관제탑에서 답이 왔다."미안하다..적재량초과, 우리 공항 관계자가 더욱 짐을 넣은 것 같다. 탈출해라!" 난 저절로 욕이 나왔다. 아버지도 짜증난 듯 하늘을 바라보고는 바로 승객들을 탈출시키기 시작했다. 그 순간 구조대 한팀이 왔다. 아버지는 승객들이 더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곧장 탈출을 시도했다.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울음소리가 났다."으...으...흐..학..자기야!"어떤 남자가 울부짖고 있었다. 난 그 남자가 아버지 추모식에 온 승객들 중 1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아내와 아이와 저기 안 에 있어요."구조대가 들어가려 했지만 입구는 거의 물에 잠기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가겠다고 나섰다."이러면 너무 위험해요, 지금 들어가시면 같이 죽습니다!"부기장과 구조대원들이 말렸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의 임무는 위험한 공중 속에서 승객을 지키는 것이야. 근데 이렇게 승객을 죽게 내버려두면 우린 그 임무를 어기게 되는 것이야!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은 날 용서해 줄거야.... 반대로 저 승객이 죽게 된다면 저 남자는 어떻게 되겠나? 우린 저 승객을 구해야해!"그렇게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들어갔다.

한참 뒤 , 문이 잠길 즈음, 여자와 아이가 나왔다. 남자는 여자를 얼싸안고, 아이에게 눈물을 흘리며,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여자는 질겁한 표정이었다. '아빠!'순간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났고, 난 그대로 눈을 가렸다. 부기장도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가렸다.

눈을 가리고 계속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몇분이 흘렀을까...주위가 잠잠해졌다. 눈을 떠보니 다시 나의 방이었고, A4용지는 그대로 있었다. 난 한참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A4용지로 비행기를 접어 날렸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마, 효능을 다한 것 같았다.

그날 밤, 지금은 기장이 된 부기장 아저씨가 우리집에 찾아왔다. 평소자주 들리셨는데 난 항상 아저씨를 외면했고, 아저씨가 아무리 이야기를 걸어와도 '예'아니면'아니요'로만 대답했다. 오늘도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왔다. "너, 아직도 너의 아버지가 싫니?" "아니요"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부기장 아저씨는 깜짝 놀란 듯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다니.. 무슨 일 있었니?"난 말을 얼버무렸다. "아버지에 대해 조사하기 숙제 해야해요. 질문에 답해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질문했다. “물론이지, 뭐든 질문하렴”부기장 아저씨가 흔쾌히 응해주셨다. “아버지는 어떤 분 이셨어요?”내가 말하자 부기장 아저씨가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답했다. “기장이란 부기장보다 더욱 큰 부담감을 지고 승객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너의 아버지는 그런 기장의 도리를 다하신 분이지.” 난 바로 다음 질문을 했다. “아저씨는 제가 아버지를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그러자 부기장 아저씨가 말했다. “승객을 구하러 들어갈 때 너의 아버지는 네가 용서해주리라 믿었다. 물론 자식을 버리고, 승객을 택했지만 목숨을 걸어 다른 생명을 구한 너의 아버지를 존경하길 바란다”

난 잠을 자기 직전 숙제를 끝 마쳤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버지를 용서하고 존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다음날 아침 교실은 북적북적했다. 1교시, 발표가 시작됐다. 회사원부터 경찰관까지, 여러 직업을 가진 부모님들을 아이들은 발표했다.

그리고 나의 발표 차례가 됐다.

‘나의 어머니는 회사에서 일을 하셔서 저를 키워주신 소중한 분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위급한 U208 비행기 사건의 기장이셨고 마지막 제가 용서해 줄 거라면서 승객을 구하러 뛰어들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장의 도리를 다하신 우리 아버지, 한때는 원망하였지만 이제는 존경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친구들은 어리둥절했다. 친구들은 U208 비행기 사고를 잘 알고 있었고, 기장이 사망한 사건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어리둥절한 것은 친구들뿐만이 아닌 선생님도 어리둥절하셨다.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 밝히기 싫어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그 사실을 밝히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뒤 가끔 친구들이 아빠없는 아이라며 놀리긴 하였지만 많은 친구들이 영웅 아버지를 둔것에 부러워 하였고, 그 사건에 대해 물어보는 친구도 대다수 있었다. 선생님도 대견해 하시면서 성적을 A+을 주셨다. 그 뒤 어머니도 한결 밝아진 내 모습에 기분좋아하셨다.

그 뒤, 나는 골동품 집으로 향했다. 하늘에 비행기도 그리고, 아버지 얼굴도 그려보았다. 그런데.. 골동품 집이 없었다. 뭐지? 난 어리둥절하며 살펴보았다. 그곳은 먼지와 쓰레기만 굴러다니는 빈 가게였다. 어른에게 “여기 있던 골

동품집 못보셨어요?"라고 물었으나 어른들은 꽤나 오랫동안 비어있던 곳이라며..나를 이방인 생각하듯 바라보며 지나쳤다. 내가 꿈을 꿨던 것일까?

그날 밤, 내 책상에는 메모가 적힌 구깃한 A4종이가 놓여있었다.

'나의 아들 은주야! 아빠야. 너무 급하게 하늘나라로 떠나느라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봤네.. 이제 너의 오해를 풀어준 것 같아 다행이구나. 나도 항상 네가 보고싶구나. 이제 갈게 안녕!'

-아빠가-

귀신도 기분 좋은 귀신을 보았나 보다. 내 책상에는 A4용지가 있었다.

나도 라이트형제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다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박서준

언젠가부터 나의 꿈은 하늘을 수없이 날아보는 것이었다.
항공기에 관심이 많던 나는 항공 잡지(Aero space) 및 전문 서적(비행의 시대, The aircraft book) 등을 섭렵했다.
나의 꿈은 내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항공기 및 전투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우리나라의 항공 기술들을 높여서 국력을 강하게 키우고 싶은 것이다.
어릴 적부터 하늘을 나는 비행기 및 전투기의 날개 모양을 보고도 기종을 알아맞힐 정도였다. 부모님께서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늘 응원해주시고 관심 분야에 스크랩을 해주시고 ADEX나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 등과 같은 곳에 늘 참가해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작년 12월에는 우리 가족이 미국 시애틀에 있는 보잉사와 항공 박물관에 갔었다.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뛰었고 나의 꿈이 한 발자국 앞에 와 있다는 안도감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다. 미국이라 그런지 박물관의 엄청 큰 스케일에 놀랐고 주차장 뒤편에는 여러 기종들의 항공기들이 눈앞에서 이, 착륙을 하고 있었다.
우물 안 개구리였던 나는 바다 같이 넓은 이곳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차근차근 읽어보고 체험하며 다녔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 회사인 보잉사 소형 경비행기에서 최신형 전투기까지 전시되어 있었고 여객기, 전투기, 비행기 내부를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그중 보잉 787은 에어버스 350과 같이 동체를 탄소섬유 소재로 만들어 공기가 쾌적하여 여행하기 좋다고 한다.
그중에서 플랩 유체실험을 했는데 수증기가 나와 유체의 흐름을 타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숙소에 돌아와서는 오늘 보았었던 기종들을 적어보고 그려보며 윙렛의 종류에 따른 각도의 크기변화가 궁금해져 보잉 777의 blended winglet과 A330의 Sharklet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책도 찾아보고 아직 내 선에서는 폼 보드 전동 비행기를 만드는 게 제일 무난했다.
하지만 만만히 봐서도 안되는 게 무게중심을 잘 맞춰야하고 비행기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잘 만들 수 있다.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시간이 3~4시간 정도 걸린다는 것이다.
만든 비행기는 넓은 공터에 가서 날려보는데 문제가 되는 게 날씨와 풍속이다. 비행하기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높은 나뭇가지에 걸리면 기다란 장대와 막대기들이 총 동원된다. 혹여나 망가질까 가슴은 조마조마하다.
이런 역경을 딛고 비행에 무난하게 성공할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진다.
날개의 모양에 따른 비행시간, 날개의 형태에 따른 연료소비와 속도 연구 등등 수없이 머릿속에 실험하고 싶은 것들이 맴돈다.
3학년 때부터 비행기에 관심 있을 땐 고무동력기로 시작되었다.
영재학급에서 양력을 배우면서 물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깊이 있는 공부가 정말 재밌었다.
5학년 때 대학영재원에 들어가면서 나와 관심분야가 비슷한 친구 준섭이를 알게 되었다.
준섭이도 나처럼 어릴 적부터 비행기에 관심이 많아 하루 종일 아니 며칠이 지나도록 대화를 나누어도 끊이질 않을 정도였다.
준섭이도 꿈이 우리나라 항공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는 것으로 나와 뜻이 같았다.
같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항공 동아리도 만들자고 약속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항공기계공학과에 진학하여 꿈을 이루자고 서로 다짐했다.
부모님께서는 방학 때는 서울대 기계항공 공학부에 멘토링 체험도 알아봐주셔서 형들이 배우는 공부와 진로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나는 미래의 나의 후배들과 항공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우리나라에 미국처럼 다양한 항공기 체험도 할 수 있고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

항공 분야에 관심이 많다보니 존경하는 위인도 단연 라이트 형제이다.
라이트 형제는 최초로 엔진과 프로펠러를 단 비행기를 발명하여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위인이다.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뛰어나 기계 장치를 만들기 좋아한 라이트 형제는 항공에 관련된 책 이라면 모조리 찾아 읽고, 수 없이 비행 시험을 되풀이한 끝에 1903년 12월 17일, 마침내 미국 키티호크 해변에서 하늘을 나는 데 성공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새처럼 최초로 하늘을 나는 순간이었다.
내가 요즘 비행기 양력에 대해 관심을 갖으면서 모형 동력비행기의 양력에 대해서 실험해야겠다고 정하였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학교 운동장에 나가 날려보기를 수십 번 했다.
사실, 모형비행기 한 대를 만드는데 3~4시간 정도가 걸린다.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점은 날리기를 할 때마다 학교 건물 위로 날아가거나, 나뭇가지 위에 걸리고 또한 기류를 타고 산 너머로 날아가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힘들게 만든 비행기를 잃어버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라이트 형제의 책을 읽고 비행기 사랑에 감동을 받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실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가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라이트 형제는 새처럼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을 꾸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라이트 형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실험정신이 있어 성공했다고 생각된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뿐 아니라 신문을 접는 기계도 만드는데 그것은 발로 밟아 돌리는 자동 접지기이다.
기계 한쪽 끝에 신문을 넣고 발로 밟으면, 반듯하게 접힌 신문지가 다른 쪽 구멍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본뜨질 않고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한 발명가라고 생각된다.그런데 1896년 여름 어느 날, 스물다섯 살이 된 동생 오빌은 장티푸스에 걸리게 된다.그 당시 장티푸스는 사망률이 높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병이다.
하지만 오빌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도 항상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

고 모든 관심사가 비행기였다고 한다.
정말 비행기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었다.
사실, 라이트 형제 이전에도 하늘을 날아 보겠다고 한 사람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였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려고 했었던 나의 모습에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라이트 형제의 실천력은 내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리고 온갖 실험 끝에 하늘 높이 비행기를 날려 보낸 라이트 형제의 위대함은 나에게 새로운 꿈을 안겨주었다.
또한 그들은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하는 실천가였던 것처럼 나도 궁금한 것이나 관심을 갖는 일에 적극적으로 실험하여 세계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겨 인류에 도움이 되는 과학도가 되고 싶다.

나를 찾아가는 비행

초등부 장려상 · 소설 / 박세진

1장 항공사라는 꿈과 시험

드디어 내일은 김유리, 나의 최종 시험 날이다. 항공사에서 일하기 위하여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뿐이다. 매일 밤을 새기며 했던 노력을 시험하는 날이 와 시원하기도 하고, 실패하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이 공존한다. 단번에 합격되기를 바라며 나는 다시 잠을 청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얼굴을 씻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하는 마음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다. 그리고 또한, 무섭기도 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했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흘러만 갔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이상하게 꿈에 그리던 날이 왔는데도, 너무 두려워 계속 침만 꼴깍꼴깍 삼켰다. 이건 내가 어릴 때 시험 보던 날 느끼던 감정이었을 것 같다. 숨을 한번 내쉬고 거울을 보았다. 이제 나가야한다. 실패가 없도록 마음을 다잡았다. 출발이다. 지하철을 타고 20분 거리에 있는 최종 시험장소. 첫 인상에서 문을 세게 열고 들어갈지 조심히 들어갈지 부터 걱정이 되었다. 감점이라도 될까 마음을 졸였다.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딱 들어갔더니 더 긴장이 되었다. 땀이 흘러서 긴장이 되는지, 긴장이 되어서 땀이 흐르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다. 안내관이 상냥하게 웃음을 지으면 안내했지만, 그 미소 뒤에 뭐가 있을까 더 걱정이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다. 면접관이 내 이름을 부르자 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네에...” 면접관은 나를 자리에 앉히며 날카롭게 물어보았다. 왜 항공사라는 꿈을 꿨나, 나의 노력은 무엇이냐 같이 생각해둔 질문도 몇 개 있었지만, 어려운 질문도 많았다. 말을 너무 조리 있게 잘 하셔서, 그리고 내 약점을 잘 파악하셔서 화살에 맞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무서워서 이가 부딪힌다’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후회 안 할 자신 있나요?” 그 질문에 나는 눈이 퍼뜩 떠졌다. 그렇다. 이 질문으로 나의 인상을 깊게 남겨주고 싶었다. “전 아직 잘 모르

겠습니다. 이 시험이 제 꿈을 이루어줄 지는요. 하지만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항공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올 테니까요. 그러니 후회는 나직 안 하겠습니다." 막상 다 말하고 나니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작은 미소와 진지함의 차이를 지켜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지원자를 무르자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자마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너무 떨리고 어려웠지만 나의 노력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났다. 하지만 마냥 기쁘지만도 않은 것이기에 마음 놓을 수는 없었다. 아... 어째 다른 징검다리는 매일 생겨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내 인생이기에 남한테 시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내 손으로 해야, 다른 종류의 징검다리를 합쳐 더 나은 기술과 경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보토, 물기를 없애주는 슬리퍼, 나무 보트, 증기선... 하지만 모두 틀린 건 없고 언제 도착하든 상관없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도 언잰가는 다시 일어나 고칠 수 있는 게 아닐까?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문자를 확인했다. 결과 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각오로 버텼다. 계속 있으니 온 문자.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다. "안... 안녕하세요... 항... 공... 사... 시험에" 합이라는 글자가 나오길 바라며 눈을 더 크게 떴다. "합격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기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내 일터를 갖게 된다!

2장 버킷리스트 달성

오늘은 외국으로 드디어 여행가는 날이다. 프랑스 파리라니, 정말 기대된다. 난 6년 전부터 시험 합격 뒤 여행을 꿈 꿔왔었다. 내가 혼자서 하는 일말이다. 바로 배낭여행 인 것이다. 내일을 위해 오늘은 맛있는 저녁(비록 김치볶음밥과 엄마의 반찬이었지만)을 먹고 알람을 새벽 3시에 맞추어놓고 짐을 쌌다. 책, 옷, 세안도구, 파리 교과서, 지갑, 간식... 짐을 싸는 것만으로도 너무 흥분이 되었다. 나를 가꾸어줄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넣고 나니 정말 홀가분하였다. 이런 여행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공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기억이 안 났다. 그래도 그럼 어떠냐 하는 마음으로 시익 미소를 지었다. 손목시계를 차고 비행기에서 입을 후드 티와 검정 바지를 입은 뒤 잠을 청했다. 나는 자면서도 더욱 행복할 내일이 꿈꾸었다.

새벽 2시 30분! 비틀비틀 일어나 배낭을 메고 비행기로 향하였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갔다.
힘든 행복의 길이다. 겨우 겨우 일어나 공항으로 가 여권을 내고 비행기에 탔다. 기내식은 전반적으로 만족이었다.

특히 새우튀김은 더할 것도 없었고, 요구르트도 맛있었다. 볶음밥은 약간 식었지만, 나름대로 맛있었다. 이런 날만 계속 되길 바라며 난 잠에 빠져들었다. 창밖은 보지도 못 한 채로. 도착하기 전에 1시간 전에 깼다. 이제 제법 아침이었다. 난 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비행기에 관련된 책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인데, 비행기를 좋아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아니, 항공사가 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좋아하는 걸지도 모른다. 그래도 뭐, 좋아하면 된 거니까! 친절한 스튜어디스 분은 우리 모든 승객들을 안내했다. 불어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냥 좋은 여행 되세요 같은 걸 것 같았다. 나는 열심히 알아들은 척 하며 밖으로 빠져나왔다. 여기가 프랑스! 라는 생각이 드니,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새로웠다. 내가 꿈 꿔왔던 나라, 책으로만 보아왔던 나라에 도착하는 그 만족감이란 말로 이루어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딱 열고 들어서자 깃털처럼 몸이 가벼워졌다. 난 호텔을 찾아 길을 해매는 길고양이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아! 저기다 하는 곳이 나올 때까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 채 파리라는 곳을 찾아다녔다. 난 너무 심한 길치라 지도도 쓸모가 없었다. 하늘에서는 길을 잘 찾는데 땅에서는 정말 못 찾는다. 연습한 게 아니라서 그런 것일까? 그러던 중 호텔을 찾아내고 방 하나를 구해 들어갔다. 방은 넓었고, 약간 낡은 것만 빼면 다 괜찮았다. 난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더 괜찮은 옷으로 갈아입고 점심 먹으러 나갔다. 요 근처에 눈여겨 본 식당이 있어 그 쪽으로 가보았다. 바로 아케이드 이다.(실제로 위치해 있는 식당이다.) 그곳에는 프리오리 때가 있다. 오믈렛과 초코 케이크를 시키고 베어 물었는데 책에서처럼 고소하고 입에 딱 맞아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을 법한 맛이었다. -(April in Paris를 참고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나는 다시 호텔로 들어가 내가 옛날에 쓰던 일기장의 맨 마지만 부분을 펼쳤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진하게 배낭여행이라고 썼다. 마지만 장에는 친구 결혼, 엄마와 효도여행 등 꼭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를 굵게 적어 놨다. 항공사라는 내

새 일터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 그럼 더욱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실, 내 옛날 꿈은 항공사와 작가였다.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글을 쓰는 그런 직업. 초등학교 때 그런 직업은 없다는 걸 깨닫고 정말 상심했었는데... 그 때 기억은 슬프지만 지금은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대로 계속 있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니까, 그리고 나는 노력으로 그걸 이루어냈으니까.
난 오늘도 가져 온 우쿨렐레를 조심스럽게 꺼내 Low G음으로 맞추고 노래를 연주했다. “Wish up to the sky, I wish to kite, can we sing all together, Oh when stars going down, when I wish to the sky... I am sure of you can here my voice” 내가 멜로디에 직접 작사한 곡이다. 항공사가 되면 노래를 부르면서 조종해야지라는 엉뚱한 생각을 초1 때 했기 때문이다. 그게 내 취미가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니 계속 좋은 나날만 기다릴 것 같다!

3장 예상과는 다른 나날들
오늘부터 나는 프랑스 회화를 듣기로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바지를 입고 후드티를 입은 다음 거리로 향해 2번째 골목에서 꺾었다. 많은 베이커리들 조신하게 폼 내고 있는 케이크를 진열해놓았다. 예쁜 척 하는 케이크를 보자니 어이가 없었다. 그런 것들은 홈 메이드의 푸짐함과 솔직함을 이기지 못 하니까. 색소, 기계 보다는 예쁘지 않아도 정성이 있는 케이크를 누가 이기랴. 어쨌든 난 C 반으로 들어가 중간의 끝자리에 앉았다. 프란스 회화 책을 펴는데, 그 때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고 있는 3명의 여자들이 들어왔다. 찰랑찰랑한 머릿결이 딱 봐도 제과점의 케이크 같았다. 그 소녀들에게 기가 죽지 않으려 노트북에 코를 처박고 있는데, 갑자기 기침 소리가 들렸다. 위를 보았더니, 그 소녀들이 허리에 손을 대고 서 있는 것이다. “비켜볼래? 여긴 우리 지정석이라고.” 난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쏘아 붙였다. “이번 건 첫 수업이잖아요. 정해진 자리는 없다고 들었어요.” 영어로 될 수 있는 데까지 말하자, 그 세 소녀들은 말했다. “하하! 너 우리를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여기 지배자라고. 너 같은 겁쟁이와는 다르게. 네 인생 망가지기 싫으면 어서 나가라!” 난 정말 화가 났다.
난 당돌하게 말했다. “겁쟁이라뇨, 말이 좀 심하시네요. 그리고 여기는 일찍 온

사람이 자리를 정한다고 써져 있었는데, 못 보셨나 봐요.”
그 여자들은 엄청 화난 것 같았다. 근데 갑자기 날 들어 올려 내팽겨 쳤다. “뭐가 어쩌고 어째?” 3명이서 한 번에 덤벼드니 어쩔 수 없었다. 그 학생들은 나를 째려보며 내 자리에 안자았다. 주위에서 웅성웅성 거렸다. 몇몇의 학생들이 날 도우러 왔지만 모두 그 학생들을 보고 할 수 없이 자리로 들어갔다. 나는 밀려난 채로 그 학생들의 뒤 뒷자리에 앉았다. 모두들 나를 동정하는 눈으로 보았다. 난 화가 나서 말없이 그 셋의 뒤통수를 째려보며 혀를 내밀었다.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웠다. 수업에서의 단어들 말고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선생님의 농담도 전혀 웃기지 않았다. 모든게 망한 듯이 나는 계속 수업을 들었다. 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노트북을 덮고 가방에 넣어 나가려는데 그 학생들이 내 앞에 왔다. 난 또 화를 일으키기 싫어서 조용히 일어나 걸어갔다. 그 때 내 어깨를 턱 잡더니 그 소녀가 그러는 것이다. “LOSER” 난 그 순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무척 화나고 수치스러운 눈으로. 내 눈은 “네가 뭔데 내 앞길 막는 거니? 이건 네들이 사과할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내 목에서는 작게 “Why, why you say that? Umm...don’t matter.(왜, 왜 그걸 말 한 거야? 음... 신경 쓰지 마)” 그러고는 덧붙였다. 한국어로 “진정한 패배자들과 겁쟁이들이 자신을 그렇게 이루어 말하고는 하지.” 난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가려는데 그 학생들이 날 노려보는 것이다. 그러고는 날 밀쳤다. 난 간신히 피했지만 생명의 압박감을 느꼈다. 난 조심히 뒤로 물러섰다. 그들이 불어로 말해서 거의 다 못 알아들어 난 어리둥절해했다. 하지만 내 귀에 비수처럼 꽂힌 오늘 배운 단어가 들려왔다. 포기...네 인생....망가졌다?! 난 깜짝 놀라 눈이 떠졌다. 손은 덜덜 떨렸고, 입술이 흔들렸다. 머릿속은 온통 새하얘졌다. 궁금증을 억누르고 그냥 비켜줄 걸이라는 한순간의 선택이 원망스러워 졌다. 난 “Sorry, girls.” 라는 말을 내뱉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갔다. 그들에게 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나가지 말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싫었다. 차라리 맞는 게 낮지, 포기하고 싶진 않았다. 내가 누군가... 계속 노력해 꿈을 이룬 사람 아닌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도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썩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했다. 내가 포기지 말아야지라는 희망도 주었다.. 이런 일로 포기하면 두고두고 이야기 거리가 될 것 같았다. 난 건강하다.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한다. 권 기

옥 여사님은 남녀차별, 일본 지배등 별별 수모를 다 견뎌서 우리나라의 최초 여자 비행사가 도;셨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난 할 수 있다. 이런 일로 모든 걸 포기하면 우리의 조상님들이 슬퍼하실 것이다. 항공사라는 일을 하다 보면 더한 일도 많을 것이다. 나는 그 길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마음속으로 믿어본다. 내가 존경하는 작가들 -) 안비루 야스코 *마법의 정원, 무엇이든 마녀 상회* 와 로랜 차일드, *찰리와 롤라, 클라리스 빈* 그리고 레이첼 르네 러셀 *니키의 도크 다이어리* 도 이것보다 더한 수모를 겪지 않았겠는가. 내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유는 큰 고비를 넘고도 멋진 작품과 성공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

4장 계속되는 괴롭힘

오늘도 어제를 거울삼아 회화 수업에 나갔다. 옷을 다 챙겨 입고 나갔을 때 걱정이 됐던 건 사실이다. 방 문 앞에서 눈을 감고 5분 동안이나 생각에 빠져있었다. 마음을 다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지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는. 진짜로 그 앞 돌부리 때문에 마음이 철렁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 여자애들이 너무 무서웠다. 오늘도 기운을 내고 2번째 골목에서 꺾었다. 어제처럼 예쁜 척하는 베이커리 가게 케이크들이 도도하게 날 노려보고 있었다. 가장 잘난 척하는 무지개 색 케이크는 생크림으로 뒤덮여져 있었다. 하지만 맛있지는 않은 겉만 예쁜 케이크였다. 옆에 있는 초코 케이크, 치즈 케이크는 다른 케이크는 얼씬도 못하게 그 뒤쪽의 배경으로 살고 있었다. 휴... 난 그 가게를 지나 새로 생긴 가게 앞에서 우뚝 멈춰 섰다. 그곳에는 파란색의 심플한 가게였다. 귀여운 별 캐릭터에 귀엽고 예쁜 척하는 케이크들과는 다르게 홈 메이드처럼 솔직한 과자들이 푸짐했다. 난 더 있고 싶었지만 강의 시간에 늦을까 달려갔다. 달려가니, 그 여자애들이 어재 뺏어간 내 원래 자리에 앉지 않고 내가 바꾸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른 곳 말고는 자리가 없어서, 난 어제 빼앗긴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 학생들은 다시 내 자리로 와서 눈짓을 했다. 난 위를 올려봤다고 고개를 젓고 짐을 챙겨 어제의 내 자리로 갔다. 다른 학생들은 눈이 커지며 귓속말로 그 학생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개들이 뒤돌아보자,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앞을 보았다. 난 다

시 책을 펴고 선생님을 기다린 뒤 물을 빼려고 가방을 연 순간 가방에 껌이 붙었던 것이 보였다. 학생들이 킥킥 웃었다. 난 눈물을 먹으며 가방에 묻은 껌을 모두 땠다. 내가 물통을 연 순가 그 학생들은 날 툭 쳐 난 물을 쏟을 뻔 했다. 그 애들이 아쉽다는 듯 웃음을 짓자 나는 갑자기 목을 뭔가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물을 다시 가방에 넣어 내 가방은 내 무릎 위에 놓았다. 난 눈을 감고 선생님 말에 조용히 대답만 하고 다시 자리로 들어가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슬픈 표정을 짓자 그 학생들이 내 책을 가져가 모퉁이를 물로 적셔서 다시 돌려주었다. 난 모퉁이를 만지며 내가 좋아해 거금을 드리고 산 포스트잇을 전부 땠다. 아무리 좋아해도 다 젖어서 글씨를 멋 읽을 정도면 아예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다. 난 그 수업동안 아무 말도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수군거림만 들려올 뿐이었다. 내가 이 위기를 견딜 수 있을까부터 걱정이 되었다. 수업이 끝나고는 우산마저 찾지 않았다. 어차피 부러졌을 게 당연하니까. 내 책상 속은 이미 폭탄을 맞은 듯하다. 내 개인 물건인 분홍 파우치가 구겨졌고 내가 좋아하던 그림도 찢어져 있었으니까. 털실 뭉치도 다 풀려져 있어버렸다. 난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왔다. 베이커리 가게 앞을 지나니 오늘따라 뽐내고 있는 케이크들이 무서워져갔다. 난 한숨을 내쉬고 방으로 들어왔다. 아무 컵라면도, 캔도 남지 않았다. 뭔가 내 마음을 보듬어주는 음식이 없어진 것 같았다. 호텔 방도 모델 룸처럼 겉만 뽐내고 있는 방이었다. 진정 사람들이 원하는 건 친절한 서비스와 정성들여 꾸민 방 아닐까 하는 다소 슬픈 생각이 들었다. 조용히 입을 닫고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켰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난 텔레비전을 켜 놓고 잠에 들었다. 그다지 기쁘지 않은 꿈을 꾸면서.

5장 방학에서 돌아온 특별한 아이

오늘은 왠지 더욱 더 일어나기가 싫었다. 책은 방수 팩을 씌우고 가방은 비닐을 덮었다. 옷은 두껍게 입고 노트북은 푹신한 안전 담요로 덮었다. 내가 좋아하는 노트는 놔두고 싫어하는 노트와 집에 많은 수첩 용 팬을 가지고 갔다. 오늘은 큰 베이커리의 무지개 케이크까지 얄미워 보였다. 난 고개를 젓고 뒤돌아가려던 참, 옆에 있는 그 심플한 가게 옆에 홈 메이드 빵집을 발견하고는 손이 떨렸다. 얼굴에는 생기가 도는 듯 했다. 난 어린 아이처럼 발을 동동 굴렸다.

그러고는 당장 예비 잠바를 벗어 던지고 가방을 아무렇게나 맨 다음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 푸짐한 냄새에 눈물이 나올 뻔 했다. 예쁘지는 않아도 아니, 정성 때문에 더 예쁜 솔직하고 푸짐한 그 모습. 난 주인 아주머니에게 과자를 주문했다. 난 겨우겨우 불어로 "정말 감사해요... 제가...꿈을...이룰 수 있게 하는...맛이에요!" 아주머니는 내 말을 전부 이해하시지는 못 한 것 같지만, 내 얼굴에 무안히 감동 받으신 것 같다.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릴 것 같은데 난 정말 기뻐 아주머니를 안아드리고 싶은 모습이었을 거니까 말이다. 아주머니는 나에게 값을 깎아주시기 까지 하셨다. 난 감사하다고 한 뒤 급히 나갔다. 급히 뛰어가 보니 그 학생들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난 당당하게 들어갔지만 막상 들어가니 긴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아이들은 오늘 따라 내게 더 못 되게 굴었다. 나를 툭 밀치더니 내 얼굴에 물을 휙 뿌렸다. 난 눈물을 흘리며 자리로 들어갔다. 학생들은 비열한 웃음을 짓더니 내 잠바를 구겨 놓았다. 이걸 미리 예측한 나는 예비 잠바를 가지고 와 놀랍지도 않았고, 어차피 곧 버릴 잠바라 몰래 웃었다. 하지만 그게 몰래가 아니었는지, 난 그들의 뜨거운 차를 나의 무릎으로 받아 주어야 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매여 말 할 수 없었다. 난 뜨거워진 내 다리를 보며 과자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귀여운 리본으로 묶여져 잇는 봉지를 풀어 한 입 먹니 기분이 좋아졌다. 정말 이 과자는 예쁜 척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어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아주머니가 초코 크림으로 예쁘게 그려주긴 스마일을 보니 행복했다. 그 때 파란 머리 소녀가 들어왔다. 그 애는 웃으며 나에게로 와 주었다. 그러더니 내 옆에 앉는 것 이었다. 난 내 옆에 앉으면 힘들 거라고 말 했지만 그 애는 괜찮다면 날 피하기는커녕 이름이 뭐라며 물어봐주었다. 그 애는 De de라고 했다. 난 내가 May라고 했다. 그 애는 자신도 저 학생들의 먹잇감이었다며 내게 진심으로 착하게 대해 주었다. 나는 정말 고마웠다. 그 날 쉬는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나를 못되게 구는 학생들에게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이해해주었다. 나는 정말 고마웠다. 비록 심오한 이야기를 그들의 언어로 할 수는 없었지만 난 내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열심히 설명했다. 그 3명의 학생들은 나를 째려보았지만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난 알지도 못 하고 밝게 웃었다. 난 집에 갈 때 De de에게 별 모양 쿠키를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심플한 가게의 줄무늬를 닮은 젤리를 주었다. 난 그녀를 향해 웃었고 그녀도 나

를 향해 웃어주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걸어갔다. 날 못 살게 구는 학생들에게 한 방 먹인 것 같아 기분이 좋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했다. 그녀에게 내 전 제산의 반을 주어도 안타깝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으려 했다. 난 그녀에게 최대한 많은 케이크를 사 주었고(그녀가 더 이상 단 걸 못 먹을 때까지), 며칠 뒤 난 파리를 떠나게 되었다. 그 파란 머리가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같았던 그녀의 머리를 난 평생 잊지 못 할 것 같았다.

뒷이야기

난 이제 항공사 5년차 프로가 되었다. 내가 승객들을 열심히 안내하고 있는데, 나는 갑자기 이상한 향기를 느꼈다. 썩은 음식처럼 기분 나쁜 이상함이 아니었다. 내가 매일 다니는 하늘의 별 향기가 이럴 것 같았다. 내가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난 그녀가 De de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난 가만히 있었다. 추억으로 남겨두고픈 사람이었다.

비행기를 타니

초등부 장려상 · 시 / 백가영

비행기를 타니 온 세상이 작아 보인다.
마치 나는 거인
아래는 소인국 같다.

비행기를 타니 내 옆에 구름이 있다.
몽실몽실 구름
만져 보고 싶다.

비행기를 타니 내가 하늘을 나는 것 같다.
비행기 좌측 날개와 우측날개가 내 양쪽 팔 같다.

비행기를 타니 몇 시간 만에 다른 나라로 와있다.
꼭 비행기는 마술사 같다.

비행기를 타니 여러 경험을 하게 된다.
참 신기한 경험이었다.

나는 비행기가 되고 싶다.

초등부 장려상 · 시 / 신가은

나는 비행기가 되고 싶다.
저 높은 하늘을 날며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까

비행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아니.
지하만큼 우주만큼? 맞아, 맞아.

나는 비행기가 되고 싶다.
사람들의 행복을 가득 싣고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누비는
나는 비행기가 되고 싶다.

구름 위를 날아서 눈의 나라로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안규리

지난겨울, 우리 가족은 눈의 나라를 여행하기로 결심했다. 그 눈의 나라는 바로 삿포로였다. 삿포로는 일본 홋카이도의 남서부에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여행간 곳을 크게 말하자면 홋카이도이고, 작게 말하자면 삿포로이다.

어쨌든 나는 여행가기 전날 밤 평소보다 일찍 침대로 갔다. 왜냐하면 삿포로로 가는 비행기가 새벽 비행기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두근거리고 즐거운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다. 우리 엄마께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못할까봐 주무시지 못했다고 한다.

새벽 4시, 우리 가족 중 엄마, 아빠, 언니는 알람소리를 듣고 잘 깨어났지만 나는 뒹굴뒹굴 거리다가 겨우 일어나서 공항으로 갈 준비를 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차로 달려 새로 생긴 공항에 도착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가보니 제1여객터미널과는 달랐다. 주차장 입구부터 큰 화면에 그래픽이 있었다. 그러니까...정말 모든 것이 제1여객터미널과는 확실히 달라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다.

우리 가족은 여행사로 갔기 때문에 가이드를 만났다. 가이드님과의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짐을 붙이게 되었다. 나는 짐 붙이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다. 이번엔 출국검사도 완벽하게 마쳤다. 몸수색 검사대를 지날 때 '삐~~'하는 소리도 나지 않아 안심되었다. 비행기 타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엔 공항면세점을 두리번, 두리번 둘러보았다.

이제 나와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비행기 탑승시간이 되었다! "야호~~!"드디어, 우리 가족은 구름 위를 날 수 있는 비행기 좌석에 편하게 앉았다. 약 3시간 후...우리 가족은 홋카이도의 남서부 지역, 삿포로에 도착했다. 비행기의 창밖을 보니 눈이 하얗고 소복하게 쌓여있었다. 그 눈은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하얗다.

가이드님이 삿포로 공항에서 같이 여행 온 분들을 모았다. 15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아 좋다고 하셨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함께 할 거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다.

먼저 노보리베츠 민속촌에 갔다. 일본 에도시대를 재현한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게이샤 연극을 본 것이 기억에 남는다. 손님 중 한 명을 무대 위로 올려서 진행하는 연극인데, 그 손님 중 한명으로 뽑힌 사람이 우리 아빠였다.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의 웃는 모습이 보기에 좋다고 하며 장군 역할을 하라고 했다. 아빠는 일본 장군의 모습으로 변장까지 하고 무대에 나타나셨다. 아빠가 일본어를 모르니까 한국어도 섞어서 해 주셨다. 코미디여서 모든 관객들이 깔깔 웃으며 재미있게 보았다. 뜻깊은 추억을 남기려고 엄마께서 동영상을 찍으셨다. 게이샤 쇼가 끝난 후, 닌자쇼를 보고 닌자의 집에 들어가 보았다. 닌자의 집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집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벽이나 천장이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비밀통로도 일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기분이 묘했다.

첫날 묵을 호텔은 일본 전통 방, 이름하여 다다미방이었다. 그런데 그 호텔은 까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서 방의 창문을 꼭 닫고 자야했다. 그곳에서는 일본의 전통 옷, 유카타를 입었는데 원래 잠옷 또는 목욕 후에 집안에서 입는 옷이라고 했다. 편의점에서 먹을 것도 사오느라 너무 지쳐서 난 언니보다 먼저 잠이 들었다. 처음으로 언니와 내가 엄마 아빠 없이 단 둘이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자, 여기서 잊지 못할 일화가 시작된다. 이날 밤 언니는 자다가 깨서 엄마, 아빠 방으로 갔다는 사실! 왜냐하면 내 코고는 소리가 귀신소리로 들리고 까마귀 소리도 들렸기 때문이란다. 덕분에, 나는 아침에 일어나니 아빠가 내 옆에 주무시고 계셔서 정말 깜짝 놀랐다.

둘째 날은 어린이들이 좋아할 과자, 사탕이 있는 곳으로 갔다.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 집에 온 것처럼 달콤한 간식들이 가득했다. 신기했던 점은 '눈의 연인'이라는 예쁜 이름의 과자가 있었다. 우리 언니가 '눈의 연인'을 '눈의 애인'이라는 짝퉁과자로 팔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다음 코스로 신사에 갔다. 신사란 일본에서 신을 모시는 곳이라 한다. 모두가 눈 덮인 신사의 아름다운 모습에 들떴다. 우리 아빠는 너무 들뜬 나머지 점프

를 했다. 그렇지만, 그곳의 관리자에게 혼이 났다. “여기는 공원이 아니니 조용하세요.” 라는 꾸지람을 관리자에게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밤이 되고, 힘든 몸을 풀어줄 노천탕으로 갔다. 온천수지만 화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높은 온천이었다. 따듯하게 몸을 녹이고 눈을 붙였다. 포근한 이불을 덮고 쿠울~쿠울~잠을 잤다.

셋째날, 구경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여행을 왔는데 내일이면 비행기가 뜨는구나! 하지만, 구경 마지막 날이라고 쉬엄쉬엄 있을 수는 없는 법!

오타루에 있는 오르골들을 감상하러 갈 시간이다. 오르골을 보러 가려고 눈길을 한참 걷다보니, ‘아...다리 아프다...’그렇게 30분을 걸어 오르골들이 가득한 곳에 도착했다. 이곳은 1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층, 3층 심지어 4층 정도까지...! ‘무슨 오르골들이 이렇게 많담!’ 소리가 나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활발한 소녀가 아침을 깨우는 것 같이 명랑한 소리가 나는 오르골도 있었다. 여기 오타루에 와서 먹은 과자도 있었는데 그 과자는 달~콤하고 달달한 맛이었다. ‘와~달다, 달아.’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7가지 맛이 나는 레인보우 아이스크림 이었다. 나와 아빠는 레인보우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언니는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셋째날 여행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요구르트였다. 도야호수에서 사먹은 그 요구르트는 내 12년 인생 중에서 TOP 1 요구르트다. 심지어 유제품을 싫어하는 우리 언니도 한 잔 마셨다는 사실!

여행 내내 차를 타고 다닐 때 신기했던 점은 차도에 눈이 가득 쌓여 있는데 차들이 씽씽~빠르게 도로위를 달린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눈이 조금만 쌓여 있을 때도 차가 씽씽~달리기는커녕, 낑~낑~ 거북이 걸음처럼 느리게 걷는 듯 한 모습이었는데...그것은 나에게 호기심을 던져다 주었다. 생각해보니 일본의 차 바퀴가 강했던 것 같다.

삿포로에서의 마지막 밤을 맡아줄 호텔은 다다미방이 아닌 침대 방이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기가 싫었다. 학원 때문이라는 이유도 물론 있었지만 함께 여행 온 사람들과 이제야 친해졌는데...그런 조바심에 일기 한편을 쓰게 되었다.

드디어...한국으로 가는 날 아침...비행기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갈 때 창밖을 본 나는, 그 순간 느끼게 되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눈의 나라 삿포로, 편하고 알차게 보내고 간다.'그런 슬프기도 하지만 즐거웠다는 생각에, 구름위의 내 얼굴엔 미소가 띄어 있었다.

새들의 집

초등부 장려상 · 시 / 양 현

저는 비행기 입니다.
제 별명은 비둘기 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는 모습이 비둘기 같다고
다른 비행기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편안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 입니다.
공항은 저희가 잠시나마 쉬어가는 곳이고
또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항에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또 공항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과
제 몸에 실을 물건들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공항을 새들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문

초등부 장려상 · 시 / 오지석

비행기가 하늘의 문을 들어가고 있어요
문에 들어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
다른 곳으로 나를 데려가 줘요
내가 몰랐던 곳 하지만
내가 알고 싶었던 곳이 저기 보여요

이 공간에서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비행기는 나를 행복한 곳으로 데려다줘요

맛있는 비행기 여행

초등부 장려상 · 시 / 이보성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보면
팥빙수 얼음 같아서
쿡 찍어 먹어보고 싶어진다.

구름 위에 떠있는 햇님은
팥빙수 위에 있는 체리 같아서
콕 집어 올려 먹어보고 싶다.

아~
얼마나 시원하고 새콤달콤할까?

내 마음 속 비행기

초등부 장려상 · 시 / 이서연

크릉크릉 소리를 내며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얼굴이 까만 엄마의 손을 잡았다.
쑤웅쑤웅 방귀를 끼며 땅에서 떠오르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얼굴이 까만 엄마의 눈물을 보았다.

위잉위잉 꿀벌 백 마리가 내 귀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내 양쪽 귀에 손바닥을 대고 웃어주었다.
겁먹은 표정의 내 얼굴이 엄마의 눈동자 속에 비쳐졌다.

나를 낳고 처음으로 가는 엄마의 엄마가 살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
외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안전벨트 경고등이 사라지고
유니폼을 입은 언니들이
배가 고플까봐 맛있는 기내식을 준다.
비행기에서 밥도 먹고
비행기에서 쉬도 하고
비행기에서 영화도 보고
무엇보다 제일 신 나는 건
엄마와 다섯 시간을 꼭 붙어 있어서 좋다.
땅 위에서 엄마는 식당일을 다닌다고 바쁘지만,
하늘 위에서 엄마는 내 옆에 앉아 있다.

코르릉코르릉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릴 준비를 한다.
빠르게 내려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얼굴이 까만 엄마의 손을 잡았다.
씨잉씨잉 방귀를 뀌면서 활주로를 힘차게 달리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엄마의 엄마를 상상해 본다.
내가 엄마를 닮은 것처럼
엄마도 엄마를 닮았겠지?

비행기

초등부 장려상 · 시 / 이예은

가 가장 빠르게
나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
다 다른 곳으로 데려가 준데
라 라라라라 콧노래가 나오고
마 마법처럼
바 바람 속으로
사 사라졌다 나타난데
아 아주 먼 곳까지 갔다 오지
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차 차보다 멋지고
카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가지가지
타 타는 순간 몸이 붕 떠올라 신나게 만들어 준데
파 파도를 타듯 시원할지 몰라
하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난 정말 좋아

세상 행복한 11명의 가족여행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이재민

몇 년 전의 우리 외할머니의 환갑 즈음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 외할머니는 항상 비행기를 타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다. 60살이 되도록 우리 외할머니는 한 번도 비행기를 타 보시지 못하셔서 비행기를 타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고 자주 노래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외할머니의 환갑 생신 선물을 온 가족 여행을 계획하였다. 우리가 생각한 가족 여행에 참가하는 사람은 모두 11명이었다. 먼저 우리 가족 5명이 있다. 우리 집에 같이 살고 계시는 나의 친할머니, 엄마, 아빠, 내 동생이다. 그리고 우리 외삼촌 가족은 외삼촌, 외숙모, 외사촌 동생 2명을 포함하여 4명이다. 끝으로 환갑을 맞이하시는 우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두 분이다.

먼저 여행 장소를 선택하기로 하였다. 생신의 주인공인 외할머니께 여쭈어 보니 외할머니는 외국은 잘 모른다고 너희들이 정하라고 하셨다. 나는 비행기를 오래 타고 싶어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먼 곳을 가고 싶었다. 그러나 결국 어른들의 회사 때문에 여행 기간도 길게 갈 수 없고, 무엇보다 여행비가 많이 든다고 하여 동남아시아로 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다리가 몹시 불편하여 장애까지 있으신 우리 할아버지가 많이 다니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 휴양지로 선택한 곳이 세부였다. 나는 세부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지만 우리 가족과 외할머니가족, 삼촌가족 모두가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이 아주 기뻤다.

다음으로 비행기를 예약하기로 하였다. 나는 한 번도 비즈니스나 퍼스트클래스 같은 좋은 좌석을 타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것이니 비행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좌석도 아주 업그레이드 된 좋은 좌석을 예약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른들은 여행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고, 우리는 모두 세부

퍼시픽을 타게 되었다. 내가 기대했던 아주 좋은 비행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비행기를 탄다는 생각에 정말 기쁘고 설레고 기대가 되었다.

드디어 여행날!

우리는 몸이 뚱뚱하시고 평소에 많이 걷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공항으로 갔고, 외삼촌 가족은 이번 여행의 주인공이신 외할머니와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공항으로 오셨다.

공항에서 친척들을 만나니 뭔가 새롭고, 흥미로웠으며 기분이 좋았다. TV에서 본 것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아주 멋진 가족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가족들 모두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서 나도 정말 행복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비행기를 처음 타보시는 우리 외할머니의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였고, 다리가 불편하셔서 마음대로 외출을 잘 못하시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계속 싱글벙글 미소를 보이셔서 좋았다. 우리 친할머니도 밖에 많이 다니시지 않으시는데 여러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니 외하머니 손을 꼭 붙잡고 다니시며 여행으로 들 뜬 기분처럼 보였다.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유리창 밖에 있는 많은 비행기들을 구경했고, 비행기를 배경으로 사진도 많이 찍었다.

이번 11병의 가족 여행에서 어린이는 나와 내동생, 두 명의 사촌 동생을 포함해서 모두 네 명이었는데 다 남자였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비행기의 바퀴, 날개, 그림, 색깔, 크기, 창문의 수 등을 계속 관찰하고 비교하며 멋진 비행기를 찾아보았고 비행기에 관하여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우리는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우리 외할머니는 동네 친구분들에게 비행기 타면 지켜야 할 사항, 준비할 것들을 너무 많이 듣고 챙겨 오셔서 우리한테 알려 주셨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귀가 먹먹해지니 코를 푸는 것처럼 흉내를 내라고 하셨고, 우리들을 위해 사탕도 챙겨 오셨다.

우리는 할머니께서 알려 주시는 것을 따라하며 깔깔거리고 웃었다. 또 비행기가 빠르게 달리는 순간에는 맛있게 사탕을 먹으며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느꼈다.

드디어 비행기가 하늘을 날자 우리는 비행기 아래로 보이는 작은 산과 바다도 구경하고, 솜사탕처럼 둥실둥실 떠다니는 구름 구경도 했다.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는 느낌도 들었지만 우리는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다.

또 비행기에서 컵라면을 파는 장면을 처음 보아서 깜짝 놀랐는데 먹어보니 꿀맛이었다. 원래 평소에 우리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라면을 잘 안드시는데 그 날 비행기에서는 정말 맛있다고 하시며 국물까지 싹싹 드셨다. 와! 비행기에서 컵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때 처음 알았다.

약 4시간 3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나서 우리는 세부 공항에 도착했다. 날씨는 정말 더웠고, 공항은 좁고, 사람들은 줄을 너무 길게 서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었다.

공항을 나와서 우리는 호텔로 갔다. 3박 5일동안 세부에 머물면서 우리 11명의 가족은 수영도 하고, 해양스포츠도 즐기고, 트라이시클도 타 보고, 시장과 마트에도 가 보았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패러세일링이었다. 처음에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무서워서 안하신다고 하시고, 외할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걷기도 힘들고 배까지 이동하시는게 힘들어서 안하신다고 하셨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설득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외국 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하셔서 결국 모두가 타게 되었다. 그 것을 타신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오! 속이 다 뻥 뚫리는 느낌이네! 이 것 참 재미있다. 이것 안타고 세상살았으면 억울할 뻔 했겠네!”

라고 하셨다.

우리 친할머니는

“세상에 사돈하고 별 경험 다하네요! 나도 하나도 안무서웠어요!”

라고 하셨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냥 그렇지!”

라고 하셨는데 표정은 정말 재미있었다는 듯이 웃고 계셨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설득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도 어렸

을 때에 해양스포츠가 처음엔 무서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정말 재미있고,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보는 것과 실제로 해 볼 때의 차이가 많이 있고, 실제로 해 보는 것이 더 실감나고 재미있기 때문이다.

호텔에서 방을 4개로 나누어 써서 밥을 먹을 때에도 이방 저방 깨우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으셔서 모시고 나오느라 모이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명절날도 아닌데 11명의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자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하루 종일 놀고, 여행하는 것이 꿈만 같았고 진짜로 행복했다.

돌아오는 날이 너무 빨리 와서 아쉬웠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돌아오는 날 현지인들이 만들어서 파는 코코넛열매로 만든 기타를 기념품으로 사주셨다. 그리고는 세부공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잠깐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공기도 달랐고, 날씨도 달랐고, 넓고 깨끗함도 달랐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이고, 발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하여 계획한 11명의 가족여행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나는 그 때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꿈은 지금 파일럿이다. 파일럿이 되어 큰 비행기를 조종하고 외국의 여러 나라에 가 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가족 여행을 하거나, 즐거운 여행을 하며 좋은 추억도 만들고 행복해 한다면 보람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우리 친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꼭 다시 온 가족 11명의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

그 때 까지 우리 11명의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KE018 하와이행 비행기

초등부 장려상 · 소설 / 정성현

어느 장마가 심한 한여름날, 하와이행 KE018호는 출발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 오늘따라 비가 심하군.”기장이 조용한 분위기를 깨며 부기장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게 말입니다.”승객들이 있는 칸에 스피커로 스튜어디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잠시후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승객여러분은 자리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시길 바랍니다.We will now be airborne soon. Please remain seats and fasten your seatbelts now. Thank you] “관제탑!KE018 하와이행 비행기 출발신호 부탁바란다.” “KE018호 7번 활주로 이용바란다. 준비됐으면 출발하기 바란다[삐]” “이봐, 준비 되었지?” “전 언제나 준비 상태입니다.”그래, 출발이다! “조종간을 힘껏 움켜잡고 기장과 하와이행 KE018호는 힘차게 날아올랐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현재 기상 악화로 인해서 기내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Attension, please. The flight is shaking hard because of bad weather. Please remain seats until the seatbelt light goes off.Thank you.].태평양을 반 쯤 가로지르고 있을 때 엄청난 천둥이 기내 안 모든 사람들의 귀를 스쳤다.(콰과광!). 기장이 말했다. “처음인데 괜찮아?” “휴, 저희집 3남매가 제 어깨에 매달린 것보다 더 흔들리는 데요?” “후후, 처음이라서 그런거야. 언젠간 익숙해질거야.” “아, 네.” . (삐이이이잉!삐이이이잉!)갑자기 계기판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천둥에다가 새까지? 정말 골치아프게 됐군.

레이더에 하얀 점 3개가 들어왔다. 다행이 몇 백 미터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레이더에 V자 모양의 하얀 점들이 비행기 위치 표시 바로 앞에 떠있었다. “어머나! 잘못하면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이 있겠어! 부기장! 조종대 잡아! 상승!”. (가아아아아앙) “기장님! 앞에 또!” “더, 더, 더! 조금마아아안!”스튜디어스실은 난장판이 됐다. “어머나! 어머! 기내식 카레가 여기저기로 튀었어!”한 스튜디어스는 오열을 했다. “우애애앵! 엄마! 무서워!”아기들은 미친듯이 울어댔

다.(삐이이이잇와와아왓삐이이잉와와앗!) “으악!”(.....)“....어? 기장님? 어떻게 된건가요?” “이런. 멍청한 새 한 마리가 비행기 엔진을 구경하고 싶었나 보군.”

“우와! 엄마! 저기봐봐! 불났어!”엔진 4개중 1개가 화염에 휩싸였다.[안내말씀 드립니다. 현재 왼쪽 날개의 엔진 하나에 지장이 생겨서 비행기가 불안정합니다. 우선 침착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Attension please. On of our plane's engine is down right now. Please remain calm and stay on your seats please. Thank you.]. “관제탑! 관제탑! 하와이행 KE018호 엔진 하나를 잃었다!” “(지직)What's up? I can't understand?” “지금은 하와이 관제탑 연결중입니다, 기장님.” “어머. 나 영어 못하는데. Hey! KE018 one engine boom! Fire! Danger! Aaaaa! really! True!"

하와이 관제탑은 어리둥절 했다.“Hey! D' you think he's joking?(야, 이사람 뻥 치는 것 처럼 보이니?) Ah! He send a beautiful selfie!(아! 그자가 예쁜 사진을 보냈군!)Oh, god! Oh, god! Hey! prepare for emergancy!(오, 이런! 오, 이런! 야! 비상경보 발령해!)”. 하와이 오하우 와이키키 해변 쪽에서 시끄러운 경보가 울렸다. 그시간, 하와이 주지사 존 쳑손 그라샤는 하와이 기상학자와 물리학자들에게 항공기 추락 경로 예측을 실시했다. “Sir, we have a huge problem. The flight is going to land at middle of downtown!(각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항공기가 시내쪽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오 미친 미친! 그 새는 새대가리가 분명해!”부기장이 오열했다. “이보게, 새는 새대가리가 맞다네. 이왕 이렇게 됐으니 살아남아 보자고.” “습 하아아. 네, 기장님". 그 시각 승객들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승무원님, 저희 괜찮은 건가요?” “살 수는 있나요?” “혹시 이거 납치극인가요" . “여러분, 진정해주세요! 지금 지원비행기가 오고 있으니 안전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은 말아주세요!". 멀리서 지원비행기가 오고있었다.

“어이 최기장! 어떻게 된거야?” “몰라 그냥 엔진이나 빨리 교체해줘!” “ 그래, 알았어.". 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지원 비행기의 로봇팔이 화염에 휩싸인 엔진을 수거하고 엔진을 부착하려고 했다. 하지만 갑자기 지원 비행기의 계기판에 비행기 연료부족 표시등이 떴다. 로봇팔은 순간 멈췄고 새 엔진은 바닷속으로

떨어졌다. “최기장, 미안해. 연료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제때 기름넣고 다니라고 했잖아!” “미안해 최기장. 살아서 봐.” 지원비행기는 방향을 돌렸다.

그시각 정부청사, 항공부장관 날아가와 하와이 주지사 존 쥑손 그라샤가 미친듯이 통화하고 있었다. "Hey! Because of your flight, our city will be chaos! What can you do for our city!" “ I am really sorry about this, but we don't have any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 I will give all the money to remake the city" "Oh. Well.I'll make the citizens flee out of the place, but remember your word!". 오하우 주민, 관광객, 개들까지 모두 북동쪽 해변으로 대피했다. 오직 몇몇 신문과 방송 기자들이 그 도시에 남아있었다.

이쯤돼면 존 쥑손 그라샤 주지사가 뭔가 꺼림직한 느낌이 들었을 만 하다. 그의 직감은 언제나 맞았으므로 바로 최기장한테 전화를 걸었다. “Hello, I'm John.J.Grasha, the state leader. Is this all a show or an terror or so?" "노노노, 리얼리얼 노테러! 노 쇼! 돈트 다브트!(doubt)" 최기장은 주지사의 오해를 전면 부인했다. 그 쯤 돼서야 존은 자신의 직감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와이 시내까지 단 400km밖에 안남았다. 그 때 한국 국무부 장관과 미 국무부 장관이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바로 승객들을 근처 수심 50m 바다에 공중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두 국무부장관은 의견을 모아서 존, 항공부장관, 코리아하와이 항공사 대표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최기장에게 전했다. “뭐라고요? 그게 가능이나 하는 일입니까? 부기장, 한번 생각해보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서 살아남는 것 보다 그 빌딩들을 들이박아서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크겠다. 안그래?”. “흠... 어쩌면 가능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지금 고도도 물에서 500m 상공에 떠있는데 그때가면 300m 상공에서 뛰어내릴 것 같아요. 수심이 적당하고 큰 배 한 척을 보내서 물속으로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면 되지 않을까요?” “흠... 하지만 지금 이 비행기에는 정확히 277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어. 게다가 나와 너까지 살으려면 정확히 279명이라고.” “흠... 그러면 제가 비행기에 타고 있을게요.” “말이 돼는 소리를 해, 김부기장! 그러다가 너 죽어!” “제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아서 승객들을 한 지점에 떨어트려서 미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는 와이키키 모래사장 쪽에 떨어져서 최대한 살아볼께요”. 몇 초동안 기장실은 조용해졌다. “할 수 있겠어?” “전 허풍쟁이가 아니랍니다, 기장님.”최기장은 좀 생각을 하다가 한국 국무부 장관에게 연결을 하고 겨우겨우 입을 뗐다. “.....장관님, 저 최기장입니다. 계획은 가능한데 수영할 수 있는 하와이 자원봉사자 80에서 120명 정도랑 배 한 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접근 5분 전이 되었다. CNN 기자들, ABC, KBS, CCTV, NHK, 그리고 아침이 조오타 기자들이 해변 앞에서 떠들고 있었다. " In 5 munites, there will be a huge rescuing plan, that will be the best in the history of planes and human history. According to the state's leader J.J.Grasha, the flight will incept like a circle, and drop passengers in the ocean the is 50m deep. The vice pilot will keep circing around the ocean until all the people are safely rescued except him, and will land hardly on the wikiki beach. In addition, the vice pilot only can survive in only 10%, means he will live only once if he had 10 tragedies. A! there's only 3 munite and 45 second now! Good luck 277 passengers, good luck everybody!" .

소식을 들은 승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그게 말이 돼?” “그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데요?”7살 아이가 말했다. “내 70세 인생 중 이런 건 처음 해본다니까!” 이런 혼란 속에 한 20대처럼 보이는 여자가 말을 열었다.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들을 해냈지 않나요? 우리는 노력만 하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살아 숨쉬고 싶은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지금 5분 뒤에 뛰어내리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끝까지 살아숨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싫으면 뛰어내립시다!” 잠깐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몇 초 뒤 한 사람이 뛰어내리자고 소리쳤다. 그사람과 20대의 여자가 없었다면 이 계획은 말짱 도루묵이 됐을 것이다.

접근 단 1분 전, 100명의 미 자원봉사자들과 수영선수들이 와이키키 크루저라는 배에 대기하고 있었다. 한국, 미국, 하와이 거주민들이 모두 긴장을 놓지 않았다. 기장이 출발 때 처럼 조용한 분위기를 깼다. “참 오늘 따라 하와이는

쨍쨍하군.” “그러게 말입니다.”. 그 사이 벌써 50초가 남아있었다. 부기장은 녹색 버튼을 눌러 비상문을 개방했다. 문으로 엄청난 바람이 들어왔다. 스튜어디스들은 ‘다들 줄을 서세요’라고 외쳤다. 계획은 겨우 40초 채 남지 않았다. 30초가 남았을 때 기장이 물었다. “준비 됐나?” “전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군.” ‘접전 20초 남음’이라고 타이머가 알려줬다. “꼭 살아서 보게나.” “네.”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0, 9, 8, 7, 6, 5, 4, 3, 2, 1, 0.

부조종사는 조종간을 왼쪽으로 힘껏 돌렸다. 그리고 다시 온 힘을 다해서 오른쪽으로 쭈욱 돌렸다. 엔진이 3기 밖에 없으므로 겨우겨우 돌려졌다. 첫 번째 사람이 뛰어내렸다. 첫 번째로 뛰어내린 사람은 바로 아까전에 20대 여자였다. 그는 자기가 경험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바람을 마주해야 했다. 레이더 영상으로는 길쭉해 보이는 하얀 점이 300, 200, 100m로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몇초 뒤, 배 바로 옆으로 엄청난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첫 번째 자원봉사자가 뛰어들어서 그를 구출했다. 전 세계 92개의 방송사에서 생중계로 화면 상단에 생존자-사망자-실종자 표에 생존자 수가 +1로 늘었다.

그때는 거의 시간이 없었다. 한번에 4명씩 손을 꼬옥 잡고 함께 떨어졌다. 또 생존자-사망자-실종자 표에 +4가 되었다. 생존자가 +81이 되었을 때 아까 전 7살 짜리 꼬마가 뛰어내릴 차례가 되었다. 그 작은 꼬마가 엄마에게 물었다.“엄마,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엄마는 난감해졌다. “음... 마치 우리 에바랜드 갔을 때 놀이기구랑 비슷한 거야.” “혹시 이거 키 제한 있어?” “아니, 키제한은 없단다. 그냥 뛰어내리면 돼. 그리고 우리가 놀이기구 탔던 것 처럼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우리 빨리 타자, 응” “그래 엄마.” 그리고 그 작은 꼬마가 말 그대로 ‘대단하고 무모한 그 짓’을 해냈다.

어느덧 마지막 4명까지 모두 뛰어내렸다. 부기장은 아직도 조종간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가족 생각이 났다. 난생 처음 겪어 보는 두려움, 무 서움이였다. 몇 초 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쳐 있었다. 곧 마치 자신이 당장 죽은 것 처럼 슬프게 울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나 없이 잘 살까? 혹시 나를 잊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해. 하지만 내가 산다면 평상시처럼 살 수도 있어. 그래! 나는 꼭 살거야!’부기장은 드디어 조종간을 와이키키 동쪽 해변으로 비행기를 향했다.

부기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종간을 내렸다. 얼마 후 비상구 쪽으로 모래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조종간에서 손을 놓고 한쪽으로 몸을 웅크리고 자신이 살기만 하는 바람으로 잠시나만이나 눈을 감았다. 지금 쯤이면 모든 하와이 국민들이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천천히, 머리속을 잠깐 비웠다. 모두 다 살은 277명의 승객들, 100명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KE018 하와이행 항공편의 기장은 그들의 맨눈으로 비행기가 와이키키 모래사장의 짙은 모래바람에 휘감기는 것을 보았다.

한 30초 정도 지났을 것이다. 모래바람이 서서히 잠들고 폐허가 된 비행기의 겉틀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부기장이 걸어 나오기를 숨죽이고 기다렸다. 최기장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배에서 뛰쳐 나와서 마치 천금이 달린 것 처럼 수영하기 시작했다. 그가 육지에 다다렀을 때 그는 서서히 비행기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완전히 뚫린 비상구로 비행기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부기장이 아직도 조종석 아래에서 쭈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날만 3번째로 조용한 분위기를 최기장이 깨버렸다. “이봐, 살아있는 거 맞지?” “옴마나 깜짝아! 기. 기장님! 살아계셨네요!” “흠.. 자네 너무 분위기 잡는것 아닌가? 크게 다친 곳은 없고?” “ㄴ.네. 그냥 코에 엄청난 흙먼지..에취!^^;” “크흑! 분위기 잡는 건 지금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은 데? 괜찮으면 술한잔 할까?”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었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쏜다!”

한 달후, 부기장은 대통령상과 달콤한 승진의 기쁨을 받았다. 278명의 승객들은 KE019 하와이행 항공편을 타고 하와이에서 휴가를 즐겼다. 그리고 비행기 파편을 조사하던 중 한 수색자가 샛노란 카레가 묻혀진 흰 깃털을 발견했다고 한다.

- The End -

내 꿈은 비행사

초등부 장려상 · 소설 / 조하선

“자, 여러분 이제부터 선생님이 나눠준 종이에 자신이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쓰세요”

선생님께서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며 말 하셨다.

“이승준, 넌 종이에 뭐 적을 거야?”

내 짝꿍인 민지가 너무 당연한 것을 물었다.

“난 당연히 비행사라고 쓰지!”

“너의 꿈은 끈질기구나. 1학년 때도 비행사, 3학년 때도 비행사, 5학년 때도 비행사냐? 비행사가 뭐가 좋은데 그렇게 비행사를 좋아하냐?!”

“비행사가 얼마나 멋진데!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만 상상해도 얼마나 짜릿한데! 게다가...”

나는 말하다 민지를 힐끔 봤다. 내가 열렬하게 말하고 있을 때 민지는 이미 고개를 돌리고 종이에다 자신의 꿈을 적고 있었다. 한순간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남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든 말든 나는 반드시 나의 꿈을 이루고 말겠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길을 가는데 파란색으로 색칠해져 있는 유난히 눈의 뛰는 화려한 포스터가 내 눈길을 끌었다. 나는 그 포스터를 자세히 보았다. 그 포스터는 ‘세계 최고 비행사 되기 캠프’라고 써있는 포스터였다! 내 꿈의 줄기가 되어줄 것만 같은 캠프 같았다. 꼭 참여하고 싶었다. 나는 포스터를 쭉 읽어보았다.

‘초등5~6학년 대상, 6박 67일 유럽에서 비행기의 대하여 알아보고 체험 해보는 신나고 재밌는 비행사 체험 캠프, 7월 19일~ 7월 25일, 10명 선착순 접수, 참가비 50만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30만원 지원), 비행기의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일 것만 같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신청하고 싶었다. 앗!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다! 내 생각엔 우리 엄마가 허락을 해 줄지 안 해 줄지가 문제다! 되든 말든 일단 엄마한테 물어보기로 했다. 나는 얼른 주머니

에서 휴대폰을 꺼내 포스터를 찰칵 찍었다. 제발 이 캠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나는 집에 오면서 캠프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고개를 숙여 기도하다가 앞에 가던 사람이랑 부딪힐 번 했다. 내가 이렇게 가지 하는데 설마 못 가진 않겠지?

집에 돌아왔다. 역시 아무도 없다. 나는 밥솥에서 밥을 퍼서 밥그릇에다 담았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먹었다. 나는 매일 돌아오면 집에 아무도 없어 쓸쓸한 느낌을 느낀다. 아무도 없는 게 뻔하다. 나는 외동이고 엄마랑 나랑 이렇게 둘이 산다. 아빠는... 생각하기 싫다.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다. 나는 오늘도 쓸쓸히 혼자 밥을 먹었다. 4년 정도 지났으니 제법 익숙해질 때가 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 아직도 집에 들어오면 '승준이 왔어?! 우리 승준이 수고했어! 어서 밥 먹어~'라는 가끔씩 들리는 아빠의 따뜻한 목소리를 기다리곤 한다. 기다리다가 안 들릴때면 가끔씩 내가 멍청하다는 생각도 한다. 나는 밥을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밥을 먹으며 엄마가 오면 비행사 캠프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보았다. 제발 엄마가 비행사 캠프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면 좋겠다.

"띠 띠 띠 띠... 띠리리링~"

저녁 8시쯤이었다. 출입문 벨소리가 들렸다.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엄마의 피곤한 얼굴이 보였다. 나는 지금 말할지 나중에 말할지 고민했다.

'선착순이니 빨리 신청 하는게 좋겠지'

나는 지금 말을 꺼내기로 했다.

"저기 엄마, 중요한 할 말이 있는..."

"엄마 지금 피곤하니까 나중에 말해..."

엄마의 무거운 목소리가 내 마음을 풀썩 내려앉게 했다. 일단은 엄마의 기분이 좋아야 뭐든 되든지 말든지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로 했다. 나는 자기 전에 생각했다. 언제 말을 꺼내는게 좋을지. 엄마는 새벽 5시에 출근한다. 너무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벽에 엄마가 출근하기 전에 눈치 보아가며 말하기로 했다. 나는 알람을 4시 30분으로 맞춰 났다. 제발 잘 돼야 할텐데...

"띠리리링 띠리리링 띠리리... 뚝..."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울렸다. 나는 얼른 꺼 버렸다. 거실로 나가 보았다. 아

무도 없었다. 엄마 방으로 가 보니 엄마가 화장을 하고 있었다. 엄마는 화장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그제야 내가 일어난 줄 알았다.

“우리 승준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엄마가 어제 저녁보다 훨씬 가볍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안심이 되었다.

“엄마 그게...”

너무 떨려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

“어서 말해봐”

“나 캠프... 가면 안돼?”

“무슨 캠프?”

엄마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나는 얼른 내 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제 찍었던 사진을 엄마한테 보여 줬다.

“안 돼.”

엄마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예상은 했지만 속상했다. 그래도 이 캠프만은 꼭 가고 싶었다.

“내 꿈의 큰 영향을 줄 좋은 캠프란 말이야!”

“그래도 안돼. 네가 뭐라고 하든 이 엄마는 절대로 허락 안 해줘.”

“내 꿈을 잡고 싶단 말이야! 난 꼭 갈 거야!”

“이 녀석이 어디서 감히!”

“그래도...”

“네 아빠도 너 같은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해서 저 세상 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엄마 혼자 죽어라 일하고 있고! 비행사는 너무 위험해! 너도 아빠처럼 비행하다가 저 세상 가고 싶어?! 나는 결사 반대야!”

“그때는 그냥 항공기 내에 문제가 발생한 작은 사고였을 뿐이야! 대비만 잘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고라고! 엄마는 그 사고가 매번 일어날 줄 알아?! 그리고 비행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사람들은 어디론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 그런데 만약 비행사가 없다면 비행기를 누가 조종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지. 그런데 그 목적이 아주 중요한 일 일수도 있어. 예를 들어 결혼식의 참석하러 간다든가 자신의 꿈을 이루러 간다던가. 비행사는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의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 있어. 따라

서 비행사는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직업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되고싶어!"

"....."

"이래도 안 되겠어?"

"니 알아서 해라. 나 이제부터 네 인생 상관 안 한다. 그 대신 할 거면 지원 추천서에 사인 받아와."

"야호!"

나는 내 방 침대를 향해 점프하며 환호했다. 너무 행복하고 한 10분 동안 입가의 미소가 사라지질 않았다. 아마 지금이 내 인생 중 가장 행복했을 때일 것이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우리반 선생님께 '세계 최고 비행사 되기 캠프'추천서의 사인을 받아오고 캠프신청을 하는 것 밖에 안 남았다. 선착순 10명 안에 들어야 될텐데... 너무 일찍 일어나서인지 눈이 감겼다.

"아함~"

나는 하마처럼 입을 쩍 벌리고 하품을 하며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7시 정각이었다.

'아 맞다! 추천서!'

나는 얼른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비행사 되기 캠프'를 검색해 추천서를 다운 받아 프린트했다. 추천서를 조심히 가방에 넣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과연 선생님께서 추천서에 사인을 해 주실까? 30만원이 걸려있는 중요한 일이다.

"드르륵"

난 우리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추천서를 꺼냈다.

"어! 비행사 캠프 추천서네!"

우리반 잘난척쟁이 구용호가 내가 들고 있는 추천서를 보며 말했다.

"야! 그거 나 주라!"

용호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당연히 안 되는 일이였다.

"안 돼."

"왜? 너 혹시 비행사 캠프에 관심 있어?"

용호가 나를 보며 비웃으며 말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약올랐다. 나는 그래서 세게 말했다.

“손에 이거 들고 있는거 보면 모르겠냐?”
“흥! 너 딴 애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나을걸! 너 우리 아빠 비행사인거 몰라? 그러니까 내가 우선으로 신청해야지!”
“그런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용호는 뻔뻔하게 말했다. 나는 너무 화났다. 우리 아빠도 비행사라는 걸 지금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용호가 분명히 증거로 아빠 대려 와 보라고 할 게 뻔해서 말도 못 하고 있다. 그때 용호가 내 손의 잡혀있는 지원 추천서를 확 뺏었다.
용호가 추천서를 너무 갑자기 뺏어서 나는 대략 3분 동안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위만 두리번 두리번 거렸다. 8시 40분이 되어 학교 종이 울려서야 나는 두리번 거리는 걸 멈추었다. 그제서야 ‘내가 넋이 나간 채로 이상한 짓을 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벌써 40분이야?! 오늘 신청 안 하면 선착순 10명 안에 들지 못할 텐데... 어떡하지? ... 그래! 그거야! 10분 안에 우리집에 가서 다시 프린트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일단은 도전해 보는 거야!’
나는 얼른 실내화도 안 갈아 신은 채 나의 집으로 전력 질주하였다.
“헉..헉”
나는 거친 숨소리를 내 뿜으며 우리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컴퓨터를 키고 세계 최고 비행사 되기 캠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벌써 8명이나 차 있었다! 이제 2명밖에 남지 않았다! 놀랄 시간이 없었다. 최소 8시 55분까지는 학교로 가야 하는데 지금이 8시 53분이다! 나는 얼른 프린트를 하고 학교로 갔다. 최선을 다해 뛰었지만 이미 9시 5분 이었다. 다행히 선생님께서는 아직 내 엄마한테 전화하지 않으셨다.
“이승준, 왜 이렇게 늦었죠?”
선생님께서 매서운 눈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아.. 그게 용호가..”
“용호가 무엇을 했는데 늦었나요?”
선생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용호가 사냥꾼에게 잡힌 불쌍고 슬픈 토끼 눈으로 날 보고 있어서 나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 동정심

이 많은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다른 이유로 바꾸기로 했다.
“배가 좀 아파서 보건실에 갔어요. 그래서 늦었어요”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까 용호 얘기는 뭐죠?”
“용..호가 보건실까지 저를 데려다 줬어요.”
갑자기 용호가 악마에서 천사로 바뀌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막 말하는 거를 잘하는 것 같다. 어쨌든 지각 문제는 거짓으로 해결됐다. 그래도 혼나는 것보단 났다.
수업 시작하기 1분 전 이었다. 용호가 내 옆을 은근슬쩍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 개미 소리보다 작게. 다행히도 난 청각이 좋아 들을 수 있었다. 아까 내가 선생님께 변명한게 신경 쓰였나 보다. 기분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얼떨떨했다. 그래도 아까보단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1교시 수업인 국어가 끝났다. 드디어 말할 때가 됐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추천서를 선생님께 보여드렸다.
“이게 뭐니?”
“여름 방학에 하는 비행사 캠프 추천서요. 사인받으면 6/10% 지원해 준대요. 엄마가 여기 사인 못 받아오면 캠프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너 비행에 관심 있니?”
“네. 제 꿈이 비행사예요.”
“가면 네 인생의 도움이 될 거 같니?”
“제 꿈에 큰 영향을 줄 거 같습니다.”
“비행기 기본조종법은 알고 있니?”
“대충은 알고 있어요.”
쿵덕쿵덕. 아마 나랑 1m 이내로 붙어 있는 사람은 내 쿵덕쿵덕하는 심장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때! 나는 내 눈이 이상한지 손으로 3번이나 눈을 비벼 봤다. 내가 잘못 본게 아니라면 선생님께서는 추천서에 사인을 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100번이라도 감사하다고 하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선생님이 짜증나실 까봐 100번 말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1번 말했다.
수업이 시작됐다. 추천서에 사인을 받은 후부터 수업에 집중이 잘 되고 수업

이 즐거웠다.
즐거운 수업이 끝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갔다. 집으로 가서 너무 설레고 다급한 마음에 손도 안 싯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재빠르게 컴퓨터를 킨 다음 비행사 캠프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헉! 선착순 1명밖에 안 남았다! 나는 어서 이름, 학교, 학년, 보호자 명, 전화번호를 쓰고 신청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로딩 중'이 떴다. 그리고... 누구나 나라면 절망할 화면이 떴다. '죄송합니다. 선착순 10명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신청하세요'라고 써 있었다.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은 뭐가 되나...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벽에 머리를 콩 박았다.
'더 빨리 신청했어야 되는데... 그래! 방법이 있어! 여름 방학이면 다음주. 신청한 아이들은 다음 주 수요일에 항공 연구 센터 앞으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말만이라도 해보면 돼. 되던 말던 도전은 해봐야지!'

신청해서 떨어진 날로부터 일주일 뒤 월요일.
"자, 여러분 방학 동안은 일기숙제는 일주일에 1번 이상만 써도 돼요."
"와~!"
아이들의 함성이 나왔다. 원래는 일기를 일주일에 3번씩이나 쓰는데 일주일에 1번이라니 함성이 나오는게 당연하다. 그나저나 학교 앞 문구점에서 시끄럽다고 하며 우리 반으로 올까 봐 걱정이다.
방학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방학이 시작되니 나도 기분이 좋았다.

운명의 수요일.
2시 30분이 되었다. 아마 비행사 캠프를 신청한 아이들은 지금쯤 짐을 싸고 있을 것이다. 2시 50분이 되었을 때 나는 항공 연구 센터로 버스를 타고 갔다. 가 보니 나보다 덩치가 큰 아이들 세 네 명이 어떤 키가 크고 담담해 보이는 남자 한 명과 통통한 아니, 솔직히 뚱뚱한 남자 한 명이 아직 안 온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레 키큰 남자 선생님 앞에 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 초등학교 5학년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캠프를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선착순 10명 안에 들지 못하여 혹시 저 한 명만이라

도 끼워 주실까 하는 대답을 기대하며 한 번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딱 10명만 가기로 공지를 해놨기 때문에 갈 수는 없다.”
이럴수가! 그래도 다시 한번 말해 볼 것이다. 내 꿈을 절대 놓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제발... 하라는거 뭐든지 할게요. 궂은 일도 척척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네 이름이 이승준이라고 했지? 참 비행사 캠프에 대한 열정이 크구나. 알겠다. 너의 열정과 용기를 보니 허락해 줄 마음이 좀 생겼다. 너한테 기회를 주마. 내가 내는 퀴즈를 맞혀라”
“네!”
기회를 주신다니! 꿈만 같았다. 나의 입에선 그 어느 때 보다 힘차고 우렁찬 목소리가 나왔다. 마지막 기회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비행기 기본 비행법 3가지 중 ‘양쪽에 도움 날개를 통해 좌우 기울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뭐라고 할까?”
‘아, 아빠한테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뭐였더라? 로리? 로칭? 롤칭? 아... 모르겠어... 아빠가 살아 계셨다면... 아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다.....그때! 내 귀에서 희미하게 아빠의 소리가 들렸다.
‘안녕 승준아, 아빠야. 엄마하고 잘 지내고 있어?’
“네!”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지금 아빠한테 질문을 했잖아. 힌트를 줄게’
“답을 아예 말해 주시면 안 돼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닦아내고 말했다.
‘그건 안돼. 아빠가 중요한 힌트를 줄 테니 잘 들어봐.’
“네”
‘양쪽에 도움 날개를 통해 좌우 기울기를 조절하는 조종법인 이것은 우리말로 옆놀이라고도 불러. 이것이 뭘까? 힌트는 이 글자 안에 있어.’
‘옆놀이라는 글자 안에 있다고?! 옆놀이?... 그게 뭔지 모르겠어! 아빠 힌트 좀

주세요'

아빠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실망스럽게도 아빠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문제를 혼자 풀어야만 했다.

'옆놀이? 옆놀이?... 옆으로?! 옆으로! 그래 그거야 롤링! 수평 상태에서 좌우 기울기가 달라지게 하는 것!'

"롤링! 정답은 롤링이예요!"

"정답이다. 축하한다"

"저 캠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 선생님이 이래뵈도 약속은 잘 지킨다고"

"야호!!!"

"빨리 집으로 가서 짐 싸고 여기로 다시 와. 3시 30분에는 출발할 거니까"

"네!"

후다다닥 집에 갔다. 혹시나 해서 챙겨둔 가방을 메고 나가려는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어디가?"

"비행사 캠프"

"그렇게 가고 싶었어?"

"어"

갑자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흑흑.. 아들이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너무 막 말했나봐..흑흑.. 다음 부터는 우리 아들말 도 귀 기울여 듣고 학교 생활에 관심도 가져 줄게..흑흑.. 잘 갔다와"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다. 나도 곧이어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눈물바다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음이 잔잔해 질때 쯤.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응 그래 잘 갔다 와. 사랑한다 우리아들"

"저도 사랑해요~ 꼭 멋진 비행사가 돼서 올게요~"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항공 우주 센터에 갔다.

"왜 이렇게 늦었어?"

키 큰 선생님께서 침착하게 물으셨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선생님 2명과 나를 포함한 아이들 11명은 행복 공항에 갔다. 다행히 시간은 늦지 않게 딱 맞춰서 왔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우리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간식 먹고 싶은 사람 손! 선생님이 다 사줄게!"

뚱뚱한 선생님이 간식을 사주신다니! 나는 당연히 손을 누구보다 번쩍 들었다. 큼지막한 배 만큼 통도 큰가 보다.

나는 초코 빵과 딸기 우유를 마셨다. 그리고 우리들은 비행기를 탔다. 몇년 만에 비행기를 타서 그런지 왠지 설레고 긴장됐다. 각자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문 밖을 보니 입이 떡 벌려졌다. 새 파란 하늘과 푸른 자연, 그리고 세련된 아파트들. 정말 잘 어울렸다. 그때가 떠오른다. 아빠와의 마지막 여행. 내가 7살 때 우리 가족은 추운 겨울 방학에 하와이에 갔다. 그때 정말 행복했는데... 비행기를 타며 궁금한게 있으면 아빠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줬다. 그때는 비행기에 대한 재밌는 것과 왜 새 모양으로 생겼는지까지 알려줘서 나는 아빠와 여행 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다. 그때가 그립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소중한 걸 모르고 막 썼던 시간. 너무나도 후회된다. 그때가 마지막 여행이었다면 아빠한테 더 잘해 줄 걸...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미 다 지나간 얘긴데... 그냥 떠올려만 본다.

나는 잠시 잤다.

"이승준! 일어나!"

내 옆에 앉은 형 목소리였다. 나는 어서 눈을 떴다. 내 책상에는 기내식이 올려져 있었다.

"맛있게 먹어라"

우리 앞쪽에 앉은 선생님께서 말 하셨다.

나는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어댔다. 누가 보면 내가 한 달은 굶은 줄 알 것이다.

"형. 비행기 시설이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 예전보다 더 편리해졌어"

나는 밥을 우걱 우걱 십어 먹으며 말했다.

"맞아. 정말 많이 편리해졌지. 비행기 시설은 앞으로도 발전할 거야."

맛있는 밥을 다 먹었다. 내가 편하게 누워있을 때쯤 선생님께서 우리들한테

뭐 할 말이 있으신지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 다들 밥도 맛있게 먹었지?”
“네!”
“선생님이 퀴즈를 낼게. 맡춘 사람은 초코바를 줄게”
“빨리 퀴즈 내주세요!”
“그래, 비행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키 큰 선생님께서 퀴즈를 말하고 있을 때 어떤 빼빼 마른 형이 말을 끊었다.
“저요! 정답은 라이트 형제예요!”
“땡! 문제를 끝까지 듣고 맞춰야지!”
“네...”
마른 형이 힘없이 말했다.
“비행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라이트 형제야.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가 몇 번에 실패로 비행기를 만들었을까?”
“저요! 한 50번”
나와 나이가 같아 보이는 모자 쓴 애가 말했다.
“땡! 50번보다 높아”
“저요! 100번”
통통한 형이 말했다.
“땡! 100번과 110번 사이에 있어”
‘100번과 110번 사이라... 내 번호가 8번이니 108번을 외쳐보자’
“저요! 108번이요!”
내가 힘차게 말했다.
“정답!”
와! 그냥 찍어 본 건데 맞다니! 기분이 정말 무지 좋았다. 나는 초코바를 맛있게 먹고 한숨 푹 잤다.
“하암~”
일어나 보니 다들 기내식을 먹고 있었다. 나도 기내식을 먹었다. 기내식을 먹고 책을 보았다. 몇 시간 정도 흐르니 비행기가 창륙 한다는 안내 방송이 들렸다.
“드디어 유럽이다!”

옆에 있는 형이 말했다.
“자 얘들아 이제 유럽이다. 우리 이제부터 비행기에 대하여 재미있게 배워 보자”
선생님께서 활기차게 말씀하셨다. 앞으로가 기대됐다.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렸다. 내릴 때 승무원들이 꽃 같은 미소로 잘 가라고 인사해 주셔서 기분이 승무원들의 미소처럼 활짝 핀 꽃같이 좋아졌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다. 이동하며 펼쳐지는 관경이 너무 멋있었다. 우리는 숙소로 가 짐을 풀고 3시간 정도 쉬였다. 그리고 저녁으로 꿀 보다 맛있는 에스파냐를 먹었다.
“자, 밥도 다 잘 먹었지?”
“네!”
“이제 정식으로 내 소개를 할게. 나는 김유미 선생님이야.”
키 큰 선생님이 말했다. 왠지 여자 이름 느낌이 들었다.
“나는 밥 조금만 먹는 돼지 오영훈 선생님이야.”
“밥 조금만 먹는 돼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오영훈 선생님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 소개를 했으니 이제 너희 소개를 해야지”
김유미 선생님께서 말했다.
첫 번째로 비행기에서 내 옆에 앉았던 형이 자기소개를 했다.
“나는 신람 초등학교 6학년 지혜준 이야”
그다음 빼빼 마른 형이 자기 소개를 했다.
“나는 혜준이랑 같은 반 서호우야”
뒤 이여 나이가 나랑 같아 보이는 모자 쓴 아이가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호림 초등학교 5학년 신고임 이예요”
다음으로 통통한 형이 자기소개를 했다.
“나는 방명 초등학교 6학년 문희람이야”
그다음 조용한 박하민 형과 하민 형과 반대로 활발한 현명하 형과 실실 웃고 다니는 윤정순과 운동을 잘하는 임철사, 핸드폰을 사랑하는 정가미.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는 홍지한이 자기소개를 했다. 그리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됐다.

“저는 희망 초등학교 5학년 이승준이예요”
“자, 이제 서로서로 조금씩 알게 될 거야. 이제 늦었으니 자자, 잘 자렴”

“이승준 7시야! 어서 일어나!”
나와 같은 방을 쓰게 된 철사의 소리가 들려 나는 눈을 떴다.
“승준아, 선생님이 마당으로 나오래”
나는 양치와 세수를 빠르게 하고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 벤치에는 나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나도 벤치에 얼른 앉았다.
“자, 오늘은 비행기의 조종을 시작할 때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일단 기장. 부기장은 PF, PM으로 나뉜다. PF는 조종이고 PM은 계획이다. 비행기를 움직이려면 엔진을 튼다. 그리고 APU를 키고 네비게이션도 튼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 김유미 선생님께서 기장과 부기장의 앞에 있는 조종 화면 사진을 보여 주셨다.
“그 사진 왼쪽에 있는 것은 PFD다. 그 옆에는 ND가 있고 그 옆엔 EICAS가 있다. PFD는 속도, 기수, 고도, 방향을 나타내고, ND는 비행루트와 방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EICAS는 연료랑 등을 확인한다”
김유미 선생님은 이륙할 때 정검할 것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 주셨다.
“오늘 아침 수업 끝! 모두 주방으로 가서 아침 먹자”
첫 수업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흥미롭고 재밌었다.
밥을 다 먹었다. 선생님께서 말 하시는데 매일 아침 수업한 다음 밥을 먹으면 저녁까지는 자유시간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아침에 배운 걸 복습하면 된다고 하셨다. 캠프에 오길 잘한 것 같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유럽 영화를 보았다. 한국 영화라는 뭔가 다르게 재밌었다. 시간은 금세 흘러갔고 저녁을 먹었다. 그다음 아침에 배운걸 노트에 정리하며 복습했다. 피곤했다. 졸음이 왔다. 그리고 나는 내일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아침부터 요란한 알람 소리가 울렸다. 시끄럽긴 했지만 어제처럼 나만 수업에 지각할 수는 없었다. 얼른 일어나 양치랑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왔다.오늘 수업이 기대됐다.

“오늘은 비행기의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배울 것이다. 비행기는 얼마만큼 높이 날까?”

“저요! 에베레스트산보다 조금 낮게요”

고임이가 말했다.

“조금 비슷했긴 했어. 하지만 더 정확한 건 에베레스트산보다 높게 난다는 것이다. 비행기가 나는 높이는 성층권이다. 성층권은 지구복사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많이 춥지.”

그 후로 김유미 선생님은 PITO와 러더, 트립, 스포일러, 플랩 등 정말 많은 장치들을 설명하셨다. 머리가 실뭉치가 얽힌 것처럼 복잡해졌다.

“자, 이걸로 오늘 수업 끝”

휴... 지금이라도 끝나서 다행이다. 만약 1분이라도 더 들었으면 내 머리는 아마 터졌을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비행사가 되기 힘들다는 것을... 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꿈을 잡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점심을 먹었다. 오늘은 배운 게 많아서 점심에도 복습할 예정이다. 복잡하긴 해도 차근차근 복습하니 재미있어진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 소리가 내 단잠을 깨운다. 오늘도 난 어김없이 마당으로 나왔다.

“오늘은 비행기 기본 조종법에 대하여 배울 것이다. 비행기는 360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비행할 때 X, Y, Z 축으로 비행한다. X 축은 롤링. Y 축은 피칭. Z 축은 요잉이다. 롤링은 수평에서 기울기가 달라지고 피칭은 수평 날개 축을 아래 위로 바꾸는 것이다. 요잉은 좌 우 회전하는 것이다”

김유미 선생님이 설명을 마치자 오영훈 성생님이 공기의 이동, 저기압, 고기압 등 창륙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 주셨다.

“자, 아제 너희는 비행기의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전부 다 학습했다. 마지막 날인 내일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가상 항공기 조종을 해 볼 것이다. 이걸

로 오늘 수업 끝”
열심히 배우고 나니 졸음이 몰려 왔다. 나는 점심을 먹고 바로 드러누웠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오늘도 알람 소리에 깨어났다. 오늘은 어느 때 보다 더 알람 소리가 싫었다. 왠지 깨어나기만 하면 마지막 오늘이 금세 지나가 버릴 것만 같기 때문이었다. 마당으로 가 봤더니 아무도 없었다. 오늘은 내가 일등인 줄 알고 기분이 좋아져 있을 때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선생님 방 바로 옆방에 가시오’
“아! 맞다! 오늘 시뮬레이션 체험하기로 했지!”
나는 이제야 생각났다. 나는 얼른 선생님 방 옆방에 갔다.
“오늘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비행 대회를 할 것이다. 1등에겐 진짜 기장의 옷을 주겠다.”
“우와!”
아이들의 함성이 하늘에 다았다. 나도 이번만큼은 내 기억력을 총동원해 이겨 볼 생각이다.
“연습은 없고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할 것이다.”
제비뽑기 토 앞에 줄 선 순서대로 제비를 뽑았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11번’
11번. 마지막 번호였다.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볼 수 있는 좋은 번호였다.
“1번 나와서 의자에 앉아”
선생님은 1번인 문희람 형한테 컴퓨터로 조종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셨다.
문희람 형이 조종을 시작했다. 이륙을 하고 3분 정도 지나서 창륙을 할 때였다. 피칭을 잘못해 건물에 박았다. 점수는 71점 이였다.
그렇게 형들과 친구들은 조종을 해 나갔다. 모두 실수 1가지씩은 했다.
10번째인 지혜준 형이 할 차례였다. 그런데 이럴수가! 실수를 하나도 안했다. 점수는 99점. 아까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는 선생님들도 박수를 쳤다. 내가 이길려면 100점을 받는 수 밖에 없다.
내 차례가 되었다. 마우스를 잡았다.

"3 2 1 START!"
활주로를 달렸다. 그리고... 비행기가 떠올랐다! 이륙은 완벽하게 했다. 부제는 창륙이였다. 대부분의 형괴 친구들이 어려워 했던 것이다. 피칭을 했다. 그리고 비행기 바퀴를 내렸다. 비행기가 땅에 다았다. 창륙 까지 완벽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점수가 나왔다. 100점! 내가 해냈다. 형과 친구들, 선생님이 우렁찬 박수를 보냈다. 잠시 뒤 내 손에는 멋진 기장 옷이 쥐어졌다.
"오늘은 모든 시간이 자유시간이야. 주방에 케이크 있으니 먹고 싶은 사람은 한 조각씩 먹어" "네!"
지난 5일 중 가장 행복하고 뿌듯한 날이다. 역시 노력하는 자에게만 행복이 오나보다. 내 방으로 돌아오니까 형들과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칭찬을 했다.
"승준이 짱이다. 난 창륙이 제일 어렵던데"
"맞아"
나는 한동안 칭찬을 100개는 더 들었다. 기분이 무척 좋았다. 배가 고파서 주방에 가서 초코케이크를 먹었다. 달콤해 기분이 더 좋아졌다.
다 먹고 형들과 TV를 실컷 봤다. 금세 저녁이 되었다.
주방으로 가는데 요리 냄새가 심상치 않았다. 정말 심상치 않게 맛있었던 냄새의 주인공은 바비큐였다!
"얘들아, 깜짝 놀랐지?! 마지막 날 밤인데 바비큐가 빠질 순 없지!"
"선생님 최고!"
아이들이 합창하는 듯이 동시에 소리쳤다.
아이들은 완전 포식했다. 물론 나도!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나니 걷는 것 조차 힘들었다. 그래도 행복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잤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알람 소리가 들였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기 싫었다.
"이승준! 일어나! 짐 싸야지"
희람이 형의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깨고 싶지 않은 잠에서 깼다.
"승준아, 우리 10시 비행긴데 지금이 7시야! 빨리 짐 싸"
"응"
나는 짐을 쌌다. 내가 짐을 다 쌀때 쯤 선생님께서 공항으로 가자고 하셨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선생님께서 비행기 표를 발권받았다. 그런데 발권 받는데 문제가 있나보다. 선생님의 얼굴이 심각했다. 잠시 후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벤치로 오셨다.

“얘들아 선생님은 다음 비행기를 타야겠구나. 예약하는데 문제가 생겼단다. 선생님은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마.”

아이들은 깜짝 놀란 토끼 눈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오영훈 선생님과 아이들만 이번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는 이륙했다. 나는 비행기에 대하여 배운 행복한 나날들을 떠올려 봤다. 다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들이었다.

나는 가면서 한참 인생에 대해 생각했다. 아빠도 생각해 보고 엄마도 생각해 보고 나의 대해 생각도 해 봤다. 그러다가 잤다.

일어나 보니 기내식 시간이었다. 기내식을 먹었다. 유럽으로 갈때에 기내식을 먹을때를 떠올려 봤다. 그때가 그리웠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기내식을 먹고 한 3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또 기내식을 먹었다. 기내식을 다 먹고 창문 밖을 보고 있는데 승무원이 오영훈 선생님의 좌석으로 왔다. 그리고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귓속말했다.

“기장님과 부기장님이 비행전 상한 음식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운전을 못 하고 있는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급해요”

“당연하죠”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비행기 조종실로 뛰어갔다. 비행기가 잘 창륙할 수 있는지 걱정됐다. 그때 승무원이 우리들이 있는 쪽으로 왔다.

“혹시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비행기 조종 잘하니?”

승무원이 다급하게 말했다.

“승준이요”

“맞아요. 승준이가 제일 잘해요”

형들과 친구들은 다 나를 지목했다. 쑥스러웠다. 그런데 쑥쓰러운것도 잠시 당황이 몰려왔다. 승무원은 나에게 부기장역을 맡아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고민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도전은 해봐야 되는 법! 나는 그렇게 한다고 했다.

비행기 조종실로 가 보니 사진에서 본 것보다 복잡했다. 캠프 때 배웠던 것을 하나씩 떠올리며 운전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조종한다는게 믿겨지지 않았다. 재밌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다. 그렇게 30분 정도 비행했다. 30분 정도 비행하니 우리나라가 보였다. 수업에서 배웠던 대로 피칭을 하고 바퀴를 내렸다. 그리고... 바퀴가 땅에 닿았다! 완벽하게 창륙을 한 것이다! 너무 감격스러웠다. 눈물이 났다.

“수고했다! 승준아! 네가 자랑스럽다!”

“내가 해냈어!”

승객들이 다 내리자 형과 친구들이 왔다.

“대단하다 이승준!”

“네가 해낼줄 알았어!”

너무 뿌듯했다.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기쁨이였다.

‘아빠! 내가 해냈어요!“

허공에 아빠가 활짝 웃는 모습이 그려졌다. 너무 행복했다.

우리는 한 번씩 만나자고 하자며 웃는 얼굴로 해어졌다.

우리 집 아파트에 도착했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고리를 잡았다. 이제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나의 첫 해외여행기: 따뜻한 나라, 따뜻한 사람, 따뜻한 마음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조현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껏 기대되는 마음으로 해외로 나간다. 도착지점은 태국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느낌을 느꼈다. 짜릿했다.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은 쾌감 그 자체다. 그렇게 5시간동안 비행기를 타고 즐거운 마음으로 태국으로 날아갔다. 여행 중 닥칠 끔찍한 그러나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일이 일어날거란 생각도 못 한 채 말이다.

우리는 며칠 뒤 비행기를 타고 태국 그러니까 해외로 가나기로 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정말 컸다. 엄마, 나, 내 동생, 친할아버지와 할머니, 고모, 2명의 사촌언니들과 몇 개월 전부터 여행 일정을 나누고 짐을 쌌다. 여행은 떠나는 그 순간보다 준비가 더 설레인다는데 그렇게 마음이 쿵쾅거리면서 뛰는 것은 처음 느껴보았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갔다. 아직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핸드폰으로 게임도 했다. 이른 아침이라서 어두워 창문 밖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창문 밖에 어떠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비행기였다. 아직 타지도 않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후에 사촌언니와 동생, 나는 공항을 한번 쭉 둘러보았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가방과 캐리어를 짐칸에 실어놓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국 수속을 밟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천식환자 분이신데다 나와 동생, 사촌언니까지 어린이들이라 패빨리 검열대를 통과할 수 있는 장치까지 있어서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하는 공항 서비스가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물품검열대에서 내 몸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내 얼굴이 여권의 얼굴와 같은지도 보았다. 수속을 밟는 시간이 지나고 비행기에 타는 시간이 왔다. 또 우리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이동중에서 벌써부터 비행기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다. 창가 쪽 자리어서 아주 편했다. 왜냐하면 벽에 기댈수도 있고, 다른사람과 부딪칠 일도 없기 때문이다. 제일 좋았던 것은 지루하지 않도록 개인

모니터에 다양한 게임, 음악 등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탄 비행기는 점점 움직이더니 비행기를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갔다. 올라갈 때 마다 귀가 멍멍해지며 아팠지만 나의 기대심은 그 아픔마져 잊게 해 주었다. 점심시간이 왔다. 기내식의 여러 가지 메뉴 중 나는 미트 스파게티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맛있게 먹으니 다음에 오는 건 잠신이다. 즉 나는 점점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자고난 후 나는 눈을 떴다. 잠이 확 깼다. 나는 충분이 잤기 때문에 도착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늘의 구름 위를 날고 있었다. 하늘과 구름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많이 찍어 놓았다. 그리고 그 사진은 아직도 내 핸드폰의 바탕화면이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땅이 보이고 공항이 보였다. 아, 그리고 어쩌다가 내 손을 봤다. 내 손이 촉촉한 예쁜손이 되어있었다. 한국에 출발한 날은 1월이어서 피부가 건조했던 내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는데 덥고 습한 땅, 태국에 오니 내 손이 예쁘게 바뀌어 있던 것이다.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금방 내 얼굴에는 미소가 폈다 낯선 태국에 왠지 모를 편안한 마음이 들었던 까닭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안전하게 태국에 도착하였다. 나와 사촌언니, 동생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공항에 화장실을 찾고 가다가 공항에서 미아가 될 뻔 했다. 그래도 가족을 잘 찾아 다행이었다. 그렇게 나의 첫 번째 해외로의 여행의 첫날이 끝났다.

태국에 도착하고 두 번째 날까지는 날도 좋고, 컨디션도 좋았다. 태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투어하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다음 날인 세 번째 날에 태국 마사지를 받고 가이드님께서 주신 밀크쉐이크를 먹고 차를 탔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웠다. 다음 일정이 남아 있기에 다른 가족들과 관광객에게 방해가 될까봐 꾹 참고, 다녔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그런데 그날 밤 밤새 열이나며 설사를 했다. 돌아와야 하는 날 아침에도 속이 안 좋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좋아하는 호텔조식도 포기하고 엄마랑 같이 룸으로 돌아가려고 엄마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 우리 현서, 어쩌니. 괜찮을까? ” 엄마는 걱정스런 얼굴로 나를 아를 안아주었다. 나는 이미 얼굴이 창백해 있었다. 그때, 우리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던 외국인 아저씨가 영어로 엄마께 내가 아프냐고 물어 보았다. 그래서 아프다고 얘기 했는데 아저씨가 자기가 의사인데 아이를 진찰해도 되냐고 물었다. 물론 영어로 물어서나는 잘 모르지만 엄마가 알려주셨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자신이 미국 의사라는 것을 알려 준 뒤 나를 진찰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의 질문을 거쳐서 내가 여행자 병이라고 다른 나라의 공기와 음식, 물이 나와 맞지 않아 생기는 병이라고 했다. 익숙하지 않은 의료 용어에 이해를 못하는 엄마에게 번역 앱을 실행해서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알려주시는 친절함을 보이셨다. 어떤 채소를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그 뒤 엄마는 그 채소를 가지러 식사중인 곳으로 내려 가셨다. 그리고..나는 잠시 누워있다가 놀라운 소식과 1.5 리터 페트병의 희뿌연 액체를 보게 되었다.

의사선생님께서 추후 약국을 가지 못할 경우 또 제조할 수 있다며, 나를 위해 천연처방제을 주셨는데 대략 이온음료정도 되는 것이었다. 여행자 병에 걸리면 설사와 토를 하니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탈수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에 수분을 채워주는 약이라는 것이었다. 그건 그 의사선생님께서 호텔 주방장에게 부탁해 그 처방전으로 약을 직접 만들어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일은 이렇게 된거라고 했다. 엄마가 호텔 1층 조식식사자리로 내려갔고, 엄마와 가족이 있는 곳으로 그 의사선생님이 찾아오셨다. 아무래도 여행 중인 아이라서 걱정이 되니 호텔 로비에 서 약을 준비해줄테니.. 동양인 엄마와 나를 찾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호텔 직원들과 의사 선생님이 호텔에 있는 나와 엄마의 모습을 찾아 이 약을 직접 전해주려고 가지고 온 것이었다.

지나가는 의사선생님은 자신도 휴가중인 터라, 그저 여행자병이니, 바로 병원에 데려가라고 이야기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그 낯선 곳에서 동양인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찾기 위해 호텔직원에게 문의를 하고 정성껏 처방법을 호텔측에 전달해 천연이온음료를 만들어 나를 탈수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는 노력에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갔던 모든 가족들이 깜짝 놀랐다. 잠시 스친 낯선 외국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애로운 의사선생님과 그를 도와주기위해 우리를 찾는데 애쓴 호텔 직원들의 모습에서 나는 정말로 감사함을 느꼈다. 우리 사촌 언니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을 보고 정말로 감동을 받고 그러한 인류애를 실천하는 의사선생님이 되겠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 나 또한 이제 낯선 어떤 땅에서라도 나보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한 가족에게 두 세배의 따뜻한 마음을 곱배기로 만들어 버렸다.

처방된 음료를 먹고 쉬고 자면서 나의 일정은 모두와 다른 나만의 특별한 추억을 또 남기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일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에게 기대어 태국의 한 병원을 방문하였고, 우리말을 못알아듣는 태국 의사선생님과 번역앱으로 의사소통을 주고 받으며 병명을 들었다. 정말 호텔에서 만난 의사선생님의 말씀처럼 나는 여행자병에 걸린 거였다. 낯선 태국 병원에서 나를 위해 손발로 의사소통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용감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거다. 결국 나는 주사를 맞았고, 약을 먹게 되었다. 다른 식구들은 쥬얼리 샵에서 소핑을 하고, 전시회를 보았지만 나는 좀 더 색다른 태국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 날인 네 번째 날 우리는 따른 일정 없이 아침에 밥을 먹고 쉬다가 버스에 올라서... 태국 공항으로 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공항에 도착해서 가이드님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인사말을 하고 해어졌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 왔다. 나는 비행기가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다. 다양한 태국 음식, 사람들, 시장, 궁전, 수영장, 파크 등 다양한 곳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 기억될 일은 단연 여행자 병에 걸려서 아팠던 일, 미국 의사선생님을 만난 일이다.

'아, 내가 아프긴 했어도 다른 나라의 말, 문화, 사람들, 날씨들을 직접 느끼며 체험한 것으로 정말 뜻깊은 여행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하는 동안에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점점 빠르게 달리더니 앞에서부터 비행기가 높이, 높이 올라갔다. 올라가는 느낌이 짜릿하고 재미있었다. 이번에 내 자리는 가운데의 끝자리였다. 난 여전히 약기운에 잤다.

시간이 꽤 지난 후 승무원이 우리에게 점심을 주었다. 점심의 메뉴는? 바로 비빔밥이었다. 점심을 먹기 전까지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웠다. 그런데 비빔밥의 냄새를 맡으니까 속이 편해지고 어지러움도 줄어들었다. 기내식 비빔밥 맛이 짱 맛있었다. 그리고 나는 엄마께 고추장을 더 달라고 하였다. 하하하... 나는 다시 병에서 해방된거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와 함께 내 건강도 귀국중이다. 바다 위를 날고 날아서 대한민국에 도착했다. 나는 비행기에 내려서 내 손을 확인했다. 역시나 공기가 찬 대한민국에 들어오니까 또

다시 내 손에 가뭄이 든 듯 손이 쫙쫙 갈라졌다. 그리고 엄청 추웠다.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기운이 온 몸으로 느껴졌다.

'아, 내가 해외에 잘 나갔다가 왔구나. 해외에서도 좋은 경험을 했어도, 우리나라, 익숙한 이곳이 더 좋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그럼 넌 다음부터는 데려가지 말까?"라고 하셔서 나는 바로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게 또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이 숨어있을텐데..안되요." 라고 말하며 함께 웃었다.

이렇게 우리가족이 함께한 태국여행은 끝이 났다. 비행기를 탔을 땐 가슴이 두근, 두근거리고,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설레고, 신났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땐 안심과,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뜻깊은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다시 또 만난다면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할께요. John 선생님! ~♡"

내가 탄 비행기

초등부 장려상 · 시 / 진휘준

비행기가 힘차게 달려
높이 점프했어요.

푸른 하늘 쭉 뻗어
힘차게 날면
희고 긴 꼬리 원도 그리고
선도 그리고

구름 위 넘나들며
우리 꿈을 실어
멀리 멀리 날아가요.

비행기 힘들면
가까운 공항에
잠시 쉬었다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휴웅~
날아가요.

창 밖에
다른 비행기 보이면
반갑게 손도 흔들어주고

뭉실 뭉실 구름 위 날 땐
하얀 카페트 위로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높이 뜬 햇님도
방긋 웃으며
비행기와 함께
날아가요.

해피(Happy)

초등부 장려상 · 소설 / 최주원

이 미지근하고 후덥지근한 바람이 내 온몸을 파고들어 나를 감싸고 있다. 아직 6월 중순도 지나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하루하루 찜통 속에서 사는 것 같다. 안 그래도 아침에 엄마랑 싸우고 나왔는데 날씨까지 이 지경이니 미칠 것 같다. 아까부터 하늘이 영 흐릿흐릿하더니 이내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시작하여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이내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오늘 비가 올 게 뭐람. 오늘은 수학여행 가는 날이다. 교복에서 탈출하여 사복을 입고 한껏 멋을 부렸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오랜만에 고데기가 잘됐던 앞머리가 비실비실 힘없는 대파 줄기가 돼버렸다. 게다가 내가 짝사랑하는 찬혁이는 수학여행에 불참했으니, 아마도 최악의 수학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아까부터 하늘이 영 흐릿흐릿하더니 이내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시작하여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이내 억수같이 쏟아졌다. 후덥지근하고 습도 높은 날씨에 앞머리도 망하고 팔은 끈적끈적. 수학여행이라 한껏 들떠있던 내 마음이 가라앉다 못해 주저앉고 말았다.

공항에 들어오니 시원하고 상쾌한 에어컨 바람이 나를 맞이해주었다.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하지만 선생님 때문에 다시 기분이 엉망이 됐다.

“비행기 좌석은 선생님이 정할 거예요.”

우리 반 얘들은 선생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야유를 부렸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단짝인 도연이와 미국 가는 동안 비행기에서 할 것들을 짰었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성호는 석현이랑 진호랑 유진이는 도아랑 수민이랑……. 수진이는 지우랑 현진이랑 앉으세요, 자 여기 K-15, L-15, M-15 좌석 표 받으렴.”

나는 절대, 절대 그 좌석 표를 받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지능이 우리보다 조금 낮고 코를 파고 옷에 자주 묻혀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애고, 현진이는 내가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로 숫기 없는 애다. 이 애들 사이에 껴있어야 하다니, 벌써 힘이 쭉 빠진다.

출국 심사를 받고 비행기에 탑승하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이럴 때 이어폰을 안 가지고 올 게 뭐람. 수학여행으로 너무 들떠서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웠더니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진아, 얼른 일어나! 수진아!" 현진이였다. 말 한마디도 안 해 본 현진이가 갑작스레 나를 흔들어 깨웠다. "수진아, 우리 어떡해. 우리 수학여행 플로리다로 가잖아, 그런데 플로리다로 가려면 버뮤다 삼각 지대를 지나가야 한데." 현진이가 나를 깨운 것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버뮤다 삼각 지대라니. 유튜브 '미스터리 장소 10'에서 얼핏 본 적 있었는데 위험한 곳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나는 재빠르게 타자를 쳐 인터넷에 버뮤다 삼각 지대를 검색했다. '버뮤다 삼각 지대는 미국 남부에 있는 플로리다 해협과 버뮤다 섬,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삼각형 범위 안의 해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에서 선박과 항공기 실종 사고가 수백 건에 이르지만,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 아, 박성호 기장입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가 버뮤다 삼각 지대 전방 50m에 있어 다소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치지직- 요란한 소리와 함께 기장의 말이 끝났고 약 5초 정도 뒤에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서라도 써놔야 하나?' 고민하다가 옆을 보니 그렇게 말이 없던 현진이가 울면서 핸드폰 노트 기능에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지우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됐는지 모기 물린 곳만 벅벅 긁고 있었다. 흔들림이 잠시 멈췄다가 약 올리는 듯 이내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옆에서 현진이가 서글프게 울고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내 눈가에도 물이 주렁주렁 맺혀있었다. 내 모든 장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 느낌, 놀이기구 타면서나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도 느끼고 있다. 비행기가 추락하나 보다. 유서라도 쓸걸, 엄마한테 평소에 효도할걸, 많은 생각과 후회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코가 간지럽다. 나뭇잎이다. 여기는 어디지. 지옥인가? 주변을 살펴보니 지옥인 것 같진 않았지만 익숙한 풍경이었다. 여기는 우리 집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원이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다. 분명히 단지 안이 맞는데 무엇인가가 변하였다. 벤치에 앉아 한참 넋 놓다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내 옆에 앉으셔서 정신을 차렸다.

“저, 할머니. 혹시 지금이 몇월 며칠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2028년이지” 할머니는 귀가 안 좋으신지 ‘몇 월 며칠’을 ‘몇 년도’로 착각하신 것 같다. 아니 잠깐, 2028년이라고?
“저, 할머니 죄송하지만 지금 2018년 아닌가요?”
“무슨 헛소리야.” 할머니는 할머니의 스마트폰 달력을 보여주셨다. 정말 2028년이었다.
“젊은 것이…. 쯧쯧.” 할머니는 혀를 몇 번 차시다가 다른 볼일이 생기셨는지 지팡이 짚고 발걸음을 옮기셨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일단 우리 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대로였다.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다. 바뀐 건 별로 없었지만 거실 텔레비전 같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은 바뀌어있었다. 내 방에 들어가 보니 내 방 냄새, 내가 수학여행 출발하기 전 어질러져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내 책상에 있는 지우개 가루들도, 내가 거꾸로 벗어놓은 양말도 모두 그대로였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 돈인가 하고 꺼내 보았더니 돈은 아니었고 웬 미션지 하나가 있었다.
“당신은 2028년 6월 4일, 딱 10년 뒤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10년 전으로 돌아오면 미션 성공!”이라고 적혀있었다. 대체 무슨….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 주의사항 : 가족들은 정수진 양이 10년 전 즉, 2018년 6월 4일에 수학여행 가다가 버뮤다 삼각 지대에서 사망한 줄 알고 있으니, 가족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주칠 때 돌아와야 하는 날짜가 1일씩 점점 줄어듭니다.
라고 적혀있었다. 이건 꿈이야, 꿈일 거야.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볼을 세게 꼬집었다. 하지만 아프고 퉁퉁 붓기만 할 뿐 꿈이 아니었다. 일주일이라니…. 그 짧디짧은 시간에 뭘 어떻게 해서 돌아가라는 말인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재빠르게 장롱 안으로 들어갔다.
누가 들어온 거지? 혹시 강도?? 방문 손잡이 사이의 구멍으로 희미하게 보였다. 그것은 강도도, 가족도 아닌 로봇이었다. 그 순간 로봇이랑 눈이 마주쳐버렸다. 나는 방문을 잠그고 다시 장롱으로 들어갔다. 로봇???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경보 시스템 가동. 외부인이 들어왔다,” 로봇은 이 말만 반복했다.
“에취” 나도 모르게 재채기를 해버렸다. 로봇은 장롱문을 열어 나를 소파에 앉혔다. 성적표 받을 때의 떨림은 아무것도 아녔다. ‘하나님, 제발 꿈이라면 어서 꿈에서 깨어나 오게 해주세요.’
“음 당신 어디서 많이 봤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신 주인님 따님 정수진 양을 ‘똑’ 닮으셨군요.” 눈썹 한쪽까지 올리며 말하는 게 아주 사람 다 된 것 같다.
“저 정수진 맞는데요?” 나는 로봇에게 여태껏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말해주었다. 기특하게도 다 알아듣고 나를 숨겨 주는데 도와주겠다고 했다. 로봇은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내게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알약을 3알과 바깥 상황을 볼 수 있는 홀로그램이 나오는 키즈폰같이 생긴 것을 주었다. 일단 키즈폰이라 차자. 도대체 발전을 얼마나 많이 한 거야. 그나저나 내 편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놓인다. 로봇의 이름은 “해피 (happy)라고 한다.
‘삐삐삐삐’ 다시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책상 아래로 숨었고 해피가 준 키즈폰으로 바깥 상황을 보았다. 엄마, 아빠였다. 밖에서의 묵념을 알리는 소리가 흘러들어왔고 엄마와 아빠는 신발을 마저 갈아 신기도 전에 고개가 떨구었다. 엄마의 깊은 두 눈가에 물이 맺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6월 4일에 무슨 특별한 날이 있었나? 갑자기 키즈폰 화면이 문자 화면으로 바뀌었다. 해피가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지금은 정수진 양이 겪으신 ‘버뮤다 사건’의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는 묵념 시간입니다.’ 이 일로 묵념까지 하다니…. 뭔가 기분이 미묘하다. 곧 묵념이 끝났고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화장실로 갔다. 엄마 품에 당장이라도 안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다. 나에게는 조금 전, 그러니까 2018년 6월 4일에 누구보다 고울 것 같은 손과 피부를 가진 엄마였는데 지금은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손도 거칠어졌다. 아빠는 그대로였지만 키가 작아지고 흰머리가 늘었다. 나는 2018년으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 버킷 리스트를 정하기로 했다. 나는 아직 미숙한 타자로 키즈폰 노트 기능에 꾹꾹 적었다. 타자 칸은 작았지만 칠만 했다.
‘나의 버킷 리스트 1. 엄마 아빠에게 후회하지 않을 만큼 효도하기.’

D-6.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윗집에서 부실 공사 하는 소리가 나를 깨웠다. 자다 흘린 침을 마저 지우기도 전에 키즈폰을 켜서 바깥 상황을 보았다. 엄마와 아빠는 벌써 출근했는지 집에 없었고 집은 산속의 한 시골집처럼 한적하고 조용했다. 이제 겨우 6일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에 빠져 걱정하고 있던 찰나, '미래까지 왔는데 기왕이면 즐기고 구경이나 하자'라는 생각으로 밖에 나왔다. 얼마 만에 보는 맑고 상쾌한 공기인지 모르겠다. 가족들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되니 가벼운 마음으로 사뿐사뿐 걸어갔다. 단지를 둘러보다 보니 멀리서 익숙한 형체가 보였다. 가까이 있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짝사랑 중인 찬혁이였다. 키는 제법 많이 컸지만, 얼굴은 그대로였다. 수학여행에 불참했으니 살아있겠구나. 나는 찬혁이와 재작년에 같은 반이 되어 알게 됐다. 학기 초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시선이 찬혁이 쪽으로 쏠리게 됐고 찬혁이가 수학여행 불참한다고 했었을 땐 그 누구보다 아쉬워했었고 이런 게 반복되다가 찬혁이를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3년째 짝사랑 중이었다. 하지만 옆에는 나보다 훨씬, 100배 더 예쁜 여자가 다정하게 걷고 있었다. 여자친구겠지. 선남선녀 커플, 아주 잘 어울렸다. 마주치지 않으려 뛰어가는데 찬혁이가 내 팔목을 잡았다.

"잠깐, 혹시 너…."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재빠르게 집으로 뛰어왔다. 집에 들어가니 해피가 밝은 미소로 맞이해주었다. 순간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이 억울하고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다. 해피는 당황했는지 잠시 멈칫하다가 나를 토닥여줬다.

"해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 님은 꼭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해피 덕분에 조금은 나아졌다.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에 나는 재빨리 장롱으로 들어갔고 일찍 일어나서인지, 오늘 있었던 일 때문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걱정 때문인지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앞으로 진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겨우 들어가며 버킷 리스트를 적었다.

'나의 버킷 리스트 2. 하루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보기.'

D-5. 오랜만에 꿈을 꿨다. 꿈에는 찬혁이가 나왔는데 내가 찬혁이한테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며 바로 잠에서 깼다.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

는 걸까?

오늘은 목요일이다. 창밖으로 내 또래 비슷하게 보이는 아이들이 놀고 웃고 떠들고 있었다.

“해피, 저 애들은 학교 안 가나 봐?”

“2026년부터 태블릿이나 컴퓨터로 수업하는 일명 ‘홈스쿨링’이 시작되었는데 대부분 선생님이 인공지능이어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홈스쿨링. 저 애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 나도 친구들이 보고 싶다. 얘들이 노는 모습을 넋 놓고 대리만족하며 지켜보다 보니 시곗바늘은 어느새 3시를 가리키며 째깍째깍하고 있었다. 지금쯤이면 한창 댄스부 연습할 시간인데…. 내가 어쩌다 미래로 온 걸까.

‘삑삑삑삑, 삐삐삐’ 밖에서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삑삑삑삑, 삐삐’

“아, 진짜. 뭐였더라. 여보세요? 어, 엄마 나 한국 왔어. 우리 집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아 맞다. 알았어, 이따 봐.” 이 다급한 상황에 해피는 집에 없었다.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였다. 이윽고 문이 열렸고 나는 장롱 안에 숨어 키즈폰으로 밖을 보았다. ‘정수정’ 누군가 했더니 운 좋게 학원 추첨으로 공짜로 유학 갔던 동생이었다. 몇 년 전에 보고 안 봐서 그런지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또 화장도 하니 제법 성숙해 보였다. 정수정은 성큼성큼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마치 내가 장롱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장롱문을 벌컥 열었고 나는 정수정과 눈을 마주치고 말았다. 우리는 3분, 어쩌면 5분 동안 서로를 보며 놀란 채 가만히 있었다.

“누…. 누구세요?”

“아니……. 그게.” 나는 정수정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다. 바로 말에 수긍하던 해피와는 달리 정수정은 누구를 닮았는지 다짜고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나 진짜 네 언니 정수진 맞다고!”

“오, 그러셔? 그럼 어디 내가 묻는 문제에 대답해봐, 정수진의 출생일은?”

“2003년 3월 18일, 이제 됐냐?”

“흠…. 그러면 정수진이 짝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박찬혁” 이 외에도 정수정은 몇십 개의 문제를 질문하고 내가 언니인 걸 인정했다. 창밖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어두워질 무렵 엄마와 아빠는 피

곤하셨는지 주무셨다. 안 그래도 갑갑한 터라 산책하고 올 겸 밖을 나섰다. 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내가 진짜로 미래로 온 게 맞을까? 왜 내가 미래로 오게 된 걸까? 또 과거로는 어떻게 돌아가지? 한 달이 주어 저도 모자를 터인데 동생까지 마주쳤으니 앞으로 5일 남았다. 앞길이 까마득하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잠시 쉬어갈 겸 벤치에 앉았다. 벌써 캄캄해졌다. 언제부터였는지 옆에 해피가 앉아 나를 보며 싱긋 웃고 있었다.

“심부름 마치고 가다가 수진 님이 보이길래 앉았어요.”나도 미소를 지어보았다. 문득 위를 올려다보니 뭐가 그리 신났는지 밤하늘의 별들이 제각각 밝은 빛을 내며 빛나고 있었다. 별들을 빤히 보고 있었는데 별똥별이 떨어졌다. 처음 본 별똥별이어서 당황스러웠지만, 소원은 다 빌었다. ‘과거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수진 님은 꼭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해피가 내 마음을 읽었는지 격려해주었다.

‘나의 버킷 리스트 3. 꼭 해피 같은 친구 만들기’

D-4. 며칠 잠을 장롱 안에서 보냈더니 어깨가 다 뻐근하다. 나도 모르게 화장실로 들어갔더니 엄마가 머리 감고 있었다. “수정이니?” 엄마가 고개를 돌아보려던 찰나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해피가 준 알약이 생각나 재빠르게 주머니에서 꺼내 꿀꺽 먹었다. 혹시나 해서 화장실 거울을 보니 정말 내가 보이지 않았다. 어릴 때 소설 속에서나 있었던 투명인간인데 지금은 내가 진짜 투명인간이 되어있다. 나는 신나고 들뜨는 마음에 현관문을 열어 쏜살같이 밖으로 달려갔다. 놀이터에 가서 유모차를 끌고 있는 아주머니 앞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녔지만, 아주머니는 못 본 듯 지나갔고,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 옆에서 메롱 메롱 해도 그 아이들은 계속 놀았다. 게다가 벤치에 누워있었는데 지나가시던 할아버지가 내 배 위에 앉으시곤 놀라셨는지 지팡이도 내팽개친 채 달려가셨다. 내가 진짜, 정말로 투명인간이라니! 단지 안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데 뒤에서 누가 내 팔목을 잡았다. 약의 효능이 다 떨어졌나? 내 손과 발이 뚜렷하게 보였다. 놀란 마음을 쓸어내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찬혁이였다.

“너…. 혹시 과거에서 왔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간이 쿵 떨어졌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 말을 남긴 채 도망가는데 뒤에서 찬혁이가 쫓아왔다.

“너, 정수진 맞지? 한울중학교 3학년 9반 정수진.”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해서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찬혁이가 수차례 더 물었고 그제야 간신히 대답했다.
“어, 나 과거에서 왔어. 근데 너는 어떻게 아는 거야?”
“그게 사실…. 나도 과거에서 왔어.”
“뭐?” 찬혁이가 나처럼 과거에서 왔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찬혁이와 나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고 나는 찬혁이에게 어떻게 미래로 오게 됐는지 물었다. 찬혁이는 잠시 뜸 들이다가 이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었다.
“사실 수학여행 신청서 마감 이틀 전에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미래에 왔었어. 너무 당황해서 우리 집 장소로 가보니 그대로 우리 집이었고 인공지능 로봇이 나를 도와주었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다가 과거로 돌아갔는데 돌아오면서 흐릿흐릿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수학여행 가는 길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걸 봐서 혹시나 해서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했었어.”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미래에서 겪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그럼 과거로 돌아갔는데 넌 왜 다시 여기 있어?”
“음…. 글쎄, 하늘의 뜻이랄까? 그건 차차 알게 될 거야. 일단 포기하지 말고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찬혁이는 이 말만 남긴 채 바쁜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했다. 어쨌거나 찬혁이도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갔다고 하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기뻤다.
‘나의 버킷 리스트 4.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 어떤 문제나 사건을 해결해보기.’

D-3. 장롱 속이 너무 좁아서 이번에는 침대 밑에서 잤다. 일어나보니 해가 벌써 중천에 떠 있었다. 3일…. 겨우 3일이다.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해결 방안도 못 찾은 채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다. 가족들은 그렇듯이 엄마는 은행에 새 직장 자리를 구하셔서 아침이면 나갔고 아빠는 늘 그렇듯이 출근 시간만 되면 나갔고 정수정은 홈스쿨하고 어학학원 다니느라 코빼기도 보지 못했다. 물론 이런 세부 사항을 알려 준건 다름 아닌 해피다. 처음에는 인간이 아닌 로봇인지라 거부감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건 로봇이건 동물이건

해피보다 성격이 다정한 것은 없을 것이다. 미래로 처음 와서 모든 게 무서워 펑펑 울었을 때 해피는 내 곁을 지켜주며 토닥토닥 나를 위로해주었고 내가 모르는 정보들을 알려주었다. 가족과 친구들의 빈자리도 채워주고 내가 걱정해 하면 "수진 님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말들로 나를 위로해주었다. 또, 아침 점심 저녁 끼니를 가족들 몰래 챙겨주었다. 심심할 때면 해피와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만약 해피가 없었다면 지금쯤 못 버티고 무서움과 공허함, 두려움에 시달려 더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수진 님, 일어나셨어요?" 해피가 노크하고 들어와 아침, 아니 아점 인사를 해주었다.

"해피, 나 이제 겨우 3일 남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수진 님을 도울 거예요." 기특했다.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다. 그나저나 매일 내 이야기만 해서 나는 해피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해피, 넌 어디서 왔어?"

"저는 공장에서 왔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없는데 외롭진 않아?"

"괜찮아요. 로봇은 어차피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수진 님처럼 좋은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잖아요, 저는 지금의 삶으로도 만족해요." 해피가 미소를 지었지만, 왠지 어딘가 허전하고 씁쓸한 미소여서 마음에 걸렸다. '띵' 해피에게서 알림이 울렸다. 엄마의 심부름 알림이었다. 해피가 심부름하러 가고 나자 할 일이 없어진 나는 바람 쐬러 나갔다.

벤치에 털썩 힘없이 주저앉은 나는 생각에 빠졌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들이 복잡하게 엉켜 두통을 만들어냈다. 매일 듣던 엄마의 잔소리가 그립다. 매일 듣던 아빠의 구두 소리가 그립다. 매일 싸우는 친구들이 그립다. 절교했던 친구가 나를 째려보는 시선이 그립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그립다. 나는 왜 미처 모르고 살았을까, 곁에 있는 하나하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허벅지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요즘들어 눈물이 부쩍 많아졌다. 이게 철 들어 가고 있다는 신호인가?

그런데 조금 이상했다. 내가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나는 물론

이고 벤치 주변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 약을 안먹어도 보이지 않나? 나는 당장 확인해보기 위해 소리치면서 공원 한 바퀴를 돌았다. 사람들은 내 목소리까지 듣지 못한 듯 했다. 아니, 근데 그럼 찬혁이와 수정이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지?
갈수록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의 버킷 리스트 5. 과거로 돌아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소중히 여기며 잘해주기.'
D-2 벌써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엄마와 아빠는 집을 나가있는 상태였고 정수정은 친구들과 놀러 밖에 나갔다. 해피도 아빠 심부름으로 집에 없었다. 해피도 찾고 바람도 쐴 겸 밖으로 나왔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찬혁이가 쭈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긴 어쩐 일이야?"
"과거로 돌아갈 방법, 내가 알아냈어." 찬혁이는 다짜고짜 나를 데리고 공항으로 갔다. 멀리서 심부름 갔다 오는 해피가 보였다. 작별인사는 그래도 해야 하는데…. 찬혁이는 뭐가 그리 급한지 나를 끌고 갔다. 공항에 도착하자 찬혁이는 플로리다로 가는 비행기 표 한 장을 뽑았다.
"나는 이곳에 남아 있을 거야. 과거 가서도 잘 지내." 이게 무슨 말인가? 찬혁이는 비행기 이륙 시간이 다 되었다며 나를 비행기에 태웠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비행기에 탔고 비행기는 이륙하는 중이었으며 찬혁이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나는 멍하니 날아가는 비행기 창 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장이 뭐라 말하는데 졸려서 들리지 않는다. 일어나보니 나는 여전히 비행기 안이었다. 그런데 내 옆에 지우와 현진이가 있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당황해서 옆에 있던 현진이에게 물어보니, 우리 비행기가 버뮤다 삼각 지대를 안전하게 지나왔다고 했다. 아니, 그럼 내가 과거로 돌아왔다는 건가? 정말? 진짜? 너무 기뻐서 볼살이고 허벅지고 이곳저곳 꼬집어보았다. 아팠지만 내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어느덧 수학 여행도 마지막 밤을 지나고 있다. 꿈을 꾸었다. 꿈 속에는 해피가 있었다. 나는 해피와 손을 잡고 있었지만 해피가 내 손을 놓으며 "우리 꼭 다시 만나요."라고 했다. 무슨 꿈일까. 나는 아직도 내가 미래로 간 것이 꿈인지 현

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수학여행이 끝나고 다행이도 버뮤다 삼각지대를 안전하게 지나와 집에 도착하였다. 엄마를 보았다. 아빠를 보았다. 나는 눈물을 꾹 참고 엄마 아빠를 안아주었다. 엄마와 아빠는 나를 토닥여 주었다.

학교에 갔다. 정말로 오랜만에 보는 학교 인 것처럼 느껴졌다. 한 걸음 두 걸음, 오르락 내리락 계단을 걷다가 찬혁이를 만났다. 나는 망설이다가 찬혁이에게 물었다. “찬혁아, 기억 나?”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 뭐가?” 꿈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씁쓸했다. 친구들을 만났다. 나는 달려가서 친구들을 꼬옥 안아주었다. 친구들은 “너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라면서 어색해했다. 하지만 싫은 눈치는 아니었다. 나와 크게 싸워 절교했던 친구가 뒷문으로 들어왔다. 친구가 나를 째려보자 나는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었다. 그 애는 당황했는지 가만히 있다가 곧장 자기 자리에 앉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없었던 웬 강아지가 총총 달려와 나를 반겨주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해 온 푸들이라고 했다. 이 푸들의 이름은 ‘해피’라고 한다. 해피는 곧장 나를 잘 따르기 시작하였다. 로봇 해피가 생각나서 이 푸들에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껏 나 스스로와 주변 환경에 대해 불만을 품어 살아왔다. 하지만 곁에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나는 당연한 일로 생각하여 스쳐 지나왔다. 하지만 나는 이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

“I'm happy."

10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캐나다에서의 여행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한윤서

엄마와 단 둘이서 캐나다에 가게 되었다. 엄마와 단둘이 가는 여행 이다보니 기대되고 설레었다. 캐나다는 비행기로 약 12시간 쯤 된다고 하셨다. 나와 엄마를 아빠와 동생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다. 일주일동안 여행가는 것이니 많이 보고 싶을 것이다. 버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여 2시간 정도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이것저것 배부르게 군것질을 하였다. 그 후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내가 창가 쪽에 앉았다. 안내방송이 들리고 비행기가 출발 하였다. 창밖으로 비행기에 날개가 보였고, 비행기가 출발 하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땅이었는데, 지금은 구름이 뭉실뭉실 떠다니는 하늘이다. 내 앞에 작은 TV가 있었는데 그걸로 영화를 보았다. 영화 3편을 넋을 놓고 본 것 같다. 3편이 넘어가니 몸이 쑤시고, 배가 아팠다. 군것질을 너무 많이 했나보다. 결국 체하고 지쳐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드디어 도착 30분전 이었다. 속이 쓰리고 아팠으며, 오랜 비행으로 인해 매우 지루하였다 창문을 열어보니 깜깜했던 하늘이 하늘색 예쁜 하늘로 바뀌어 있었다. 1일차 드디어 캐나다에 첫걸음을 내딪었다. 비행기 안은 무척이나 답답했는데 나오니 상쾌하고, 시원하였다. 한국에서 10월 22일에 출발하여 10시간 비행하였는데, 엄마께선 지금 캐나다는 10월22일 오전 5시라고 말씀하셨다. 아리송하여 엄마께 여쭈어 보니 캐나다와 한국의 시간차가 있어 그렇다고 말씀하셨다. 얼핏 듣기론 입국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까다롭지는 않은 듯 해보였다. 숙소에 와서는 발라당 쓰러졌다. 비행기에서는 오랜 비행으로 인해 몸이 매우 힘들어서 그런지, 숙소 침대가 정말 편하게 느껴졌다. 비행기에서 엄마도 나도 잠을 거의 못 잤기 때문에 일단 좀 쉬기로 하였다. 그렇게 3시간 쯤 자고 일어나니, 엄마께서 근처에 뭐가 있는지 보고 오자고 하셨다. 캐나다 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평소에 궁금했기에 밖으로 나가보기로 하였다. 캐나다는 길마다 이름이 있어서 길을 찾기 편하나 건물에 간판이 없어 가게나 갈 곳을 찾기에는 좀 불편하였다. 일단 우리가 마실 생수와 먹을 것을 살 마트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마

트는 꽤 먼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생수와 음식을 들고 가다가 거리를 둘러보니, 거리에 거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숙소에 도착하니, 7시 30분이였고, 할 일도 없고 피곤하여 그대로 자기로 하였다. 잠이 들고 새벽 2시쯤에 깼다. 시계를 보니 한국은 오후 6시였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 핸드폰에 카톡이 많이 와 있었다. 엄마께서는 이미 깨 계셨다. 둘 다 조금 출출해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밤에 먹으니 더 맛있게 느껴졌다. 먹고 잠을 청해 보았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한국은 오후 7시이니 잠이 올 리가 없다. 빨리 적응하고 싶다. 다음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벤쿠버 관광을 시작하였다. 제일 먼저 캐나다 플레이스에 갔다. 버스도 기다릴 겸 구경을 하기 위해서였다. 캐나다 플레이스는 정말 크고 희한하게 생긴 것 같다. 캐나다 플레이스를 보니, 버스가 도착해 있었다. 버스를 타고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로 간다고 하셨다.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는 세상에서 가장 긴 흔들다리 중 하나라고 한다.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가니 도착하였다. 거기는 산이라고 했는데, 산책로와 비슷하게 되어있었다. 좀 더 계단으로 올라가니, 입구가 보였다. 그곳에서 도장을 찍었는데, 잉크가 없이도 도장이 찍히는 것이 특이했다. 바람이 불어서 흔들다리가 더 흔들흔들 거렸다.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아 나는 재미있었으나, 엄마께서는 무섭다고 하셨다. 좀 더 올라가니 짧은 흔들다리가 여러 개 있었다. 다리를 계속 왕복하다보니, 출출해 졌다. 좀 더 내려가니, 까페가 있었다. 코코아와 과자를 먹으니 몸도 따뜻해지고, 배도 불러왔다. 다시 흔들다리를 건너서 돌아왔다.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에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는 초콜렛, 사탕류 등을 파는데, 그곳에서 우리반 친구들에게 선물로 줄 것들을 샀다. 이제 관광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에는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있어 진먼지 진드기가 득실거리는 것만 같았다. 카페트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는 나로서는 매우 괴로운 일이였다. 피로에 지쳐 잠이 들었다. 여행 3일차. 오늘은 잠시 캐나다를 떠나 미국에 있는 시애틀에 갔다. 7시쯤에 버스를 타서 국경 경계선에 8시쯤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매우 추워 몸이 덜덜 떨렸다. 미국에 가는 것이니, 입국심사를 해야 했다. 미국 입국 심사는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입국심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올라탔다. 제일 먼저 스페이스 니들 타워에 갔다. 스페이스 니들 타워는 정말 높고 특이하게 생긴 타워 였다.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사진을 찍어도 타워

가 다 안 들어올 정도였다. 스페이스 니들 타워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였다. 스페이스 니들 타워는 시애틀의 상징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파이크 재래 시장에 갔다. 다양한 해산물과 야채, 과일, 꽃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다. 시애틀의 물고기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크기가 거대하였다. 이번에는 스타벅스 1호점에 갔다. 거리가 넓고 간판도 없어서 조금 헤매었다. 스타벅스 1호점은 로고가 특이하였다. 가슴을 들어낸 인어모양의 로고다. 이런 로고가 있는 유일한 가게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커피향과 다양한 디자인의 오리지널 로고가 박힌 머그컵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선다고 한다. 우리도 시애틀에 온 기념으로 로고가 박힌 머그컵을 구매하였다. 구매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내일 엄마께서 빅토리아 섬에 간다고 하셨다. 그곳은 어떤 멋진 곳일지 기대가 된다. 4일차. 오늘은 배를 타고 빅토리아라는 섬에 간다. 그 섬에는 세계 랭킹 3위에 드는 멋진 식물원인 부챠드 가든이 있다고 한다. 그 식물원에 간다는 생각에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30분정도 배를 타고 가니, 빅토리아 섬이 보였다. 드디어 식물원에 들어가니 그 안은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다. 비는 조금 왔지만, 비가 오는데로 아름다운 작품 같은 풍경이 쫙 펼쳐져 있어서 전혀 실망되거나 아쉽지 않았다. 식물원은 엄청 넓고 아름다웠다. 꽃으로 억지로 꾸며 놓은 것 같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더 아름다워 보였다. 일본식 정원 등 다른 나라의 정원도 아름다웠지만, 우리나라 정원이 없는 것이 나는 정말 아쉬웠다. 다른 아름다운 꽃들을 구경해서 그런지 식물원에서의 시간은 짧게 느껴졌다. 기념품 가게에 가서 고민 끝에 책갈피를 샀다. 식물원 구경을 마치고 그 다음으로 어떤 동상에 갔다. 여쭈어 보니, 그 동상은 캐나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것을 기념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 엄마와 함께 잠시 묵념하였다. 그 후 섬을 둘러보고 숙소로 돌아왔다.

드디어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벤쿠버에 있는 증기시계와 하버센터 타워를 보러 갈 것이라고 하였다. 먼저 증기시계를 보러 갔다. 이 시계는 유명한 영화에도 나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이 증기시계는 15분마다 피식 소리와 함께 증기를 발사한다고 하였다. 엄마께서 11시 30분까지 기다려 보자고 하셨다. 11시 30분쯤이 되자 진짜 피식 소리와 함께 많은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제 타워를 보러갈 차례다. 타워에 올라가서 경치를 보았다. 타워 위에서 본 경치는 멋있었으나, 엄마께서 밤에 더 멋있으니, 야

경을 보러 또 오자고 하셨다. 숙소에 가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밤이 되자 타워를 한 번 더 보러 올라갔다. 야경은 매우 멋있었다. 내일 드디어 집에 간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캐나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은 긴 시간이였지만, 집에 간다는 생각 때문인지 짧게 느껴졌으며, 아빠와 동생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인해 매우 행복한 시간이였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소망을 꿈꾸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끝에 비행기가 탄생하였다. 비행기가 생긴 후 인간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하늘을 나는 소망이 이제는 당연한 현실이 된 것이다. 라이트 형제의 간절한 소망으로 인해 비행기가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캐나다에서 우리나라까지 가는데 10시간만 가면 되지만, 비행기가 없었던 옛날에는 며칠씩 걸렸다고 한다. 비행기가 없었더라면 엄마와의 캐나다 여행은커녕 갈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라이트 형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손가락질하였던 비행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성공하였기에 캐나다에 다녀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라이트 형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겠다.

추억과 아쉬움이 남는 괌

초등부 장려상 · 수필 / 한채희

나에게는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아서 이번 여행에 같이 간다고 들었다. 이 친구는 2학년 때까지는 같은 학교에 있었지만 3학년 때쯤 전학을 갔다. 하지만 친구 집과 우리 집이 가까워 자주 만난다.

나는 해외여행이 두 번째이다. 첫 번째는 중국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괌 여행이다. 우리는 여행에 앞서 짐부터 싸게 되었다. 동생과 나는 너무 설레어 친구와 여행에서 놀 짐 한 보따리를 챙겼다. 엄마가 "그건 너무 많아서 비행기에 못 가져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챙겨."라고 하여서 나하고 동생은 고민하여 딱 하나씩만 챙겼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야 해서 다음 날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었다. 하지만 늦잠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결국 늦잠을 잤다. 그래서 서둘러야 했었다. 공항에 갈 때 차를 오래 타서 멀미가 났다. 그렇지만 괌에 있을 생각을 하니 짜증이 별로 나지는 않았다.

공항에 도착하고 친구네 가족과 약속했던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네 가족이 늦어 우리는 먼저 줄을 섰다. 얼마 뒤 친구네 가족이 왔다. 난 친구를 만나 기뻤다. 우리는 편의점을 가서 음료수를 사 먹었다. 짐을 부치고 검색대를 통과하여 들어갔다. 우리는 면세점을 구경하였다. 면세점에는 사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지만, 엄마가 "괌에 가면 더 사고 싶은 것이 많아."라고 하여서 사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입구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비행기를 기다렸다. 곧 비행기가 도착하였다.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와 비행기를 탔다. 이륙할 때 귀가 아플까 봐 나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근데 앞좌석에 앉아 있는 아이가 계속 쳐다보고 다리를 만져서 불쾌했다. 나는 엄마에게 말하였지만, 엄마가 "어린아이니까 좀만 참아."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게임도 못 했지만,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후딱 갔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을 느꼈다. 이륙할 때보다는 착륙할 때가 더 귀가 아팠

다. 침을 계속 삼키니까 조금씩 괜찮아졌다. 괌에 도착하여 공항에 나오니 덥고 습기가 높았다. 그렇지만 너무 즐거웠다. 한인 택시를 타고 우리가 지낼 훨튼 호텔로 갔다. 호텔이 좋아서 매우 만족하였다. 나는 친구의 옆방이었다. 들락날락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 호텔 침대에 누우니까 잠이 솔솔 왔다. 엄마가 내일 아침에는 조식 먹으러 갈 거라고 해서 빨리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아서 좋았다. 배불리 먹고 나서 방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나는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갔다. 수영장 옆에는 바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푸른 바다였다. 수영장에서 놀면서 경치도 즐기니 일거양득이라 생각이 들었다. 워터슬라이드가 있었는데 무서워 보였지만 막상 한번 타보니 재미있어서 계속 타게 되었다. 또 온천에서는 사랑의 절벽도 보였다. 아쉽지만 점심시간이 되어 좀 쉬었다 놀기로 하였다. 점심은 호텔 안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다. 우리는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 스파게티를 먹었다. 솔직히 피자는 내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입맛에 맞았다. 먹고 나서 다시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또 다 같이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놀았다. 내가 탄 워터슬라이드 중에서 가장 재밌었다. 놀다 보니 곧 어두워져 방에 들어가서 씻었다. 씻고 나서 호텔 구경을 하였다. 호텔에는 기념품 파는 곳이 있었지만, 엄마가 나중에 더 싼데 가면 사준다고 하여서 참았다. 또 먹고 싶을 때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음료수가 있었다. 마침 목이 말라서 주스를 마셨다. 시원하면서 맛있었다. 우리는 출출하여 방에 들어가서 라면을 먹었다. 매콤한 걸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최고의 라면 맛이었다. 먹고 나서 주스를 마셨던 곳에서 와인과 안주를 준다고 하여 그곳으로 갔다. 안주로는 오징어 튀김, 고기 등을 주었다. 나는 고기와 주스를 먹었다. 배를 가득 채우고 나서 어른들끼리, 애들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놀았다. 재미있게 놀고 소화도 시켰으니 잘 시간이 되었다. 수영장에서 너무 재밌게 놀아서 그런지 잠이 바로 왔다.

푹 자고 일어나서 이날 아침도 어제와 똑같이 조식을 먹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영복을 입었다. 하지만 오늘은 수영장에 가지 않고 바닷가로 갔

다. 바닷가는 깊은 곳과 얕은 곳이 서로 색이 달랐다. 바닷가에는 물고기가 엄청 많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래서 수영장으로 갔다. 나는 아무래도 바닷가보다는 수영장이 더 좋은 것 같다. 또 재밌게 놀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오늘은 정글에 간다고 하였다. 실제 현지인들의 인사법은 "하파 데이"였다. '하파 데이'라고 크게 외치며 손을 전화기 모양으로 흔드는 것이다. 인사법을 배우고 동물들을 보았다. 근데 잠시 소나기가 내려서 피해있어야 했다. 비는 별로 금세 그쳤다. 이번에는 코코넛 쇼를 보러 갔다. 그곳에서 코코넛도 먹고 나뭇잎으로 머리띠와 바구니를 만들어서 주었다. 또 꽃을 귀에 꽂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정글 체험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다. 얼굴이 좀 탄 것 같았다. 오늘 저녁은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가서 내일 먹을 라면과 과자를 샀다. 내일은 엄마가 마트를 간다고 해서 기대되었다.

오늘도 기대되는 아침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영을 한 번 더 하였다. 왜냐하면, 내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재밌게 마지막 수영을 끝내고 마트로 가기 전 우리는 스파게티를 시켜 먹었다. 동생은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리필을 해왔다. 알고 봤더니 "콜라"라고 한 말을 알아들었나 보다. 이번엔 마트를 가기로 하였다. 엄마가 나에게 20달러를 준다고 하여서 좋았다. 그 마트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마트가 우리나라의 이마트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나는 기념품 판매대로 가서 단품 열쇠고리 3개, 혼합 열쇠고리 1개, 연필 1자루, 팔지 1개를 샀다. 우리 동생은 너프건 1개를 샀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서 친구와 오늘 산 것을 공유하며 교환했다. 그날은 잠자리에 쉽게 들지 못하였다. 내일이면 한국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에 돌아가기 싫었다. 괌에 정이 든 것 같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이 되었다. 일어나기 싫었다. 일어나서 오늘은 조식을 더 좋은 데에서 먹었다. 더 맛있어서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은 별로였다. 먹고 호텔에서 시간이 다 되어 나왔다. 시간이 남아 마트를 갔다. 엄마가 옷을 구경할 때 우리는 버블

티를 먹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버블 티랑은 조금 달랐다. 옷을 다 사고 공항으로 갔다. 이번에는 괌 면세점을 구경하다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좌석은 앞좌석 이었다. 조금은 편하게 갈 수 있었다. 한국에 도착하고 귀는 아프지 않았지만, 머릿속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집에 와서 좋았고 한편으로는 여행이 끝나서 아쉬웠다. 하지만 친구와 헤어져야 해서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았다. 친구와 공항버스에서 헤어지고 무엇인가가 떠나버린 것처럼 속상했다.

여행을 갈 때는 설레고 너무 좋지만, 집에 올 때는 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쉽고 속상하다. 나는 여행 갈 때처럼 집에 올 때도 기분이 항상 좋았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아서 이번 여행에 같이 간다고 들었다. 이 친구는 2학년 때까지는 같은 학교에 있었지만 3학년 때쯤 전학을 갔다. 하지만 친구 집과 우리 집이 가까워 자주 만난다.

나는 해외여행이 두 번째이다. 첫 번째는 중국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괌 여행이다. 우리는 여행에 앞서 짐부터 싸게 되었다. 동생과 나는 너무 설레어 친구와 여행에서 놀 짐 한 보따리를 챙겼다. 엄마가 “그건 너무 많아서 비행기에 못 가져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챙겨.”라고 하여서 나하고 동생은 고민하여 딱 하나씩만 챙겼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야 해서 다음 날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었다. 하지만 늦잠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결국 늦잠을 잤다. 그래서 서둘러야 했었다. 공항에 갈 때 차를 오래 타서 멀미가 났다. 그렇지만 괌에 있을 생각을 하니 짜증이 별로 나지는 않았다.

공항에 도착하고 친구네 가족과 약속했던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네 가족이 늦어 우리는 먼저 줄을 섰다. 얼마 뒤 친구네 가족이 왔다. 난 친구를 만나 기뻤다. 우리는 편의점을 가서 음료수를 사 먹었다. 짐을 부치고 검색대를 통과하여 들어갔다. 우리는 면세점을 구경하였다. 면세점에는 사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지만, 엄마가 “괌에 가면 더 사고 싶은 것이 많아.”라고 하여서 사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입구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비행기를 기다렸다. 곧 비행기가 도착하였다.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와 비행기를 탔다. 이륙할 때 귀가 아플까 봐 나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근데 앞좌석에 앉아 있는 아이가 계속 쳐다보고 다리를 만져서 불쾌했다. 나는 엄마에게 말하였지만, 엄마가 "어린아이니까 좀만 참아."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게임도 못 했지만,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후딱 갔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을 느꼈다. 이륙할 때보다는 착륙할 때가 더 귀가 아팠다. 침을 계속 삼키니까 조금씩 괜찮아졌다. 괌에 도착하여 공항에 나오니 덥고 습기가 높았다. 그렇지만 너무 즐거웠다. 한인 택시를 타고 우리가 지낼 훨튼 호텔로 갔다. 호텔이 좋아서 매우 만족하였다. 나는 친구의 옆방이었다. 들락날락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 호텔 침대에 누우니까 잠이 솔솔 왔다. 엄마가 내일 아침에는 조식 먹으러 갈 거라고 해서 빨리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아서 좋았다. 배불리 먹고 나서 방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나는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갔다. 수영장 옆에는 바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푸른 바다였다. 수영장에서 놀면서 경치도 즐기니 일거양득이라 생각이 들었다. 워터슬라이드가 있었는데 무서워 보였지만 막상 한번 타보니 재미있어서 계속 타게 되었다. 또 온천에서는 사랑의 절벽도 보였다. 아쉽지만 점심시간이 되어 좀 쉬었다 놀기로 하였다. 점심은 호텔 안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다. 우리는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 스파게티를 먹었다. 솔직히 피자는 내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입맛에 맞았다. 먹고 나서 다시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또 다 같이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놀았다. 내가 탄 워터슬라이드 중에서 가장 재밌었다. 놀다 보니 곧 어두워져 방에 들어가서 씻었다. 씻고 나서 호텔 구경을 하였다. 호텔에는 기념품 파는 곳이 있었지만, 엄마가 나중에 더 싼데 가면 사준다고 하여서 참았다. 또 먹고 싶을 때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음료수가 있었다. 마침 목이 말라서 주스를 마셨다. 시원하면서 맛있었다. 우리는 출출하여 방에 들어가서 라면을 먹었다. 매콤한 걸 오랜만에 먹

어서 그런지 최고의 라면 맛이었다. 먹고 나서 주스를 마셨던 곳에서 와인과 안주를 준다고 하여 그곳으로 갔다. 안주로는 오징어 튀김, 고기 등을 주었다. 나는 고기와 주스를 먹었다. 배를 가득 채우고 나서 어른들끼리, 애들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놀았다. 재미있게 놀고 소화도 시켰으니 잘 시간이 되었다. 수영장에서 너무 재밌게 놀아서 그런지 잠이 바로 왔다.

푹 자고 일어나서 이날 아침도 어제와 똑같이 조식을 먹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영복을 입었다. 하지만 오늘은 수영장에 가지 않고 바닷가로 갔다. 바닷가는 깊은 곳과 얕은 곳이 서로 색이 달랐다. 바닷가에는 물고기가 엄청 많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래서 수영장으로 갔다. 나는 아무래도 바닷가보다는 수영장이 더 좋은 것 같다. 또 재밌게 놀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오늘은 정글에 간다고 하였다. 실제 현지인들의 인사법은 "하파 데이"였다. '하파 데이'라고 크게 외치며 손을 전화기 모양으로 흔드는 것이다. 인사법을 배우고 동물들을 보았다. 근데 잠시 소나기가 내려서 피해있어야 했다. 비는 별로 금세 그쳤다. 이번에는 코코넛 쇼를 보러 갔다. 그곳에서 코코넛도 먹고 나뭇잎으로 머리띠와 바구니를 만들어서 주었다. 또 꽃을 귀에 꽂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정글 체험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다. 얼굴이 좀 탄 것 같았다. 오늘 저녁은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가서 내일 먹을 라면과 과자를 샀다. 내일은 엄마가 마트를 간다고 해서 기대되었다.

오늘도 기대되는 아침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영을 한 번 더 하였다. 왜냐하면, 내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재밌게 마지막 수영을 끝내고 마트로 가기 전 우리는 스파게티를 시켜 먹었다. 동생은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리필을 해왔다. 알고 봤더니 "콜라"라고 한 말을 알아들었나 보다. 이번엔 마트를 가기로 하였다. 엄마가 나에게 20달러를 준다고 하여서 좋았다. 그 마트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마트가 우리나라의 이마트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나는 기념품 판매대로 가서 단품 열쇠고리 3개, 혼합 열쇠고리 1개, 연필 1자루, 팔지 1개를 샀다. 우리 동생은 너프건 1개를 샀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서

친구와 오늘 산 것을 공유하며 교환했다. 그날은 잠자리에 쉽게 들지 못하였다. 내일이면 한국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에 돌아가기 싫었다. 괌에 정이 든 것 같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이 되었다. 일어나기 싫었다. 일어나서 오늘은 조식을 더 좋은 데에서 먹었다. 더 맛있어서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은 별로였다. 먹고 호텔에서 시간이 다 되어 나왔다. 시간이 남아 마트를 갔다. 엄마가 옷을 구경할 때 우리는 버블티를 먹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버블 티랑은 조금 달랐다. 옷을 다 사고 공항으로 갔다. 이번에는 괌 면세점을 구경하다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좌석은 앞좌석 이었다. 조금은 편하게 갈 수 있었다. 한국에 도착하고 귀는 아프지 않았지만, 머릿속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집에 와서 좋았고 한편으로는 여행이 끝나서 아쉬웠다. 하지만 친구와 헤어져야 해서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았다. 친구와 공항버스에서 헤어지고 무엇인가가 떠나버린 것처럼 속상했다.

여행을 갈 때는 설레고 너무 좋지만, 집에 올 때는 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쉽고 속상하다. 나는 여행 갈 때처럼 집에 올 때도 기분이 항상 좋았으면 좋겠다.

처음

초등부 장려상 · 시 / 홍연수

비행기

처음 탔을 때...

처음 하늘을 날아 볼 때...

나는 천사가 된 것 같았다.

커다란 날개를 단 천사...